

국립국어원 2006-1-06 충북(2)

2006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 연구 책임자 : 박경래
- ◆ 연구 보조원 : 김남정
- ◆ 조사 지역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국립국어원

2
0
0
6
년

충
북
지
역
어
조
사
보
고
서

국
립
국
어
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6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박경래

목 차

1. 조사 과정	3
2. 전사 원칙	7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발화	11
제 2 편 어 휘	127
제 3 편 음 운	181
제 4 편 문 법	226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녹음테이프	
3)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4) 조사된 질문지	
5)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6) 제보자 조사표	
7)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2006년도 충청북도 지역어 조사지로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가 선정되었다. 충청북도 청원군은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남일면은 청주시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청주시와 인접해 있다. 이곳은 구릉 지대여서 야산이 있고 비교적 넓은 평야가 있다. 근교 농업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하우스 작물이나 특수작물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근래에 축산업을 하는 농가가 한둘 생겨났다. 지금은 청주에서 미원면을 거쳐 보은군으로 통하는 도로가 크게 나 있어 비교적 교통이 좋은 편이지만 큰 길에서 약 1Km 떨어진 아늑한 마을이다. 예전부터 청주에서 미원면을 거쳐 보은군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었지만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는 이 도로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마을 뒤편으로 나 있는 산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 청주로 다녔다고 한다.

청원군 남일면은 청주와 인접한 면이지만 이곳 황청리는 미원면 쪽에 붙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마을 바로 뒤편에는 황청 저수지가 있고 황청리를 지나 위치해 있는 한계리 골짜기에도 큰 저수지가 있어 황청리 앞의 넓은 들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동네 앞에 넓은 들이 있어 주로 논농사를 짓는다. 구릉지대이고 밭이 적어 밭작물은 자급을 위한 콩이나 팥, 고추 등을 재배한다.

황청리는 예부터 광산 김씨와 왕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지금은 각성반이들이 들어와 살고 있지만 아직도 광산 김씨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바로 인접한 아랫마을은 문주리인데 고령 신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황청리를 비롯한 인근 마을들이 모두 집성촌을 이루던 곳이라는 점에 언어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의 통혼은 청주나 인근 마을과 이루어지고 있다. 제보자인 전** 할머니는 같은 마을 출신이 김** 할아버지와 결혼하였다. 김** 할아버지는 10여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다가 회복되었지만 말이 어눌하고 몸놀림도 둔한 편이다. 이 때문에 보조제보자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황청리는 남일면이면서 초등학교는 동네 앞에 있는 문주리로 다녔지만 중학교는 도로 건너에 있는 가덕중학교로 다니거나 청주로 나가 다녔다. 교통은 동네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있지만 자주 오지 않는다. 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청주로 다니는 시내버스가 자주 다닌다. 청주까지는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1.2. 조사 기간

예비답사: 2006년 4월 가덕면, 남일면 일대

2006년 5월 남일면 문주리 예비 조사 - 제보자가 적절하지 않아 포기

2006년 7월 2일~3일 청원군 낭성면, 남일면, 가덕면 일대 답사 후 황청리 이장을 통해 제보자를 소개받고 7월 5일부터 조사하기로 약속.

1차 조사: 2006년 7월 5일 ~ 7월 21일

2차 조사: 2006년 12월 8일

(1차 조사 시 마이크 접촉 불량에 따라 음질 상태가 나쁜 부분에 대한 재조사)

1.3. 제보자

(1) 주제보자

이름 : 전

나이 : 78세(1929년 8월 20일생 - 호적상에는 1934년생으로 표기)

출생지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거주지 : 충북 청원군 남일면

선대거주지 : 충북 청원군 남일면

직업 : 농업, 주부

경력 : 없음

학력 : 동네 사립학교에서 2년 정도 수학

병역 : 해당 없음

제보자 소개 과정 : 남일면 여러 마을을 돌면서 이장을 통해 소개받음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충기가 좋은 편이고 부부가 같은 동네 출생이어서 제보자로서 이상적입니다.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비교적 발음이 정확한 편이고 목소리는 낮고 작은 편

(2) 보조제보자

이름 : 김

나이 : 76세(주제보자 전 의 남편)

직업 : 농업

거주지 : 충북 청원군 남일면

보조제보자의 특기 사항 : 중풍으로 말이 어눌하고 몸놀림이 둔함.

보조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나 귀는 밝은 편임.

스스로 제보자로서 부적격자라고 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였음. 주제보자인 부인이 말할 때 아주 부분적으로 끼어드는 정도만 있었음.

1.4 조사

(1) 조사자 이름 : 박경래

(2) 조사일시 : 2006년 7월 5일 ~ 7월 21일

2006년 12월 8일

(3) 조 사 장 소 : 제보자의 집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번지)

(4) 조 사 내 용

조사일자	테이프 번호	녹음시간	영역별 순서	항목번호	비고
7월 5일	01	2:01:43	구술발화 1	10101~10305	
7월 6일	02	2:00:00	구술발화 2	10306~10413	
"	03	2:01:32	구술발화 3	10414~10701	
"	04	11:58	구술발화 4	10702~	
7월 7일	05	2:02:06	어휘 1	20102~20622	
"	06	2:02:05	어휘 2	20623~21208	
7월 7일 ~ 8일	07	2:01:29	어휘 3	21209~21619-1	마이크 불량
7월 8일	08	2:01:43	어휘 4	21620~22116-1	마이크 불량
7월 11일	09	2:02:06	어휘 5	22117~22367	
"	10	2:01:36	어휘 6	22366~22827	
7월 11일 ~ 12일	11	2:01:34	어휘 7	22826~23411	
7월 12일	12	26:23 1:35:19	어휘 8 음운 1	23411~23441 31001~31078	
"	13	2:01:44	음운 2	31079~32069	
7월 12일 ~ 13일	14	2:02:08	음운 3	32070~32150	
"	15	2:01:34	음운 4	32151~32225	
7월 19일	16	2:01:30	음운 5	32226~32292	
"	17	2:01:42	음운 6	32293~32362	
7월 19일 ~ 20일	18	2:02:06	문법 1	40101~40407	
7월 20일	19	2:01:39	문법 2	40408~41106	
"	20	19:11	문법 3	41107~41116	
"	21	2:01:29	구술발화 5	거주생활(집짓기)- 금기생활	

7월 20일 ~ 21일	22	2:01:32	구술발화 6	세시풍속 등	
7월 21일	23	1:58:59	구술발화 7	시집살이 등	
12월 8일	24	2:02:07	어휘9 (제조사분)	NO5~NO7:20501-2 1605, NO8.21622-21894	어휘 음질불량 제조사
"	25	29:46	어휘 10 (제조사분)	NO8:21895-2190 5, 구술발화 일부	어휘 음질불량 제조사

(5) 조 사 시 간 : 45시간 35분 01초

(6) 녹 음 기 : SONY DAT 100

(7) 마 이 크 : SHURE SM11

1.5. 전사

(1) 전사자 : 박경래 / 김남정


전사 일시 : 2006년 9월 4일 ~ 2006년 12월 10일

(2) 1차 점검자 : 박경래 / 김남정

1차 점검 일시 : 2006년 10월 9일 ~ 2006년 11월 30일

(3) 2차 점검자 : 박경래

2차 점검 일시 : 2006년 11월 6일 ~ 2006년 12월 16일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 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그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도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규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⑪ 조사 시 제보자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응답형을 생각하지 못할 때 조사자가 해당 어형을 제시하여 나온 응답형일 경우 (조사자 제시)로 기록하였다.
- ⑫ 제보자의 응답형에 대해 제보자가 확신할 수 없어하는 경우에는 (?제)로, 조사자가 응답형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2006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1.1. 구술발화자료 1

NO 1. 구술발화1 :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 생업활동(논농사, 밭농사)

조사자 : 박경래

전사자 : 김남정, 박경래

제보자 : 전**(78세, 여자, 1929년 *월 **일생) - 호적에는 1934년생으로 되어 있음

보조제보자 : 김**(77세, 남자, 1930년생)

주 소 :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78번지

조사장소 : 제보자의 집

조사일시 : 2006년 7월 5일

10201 @ 할머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10201 # 칠십 팔썬유. {칠십 팔세요.}

10201 @ 예?

10201 # 칠십 팔. {칠십 팔.}

10201 @ 어이구 그렇게 안 보이는데.

10201 # 아하이구, 열구리 이러케 쭈구려 드런는데.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쭈글어 들었는 데.}

10201 @ 그러면 무슨 띠예요?

10201 # 뱀띠. {뱀띠.}

10201 @ 뱀띠.

10201 @ 그 할머니 저기 함자는 어떻게 돼요?

10201 # 전 . {전**.}

10201 @ 그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10201 # 학:교는 안 다니구: 여기 사립패교라구, 엔나레 여기 쪼끔 이썬썬유. {학교는 안 다니고 여기 사립학교라고, 옛날에 여기 조금 있었어요.}

10201 @ 동네에?

10201 # 예, 저 여기 가문테에 큰: 느티나무가 메뽕년 무근 느티나무가 이썬는데 지금 조기 사슴 매기는 고 안채가 고가 학교여썬썬. {예, 저 여기 가운데 큰 느티나무가 몇 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저기 사슴 먹이는 그 안에 거기가 학교 있었어.}

10201 # 그래서 그 사립학교에 일 이 이 이태가 다녀썬썬. {그래서 그 사립학교에 일 이 이 이 년인가 다녔어요.}

10201 # 그래서 지금 궁문 뜯봉겨 그냥. {그래서 지금 국문 뜯 거야 그냥.}

10201 @ 아유 근데 잘 하시는데?

10101 @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이걸 다 대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관련된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10101 @ 이 동네가 이장님한테 여쭙 보니까 그래두 몇 백 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0101 # 옛날에는 여기는 광산김서방네가 모자리루 사라씨씨유, 광산김씨네가. {옛날에는 여기는 광산김서방네가 못자리로 살았었지요, 광산김씨네가.}

10101 # 우리가 광산김간데, 광산김씨가 모자리루 사런는데 지금더른 마:니 떠나구 그래서 각쌍바지가 마:너유. {우리가 광산 김간데, 광산 김씨가 못자리로 살았는데 지금 들은 많이 떠나고 그래서 각쌍바지가 많아요.}

10101 # 광산김씨가 망:쿠 저 부땅꼬리라는 데는 왕씨가 살구, 고 알루 요 알루는 인제 김씨네가 마:니 사리썸는데 지그른 점:부 객씨루 떠나구 도러가시구 이래서 메쩍 안사러유, 김씨네가. {광산 김씨가 많고 저 불당골이라는 데는 왕씨가 살고, 그 아래 요 아래로는 이제 김씨네가 많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전부 객지로 떠나고 돌아가시고 이래서 몇 집 안 살아요, 김씨네가.}

10101 @ 요 황청리라고 하는 건 왜 그런 이름이 생겼대요?

10101 # 그건 나두 자시 몰르거씨유, 이 동네는 항청:니라구 해두 동네. {그것은 나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동네는 황청리라고 해도 동네.}

10101 #1 [xxx xxx] 몰르지 머. {[*** **] 모르지 뭐.}

10101 # 동네 요기 이르미 메: 끝대여, 맨:, 불리대 이씨 이러케. {동네 여기 이름이 몇 군데야, 몇, 분리 되어 있어 이렇게.}

10101 # 요기서 저 부땅꼴서부터 요러케 내려오면서. {여기서 저 불당골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10101 # 젤: 먼저는 부땅꼴, 또 쪼끔 내리다는 방고배기, 인저 또 쪼끔 요기 와서는 도람말, 또 쪼끔 도러가서는 황청, 황청이, 고기를 인저 황청이라구 옛날에 불를 때 그르케 불러씨유, 예. {제일 먼저는 불당골, 또 조금 내려서는 방고배기, 이제 또 조금 여기 와서는 도람말, 또 조금 돌아가서는 황청, 황청이, 거기를 이제 황청이라고 옛날에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예.}

10101 # 그라고 그: 아네는 또 조봉골, 또 저쪽 꼬트머리 이장님덜 지빈넌 데루는 불군디기, 또 인저 저 건너보이넌데넌 신대, 또 한동네 저:기 사네 가면 메찌비 사런넌데 거기넌 비재, 비재라구 하구.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좁은골, 또 저쪽 꼬트머리 이장님들 집 있는 데로는 붉은데기, 또 이제 저 건너 보이는 데는 신대, 또 한 동네 저기 산에 가면 몇 집이 살았는데 거기는 비재, 비재라고 하고.}

10101 # 그르케 이르미 여:러 군데예:. {그렇게 이름이 여러 군데예요.}

10101 @ 거 봐요, 모르는 거 없으시잖아요.

10101 # 아 그렇 거.... 허허허. {아 그런 거.... 허허허.}

10102 @ 여기 또 산도 있잖아요? 산 이름도.

10102 # 예, 저:기 너픈봉 보이넌 데가 왕암산. {예, 저기 높은 봉 보이는 데가 왕암산.}

10102 #1 이짜기 왕암산, 저짜기는 대쪽싸니유. {이쪽이 왕암산, 저쪽은 대쪽산이에요.}

10102 # 아니:, 거기루 왜 내가 애개씨, 여 뒤에를 애기해찌. {아니, 거기를 왜 내가 애기했어, 여기 뒤에를 애기 했지.}

10102 # 왕암산 이꾸, 거기 인제 시:루봉이라구 이꾸, 요럴루능 맹 그양 우리 종산덜, 비:재, 음달, 인저 저짜그루 가면 인저 증:꼴, 저기 저 보이넌 데넌 인저 백쪽싼, 그

러케 써유. {왕암산 있고, 거기 이제 시루봉이라고 있고, 요쪽으로는 그냥 우리 종산들, 벼재, 음달, 이제 저쪽으로 가면 이제 증골, 저기 저 보이는 데는 이제 백죽산, 그렇게 써요.}

10102 @ 저기 뭐 산이나 이런 데 때문에 생긴 이름의 유래가 있어요? 옛날에 뭐 이래서 이렇게 이름이 생겼다 뭐 이런 거.

10102 #1 그렇거는 모르지유. {그런 것은 모르지요.}

10102 # 그렇긴 잘 모르지유, 그렇긴 잘 몰러. {그런 것은 잘 모르지요, 그런 것은 잘 몰라.}

10102 @ 저위에는 저수지도 있던데.

10102 # 야, 거 방조괴, 예, 저수지 이써. {예, 거기 방죽이, 예, 저수지 있어.} #1 xxx 되 써유 저기 일제 때. {xxx 되었어요, 저기 일제 때.}

10102 # 그거는 머 얼마 안 저, 한 제가. {그것은 뭐 얼마 안 돼, 한 지가.}

10102 # 유교때 했나? {육이오 때 했나?}

10102 #1 일정때 해써. {일정 때 했어.}

10202 # 일정때 광긴가 그게? {일정 때 판 것인가 그게?}

10102 @ 방죽이라 그래요?

10102 #1 네. {네.} # 예. {예.}

10102 @ 저수지라고...

10102 # 저수지라구두 하구, 옌나레년 우리더리 불를 켜는 방주기라구 헨네테, 이제 지금 더른 저수지라구 그러케 부르대유. {저수지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우리들이 부를 때는 방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들은 저수지라고 그렇게 부르대요.}

10102 @ 음, 예전에는 방죽이라고...

10102 # 예:, 방주기라구 헨는데, 지그른 저수지라구 그르카구, 저: 저:기 건너가면 인저 뱀:나리라구 거기 인저 이 약쑤무리라구 거기 이 이꾸. {예, 방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수지라고 그렇게 하고, 저 저기 건너가면 이제 뱀나리라고 거기 네 이 약쑤물이라고 거기 있고.}

10102 # 옌나레능 그 무리 조아씨띠야, 약쑤무리, 그랜데 지그른 씨 먹썰 아나йка 해구. {옛날에는 그 물이 좋았었는데, 약쑤물이, 그랜데 지금은 씨 먹질 았으니까 뢰.}

10102 # 또 요기 조봉고리라는데 또 샤:민네테 거기넨 또 오싸:미라구 이르케 바가지 샘 쑹:그망게 이르케 이써꾸. {또 여기 좁은골이라 하는데 또 샘 있는데 거기는 또 옷샘이라고 이렇게 바가지 조그망게 이렇게 있었고.}

10102 # 낭 그룽거배게 몰라, 옌:날 저기는 잘 몰:러, 어트케서 여가 황청니라구 댜는 이룽 건 몰:러. {난 그런 거 밖에 몰라, 옛날 저기는 잘 몰라, 어떻게 해서 여기가 황청 리라고 댜는지 이런 것은 잘 몰라.}

10102 @ 어떤 데 보면 바위가 있는데 그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0102 # 요기능 그렇거 움써, 그냥 저 위에 올라가면 그 큰: 바우이[uj] 인네테, 그냥 방구 배기라구 그냥 이르마지, 누가 머 저기해서 이르른 움써유. {여기는 그런 거 았어, 그냥 저 위에 올라가면 그 큰 바위 있는데, 그냥 방구박이라고 그냥 이름하지, 누가 뢰 저기 해서 이름은 았어요.}

10102 @ 나무도 있잖아요, 느티나무?

10102 # 그쵸 여긴 나무가아, 떠뽕년댄 나무가 이켌는데 인제 벼:서 읍써져쨌. {글쵸 여기는 나무가, 몇 백 년 된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베어서 없어졌지.}

10102 @ 베었어요?

10102 # 예:. {예.}

10102 # 인저 대꾸 이르케 인저 절판나구 그래서 인저 그건 아주 개:앵장이 그냥 이만치 커켌는데 건 읍써지구 저 아페 드려오는데 그게 인저 서낭나무라구 인저, 거기 엔:나레닌. {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절단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주 굉장히 그냥 이만큼 큰 놈인데 그것은 없어지고 저 앞에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서낭나무라고 이제, 거기 옛날에는.}

10102 # 거기다가 인저 머 새끼줄 매고 머 고:사두 지내구 그래쨌만 지금더리야 누가 그렇거 해유, 안하니까 머. {거기에다가 이제 새끼줄 매고 뭐 고사도 지내고 그랬지만 지금들이야 누가 그런 것 해유, 안하니까 뭐.}

10102 @ 저기 저 문주리 거기요?

10102 # 아니 요기 요, 요기 바:루. {아니 요기 요, 요기 바로.} @ 요기 바로 밑에? # 응, 요고: 우리 동네 드는데, 도로 아페 고 도로까예 영, 회:관저테, 예. {응, 요것 우리 동네 드는 데, 도로 앞에 그 도로 가에 응, 회관 곁에, 야.} #1 도로 아페, 도로 아페. {도로 앞에, 도로 앞에.}

10102 # 그 나무두 그 엔:나레능 그르케 새끼줄 매구 우:애구 그래던 나무여. {그 나무도 그 옛날에는 그렇게 새끼줄 매고 위하고 그러던 나무야.}

10102 @ 거기 뭐 떡도 해다 놓고.

10102 # 그럼, 그럼 거 떠케다 노쿠 우:애구 머. {그럼, 그럼 거기 떡 해다 놓고 위하고 뭐.}

10102 @ 그런 것이 이제 고사...

10102 @ 고사 지낸다고 하쨌, 동네 고사 지낸다고? # 예, 고사, 고사 지내능거. 예, 예. {예, 고사, 고사 지내는 거. 예, 예.}

10102 @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요즘은 다 없어졌잖아요?

10102 # 다: 읍써져쨌유, 머: 동:네서, 동:네서 할때는 개:인별루 자기네가 인저 무슨: 말하자면 소:위늘 비능거지, 가서. {다 없어졌어요, 뭐 동네에서, 동네에서 할 때는 개인별로 자기네가 이제 무슨 말하자면 소원을 비는 거지, 가서.}

10102 # 그르칼때는 인제 개인별루 가서 하지만, 그렇거 인제 동:네서 해가주구, 동네서 아주 깨끄타게, 부정든다구 깨끄타게 해가주구 가서 인저 산신, 산신제털 지낸다구 이러케서 인저 깨끄타게 해서 디리구. {그렇게 할 때는 이제 개인별로 가서 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 동네에서 해 갖고, 동네에서 아주 깨끗하게, 부정 든다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가서 이제 산신, 산신제를 지낸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해서 드리고.}

10102 # 또 저 벼:채라는데 올라가면 거기닌 인저 용구리라구 이쨌유, 바우이가 쿵:게 인년데, 용구런 어트게서 용구리 댄년지닌 몰라두 거기는 용구리라구 그르케 이르마는 바우이가 이쨌, 쿵:게. {또 저 벼채라는 데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용굴이라고 있어요, 바위가 큰 게 있는데, 용굴은 어떻게 해서 용굴이 됐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용굴이라고 그렇게 이름 하는 바위가 있어, 큰 게.}

10102 @ 굴이 뚫렸어요?

10102 # 난 드러가보덜 안 해써, 무서워서. {난 들어가보질 않았어, 무서워서.}

@ 굴은 있어요?

10102 # 굴 조금 인찌유? {굴 조금 있지요?}

10102 #1 이씨:. {있어.}

10102 # 어? {응?}

10102 #1 이씨:. {있어.}

10102 # 조금 거기에 이씨, 나 드러가보진 아내따구. {조금 거기에 있었나, 들어가보지는 않았어.}

10102 # 그래서 거 우:예두 또 저런 느티나무가 이씨유, 쿵: 계. {그래서 거기 위에도 또 저런 느티나무가 있어요, 큰 계.}

10102 # 그래가주구서 거:기두 인저 서낭나무라구 거기두 더러 와서 떠케노쿠 이라구 인저 불공디리구, 다란데 싸람두 와서 인저 거와 하구, 그라는데 요즈면 머 그렇 건. {그래 가지고 거기도 이제 서낭나무라고 거기도 더러 와서 떡 해 놓고 이렇게 하고 불공 드리고, 다른 데 사람도 와서 이제 거기 와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건.}

10102 # 그래두 인제 만:신더리 더러 와서 이 동네 만:시니 하나 인넌데 청주 가 살거던. {그래도 이제 만신들이 더러 와서 이 동네 만신이 하나 있는데 청주 가 살거든.}

10102 # 그라는데 인제 그이더리 와가주구서 일꺼리 거기서 청주서 마름 거기 와서, 용:구레 와서두 인저 푸닥꺼리 하구 가구 거기 인는, 벼:재 가넌데 인는, 그 느티남... 저기 등구나무에 와서두 인저 뭐 떠케노쿠 새끼줄매구 하구서 불공디리구 가구 이래유. {그러는데 이제 그이들이 와 가지고 일거리 거기서 청주에서 맡으면 거기 와서, 용굴에 와서도 이제 푸닥거리 하고 가고 거기 인는, 벼재 가는 데 인는, 그 느티나무... 저기 등구나무에 와서도 이제 무엇 떡 해 놓고 새끼줄 매고 하고서 불공 드리고 가고 이래요.}

10102 # 그렇거 배께 읍써, 여기넌. {그런 것 밖에 없어, 여기는.}

10102 @ 만신이 뭐예요?

10102 # 예, 만:신덜... {예, 만신들...}

10102 @ 만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당?

10102 # 무:당. {무당.}

10102 @ 무당... 여자?

10102 # 예, 여자가. {예, 여자가.}

10102 @ 동네에서 고사 지내면 어떻게 해요, 그것 고사 지내려면, 떡도 하고 뭐...?

10102 # 그림 떡뚜 하구... {그림 떡도 하고...}

10102 # 그 안 지내... 그르케는 아나구, 거둘때두 이찌마는 동네꼴루 일판 하지유, 동네꼬사넌, 동네꾼. {그 안 지내... 그렇게는 안 하고, 걷을 때도 있지만 동네 것으로 일판 하지요, 동네 고사는, 동네 것은.}

10102 @ 동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10102 # 그르치유, 동네 인저 아:무 저기 읍써: 일러늘 퍼나나게 너머가 달라구 인저 가서: 하능거지유. {그렇지요, 동네 이제 아무 저기 없이 일년을 편안하게 넘어가 달라고 이제 가서 하는 것이지요.}

10103 @ 계도 있잖아요, 계?

10103 # 그러므뉴. {그럼은요.}

10103 @ 여기는 어떤 계가 있어요, 이 동네에는?

10103 # 옴:나레는 머 여기 계, 지금 인녕건 저기 뭐:지? {옛날에는 뭐 여기 계, 지금 있는 건 저기 뭐지?}

10103 # 동네께가 머:지유? {동네 계가 뭐지요?}

10103 #1 연방계. {연방계.}

10103 # 음, 옴:날부툼 연방계는 내려오능겨. {음, 옛날부터 연방계는 내려오는 거야.}

10103 # 인저 도러가시먼 연방계는 인자 행상 가 메:구 인저 초상 [xx] 치루는데 인저, 아:네두 가지마넌 그래두 연방겐 그걸루 목찌기구 인녕거유. {이제 돌아가시먼 연방계는 이제 행상 가서 메고 이제 초상 [**] 치루는데 이제, 안 해도 가지만 그래도 연방계는 그것으로 목적이고 있는 거요.}

10103 @ 그러면 그게 일종의 상여계하고 비슷한 건가요?

10103 # 그르치유, 그리여. {그렇지요, 그래.}

10103 @ 연방계라고 해요, 그걸?

10103 # 예. {예.}

10103 @ 혼인계 같은 것은 없었어요? 누구네 잔치하면 뭐 또 이렇게 도와주고.

10103 # 그릉 겐뚜 하지유. {그런 것도 하지요.}

10103 # 해:서 인저 가서, 절문 사람덜찌리두 해:가주구서 인저 호니날 때면 가서 일: 봐:주구, 가치 가서 다: 그르케 하구 하지유. {해서 이제 가서, 젊은 사람들끼리도 해가지고 이제 혼인할 때면 가서 일 봐주고, 같이 가서 다 그렇게 하고 하지요.}

10104 @ 이 동네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문화재나 특산물이나 이런 것 있어요?

10104 # 여기능 그렇진, 농사덜 저:두 그냥 제위[wi] 바테 그저 콩팍 싱꾸 그렇거지, 뭐 하우스 하는 사람두 하나두 읍짜너, 이 동네넌. {여기는 그런 건, 농사를 지어도 그냥 겨우 밭에 그저 콩팍 심고 그런 거지, 뭐 하우스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 이 동네는.}

10104 # 그렇거 특산물 하넌 사라미 하:나두 읍써유. {그런 거 특산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0104 # 고, 주로 해파능게 옴:나레 담배농사 줌 하구, 고추농사 줌 하구 그르카지 여기는 아:무겐뚜 그렇거 머 특쌈물 하는 사라미 읍넌데, 지그믄 머 요 빨간채지비 요아래서 배: 배덜 마니 하더라구, 배농사덜. {고, 주로 했다는 게 옛날에 담배농사 줌 하고, 고추농사 줌 하고 그렇게 하지 여기는 아무 것도 그런 거 뭐 특산물 하는 사람 없는데, 지금은 뭐 요 빨간채집이 와서 배 배를 많이 하더라고, 배농사덜.}

10104 @ 아, 과일요? 배나무? 문화재같은 것은 없어요, 여기는?

10104 # 그렇진 난 모르건는데유, 애:기두 모뜨러바:써. {그런 건 난 모르겠는데요, 애기도 못 들어봤어.}

10105 @ 옛날에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달라졌어요, 옛날 동네하고? 한 열대섯살에서 스무살 때 이 동네하고 지금 보시는 이 동네하고 어떻게 달라졌어요?

10105 # 그췌유, 머라구 마덜 하. {글췌요, 뭐라고 말을 해.}

10105 # 그르케, 머 달라지기가 다라저찌, 세워리 달라저췌께 달라전는데, 옴:나레야 머 더: 그냥, 그때야 더 어렵개덜 사러꾸 지그믄 줌 저 다:덜 잘: 살:구 그라자나유.

{그렇게, 뭐 달라지기가 달라졌죠, 세월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졌는데, 옛날에야 뭐 더 그냥, 그때야 더 어렵게들 살았고 지금은 좀 이제 다들 잘 살고 그러잖아요.}

10105 # 머 그때는 때꺼리두 읍써서 찢찢매구 머, 버리꼬개에 버리 뜨더다가 머 뽀까서 떡 빠리 해머꾸 찢버리 해서 바패머꾸 이래찌만 지금더른 여르메두 다: 쌀밥머꾸 그러케 살자너? {뭐 그때는 뗏거리도 없어서 찢찢 매고 뭐, 보릿고개에 보리 뜯어다가 뭐 볶아서 떡보리 해 먹고 찢보리 해서 밥 해 먹고 이랬지만 지금들은 여름에도 다 쌀밥 먹고 그렇게 살잖아?}

10105 @ 떡보리는 뭐고, 찢보리는 뭐예요?

10105 # 허허허, 그게 몰:르시지, 떡빠리는 버리가 패면 새파랑걸 뜨더다가 뽀꺼가지구 빠:서 까불러가주구 그라먼 그게 떡빠리구. {허허허, 그게 모르시지, 떡보리는 보리가 패면 새파란 것을 뜯어다가 볶아가지고 뽀아서 까불러 가지고 그러면 그게 떡보리고.}

10105 # 찢버리는 버리가 인저 좀 들릭짜너. {찢보리는 보리가 이제 좀 덜 익잖아.}

10105 @ 새파란 것보다 조금 더 되었을 때.

10105 # 응, 더 대쓸 때 인제 그파닝께, 때꺼리가 업쓰닝께 그걸 뜨더다가 비벼 가주구서 인저 소테다 찢가주구: 너러 말려가주구 인저 도구탕에다 이러케 찢어가주구서 바패멍는거유. {응, 더 되었을 때 이제 급하니까, 뗏거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뜯어다가 비벼 가지고 이제 술에다 찢 가지고 널어서 말려 가지고 이제 절구통에다 이렇게 찢 가지고 밥 해 먹는 거예요.}

10105 @ 그러니까 덜 영글은 것을...

10105 # 으아, 쪼끔 인제 들:돼서 그파면 그러케. {어, 조금 이제 덜 되어서 급하면 그렇게.}

10105 # 그르까 뭐 이 동네 옰나레야 머 징그라게 어려게 사라찌 머, 일짱 시대때 그냥 모 그냥 파: 무더노른 머 방꾸두꺼지 뜨꾸 와서, 일짱 시대때 일본 싸람더리 차저가구 뭐. {그러니까 뭐 이 동네 옛날에야 뭐 징그럽게 어렵게 살았지 뭐, 일짱 시대 때 그냥 뭐 그냥 파 물어 놓으면 뭐 방구들까지 뜯고 와서, 일짱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찾아가고 뭐.}

10105 # 아이구, 옰:나레 나, 여기 면:써기가 유다랭이라느이, 저: 가:덕 싸라민데 그이가 면:써긴데 머: 위:따 감취두 머 모:땅하께, 와서 차저가구 그래서 머, 마랄꺼두 읍 썩 고상해찌유 머. {아이고, 옛날에 나, 여기 면서기가 유달영이라는 이, 저 가득 사람인데 그이가 면서기인데 뭐 어디에다 감취둔 것 못 당하께 해, 와서 찾아가고 그래서 뭐, 말할 것도 없이 고생했지요 뭐.}

10105 #1 패:니 쓸데업는 소리하구 [xx]. {웬히 쓸데업는 소리 하고 [***].}

10105 # 아이, 그전 그릉거 그르케 해짜너? {아이, 그전에 그런 것 그렇게 했잖아?}

10105 @ 웬찮아요, 그런 얘기해도. 이거 아무 전혀...

10105 # 아 일짱시대때 다 그러컨능걸 머. {아 일짱 시대 때 다 그렇게 했는 걸 뭐.}

@ 오히려 그때 조선 사람들이 더 나빴다면서요 뭘.

10105 # 조선싸람드리 나뽕건: 유기오: 나서지. {조선 사람들이 나쁜 것은 육이오(6.25) 나서지.}

10105 # 유기오 나서: 조선 인저 이, 여기 싸라미래두 빨갱이 물든 사람더런: 그냥 머: 위디가 수 수무면 막: 꼬냥 차자내구 머 갱장하께 그르케 해찌유. {육이오(6.25) 나

- 서 조선 이제 이, 여기 사람이라도 빨갱이 물든 사람들은 그냥 뭐 어디에 가서 숨으면 막 그냥 찾아내고 뭐 굉장하게 그렇게 했지요.}
- 10105 # 저이두 저기 우리가 유기오 때 피나들 양:가서, 저이가 부들려 갈뻔해써. {저이도 저기 우리가 육이오(6.25) 때 피난을 안 가서, 저이가 붙들려 갈 뻔 했어.}
- 10105 # 의용구네 부들려 간는데 몰:래 수머서루 와가주구 머 콩바테 가서두 숨:꾸, 우리 드껴테. {의용군에 붙들려 갔는데 몰래 숨어서 와 가지고 뭐 콩밭에 가서도 숨고, 우리 뒤란에.}
- 10105 # 낭 그래두, 그때 놀:래서 이르게 지금두 가시미 두근거리여. {난 그래도, 그때 놀라서 이렇게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려.}
- 10105 # 요기다 땅:꾸를 파구 인년테, 저이가 의용군 가따가 인전 내빼와서 저: 콩바테 위디가 숨꾸 이르게 헨년테, 요 아래찌비 혈련년테 거기 사년 사람두 가치 간년테, 그 사라면 안:내빼구, 저이하구 인저 어떤 저 유승개비란 사라마구 둘:만 도망을 와서 완년테. {요기에다 땅굴을 파고 있는데, 저이가 위용군 갔다가 이제 내빼 와서 저기 콩밭에 어디에 가 숨고 이렇게 했는데, 요 아랫집이 혈렸는데 거기 사는 사람도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은 안 내빼고, 저이하구 이제 어떤 저 유승[*]이라는 사람하고 둘만 도망을 와서 왔는데.}
- 10105 # 그사라미 그냥 그 공... 저:기 빨갱이드를 데리구와서, 내... 우리가 저짜그루 대:문까니 이쨌년테, 거기를 나가너라구 내가 이르게 나가니께 그:냥 빨갱이덜 어서 총얼 디리대구 막 이르카구, 요 땅:꾸레 수먼는개베, 땅:꾸레다 대구 막: 총얼 쏘구. {그 사람이 그냥 그 공... 저기 빨갱이들을 데리고 와서, 내... 우리가 저쪽으로도 대문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나가느라고 내가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빨갱이들 어디서 총을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고, 요 땅굴에 숨었는가봐, 땅굴에다 대고 막 총을 쏘고.}
- 10105 # 요그 뒤에 예배당이 이쨌쨌요 요기에, 저지비. {요기 뒤에 예배당이 있었어 요기에, 저 집에.}
- 10105 # 거기따가 인저 빨갱이 사무시릴 차려노쿠서 그르니 요그서 요리 올려나리니 내가 얼마나 무서꺼써. {거기에다가 이제 빨갱이 사무실을 차려 놓고서, 그러니 요기서 요리 오르내리니 내가 얼마나 무섭겠어.}
- 10105 # 잠두 못짜구 불두 못쓰구: {잠도 못 자고 불도 못 쓰고.}
- 10105 # 그때 파럴 메친날 해방대짜너? {그때 팔월 며칠날 해방 됐잖아?}
- 10105 # 근...근때만 안대쓰면 우리 시꾸는 다: 중는디야: {그...그때만 안 됐으면 우리 식구는 다 죽는대.}
- 10105 # 그란데 마:침 그때 그냥... {그런데 마침 그때 그냥...}
- 10105 # 아이, 떨, 지금두 떨려서 얘기를 하든 무서워. {아이고 떨, 지금도 떨려서 얘기를 하면 무서워.}
- 10105 # 그르케 고상을 하구 사려써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 10105 @ 그때는 동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와집이나 이런 것 별로 없었죠?
- 10105 # 그러면유, 초가지비구 이 자리두 왕굴자리구, 흑백또리... 흑찌비구 다 그래찌유, 인저. {그럼은요, 초가지이고 이 자리도 왕굴자리고, 흙벽돌이... 흙집이고 다 그랬지요, 이제.}
- 10105 # 다시 인제 이 부역:뚜 저러케래두 혼:지비래두 뜨더가주구 인자 개:랑아구, 저른

미다지두 하구 이래찌. {다시 이제 이 부엌도 저렇게라도 헌 집이라도 뜯어 가지고 이제 개량하고, 저런 미달이도 하고 이랬지.}

10105 # 이르케 열:구 닫는 무네다가, 뜨:력뚜 이르케 우리지븐 너푸구, 옴:나레 옴:나레 이게 진 지빈테, 허허 그냥 요그다가 이르케 그냥 곤치가주구 이래 사능기지. {이렇게 열고 닫는 문에다가, 뜨력도 이렇게 우리 집은 높고, 옛날에 옛날에 이것이 지은 집인데, 허허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고쳐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지.}

10105 @ 그때 이 동네 사람들 살았던 사람하고, 지금 사는 사람들하고 사람 숫자도 많이 달라졌지요?

10105 # 달:러지구 말구유:. {달라지고 말고요.}

10105 # 그저네 살던 사람더런 다: 떠나구:, 죽꾸:, 그라구 새루 드러온 사람더리: 여기 열추 반저리 다 땔겨 아마, 그지? {그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죽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열추 반절이 다 땔 거야 아마, 그렇지?}

10105 # 반저른 안대두 마:너유, 여기 드러온 사람더리. {반절은 안 되어도 많아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10105 # 그래서 땔짱 각쌍바지여. {그래서 땔짱 각쌍바지야.}

10105 # 요기년 김서방네, 저:기년 왕:서방, 조 문:터년 고령신씨 신서방네, 또 저 개깁이라 년테년 조:씨네 이르케 그냥 무디기루 사러쥔넌데... {여기는 김씨네, 저기는 왕씨, 조 문터는 고령 신씨 신씨네, 또 저 개깁이라는 데는 조씨네 이렇게 그냥 무디기로 살았었는데...}

10105 # 지... {지...}

10105 #1 문:능기나 대다패유:. {묻는 것이나 대답해요.}

10105 # 지금더런 머. {지금들은 뭐.}

10105 # 아 머 무러본다넌데 그래 어트게 땔: 갈쳐줘? {아 뭐 물어본다는데 그래 어떻게 땔 가르쳐줘?}

10105 @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10105 @ 어떤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0105 # 아 요그 씨인네, 그렇거 다: 저기... {아 여기 씨 있네, 그런 거 다 저기...}

10201 @ 할머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서 살아오셨잖아요?

10201 # 예. {예.}

10201 @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거 한번 대략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10201 # 어트리 사룬나? {어떻게 살았나?}

10201 @ 예,대략.

10201 # 허, 그걸 메라구 얘기럴 하 그래, 허허허. {허,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 그래, 허허허.}

10201 @ 할머니는 여기서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고향이 여기서겠지요?

10201 # 야:, 야:. {예, 예.} @ 부모님도 여기서 농사 지으시고요? # 야:. {예.}

10201 # 우린 조짜게 사라씨, 조짜게 사란넌데. {우리는 조쪽에 살았어, 조쪽에 살았는데.}

10201 @ 형제는 몇 분이세요?

10201 # 그른 애기두 하능거유, 야? {그런 애기도 하는 거요, 예?}

10201 @ 허허허, 그거 뭐 어때요, 몇 명인지.

10201 #1 형제지간? {형제지간?} # 응? {응?} #1 형제지간? {형제지간?}

10201 @형제가 몇 분인지.

10201 #1 삼형제:. {삼형제.}

10201 # 아:니, 나 얘기하능겨 나:, 어르기 사런나:. {아니, 나 얘기 하는 거야 나, 어떻게 살았나.}

10201 #1 그럼 거기선... {그러면 거기서는...}

10201 # 나넌: 저:짜게서 사런넌데, 나:, 우리 어무니가 나 하나 나쿠 도러가서써유. {나는 저쪽에서 살았는데, 나, 우리 어머니가 나 하나 낳고 돌아가셨어요.}

10201 # 그래서 나넌 하나구, 또 어머니 으:더가주구 인저 사:남매 나쿠 그래서 살:구. {그래서 나는 하나고, 또 어머니 얻어 가지고 이제 사남매 낳고 그래서 살고.}

10201 @ 그럼 다 해서 오남매네요?

10201 # 야. {예.}

10201 @ 요새는 애들 하나 아니면 둘이라는데.

10201 # 엘:나리니께. {옛날이니까.}

@ 그래도 많은 게 좋은 거 같아요.

10201 # 그러믄유, 지금두 마:능게 조:아유. {그럼은요, 지금도 많은 게 좋아요.}

10201 # 지금두 마:느야 조치, 그 왜 하나나 둘:라가주구 그래, 마:니레 거 하나 낳게 잘모 때믄 헌니라니여, 저 텔레비에 보믄? {지금도 많아야 좋지, 그 왜 하나나 둘 낳아 가지고 그래, 만일에 그 하나 낳은 것이 잘못 되면 헛일아니야, 저텔레비전에 보면?}

10201 # 지금두 마니 나야 조치. {지금도 많이 낳아야 좋지.}

10201 # 우리: 지비넌 여기넌, 허... 형제분 뿌니유, 여기넌. {우리 집에는 여기는, 허... 형제분뿐이에요, 여기는.}

10201 @ 일흔 여덟이라 그러셨죠?

10201 # 예. {예.}

10201 @ 뽀뽀요?

10201 # 예. {예.}

10201 @ 뽀뽀시고.

10203 @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10203 #1 동네[xx]인데 머 만나기는 머... {동네[**]인데 만나기는 뭐...}

10203 @ 그냥 맨날 왔다갔다 하다가 다 아셨어요? # 아:니여:. {아니야.}

10203 # 저이더런: 여기 살:다가: 이부걸 쪼끔 가 살다 와써유. {저이들은 여기 살다가 이북엘 조금 가 살다가 왔어요.}

10203 # 그래서 고, 유기오나기 전 해에 완넌데, 유기오나서 왜 막: 삭:씨덜 공출루 뽀바가 써유, 그때. {그래서 고, 육이오(6.25) 나기 전 해에 왔는데, 육이오 나서 왜 막 색시들을 공출로 뽀아 갔어요, 그때.}

10203 # 이북 사람, 막 데리가써, 그냥. {이북 사람, 막 데려갔어, 그냥.}

10203 # 그래서루, 머라구 하능겨, 일번 가서 그거 무슨 저기해 할머니덜 그르케 하...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일본 가서 그거 무슨 저기 할머니들 그렇게 하...}

10203 # 그런 데 막 데리가써. {그런 데 막 데려갔어.} #1 위안부루. {위안부로.}

10203 # 응응, 그르케해서 그냥 우리 할머니가 참 나 그르케 인저 어렵게 키운 손녀따리니께 거기 뽀퍼 가게배, 저이가 장녀네 나와쓰면 오래 인저 이 예틸고빈데, 나는 예

리서시구. {으응,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할머니가 참 나 그렇게 이제 어렵게 키운 손녀딸이니까 거기에 뽑혀 갈까봐, 저이가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 이제 이 열일곱인데, 나는 열여섯이고.}

10203 # 그냥 급:파게 이르케 호니늘 시킹겨. {그냥 급하게 이렇게 혼인을 시킨 거야.}

10203 # 뭐 어려서 남부끄러워서 엔:나레 머 누구 으:내릴 하, 머릴 하. {뭐 어려서 남부끄러워서 옛날에 뭐 누구 연애를 해, 뭐를 해.}

10203 # 그 허허허허 으런더리 그르케 해서 그냥 시지벌 보내찌. {그 허허허허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시집을 보냈지.}

10203 @ 조선시대 때도 많이 그랬어요, 중국으로 많이 잡아 가가지고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생겼어요.

10203 # 예, 그래서 갑자기 그냥 시지벌 오고, 뭐라러, 어른네 가튼데 시지벌 와찌. {예, 그래서 갑자기 그냥 시집을 오고, 뭘 알아, 어린애 같은데 시집을 왔지.}

10203 @ 그럼 어른들이 그냥... 그걸 중매라고 해야 되나요?

10203 # 그리치유, 그리여. {그렇지요, 그래.}

10203 @ 그럼 뭐 약혼도 하고 사주도 보내고 이런 거 다 하셨나요?

10203 # 사주는 다 보내찌요. {사주는 다 보냈지요.}

10203 # 머 엔:나레야 머, 야코나구 머야 그냥 사:주 조:이 글씨 써서 보내면 대능기구, 허허 그르케찌. {뭐 옛날에야 뭐, 약혼하고 뭐야 그냥 사주 종이 글씨 써서 보내면 되는 거고, 허허 그렇게 했지.}

10203 @ 궁합도 보고 그러잖아요?

10203 # 궁하비구 머구 그냥 갑자기 하는데 뭐 그렇거 따:질째가 이씨유, 허허허. {궁합이고 뭐고 그냥 갑자기 하는데 뭐 그런 것을 따질 사이가 있어요, 허허허.}

10203 # 아 그래두 보기야 바찌, 그른데 그냥 머 밤:띠아구 저이는 용:띠여, 한살 더 머거서. {아 그래도 보기야 봤지, 그른데 그냥 뭐 뱀띠하고 저이는 용띠야, 한 살 더 먹어서.}

10203 # 그라닝께 그냥 갠찬타구 그라드라구, 나 드르먼 으런더리 그르케 말씀 하시더라구유.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나 들으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10204 @ 그럼 저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또 예물도 준비하고 살림살이도 좀 장만해야 되잖아요?

10204 # 그... 그 엔:나레능 그렇거 업써찌. {그... 그 옛날에는 그런 것 없었어.}

10204 # 부자더렁 그르케 해써두, 그냥 그르케 갑자기 오년 사람더런 그냥 이불롱 해가주구 시집만 오면 되능겨. {부자들은 그렇게 했어도, 그냥 그렇게 갑자기 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불 놓 해 가지고 시집만 오면 되는 거야.}

10204 # 머: 패:물, 반지 해주구 머 그렇거. {뭐 패물, 반지 해주고 뭐 그런 거.}

10204 # 모 모:태오는 사라문 그냥 머 이르케 이씨, 여그 지비서 해:가주 가서 이르케 싸:테려오구 몸뎡이만. {모 못 해오는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 여기 집에서 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싸 데려오고 몸뎡이만.}

10204 @ 그럼 이불하고, 옛날 놓은 조그맣잖아요?

10204 # 나넌 그렇거뚜 모태가주 와써유. {나는 그런 것도 못 해 가지고 왔어요.}

10204 # 갑:짜기 머, 그르케 저기 시지벌 오게 된넌데 머, 모:릴 해와. {갑자기 뭐, 그렇게

저기 시집을 오게 됐는데 뭐, 뭐를 해 와.}

10205 @ 그러면 그 결혼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10205 # 예... 예, 구:시기루, 인저 우리집 저짜기니께 그리 장:개 와가주구. {예... 예, 구식으로, 이제 우리집 저쪽이니까 그리 장가 와 가지고.}

10205 # 거그서 인저 예:식, 이르게 쪽두리 쓰구 원사밧꾸 인저, 그르케 하구 인저 거그서 하루 지내가주구 인저 이리 와찌유. {거기서 이제 예식, 이렇게 족두리 쓰고 원삼 입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하루 지내 가지고 이제 이리 왔죠.} @ 그거 자세히 한번 좀 얘기 해 주세요.

10205 @ 저는 조그만 할 때 그 구식 결혼을 봐 가지고 기억나는 게 몇 개 없거든요.

10205 # 머라구 얘기털 하. {뭐라고 얘기를 해.}

10205 @ 그러니까 그 순서를 차례차례 어떻게 차례 놓고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지, 보니까 상 같은 것 큰 거 놓고 그러던데. # 예:. {예.}

10205 # 인저 치:알 치구, 마당 가문데다가. {이제 차양 치고, 마당 가운데다가.}

10205 # 이런 상, 왜 노푼거 옐:나레 지쌍 이짜너? {이런 상, 왜 높은 거 옛날에 제상 있잖아?}

10205 # 그렇거 다래 노푼거 노쿠, 콩팥 떠다 노쿠. {그런 거 다리 높은 것 놓고, 콩팥 떠다 놓고.}

10205 # 인저: 다기여 탁:, 양쪼게서 인저 이러케 다걸, 저쪼게서두 이러케 부짱꾸 인저 이쪼게서두 이러케 부짜꾸서 섰뜨라구. {이제 닭이야 닭,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닭을, 저쪽에서도 이렇게 붙잡고 이제 이쪽에서도 이렇게 붙잡고서 서 있더라고.}

10205 # 그르카구서 인저 실랑은 저짜게 스구 새다근 인제 이짜게 서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신랑은 저쪽에 서고 새댁은 이제 이쪽에 서서.}

10205 # 인제 이러케 새다근 이러케 큰절루 하구 인제 남자더런 이러:케 절하구, 그르케 해서 예:하구서넌 인저 다건 이러케 날려 보내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새댁은 이렇게 큰절로 하고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절 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하고서는 이제 닭은 이렇게 날려 보내더라고요.}

10205 @ 닭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10205 # 두:마리. {두 마리.}

10205 @ 두 마리, 양쪽에?

10205 # 양쪼게 하낙씩. {양쪽에 하나씩.}

10205 # 인저 그래서 다른 사람더리 인제 잔 갈따가 이러케서 인저 나한테 왓따 인저 실랑한테 갈따 그르케 하더라구유 허허허.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잔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한테 왔다가 이제 신랑한테 갔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허허허.}

10205 @ 그때 닭은 어떤 닭을 써요?

10205 # 그냥 이런 탁:, 보통 토종딱:. {그냥 이런 닭, 보통 토종닭.}

10205 @ 닭인데 그거 저...

10205 # 아무 다기나 장딱 암딱 이러케 쓰능겨, 빨:가쿠 조용거 장딱, 암딱 이르게. {아무 닭이나 장닭 암닭 이렇게 쓰는 거야, 빨갛고 좋은 거 장닭, 암닭 이렇게.}

10205 @ 한 한...

10205 # 한쌍, 어. {한 쌍, 어.}

10205 # 그래서 인저 하구서넌 이러케 날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서는 이렇게 날려 보내더라고요.}

10205 @ 콩팥은 왜 놓지요?

10205 # 그쎄 모르거썬유, 난두 그렇긴 몰르구 그냥 엔:나레능 그러케 해서, 콩팥느쿠. {글쎄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 것은 모르고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콩팥 놓고.}

10205 # 또 그러면 인저 그거뚜 찹쌀:하구 이르게서 시지볼때 놓아네다 싸 느가주구 와가주구서 그걸루 또 사밀날 바벌 해머그먼 부:자텐다구, 그래서 싸가지구서 시지볼때 싸오구. {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찹쌀하고 이렇게 해서 시집올 때 농 안에다 싸 넣어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로 또 삼일날 밥을 해 먹으면 부자된다고, 그래서 싸 가지고서 시집올 때 싸 오고.}

10205 @ 그때 옷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입어요?

10205 # 빨간 다홍치마 하구 초록쫄고리, 그르케 이꾸, 시지깔때는 그르케 이피더라우유. {빨간 다홍 치마하고 초록 저고리, 그렇게 입고, 시집갈 때는 그렇게 입히더라고요.}

10205 @ 머리에도 저기...

10205 # 비나 찢르구. {비녀 찢르고.}

10205 # 예, 이르게 쪽뚜리 쓰구 비나 찢르구, 원사밧꾸. {예, 이렇게 족두리 쓰고 비녀 찢르고, 원삼 입고.}

10205 # 남자더런 거 왜 요 머리에 이르게 쓰능거 이짜너? {남자들은 그 왜 요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10205 # 그거 쓰구 인저 남자두 원사밧꾸. {그거 쓰고 이제 남자도 원삼 입고.}

10205 @ 원삼이 그 곁에 입는 거지요? 맞지요? # 예, 예. {예, 예.}

10205 @ 실도 뭐 청실홍실...

10205 # 야:, 그러거뚜 하구 예. {예, 그런 것도 하고 예.}

10205 @ 그거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10205 # 워떨때 쓰능게 아니라 그건 인저 당모가지두 곁:구 이르게 거러논능거, 그르케서 예:시칼때. {어떨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닭 모가지도 곁고 이렇게 곁어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식할 때.}

10205 # 그르카구 인저 사주판자 보낼제두 인저, 이르게서 이 사:주판자를 이르게 저버서 수수깁이루 요러케 해가주구, 그 인제 색썰루 이르게 가머가주구 보내구. {그렇게 하고 이제 사주단자 보낼 때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주단자를 이렇게 접어서 수수깁으로 요렇게 해 가지고, 그 이제 색실로 이렇게 감아 가지고 보내고.}

10205 @ 전 한번도 못 봤어요.

10205 # 뭇뽀시지, 지금 누가 그렇길 햐? {못 보시지, 지금 누가 그런 것을 햐?}

10205 @ 누에도 키워잖아요?

10205 # 예, 누에두 처썬유. {예, 누에도 쳤어요.}

10205 @ 그걸루다가두 뭐 실이나 옷감 만들고 그랬어요?

10205 # 그르케두 하지유, 누에 이르게 해가주구서 실빠가주구서, 명주 짜구 그라는데 그렇긴 우리는 모:타구, 그냥 누에만 치구 모카농사 지어가주구 무:명만 짜바썬 나느, 무:명. {그렇게도 하지요, 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실 빠 가지고, 명주 짜고 그러는데 그런 건 우리는 못하고, 그냥 누에만 치고 목화농사 지어 가지고 무명만

짜 봤어 나는, 무명.}

10205 # 꼬추[x] 이르케 모와 타다가 인저 수수뎡이루 요러케 이러케 꼬추털 마라가지구서 미영:자:가주구서, 나:러서 인저 매:가주구 배:틀 노쿠 베짜가주구. {꼬추[*] 이렇게 목화 타다가 이제 수수깁으로 요렇게 이렇게 고추를 말아 가지고 명을 자아 가지고서, 날아서 이제 매어 가지고 배틀 놓고 배 짜 가지고.}

10205 # 그건 그건 짜바썩두 명주넌 안짜서, 누에넌 마이 처썩두 그냥 간따 바치기만 해썩. {그건 그건 짜 봤어도 명주는 안 썩어, 누에는 많이 썩어도 그냥 갖다 바치기만 했어.}

10205 @ 총기 좋으시네요. 이장님 말씀이 그런 거 여쭙보면 잘 아실 거라고 그래서던데.

아이구, 총기가 머가 조아유, 다: 이져버려서. {아이고, 총기가 뭐가 좋아요, 다 잊어버려서.}

10205 #1 패:니: 이장님 말땡땡 하기가 좀 저기하니께 그래지 [xx xxxx]. {괜히 이장님 말 땡땡 하기가 좀 저기하니께 그렇지 [** ****].}

10205 @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총기 좋으세요.

10205 @ 그 결혼하고 나서 사흘인가 있다가 또 가지요?

10205 # 예, 근... {예, 근...}

10205 @ 근친이라고 그래요?

10205 # 예. {예.}

10205 @ 신행은 뭐고, 근친은 뭐예요?

10205 # 신행은 인저 새다글 이케 데려오능게 시냉 해오능거구. {신행은 이제 새댁을 이렇게 데려오는 게 신행 해 오는 거고.}

10205 @ 그러니까 장가 들고 나서?

10205 # 어, 새댁 데려오능게,시냉 해오구. {어, 새댁 데려오는 게, 신행 해 오고.}

10205 # 옴:나레 어떠니더런 인저 장가만 들구서넌 또 그 따지닝 니더런 인저, 뭇: 봐:서 인저 삭:썩털 좀 더 뒤:따 데려오면 조:타 이라면 인저, 뒤:따가 인저 데려오면 그 게 시냉 해 오능기구. {옛날에 어떤 이들은 이제 장가만 들고서는 또 그 따지는 이들은 이제, 뭇 보고 이제 색시를 좀 더 두었다가 데려오면 좋다 이라면 이제, 두었다가 이제 데려오면 그게 신행 해 오는 거고.}

10205 # 인저 근:친 가녕건 인저, 시집 왈따가 인저 친정에 다니러 처땡 가능거 근:친 가서, 머 채반 해가주 간따가 인저 고그서두 또 채바내가주구 오구 그라자너? {이제 근친 가는 거 이제, 시집 왔다가 이제 친정에 다니러 첫번째 가는 게 근친 가는 거, 뭇 채반 해 가지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도 또 채반 해 가지고 오고 그러잖아?}

10205 @ 그건 대개 며칠 있다 가요?

10205 # 대중 읍썩유, 그건. {대중 없어요, 그것은.}

10205 @ 적당할 때 봐서?

10205 @ 인제 예식을 하잖아요, 예식 끝나고 나서 집안 어른들한테 절하고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10205 # 그거넌 인제 저기지, 인제 시집 와가지구서 새대기 인제 여기 와:가주구서 친정에서 여그 와:가주구 인저, 시어먼님 시아먼님한테 인저 피박따리구. {그거는 이제 저기지, 이제 시집 와 가지고 새댁이 이제 여기 와 가지고 친정에서 여그 와 가지고

고 이제, 시어머님 시아버님한테 이제 폐백드리고.}

10205 # 지금두 예:시카구서 그 다른 방에가서루 쪽또리 쓰구 원사밧꾸 하구서 피박떠럴 디리자너, 그러면 인저 밤: 대추 이렇거 이르게 노쿠서넌 새닥 절하면 인저 거기 다 이르게 던져주더라고. {지금도 예식 하고 그 다른 방에 가서 족두리 쓰고 원삼 입고 하고서 폐백들 드리잖아, 그러면 이제 밤 대추 이런 거 이렇게 놓고서 새댁 절 하면 이제 거기에다 이렇게 던져 주더라고.}

10205 # 그러면서 아덜 마:니 나:라구 허허허허. {그러면서 아들 많이 낳으라고 허허허허.}

10205 @ 밤 대추 던져 주는 것이 아들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1 [xx] 무:찌두 안는 애기 [xxx] 참... {[**] 묻지도 않는 애기 [***] 참...}

10205 # 아 그렇거 정년다닌데 그럼 뭘: 갈쳐줘. {아 그런 거 적는다는데 그럼 뭘 가르쳐줘.} @ 예, 그걸 제가 다 물어봐야 되는 건데 미리 지금 말씀 잘 해주시는 거예요.

10205 # 어이 가유, 회파네나. {어이 가요, 회관에나.}

10205 #1 아이구 아파 모까게써. {아이고 아파 못 가겠어.}

10205 # 워: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10205 #1 사방 아파서. {사방 아파서.}

10205 @ 그러면 폐백은 그럼 저기 신행을 와서 드리는 거네요?

10205 # 예. {예.}

10207 @ 그러면은 결혼 예식이 끝나고 첫날밤은 # 거기서 {거기서} @ 신부 집에서 하는 건가요? # 예. {예.}

10207 # 당일 오는 사람두 이찌만, 제대루 하능 사람더런 다 거그서... {당일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10207 # 데려다가 여그서 인저 예시카넌 사람더런 시대게 와서 하넌 사람더런 그냥 하구, 인저: 그리 장가털 인저 실랑이 와가주구 삭씨찌부루 와가주구 천날빠를 거그서 차리구서 인저 이리 신행 해오녕거지. {데려다가 여기서 이제 예식하는 사람들은 시댁에 와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고, 이제 그리 장가를 이제 실랑이 와 가지고 색시 집으로 와 가지고 첫날밤을 거기서 차리고서 이제 이리 신행 해 오는 거야.}

10207 @ 그 첫날밤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얘기도 좋고 남 얘기도 좋고. 그게 재밌다고 그러던데.

10207 #1 아이 그때는 나:이두 어리구 그래서, 그래썬능걸 뭘. {아이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랬었는 걸 뭘.} 아유, 나:이가 어려서 남부꾸러워서 난 저일 쳐다두 몸:뽕고, 그래썬능걸 머, 인제 그러면 실랑이 인저 비나 빼구, 쪽또리 베끼구, 온 빼끼구, 거둔만 인저 이러케. {아유, 나이가 어려서 남부꾸러워서 나는 저이 쳐다도 못 보고, 그랬었는 걸 뭘, 이제 그러면 실랑이 이제 비녀 빼고, 족두리 벗기고, 옷 벗기고, 겉옷만 이제 이렇게.}

10207 # 그르키 그이 천날, 천날빠메는 그르케 하능거래유, 실랑이 그르케, 인제 색씨 인제 술: 상 차려다 노쿠 인저 그거 먹꾸서 인저 그르키 하녕거리야 하하. {그렇게 그이 첫날, 첫날밤에는 그렇게 하는 거래요, 실랑이 그렇게, 이제 색시 이제 술상 차려다 놓고 이제 그것 먹고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래 하하.}

10207 # 그때 우리넌 머 나:이가 어리구 남부꾸럽꾸 내가 그래가주, 내가 그때 숙끼가 업써서 실랑 툇빠루 쳐다두 몸뽕구, 남부꾸러워서 머, 지구녀기 어디냐구 하구 수머

썩녕길 머, 허허허. {그때 우리는 뭐 나이가 어리고 남부끄럽고 내가 그래 가지고, 내가 그때 숫기가 없어서 신랑 똑바로 쳐다도 못 보고, 남부끄러워서 뭐, 쥐구멍이 어디냐고 하고 숨었었는 걸 뭐 허허허.}

10207 @ 조금 이제 좀 연세가 들어서 남들 하는 것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남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장난도 많이 친다고 그러던데.

10207 # 아, 인저 천날빔 차릴라면 막:까서 이르게, 이런 무니 아니니께, 옴:나렌 왜 열:구 단넌 무니니께. {아, 이제 첫날밤 차리려면 막 가서 이렇게, 이런 문이 아니니까, 옛날에 왜 열고 닫는 문이니까.}

10207 # 가서 막 몽꾸녕얼 침 발라서 송꾸라구루 뜨꾸서, 그거 디다 보구 그라느라구 허허허, 날리가 나게 벅써거리지. {가서 막 문구멍을 침 발라서 손가락으로 뜯고서, 그거 들여다 보고 그러느라고 허허허, 난리가 나게 벅씩거리지.}

10207 # 화과네 가바유, 저녁 째꾸랴. {회관에 가 봐요, 저녁 잡수시래.}

10207 @ 그래, 그러면서 제가 어디에서 들은 애긴데 겨울인데 물을 떠다 놓았다가 바깥에서 하도 잠 못자게 해서 물을 확 끼얹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10207 # 아:우: 그라구 머, 실랑 자양가면 실랑 다룬다구 막 끄냥 동네 청년더리 꺼꿀루 매달구 막 발빠당얼 방맹이루 막 때리구. {아유 그리고 뭐, 신랑 자야한다고 하면 신랑 다룬다고 막 그냥 동네 청년들이 거꾸로 매달고 막 발바닥을 방망이로 막 때리고.}

10207 # 실랑 다룬다구 갱:장하지유 머, 옴:나레야. {신랑 다룬다고 굉장하지요 뭐, 옛날에 야.}

10207 # 옴:나레 시지본 사라미, 실랑이 머 아주 아파서 머, 막 저 또랑으루 끌구두 가구 그래유. {옛날에 시집 온 사람이, 신랑이 뭐 아주 아파서 뭐, 막 저 도랑으로 끌고도 가고 그래요.}

10207 # 그르케 해. {그렇게 해.} @ 그건 왜 그래요?

10207 # 그르케 실랑 다룬다구 옴:나레더런 그르케 해써, 그여. {그렇게 신랑 다룬다고 옛날에들은 그렇게 했어, 기어이.}

10207 # 장개 드른 사라미 처가찌비 오기만 하면 그냥 막 청년드리, 옴:나렌 동네마다 청년더리 마:너짜너? {장가 든 사람이 처갓집에 오기만 하면 그냥 막 청년들이, 옛날에는 동네마다 청년들이 많았잖아?} @ 많았지요.

10207 # 어, 그라니께 망 끌:구 땡기구 머 그냥, 갱:장이 교상한다구. {어, 그러니까 막 끌고 다니고 뭐 그냥, 굉장히 고생한다고.}

10207 # 츠:메 시, 인제 장개 가따 철 근:친 가가주구서넌. {처음에 시, 이제 장가 갔다 근친 가 가지고는.}

10207 @ 그 어디 무서워서 처갓집 가겠어요?

10207 # 그리유:, 그러, 단다나게 하구 가야 디야. {그래요, 그래, 단단하게 하고 가야 돼.}

10207 # 근데 우리는 동네구 그라닝께 머, 엄청이 그렇거뚜 움:써꾸. {그런데 우리는 동네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그런 것도없었고.}

10207 # 우리지비 또 머 내가 마따리구 그라니께 머 누구, 처남더리 이씨야 그래두 그르카 자너? {우리집이 또 뭐 내가 맏딸이고 그러니까 뭐 누구, 처남들이 있어야 그래도 그렇게 하잖아?}

10207 # 그란데 내가 마따리구 머, 동생두 어리구 그라니께 그르케두 아내씨, 우리넌. {그

런데 내가 딸딸이고 뭐, 동생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했어, 우리는.}

10207 @ 발바닥 때리고 그러다면서요?

10207 # 예, 발빠닥 그쵸 꺼꿀루 매다라노쿠:, 발빠닥 때리구 그람 머 인저 그 청년더리 그 라메 하:라는대루 실랑이 다 해:야 하:, 머래두. {예, 발바닥 글썸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 때리고 그러면 뭐 이제 그 청년들이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신랑이 다 해야 해, 뭐라도.}

10207 @ 뭘로 때려요?

10207 # 그쵸:, 팡:맹이덜 가지구 때리더라니께:. {글썸, 방망이를 가지고 때리더라니까.}

10207 @ 빨랫방망이? 다듬잇방망이?

10207 # 허, 다디밧뽕맹이루두 때리구 빨래뽕맹이루두 때리구 머. {허, 다듬잇방망이로도 때리고 빨랫방망이로도 때리고 뭐.}

10207 # 명지, 옴:나레더런 실랑덜 명지 바지조고리 이버짜너? {명주, 옛날에들은 신랑들 명주 바지저고리 입었잖아?}

10207 # 그레가주구 그냥, 전, 저 아페 또랑 이썸, 그리 그냥 막 끌구 가든 그 명지 바지조 고리가 막 무리 터서 제:전꾸, 하이구 옴:나레더런 득셔썸썸유. {그레 가지고 그 냥, 젓, 저 앞에 도랑 있어, 그리로 그냔막 끌고 가면 그 명주 바지저고리가 막 물 이 튀어서 다 젓고, 아이고 옛날에들은 드셨었어요.}

10207 # 지금더런 참 신사저그루 하지만. {지금들은 참 신사적으로 하지만.}

10207 @ 요새도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10207 # 지금두? {지금도?}

10207 @ 예.

10207 # 몰라 지금더른... {몰라 지금들은...} @ 요새는 좀 다르게 한대는데.

10208 @ 그리고서 처음 결혼해서 신흔 살림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10208 # 그냔 나넌 요기 시집와서:, 예레서싸레 와:가주구 냥 이지비서 여:태 사능기여. {그냔 나는 여기 시집 와서, 열여섯 살에 와 가지고 그냔 이 집에서 여태 사는 거야.}

10208 # 여그서 여태. {여기서 여태.}

10208 @ 그럼 여기서 한 70년, 60년 살았네요. 육십년 이상.

10208 # 육십년 더 사러썸, 칠십팔썸니께. {육십년 더 살았지, 칠십팔 세니까.}

10208 @ 그러면 여기 시집 오셨을 때는 여기 집에 살림살이두 있고 다 그래서 그거 쓰시고 그러셨어요?

10208 # 야, 그래유. {예, 그래요.}

10208 # 난 그때, 아이고..., 할머니가 키우구 인저 아버지는 또 왜 일쟁시대 때 보국때 가 시구 그라자너? {난 그때, 아이고..., 할머니가 키우고 이제 아버지는 또 왜 일쟁 시대 때 보국대 가시고 그러잖아?}

10208 # 징용, 보국때가 아니라 징용이라 그래서, 으 그래서 일본 가 기시구 그라는데, 삼촌만 기시구 그라는데 그냔 할머니가 해서 나넌 혼수도 아:무거뚜 모태가주 와썸유. {징용, 보국때가 아니고 징용이라 그러지, 응 그래서 일본 가 계시고 그런데, 삼촌만 계시고 그러는데 그냔 할머니가 해서 나는 혼수도 아무 것도 못 해 가지고 왔어요.}

10208 # 그냔 쪼끄만 농 하나에 이불 한채 해가주 와서. {그냔 쪼그만 농 하나에 이불 한

채 해 가지고 와서.}

10208 # 옴:나레녕 그렁겅만 해:가찌 머, 지금마냥 머, 그런 머 별거 다:사가주구 그르케
앙가썸, 옴:나레더런 그냥 머 농아구 이부라구 자래오넌 이덜두 그거 해오지. {옛
날에는 그런 것만 해 갔지 뭐, 지금처럼 뭐, 그릇 뭐 별거 다 사 가지고 그렇게
안 갔어, 옛날에들은 그냥 뭐 농하고 이불하고 잘 해 오는 이들도 그거 해 오지.}

10208 # 그래서 머 여그 와서 다: 일두 배워찌 머, 명: 잔능거뚜 여 와서 시어머니한테 배
우구, 베짜능거뚜 여그 와서 배워서 베 짜구. {그래서 뭐 여기 와서 다 일도 배웠
지 뭐, 명: 갖는 것도 여기 와서 시어머니한테 배우고, 베 짜는 것도 여기 와서 배
워서 베 짜고.}

10208 @ 자녀가 몇 분이에요?

10208 # 아덜만 세시예유, 아덜만 셋.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

10208 @ 지금 어디 사세요?

10208 # 하나넌, 저: 큰아더런 처뵈, 지겅꾸니니여. {하나는, 저 큰아들은 칠원, 직업군인이
야.}

10208 @ 강원도.

10208 # 둘째는 청주서 저기 샤씨하녕거 그거 공장하구. {둘째는 청주에서 저기 새시하는
거 그거 공장하고.}

10208 # 망내녕 공주, 야쪽카다 잘 안댄다구 지그면 또 나무야꾸게 가인띠야. {막내는 공
주, 약국 하다가 잘 안 된다고 지금은 또 남의 약국에 가 있대.}

10208 @ 약산가보네요?

10208 # 예. {예.}

10208 # 지그면 약쪽뚜 대영약쪽 아니구선 안댄대유. {지금은 약국도 대형 약국 아니고는
안 된대요.}

10208 # 예, 그르케야 대지, 그냥 해서는 안댄디야. {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해서는
안 된대.}

10209 @ 그럼 큰아들 가졌을 때 입덧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 예:. {예.} @ 그때는 어
뻐어요?

10209 # 갱:장해찌, 입떠타능게. {굉장했지, 입덧 하는 게.}

10209 # 다른니더런 수:나게 순다는데 나넌, 지금두 아프면 뭐 쪼끔 저기 함 비우가 상해
서 토악찌럴 하넌데, 옴:나레야 머 애기 슬때 그냥 열팔래 토악찌라구 아무거뚜
몸머꾸. {다른 이들은 순하게 한다는데 나는, 지금도 아프면 뭐 쪼끔 저기하면 비
위가 상해서 토악질을 하는데, 옛날에야 뭐 아기 설 때 그냥 열 달 내내 토악질하
고 아무 것도 못 먹고.}

10209 # 환:자마냥 그르케해서 그냥 애릴 나:찌유. {환자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애를 낳았
지요.}

10209 @ 둘째도 그랬어요?

10209 # 예. {예.}

10209 # 시:설 다 그래썸유, 나넌. {셋을 다 그랬어요, 나는.}

10209 # 애 신:만 난넌데, 애 시:설 다그래서 아주 쪼끔 나썸두 아주 무서워썸, 애기 스기
가. {애 셋만 낳았는데, 애 셋을 다 그래서 아주 쪼끔 낳았어도 아주 무서웠어,
아기 서기가.}

10209 @ 대개 입덧해도 잠깐 이렇게 하다가 말고.

10209 # 그르타는데 나는 양 그리유. {그렇다는데 나는 안 그래요.}

10209 # 아:주 열팔래 그냥 애릴 그르케 흐:마게 서서, 비우 야칸 사라면 그렁가버유. {아주 열 달 내 그냥 애를 그렇게 험하게 서서, 비위 약한 사람은 그런가봐요.}

10209 # 머 냄새만 마트면 그냥 죄: 너머오고. {뭐 냄새만 맡으면 그냥 모두 넘어오고.}

10209 @ 그러면 아이는 어디에서 낳으셨어요?

10209 # 지비서 다: 나:써유, 요그서. {집에서 다 낳았어요, 여기서.}

10209 @ 누가 봐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10209 # 시어먼님. {시어머님.}

10209 # 시어먼님 계시니까. {시어머님 계시니까.}

10209 @ 아이 낳고 나서 그 다음에도 할 일이 또 있잖아요, 아이 낳고 바로.

10209 # 애기 나쁜 인저 시어먼니미 다: 상갈르구.{아기 낳으면 이제 시어머님이 다 산 가르고.}

10209 @ 산 가르고?

10209 # 어. {어.}

10209 # 옴:나레더런 태넌 가따가 저 웅개에다가 노쿠서 삼뿌리라구 이르케 태:우더라구 유. {옛날에들은 태를 갖다가 저 왕겨에다가 놓고서 산 불이라고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10209 # 부럴노코, 그르케해서 태우면 흠처가, 또 태릴. {불을 놓고, 그렇게 해서 태우면 흠처 가, 또 태를.}

10209 # 그게 야기 조티야. {그게 약이 좋대.}

10209 # 그래서 그냥 그거 흠처가게베 우리 어먼니미 상:곤 지:켜 밤에넌, 몬:툼처가게 하너라구. {그래서 그냥 그거 흠처 갈까봐 우리 어머님이 사뭇 지켜 밤에는, 못 흠처가게 하느라고.}

10209 @ 산 가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209 # 탯줄. {탯줄.}

10209 @ 탯줄 자르는 거?

10209 # 어:. {어.}

10209 # 애기나면 인저 애기 배꼬파고 여긴 내 배쏘게서 태쭈리 이르케 부터짜너? {아기 낳으면 이제 아기 배꼽하고 여기 내 배속에서 탯줄이 이렇게 붙었잖아?}

10209 # 어, 그러면 인저 그걸 가새루 이르케 찢러가주구서넌, 애기 배꼬베 인넌 주레두 실루 이르케 강:꾸 인저 그러카더라구. {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위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는, 아기 배꼽에 있는 줄에도 실로 이렇게 감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10209 # 난 그렇거뚜 모:태바:써. {난 그런 것도 못 해 봤어.}

10209 @ 그걸 산 가르다고 그러는구나.

10209 # 네, 그게 상갈르능 거래유. {예, 그게 산 가르는 거래요.}

10210 @ 그러면 이제 아기 낳으면 조리해야 되잖아요?

10210 # 야:, 조리해야지:. {예, 조리해야지.}

10210 # 일주이를, 천니레 머 두이레 저기따 금줄 매자너. {일주일, 첫 이레 뭐 두 이레 저기에다 금줄 매잖아?}

10210 # 대몽까네다가 인저, 솔립꼬꾸 꼬추꼬꾸 거멍 수:꺼멍 꼬꾸 이르케 해서, 윈:산내끼

파:가주구서 금쭈럴 매노코서는, 부정한 사람 몬:뜨리오게 하너라구. {대문 간에다가 이제, 솔잎 꽃고 고추 꽃고 숯 꽃고 이렇게 해서, 원원새개 파 가지고서 금줄을 매 놓고서는, 부정한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10210 # 그르케 노쿠서는 인저, 시어먼니미 인저 모: 세:때 상:구 인저 며:꼭 꼬려다줘:서, 산:모 인저 저기하너라고. {그렇게 해 놓고서는 이제, 시어머님이 이제 뭐 세 때 계속 이제 미역국 끓여다줘서, 산모 이제 저기하느라고.}

10210 # 일쭈일쭈 카구 이르게 빨리 하닌 사람더른 뭐 일쭈일 아네두 나온다는데, 나닌 선:차너서 그르케 빨리 몬:나오고 한:달씩 애기 나면 이씨야 한대털라와. {일쭈일쭈 하고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들은 뭐 일쭈일 안에도 나온다는데, 나는 시원찮아서 그렇게 빨리 못 나오고 한 달씩 아기 낳으면 있어야 한테를 나와.}

10210 @ 그래도 그게 몸에는 좋지요.

10210 # 몰:러, 조은지 어쩐지 이러케 능녕걸 뭐. {몰라, 좋은 지 어쩐지 이렇게 늙는 걸 뭐.}

10210 @ 애기 낳고 처음에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10210 # 며:꼭, 처꼭밥. {미역국, 첫국밥.}

10210 # 며:꼭카구 인저 쌀바과구 해:다주면 처꼭밥. {미역국하고 이제 쌀밥하고 해다 주면 첫국밥.}

10210 @ 그리고 이제 애가 조금 더 크면 백일 때도 뭐 잔치하고 돌 때도 하고 그러잖아요. # 예, 예, 배길, 예. {예, 예, 백일, 예.}

10210 # 배길 때 인제 그저네 보니까 배길때 수수과떡카구 인제 백설기하구. {백일 때 이제 그전에 보니까 백일 때 수수팔떡하고 이제 백설기하고.}

10210 # 수수과떡진 열쌀꺼지 해주면, 모든 사리 풀려나간다구 열쌀꺼지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더라구, 손자나서. {수수팔떡은 열 살까지 해 주면, 모든 살이 풀려 나간다고 열 살까지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더라고, 손자 낳아서.}

10210 @ 아 저는 그 수수팔떡이 그렇게 먹기 싫었는데 꼭 해주더라고요.

10210 # 아흐, 그리여 허허허. {아흐, 그래 허허허.}

10210 @ 별로 맛이 없던데.

10210 # 그게 저기: 살 푸려나간디야, 열쌀꺼지 해주면 모:든 나쁜사리 다: 풀려나간다구 우리 시어먼니미 손자 보구서 그르케 하시더라구. {그게 저기 살을 풀어나간대, 열 살까지 해 주면 모든 나쁜 살이 다 풀려 나간다고 우리 시어머님이 손자 보구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10211 @ 돌 때도 또 하잖아요?

10211 # 예, 처뜰. {예, 첫 돌.}

10211 @ 첫 돌 때, 그 어떻게 해요, 상도 차려놓고?

10211 # 예, 상 차려노코 머, 인저 뭐 상에다가 인저 떡뚜 노코 거:뚜 노코 인저 공책뚜 노코 연필뚜 노코 돈:두 노코 실:두 노코 인제 뭘, 골고루 이르게 노:면. {예, 상 차려 놓고 뭐, 이제 뭐 상에다가 이제 떡도 놓고 [*]도 놓고 이제 공책도 놓고 연필도 놓고 돈도 놓고 실도 놓고 이제 뭐, 골고루 이렇게 놓으면.}

10211 # 그 애, 애:가 가서 인제 [x]몬, 도:널 지프면 돈:뽀기 망:커따구 하구, 엔:나레 그라더라구 으:런더리. {그 애, 애가 가서 이제 [*]면, 돈을 집으면 돈복이 많겠따고 하고, 옛날에 그러더라고 어른들이.}

- 10211 # 연필과 공채걸 지브먼 인저 공부 자라거따고 하고, 그르케 엔:나레더런 그르케 하시더라우유. {연필과 공책을 집으면 이제 공부 잘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옛날에 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 10212 @ 그런 아이들이 크면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어른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다 머리로 따고 그랬잖아요?
- 10212 # 우리, 그때년 안 따써, 우리게년. 까 까껴써. {우리, 그때는 안 땅았어, 우리 때는. 까 깎았어.}
- 10212 @ 남자들도 그랬다가 상투 틀고.
- 10212 # 예, 예, 그리타년데 나 애기 날때는 그르케 머리 따쿠 그르케년 아내써. {예, 예, 그렇다는데 나 아기 낳을 때는 그렇게 머리 땅고 그렇게는 안 했어.}
- 10212 @ 그러면 어른 되었다고 성인식이나 그런 것은 안했어요?
- 10213 @ 자식 키우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아니면 놀랐거나,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아이가 뭘 잘해서 좋았다거나 이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 10213 # 모르거써, 낭 그렁 거, 그냥 머 평범하게 키워서 그렇건 몰르구, 그저 애딜 해꼬 보내서 하꼬 가서 이르게 상 바꾸 할때 가보먼 그때 기분 조치 머. {모르겠어, 난 그런 거, 그냥 뭘 평범하게 키워서 그런 건 모르고, 그저 아이들 학교 보내서 학교 가서 이렇게 상 받고 할 때 가보먼 그때 기분 좋지 뭘.}
- 10213 # 하꼬 가서 그냥, 하꼬 시엄바서 그냥 대해꼬 털썩 드러가구 그라문 그때 조코. {학교 가서 그냥, 학교 시험 봐서 그냥 대학교 덜컥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좋고.}
- 10213 # 근디 머 애:더리 별루 저:기는 말쌍은 암 피워서 몰르거써, 그냥 그대루. {그런데 뭘 애들이 별로 저:기는 말쌍은 안 피워서 모르겠어, 그냥 그대로.}
- 10213 @ 모범적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 10213 # 아이구, 별 말씀 다 하시네, 그냥 이르게 읍써 사르니께 그냥 그르치 머.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시네, 그냥 이렇게 없이 사니까 그냥 그렇지 뭘.}
- 10214 @ 할머니 이렇게 시집 와서요, 시어머니나 시집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힘들게 한 사람도 있고, 쉽게 한 사람도 있고.
- 10214 # 그리여 근데 나년, 예레서싸레 시지바쓰니 머, 할머니 밋에서 애기마냥 그냥 참 어무니 양계시구 그라잉께 그르케 크다가 와서 아:무거뚜 할찌를 몰라써. {그래 그런데 나는, 열여섯 살에 시집 왔으니 뭘, 할머니 밋에서 아기처럼 그냥 참 어머니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다가 와서 아무 것도 할 줄을 몰랐어.}
- 10214 # 근데 우리 어떤니미, 우리 어떤니미 저 최썬데, 좀 남자승:끼기여, 우리 어떤님 승:지리.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저 최씨인데, 좀 남자 성격이야, 우리 어머님 성질이.}
- 10214 # 그래가지구 승:지리 그르시니께 그냥 화가 나시면 머 누가 이겨나 말거나 그냥 확:확: 해:부치서, 화: 풀리두룩. {그래가지고 성질이 그러시니까 그냥 화가 나시면 뭘 누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확확 해 붙이서, 화 풀리도록.}
- 10214 # 그르케두, 시집싸리야 내가 이럴 모타이께 쪼끔 남더리 시집싸리 해따 구라지만, 나녕 그래두 그르케 생가 안히야, 우리 어머니는 그래두 참 저기하신 낭바니라 구라지. {그렇게 해도, 시집살이야 내가 일을 못 하니까 조금 남들이 시집살이 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 안해,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참 저기하신

양반이라고 그러지.}

10214 # 다런 사람더런 보면 차카:다구 해서 시집싸리 안한다구 하닌 이년 보면, 나와서 그냥 메누리 승얼 갱:쟁이 보더라구. {다른 사람들은 보면 착하다고 해서 시집살이 안 한다고 하는 이는 보면, 나와서 그냥 며느리 흉을 굉장히 보더라고.}

10214 # 아이구 우리 메누리넌 워떠쿠 저떠쿠 그러타구 모쓴다 그라는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어떻고 저떻고 그렇다고 못 쓴다고 그러는데.}

10214 # 우리 어먼니믄 지:비서 그냥: 그르케 그냥, 엔:나레 사람더리 마라자면 저 할머니넌 왕방울로 손까신다구 막 이르게 하.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자면 저 할머니는 왕방울로 술 가신다고 막 이렇게 해.}

10214 # 그르케 승:지를 괄가두, 머 나가서 일:절 머 우리 메누리 머머 모타구 워떠쿠, 그러타 쏘리넌 함:마디 안하셔. {그렇게 성질이 괄괄해도, 뭐 나가서 일절 뭐 우리 며느리 뭐 뭐 무엇하고 어떻고, 그렇다 소리는 한 마디 안 하셔.}

10214 # 그래서 나넌 우리 어무니는 훌륭하신 부니라구 생가캐유, 야.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10214 # 자식칸테 잘모타이게 걱정은 하시데, 나가서 남든넌데 내 자시기 워쩌타구 승언 안보니까 훌륭하신 분 아니여, 예. {자식한테 잘못하니까 걱정은 하시되, 나가서 남 듣는데 내 자식이 어떻다고 흉을 안 보니까 훌륭하신 분 아니야, 예.}

10214 # 그래 어무니는 억씨다구 남더런 그래두, 나는 그래두 우리 어무니가 더, 저 차카니보다 우리 어무니가 더 훌륭하신 부니라구 그러케 생가키야. {그래 어머니는 억세다고 남들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더, 저 착한 이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10217 @ 시집살이도 옛날 사람들 시집살하고 요즘 사람들 시집살이도 있잖아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10217 # 요새는 머 시어머니가 시집싸리릴 한다구덜 하닝께 모르거썬유, 난 머. {요사이엔 뭐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한다고들 하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뭐.}

10217 # 시집싸릴 하는 지 어짤지 메누리 시:드더썬두 머, 다 일변 장가 드러서 즈이덜 직장 따러 나가니께, 머 메누리하구 언짜나 해볼꺼뚜 우:꾸. {시집살이를 하는지 어찌는 지 며느리 셋 얻었어도 뭐, 다 일변 장가 들어서 저희들 직장 따라서 나가니까, 뭐 며느리하고 언짢아 해볼 것도 없고.}

10217 # 그냥 남더리 자:르더띠야, 우리 메눌렌 신:따 차카게 자:르더띠야. {그냥 남들이 잘 얻었대, 우리 며느리들은 셋 다 착하게 잘 얻었대.}

10217 # 그래서 시집싸리 하능건 몰라, 나. {그래서 시집살이 하는 거 몰라, 나.}

10217 # 메누리한테 시집싸리 하능거뚜 몰르구, 나가두 메누리한테 시른소리 아나구 그라니께 그렇건 몰르거썬.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또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어.}

10217 # 남들 얘기 드르문 메누리가 머 시어머니한테, 메누리한테 시어머니 가신다 구라는데 그렇건 난 몰르구 사러서 몰르거썬유. {남들 얘기 들으면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가신다고 그러는데 난 모르고 살아서 모르겠어요.}

10217 # 내가 저꺼 바쓰야 알지, 그르차너? {내가 겪어 봤어야 알지, 그렇잖아?}

10217 @ 남들은 어떻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할머니들이 시집살이 할 때하고 지금 신식 며느리들하고 비교해 보면.

10217 # 그쎄 머, 그쎄 엔:나레넌 다 그르케 시집싸리하구 사러쎄, 누구나 물론 하구, 우린 저기 할때넌. {글쎄 뭐, 글쎄 옛날에는 다 그렇게 시집살이 하고 살았어, 누구나 물론 하고, 우리 저기 할 때는.}

10217 # 그치만 지금더리야 메누리 누가 그르케 시집싸리 시키두 안 하구, 저르케 해:과네 와서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 드러봐두 대개 메누리가 시집싸리 시킨다구 하능거 거터. {그렇지만 지금들이야 며느리 누가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지도 안 하고, 저렇게 회관에 와서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 들어봐도 대개 며느리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는 거 같아.}

10217 @ 어떤 식으로 시킨대요?

10217 # 인저 뭐 그릉께 자기한테 잘 아난다녕 이거지 머, 그차너? {이제 뭐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안 한다는 이거지 뭐, 그릉잖아?}

10217 @ 옛날같으면 밥도 해다 드리고 다 했는데.

10217 # 지그면 머 다: 따루따루 이르게 사르니께, 자식떠라구 한테 안 사르니께, 여 해:과네 인넌 노인네덜두 다: 자식뜨라구 안 사러 다:. {지금은 뭐 다 따로따로 이렇게 사니까, 자식들하고 한 군데 안 사니까, 여기 회관에 있는 노인네들 다 자식들하고 안 살아 다.}

10217 @ 마음은 편할 지도 모르쥬, 저기 자식이나 손자들 눈치 안 보고.

10217 # 야, 그르태유. {예, 그릉대요.}

10217 # 근데 저 한씨우리 인넌 사라미 하나가, 한씨넌데 한씨네 종종에서 도:니 나와떠야. {근데 저 한세월이 있는 사람이 하나가, 한씨네인데 한씨네 종종에서 돈이 나왔대.}

10217 # 그레가주구 머 아더리 지벌 산다구, 자기네 지벌 파리가주 와서 보태서 사가주구 하냥 살자구래서 가더니 메딸두 모쌀구 오더라구, 따루 나와. {그레 가지고 뭐 아들이 집을 산다고, 자기네 집을 팔아 가지고 와서 보태서 함께 살자고 그래서 가더니 몇 달도 못 살고 오더라고, 따로 나와.}

10217 # 지금더런 다 각각 이르게 사능께 편히야. {지금들은 다 각각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해.}

10217 @ 젊은 사람들 사는 방법하고....

10217 # 틀리자너, 어, 우리네 사능거하구 틀리자너. {틀리잖아, 어, 우리네 사는 것하고 틀리잖아.}

10217 @ 손자들 있고 그런데 개들 공부하는 데 방해 된다고 그러고 # 야, 그르케서루. {예, 그렇게 해서.} @혼자 집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해요, 텔레비전 보면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텔레비전 본다고도, 그케 시집살이겠지요.

10217 # 그리여 머 시어머이한테 머 잘모태서 시집싸리가 아니라 그케 시집싸리여. {그레 뭐 시어머니한테 뭐 잘못해서 시집살이가 아니라 그케 시집살이야.}

10217 @ 서로 괜히 눈치 보이니까 차라리 혼자 와 가지고 여기 와서 내 맘대로 하는 게 편하고.

10217 # 그라구 아빠트 거튼데 가따 노머넌, 메누리가 지금 싸람더런 지베 아니짜너.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갖다 놓으면, 며느리가, 지금 사람들은 집에 안 있잖아.}

10217 # 그라니께 나가면... {그러니까 나가면...}

10201 @ 그럼 함경도 청진 가셨다 오셨다고요?

10201 # 몰라, 행:경돈지 워:딘지 그냥 청진이라 소리만 드러서 그때 머 어려쓸때라. {몰라, 함경도인지 어딘지 그냥 청진이란 소리만 들어서 그때 뭐 어렸을 때라.}

10201 # 그르키 애:기만 드러써유. {그렇게 애기만 들었어요.}

10201 # 그라구 우리 할머니가 광산 김서방네, 우리넌 승이 전간테 우리 할머니넌 광산 김서방네 판니미여.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광산 김서방네, 우리는 성이 전가인데 우리 할머니는 광산 김서방네 따님이야.}

10201 # 그래서 여: 우리 시어머님하구 그냥 한 저기 지반간 아녀? {그래서 여기 우리 시어머님하고 그냥 한 저기 집안 간 아니야?}

10201 # 그라니께 머 어림시름 읍씨 그냥 그르케 사르서써 먼. {그러니까 뭐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사셨어 뭐.}

10201 # 사돈 가네 머 저기 머 틀개거통 거 이렇겐 읍씨써유, 그냥 서루 이르게. {사돈 간에 뭐 저기 뭐 틀개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냥 서로 이렇게.}

10216 @ 시택 식구들하고 뭐 특별히 문제 없으셨어요? # 예, 예, 예. {예, 예, 예.}

10216 # 뭇 동기가니 마:느냐지, 우리 어무님두 채워[uj] 아덜 삼형젠데 하난 의용군가서 소식 읍씨유, 지금꺼지 어 둘째가. {뭇 동기간이 많아야지, 우리 어머님도 겨우 아들 삼형제인데 하나는 의용군 가서 소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 둘째가.}

10216 # 형아구 하냥 간넌데 형은 그러케 수머서 오구 하나넌 모:되써. {형하고 함께 왔는데 형은 그렇게 숨어서 오고 하나는 못 왔어.}

10216 # 그래서 소시굽꾸, 형제덜 머 한동네서 그냥 이르게 장가드러가주구 사녕걸 머 여태. {그래서 소식 없고, 형제들 뭐 한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장가 들어 가지고 사는 걸 뭐 여태.}

10216 # 고 이장덜 집쩌태가 바로 우리 시동생네 지비유. {그 이장들 집 곁에가 바로 우리 시동생네 집이에요.}

10216 # 그래서 머 그냥 머 별 저기 읍씨 그냥 우리넌 그냥 순퍼나게 사라가유. {그래서 뭐 그냥 뭐 별 저기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순편하게 살아가유.}

10216 @ 그것도 복이시지요.

10216 # 야:. {예.}

10216 # 그리여, 머 우리 시동생이 형수라면 껌빠카구 머 어려서 시지뵈써도 그냥 누이마냥 츠:메 장가 들기 저네 이르게서. {그래요 참 뭐 우리 시동생이 형수라면 껌빠하고 그래서 시집 와서도 그냥 누이처럼 처음에 장가 들기 전에 이렇게 해서.}

10217 @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집살이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10217 # 요즘 절문 사람더리 무슨 시집싸릴 하거써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시집살이를 하겠어요.}

10217 # 몰르거써 난 그러거, 이 동네넌 머 절문 사람덜 시집싸리하구 이라넌 사람 읍씨. {모르겠어 난 그런 것, 이 동네는 뭐 젊은 사람들 시집살이하고 이러는 사람 없어.}

10217 # 자기네 자유로 사녕걸, 뭇 시집싸리릴 하. {자기네 자유로 사는 걸, 뭇 시집살이를 해.}

10217 @ 며느님이 셋이잖아요, 며느님들이 어떻게 자주 오시나요? 여기 청주, 둘째는 자주 오겠네요?

10217 # 둘째가 더:자주 모:되유, 바쁘다구 허허허허. {둘째가 더 자주 못 와요, 바쁘다고

허허허허.}

10217 @ 일이 많아서.

10217 # 그 사시 하러 댕기니까, 어 실랑이 가면 풍꾼 하나라도 들: 살라구 지가 따라 댕기구 그래서. {그 새기 하러 다니니까, 어 신랑이 가면 품팔이꾼 하나라도 덜 사려고 저가 따라 다니고 그래서.}

10217 # 더 자주 모:도구, 공주 인는 아는 인제 주일랄 노:년날 오고, 또 강안도 인년 아더른 인저 처뤄닌데 전방아녀, 거기. {더 자주 못 오고, 공주 있는 애는 이제 주일랄 노는 날 오고, 또 강원도 있는 아들은 이제 철원인데 전방 아니야, 거기.}

10217 # 너머 멀리 이쓰니까 일러네 그저 생일때 오고, 추석명절 슬:명저레 오고, 지:사때 오고 이러케나 오지 머, 기냥 저:나만 자주 해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일년에 그저 생일 때 오고, 추석 명절 설 명절에 오고, 제사 때 오고 이렇게나 오지 뭐, 그냥 전화만 자주 해요.}

10217 # 비와도 하고 그저 어때도 하고, 장: 즈: 아버지가 저러케 시언차느니까 그제 걱정이 되:서 그냥. {비 와도 하고 그저 어때도 하고, 항상 자기 아버지가 저리 시원찮으니까 그제 걱정이 되어서 그냥.}

10202 @ 여러 해 편찮으신가봐요, 한 십년 되셨다고 그러네.

10202 # 한 십년저네 내추럴루 다: 도러가신다구 해썬넌데, 어티게 그러도 참, 안도러가시구 사라나서 그질루 저러케 선차넌데 또 장년:: 네 바라미 또 한번 이러썬썬유. {십 년 전에 뇌출혈로 다 돌아가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참 안 돌아가시고 살아 나서 그 길로 저렇게 시원찮은데 또 작년에 바람이 또 한번 일었었어요.}

10202 # 그레가주구서 아주 한쪼근 이르케 팔다리 거러댕겨두 시미 움썬 저뽴질두 잘 모타구 그랴, 지금. {그레 가지고서 아주 한 쪽은 이렇게 팔 다리 걸어 다녀도 힘이 없어서 젓가락질을 잘못하고 그레, 지금.}

10202 # 그레 이럴 통 모타자너. {그래서 일을 통 못 하잖아.}

10202 @ 아이 뭐 이제 연세도 드셨는데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쉬엄쉬엄 놀면서 하셔야지. 젊으셨을 때 많이 했잖아요?

10202 # 마니마니 하썬썬유, 농사만 지꾸 사러쓰니까. {많이 많이 하썬썬유, 농사만 짓고 살았으니까.}

10218 @ 할머니도 저기 회갑잔치 하썬썬유?

10218 # 나넌, 하라버지만 하구. {나는, 할아버지만 하고.}

10218 @ 같이 하썬썬유?

10218 # 아니, 한살래가 자거 그 이드맨데, 내 생이른 스:딸 수무이튼나린데. {아니, 한 살내가 적어 그 이듬해인데, 내 생일은 선달 스무이튼날인데.}

10218 # 우리 어떤니미 동지딸: 보름날 도러가썬썬, 예레썬날에 참 저기 열리렌날 도러가썬썬 그래서 예레썬날 지:사여. {우리 어머님이 동짓달 보름날 돌아가썬썬, 열엿썬날이 참 저기 열이렛날 돌아가썬썬 그래서 열엿썬날이 제사야.}

10218 # 그러니까 위트게 초상썬제, 엔:나레넌 상제 소복카게 해:짜너, 그르데 위티게 초상썬제가 향:갑잔치럴 할썬가 이썬. {그러니까 어떻게 초상썬제, 옛날에는 상제 소복하게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초상 상제가 환갑 잔치를 할 수가 있어.}

10218 # 그래서 나는 모:태썬썬유. {그래서 나는 못 했어요.}

10218 # 그래서 난 그 대시네 애:더리 저: 동나마 외:구걸 보내썬썬: 그레 구경가따와썬 그

냥, 항:갑잔치 아나구. {그래서 난 그 대신에 애들이 저 동남아 외국을 보내줘서
그래 구경 갔다 왔어 그냥, 환갑잔치 안 하고.}

10218 @ 그게 더 낫지 않아요?

10218 # 예. {예.}

10218 # 에헤 구경 잘 하구와써 허, 그리여 허허허 그리유 조아. {허허 구경 잘 하고 왔어
허, 그래 허허허 그래유 좋아.}

10218 # 지금두 그때가 한 십년 너머써두 그때 가따온 생개기 나. {지금도 그때가 한 십
년 넘었어도 그때 갔다 온 생각이 나.}

10218 # 그때 또. {그때 또.} @ 동남아 어디 갔다 오셨어요, 태국?

10218 # 야. {예.}

10218 # 아흐레: 일정으루 가따완넌데, 말레시아, 싱:가폴 그런데 아흐레똥안 다녀와써유.
{아흐레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런 데 아흐레 동안 다녀
왔어요.}

10218 @ 언제 또 가보시겠어요? 가기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도.

인제 모까유, 이제 모까, 예. {이제 못 가요, 이제 못 가, 예.}

10218 @ 저도 거기 못 가봤어요.

10218 # 모까, 참: 거기넌 가니께 깨끄타구 말레시아능 가니께 교통승경두 읍떠라구, 그때
가두. {못 가, 참 거기는 가니까 깨끗하고 말레이시아는 가니까 교통순경도 없더
라고, 그때 가도.}

10218 @ 할아버지 회갑 잔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10218 # 지비서 해써유, 지베서.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10218 @ 집에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잔치하는 것도 절차가 있잖아요.

10218 @ 야:, 이르케 인저 상, 골::고루 음식캐가주구 이르케 상 고여노코, 인제 자손더리
절하구, 인제 손님덜 초대해가주구서 먹꾸 노능거지유 해잘. {예, 이렇게 이제 상
골고루 음식 해 가지고 이렇게 상 고여 놓고, 이제 자손들이 절 하고, 이제 손님
들 초대해 가지고서 먹고 노는 것이지요 해지도록.}

10219 @ 잔치 때는 음식을 주로 뭘 해요?

10219 # 다: 하늘겨, 머 떡카고 고기 하고 적뿌치구 머, 과:일 사구 먼: 항:갑잔치 할라면
다: 해유. {다 하는 거야, 뭐 떡 하고 고기 하고 적 부치고 뭐, 과일 사고 뭐 환갑
잔치 하려면 다 해요.}

10219 # 지:사 지내능 거 마냥 다:: 해서 노코 상에다 이리케 차려노코, 엔:나레는 이:러케
노프게 고여와 한자상언, 큰::상, 주물쌍언 인제 요만치 고이닝거. {제사 지내는
것처럼 다 해다 놓고 상에다 이렇게 차려 놓고, 옛날에는 이렇게 높게 고여 놔
[*]상은, 큰 상, [*]상은 이제 요만큼 고이는 것.}

10219 # 그르케서 인제, 그거 고일라면 지비서 메::치럴 고이야 해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고이려면 집에서 며칠을 고여야 해요.}

10219 # 잔:거통거, 호두거통거 고일라면 머 그거. {жат 같은 것, 호두 같은 것 고이려면 뭘
그거.}

10219 @ 그거 어떻게 고여요, 잘아서?

10219 # 고여유, 그래도. {고여요, 그래도.}

10219 # 고이는 선수더리 일써, 고여. {고이는 선수들이 있어, 고여.}

10219 # 다:: 이르게 그냥 고이자너, 이르게. {다 이렇게 그냥 고이잖아, 이렇게.}

10219 @ 글씨도 쓰더라고요.

10219 # 예, 이러케서 이만큼 고여가주구서, 죽:: 노쿠서 인저 자손더리 저라지. {예, 이렇게 해서 이만큼 고여 가지고서, 죽 놓고 이제 자손들이 절 하지.}

10219 @ 그 때 손님들 초대 하잖아요? 그 손님들한테는 어떤 음식을 줘요?

10219 # 그때 인저 떠꼭카는 지븐 그른 잔치 음식, 저 안주점씨 내가구서 인저 대지 자꾸 이래가주구서 인제 해가주구. {그때 이제 떡국 하는 집은 그런 잔치 음식, 저 안주 점씨 내 가고서 이제 돼지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 가지고.}

10219 # 떠:꼭카넌 지븐 떡꾸구루 하구, 인저 국쑤잔치 하넌 지븐, 주로 보며넌 국쑤잔치 하구:, 가:레넌 떡꼭카구, 그러케. {떡국 하는 집은 떡국으로 하고, 이제 국수잔치 하는 집은, 주로 보면 국수잔치 하고, 가을에는 떡국 하고, 그렇게.}

10219 @ 결혼식 때도 음식...

10219 # 그르치유, 잔치하지유. {그렇지요, 잔치하지요.}

10219 # 겨론식때두 인저 국쑤해서 쌀머내구, 손님덜. {결혼식 때도 이제 국수해서 삶아 내고, 손님덜.}

10219 @ 오래 살라고 국수 준다면서요?

10219 # 해해해, 그르태유. {해해해, 그렇대요.}

10219 @ 회갑상에 차리는 음식들은 뭐예요? 아까 잣, 호두 뭐 이런 거.

10219 # 과:일 점부여, 능금 배: 밤: 대추 꼬깸 다:유. {과일 전부야, 사과 배 밤 대추 꽃감 다예요.}

10219 # 머 인저, 떡뚜 머 이지가지 다하지 머. {뭐 이제, 떡도 뭐 이거 저거 다 하지 뭐.}

10219 # 인절미 머 편떡, 퍼넌 머 틀루 편틀 이짜너, 막때기루 짜가주구 이러케 고이넌거, 편. {인절미 뭐 편떡, 편은 뭐 틀로, 편틀 있잖아, 막대기로 짜 가지고 이렇게 고이는 거, 편.}

10219 # 먼 별거 다해야, 약파 머. {뭐 별거 다해, 약과 뭐.}

10219 # 자간 멍넌진 다:한, 자라넌덴 다: 해 놔:유. {좌우간 먹는 거 다 해, 잘 하는덴 다 해 놓아요.}

10219 @ 그렇게 해 가지고 잔치가 끝나면 그거 먹나요?

10219 # 예. {예.}

10219 # 허러서, 야, 시꾸더리 시꾸더런 멍넌게 아니라. {헐어서, 예, 식구들이 식구들 먹는 게 아니라.}

10219 # 인저 그거 허러가주구서 잔치해서 손님상에 대접파능겨, 마:가주구. {이제 그거 헐어 가지고서 잔치 해서 손님 상에 대접 하는 거야, 모아 가지고.}

10218 @ 진갑 때는 어떻게 해요?

10218 # 징:갑때넌 그냥 식꾸찌리 이르게 밥패서 먹찌유 머. {진갑 때는 그냥 식구들끼리 이렇게 밥 해서 먹지요 뭐.}

10218 @ 환갑 다음해가 진갑이죠?

10218 # 예 예, 다으매가. {예 예, 다음해가.}

10218 @ 그러면 저기 칠순 때는요, 고희라고 그러지요?

10218 # 칠쑤 잔치두 하넌데 우린 안:해씨유, 칠쑤잔치. {칠쑤잔치도 하는데 우리는 안 했어요, 칠쑤잔치.}

10218 # 우리집느이가 그때 막 병이 나서 모:태씨유. {우리집 이가 그때 막 병이 나서 못 했어요.}

10220 @ 이제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잖아요?

10220 # 네. {예.}

10220 @ 그러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10220 # 야. {예.}

10220 @ 사람이 죽으면 장례 치르는 절차가 있잖아요.

10220 # 아이구 왜 이르케 저:나가 자:꾸 와, 여보세유? {아리고 왜 이렇게 전화가 자꾸 와, 여보세유?}

10220 # 암 머거, 암 멍녕다 그래유, 치우라 구래유. {안 먹어, 안 먹는다고 그래요, 치우라고 그래요.}

10220 @ 진지 드시러 가져야 되는가 보네요?

10220 # 아이 아 아 암머거두 대유, 바쁜데 얼렁 얘기하시구 가야지, 대꾸 오시면 디야. {아니 아아 안 먹어도 돼요, 바쁜데 얼른 얘기하시고 가야지, 자꾸 오시면 돼.}

10220 @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제가 저기 가만히 있어어요. 지금 또 안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10220 # 아:녀, 갠차너:. {아니요, 괜찮아.}

10220 @ 다섯 시 반밖에 안됐네요.

10220 # 예 그르니께 그췌 이따 머거두 되니께 갠차너유. {예 그러니까 글세 이따가 먹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10220 # 상 치우라구라능겨 내가, 여러시 인넌데 꽤:니 상 놔:두구 이쓰께배. {상 치우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여럿이 있는데 괜히 상 놔두고 있을까봐.}

10220 @ 제가 그러면 따로 저 보신탕 좋아하셔요?

10220 # 아이구 시러유. {아이고 싫어요.}

10220 @ 아니아니.

10220 # 암 머거, 나. {안 먹어, 나.}

@ 그거 드실 줄 알아요?

10220 # 암 머거 암 머거, 암 머거유.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10220 # 이가 아파서 머 먹뚜 모타. {이가 아파서 뭐 먹지도 못해.}

10220 @ 이 아프면 그림 물론 것 먹으면...

10220 # 아:니유, 암 머거유, 꽤니 그른 소리는 하시지 마러유. {아니요, 안 먹어요, 괜히 그런 소리는 하시지 말아요.}

10220 # 그췌 시러 나는, 암 머거유 암 머거. {글췌 싫어 나는, 안 먹어요 안 먹어.}

10220 # 아이구 그런 소린 하시지마, 왜 그거 뭐 그거 대답파는데 무슨 그렇거럴 그러셔. {아이고 그런 소리는 하시지 마, 왜 그거 뭐 그거 대답 하는데 무슨 그런 것을 그러시어.}

10220 @ 여기 보니까 저 입구에 잘 하는 집 있던데요.

10220 # 아이구 그렇건 신경쓰시지 말구, 그르케 하시능겨 아니여. {아이고 그런 것은 신경 쓰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10220 @ 아니 제가 며칠 와서 물어볼라 그러니까 그렇지 뭐.

10220 # 아 뭇:, 대꾸할 얘:기가 이씨야 해:디리지. {아 뭇, 대꾸할 얘기가 있어야 해 드리

지.}

10220 @ 자꾸 하잖아요.

10220 # 인제 움:짜너, 다 해짜너. {이제 없잖아, 다 했잖아.} @ 왜요 인제...

10220 @ 아 이제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 지도 물어봐요지.

10220 # 주거, 주거쓸때 그췌 우리는 저기, 우리 아번님 우리 어먼님 도러가셔서. {죽어, 죽었을 때 글췌 우리는 저기,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돌아가셔서.}

10220 # 얼릉 내가 얘기 다 해디리게. {얼른 내가 얘기 다 해 드릴게.}

10220 # 도러가셔서 여그서 장사 지내췌. {돌아가셔서 여기서 장사 지냈어.}

10220 # 지금더리닝께 병워네 가지, 누가 병워네 가췌 그저네야, 병워네 가면 객싸라구덜 해췌, 음. {지금들이니까 병원에 가지, 누가 병원에 갔어 그 전에야, 병원에 가면 객사라고들 했지, 음.}

10220 # 그래서 요그서 인저 장사 모시구서 사밀마네 장사 지내구 인제, 날짜 봐:서 인저 또 그나리 인저 멸망이리 단년다딘지 하먼 모:까구서 오:일마네 하자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사를 모시고서 삼일 만에 장사 지내고 이제, 날짜 봐 가지고서 이제 또 그 날이 이제 [**]일이 단는다든지 하먼 못 가고서 오일 만에 하잖아.}

10220 # 오:일마네 해서 장사 지내구 인저, 장사 모시구서 인저 구연 해노차너. {오일 만에 해서 장사 지내고 이제, 장사 모시고서 이제 퀘연 해 놓잖아.}

10220 # 그래서 인저 엔:나레는 삼녀닐 꼭: 끄냥 밥 떠다노코 그냥 안 초아루 보루무루 인저 고카구.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삼년을 꼭 그냥 밥 떠다 놓고 그냥 아 초하루 보름으로 이제 꼭하고.}

10220 # 그랜는데 우리넌, 인저 그때부트먼 또 개명이 되:서 우리 아번님 도러가셔서 일련 생바께 아내췌, 일련.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또 개명이 되어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일련 상 밖에 안 했어, 일련.}

10220 # 일련만 인저 구연 해노코서 인저 거기 아침저녁 인저 밥 떠다노코. {일련만 이제 퀘연 해 놓고서 이제 거기 아침 저녁 이제 밥 떠다 놓고.}

10220 # 초하루 보루무루는 인저, 짐:, 조기 인저 지사 지내능거맨 차려노코 인저 점부 건 쓰구 인저 상온넙꾸 이르카구서 고카구 그러카능거여. {초하루 보름으로는 이제, 김, 조기 이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차려 놓고 이제 전부 건 쓰고 이제 상복 입고 이렇게 하고서 꼭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10220 @ 요새는 일련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 인제 그래, 응? {이제 그래서, 응?}

10220 @ 요새는 일련...

10220 # 지그른 일려는 구만두구 하루두 안 해유. {지금은 일련은 그만 두고 하루도 안 해요.}

10220 # 우리 어먼님 도러가셔서넌 안:해췌유. {우리 어머님 돌아가셔서는 안 했어요.}

10220 # 우리가 인저 우리 아번님 도러가시구서 저레덜 우리가 극:찌니 다녀췌췌, 저기 저 백췌췌레덜, 그랜네테.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절에 극진히 다녔었어, 저기 저 백숙절에를, 그랬는데.}

10220 # 저레덜 메췌녀닐 땡겨바도 어췌 당:체 별무신통거떠라구 마:메. {절에 몇 십 년을 다녀봐도 어췌 당최 별무신통 같더라고 마음에.}

10220 # 그래서루 교회루 나가췌 교회, 그래서루 우리 어먼님 도러가셔서는 머 일러니구 머 그렇거뚜 읍췌췌, 안 해췌. {그래서 교회로 나갔어 교회, 그래서 우리 어머님

돌아가서서는 뭐 일년이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 안 했어.}

10220 # 그냥 민년시그루다 그냥 예배디리구 장:네모시구 이러케 해찌. {그냥 믿는 식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장례 모시고 이렇게 했지.}

10220 @ 교회로 하면 더 간단하게 하지요?

10220 # 예. {예.}

10220 @ 그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초종 습한다고 하지요? 염습?

10220 # 예. {예.}

10220 @ 소렴, 대렴 뭐 이러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220 # 그렇긴 몰르구, 소렴 대려든 난 몰르구. {그런 건 모르고, 소렴 대렴은 난 모르
고.}

10220 # 염습 짬썰 때넌 인저 수:이 해느차너, 수:이. {염습 잡주실 때는 이제 수의 해 넣
잖아, 수의.}

10220 @ 예.

10220 # 깨:꼬타게 인저 씨꾸서루 수이온 이피구 인저, 그라고 인저 이불 인저 요 인저 이
렇거 깔구서, 수:이 해늘째 그렇거뚜 다: 이짜너요? {깨끗하게 이제 씻고서 수의옷
입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불 이제 요 이제 이런 것 깔고서, 수의 해 넣을 때
그런 것도 다 있잖아요?}

10220 # 그래서 싸가주구서넌 일곱매끼 이르케 무꺼 가지구서 과네 너:가주구서 인저, 머
아렴모게 게:시구 평풍 처노쿠 이르케 이따가 인저 나가년날 나가지유. {그래서
싸 가지고서 일곱 매듭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 관에 넣어 가지고 이제, 뭐 아랫목
에 계시고 병풍 쳐 놓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가는 날 나가지요.}

10220 @ 여름에는 안 좋겠어요?

10220 # 여름메, 예, 그러. {여름에는, 예, 그래.}

10220 @ 성복, 성복한다고 하나요? 뭘 성복한다 그래요?

10220 # 성복카년, 성고칸다, 그거 생가기 안나네 나두, 성곡카능게. {성복하는, 성복한다,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나도, 성복하는 게.}

10220 @ 저기 저 그러니까 염습 잡숫기 전에 옷 입는 게 다르던데요. 그렇지요? # 야, 야.
{예, 예.} @ 염습 잡숫고 나서 입은 거 하고, 그 전에가 다르잖아요.

10220 # 그저네넌 두루매기만 이르키, 인저 하나 어깨에다 메:구서 이르케 오꺼름, 한:쪽
어깨넌 안넙꾸 한쪽만, 한쪽팔만 꺼서 이르케 두루매기 입짜너? {그전에는 두루마
기만 이렇게, 이제 하나 어깨에다 메고서 이렇게 옷 한쪽 어깨에는 안 입고 한쪽
만, 한쪽 팔만 이렇게 두루매기 입잖아?}

10220 # 그르케 상주덜 얘기하녕거 아니유? {그르케 상주들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10220 # 그르카구 이따가 인제 염십 잡쑤꾸 나면 인제 제대루 임능겨, 바루, 인저 상오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염습 잡숫고 나면 이제 제대로 입는 거야, 바로, 이제
상복을.}

10220 # 엔:나레더런 삼베루 다: 해 이버짜너? {옛날에들은 삼베로 다 해 입었잖아?}

10220 # 그르가구 건쓰구 인저 테두리 이르케 지부루 동아바 파:서 여자덜 이르케 테두리
하구 상:온넙꾸, 그르카닝 거지유. {그렇게 하고 건 쓰고 이제 테두리 이렇게 짚으
로 동아 파서 여자들 이렇게 테두리 하고 상복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10220 @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 놓으면 남들이 와서 조상한다고 하나요, 문상 한다고 하

나요?

10220 # 예, 예, 예 조상. {예, 예, 예 조상.}

10220 # 인제 그럴때년 인제 아들레더리, 여자는 아난꾸 아덜레만 조기 안저가주구서 인제 상제 오면, 이제 상제덜 소니덜 반넌거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아들이, 여자는 안 앓고 아들들만 저기 앓아 가지고 이제 상주 오면, 이제 상주들 손님을 받는 거지.}

10220 # 인제 이러케 서루 인사하구 절 하구, 으一口: 잡쑤끼 저네는 인제 저럴 아나녕거구 인제 으一口: 잡쑤꾸 나면 저럴 하녕거지. {이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절 하고, 염습 잡쑤기 전에는 이제 절을 안 하는 것이고 이제 염습 잡쑤고 나면 절을 하는 거지.}

10220 @ 누구하고 어떻게.

10220 # 상제찌리, 상제를 보구. {상주끼리, 상주를 보고.}

10220 @ 그러니까 염 잡쑤기 전에는 그 문상 온 사람하고 상주하고 절을 안 하고? # 으. {응.}

10220 @ 염 잡쑤고 나면 절을 하고?

10220 # 으 음, 저럴 하구. {응 응, 절을 하고.}

10220 # 그냥 이러케 인사만 하지, 저런 안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지, 절은 안 하는 것.}

10220 @ 그러면 염 잡쑤기 전에는 옷도 이제 한쪽만 그러면서 절도 안하고? # 어 어, 예 예, 예. {응 응, 예 예, 예.}

10220 # 그냥 이르게 서로 인사만 하구 허리만 [xx] 그르카고서네 인제. {그냥 이렇게 서로 인사만 하고 허리만 [**]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10220 @ 그리고 인제 날짜가 되면 산으로 갈 것 아니예요? # 예. {예.} @ 고건 또 어떻게 해요, 절차가?

10220 # 뭐: 사네루 인진, 마당에 인진 내:다가 인제 행여 가파노쿠 그리 모셔노쿠서넌 인제 바른제 지내자너, 안 민넌 사람더런. {뭐 산으로 이제, 마당에 이제 내다가 이제 상여 갖다 놓고 그리 모셔 놓고서는 이제 발인제 지내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10220 # 또 차려노코, 행여 아페다 음식 차려노코 거기서 또 지:사 지내요. {또 차려 놓고, 상여 앞에다 음식 차려 놓고 거기서 또 제사 지내요.}

10220 # 고카구 인제 이러케 절하고 인제 지반네덜 모:두 거기서 다: 절덜 하고, 이러카구 인제 치우구서 행여가 떠나능겨. {곡 하고 이제 이렇게 절 하고 이제 집안네들 모 두 거기서 다 절들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치우고 상여가 떠나는 거야.}

10220 @ 그걸 무슨 제라고 한다고요?

10220 # 바른제. {발인제.}

10220 @ 바른제?

10220 # 응, 바른제. {응, 발인제.}

10220 @ 가다가 이제 가다가도 중간에 쉬어서 절 하고 그러잖아요?

10220 # 돈: 내라 구라능겨, 그건. {돈 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은.}

10220 # 무슨 절차가 이써 하녕게 아니라, 인제 미:구가는 행여군더리 돈뜨더 넬라구. {무슨 절차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메고 가는 상여꾼들이 돈 뜯어 내려고.}

10220 # 다리가 이썬두 저 시:구, 또랑이 이썬두 시:구, 고개티가 이썬두 시:고. {다리가 있어도 저 쉬고, 도랑이 있어도 쉬고, 고개티가 있어도 쉬고.}

10220 # 인저 돈좀 나올만한 지번 더 시 그러케 장나널 치구:, 인저 행편 어려워서 돈 마니 몬나올 찌번 그냥 간파나게 하구 가구, 그건 그냥 장나나능겨, 저기더리. {이제 돈 좀 나올 만한 집은 더 세 그렇게 장난을 치고, 이제 행편 어려워서 돈 많이 못나올 집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가고, 그건 그냥 장난 하는 거야, 저기들이.}

10220 # 그라구 인저 도리가서서 인저 줌 돈: 줌 이꼬 한 사람더런 인저 대떠리 한다구 인저 바메, 신체 방에 이썬 때 인제 마당에서 빈 들테릴 메:구서넌 인저 오호팔랑 하면서, 그거거뚜 인저 돈: 울구느라구 그라능겨.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서 이제 줌 돈 좀 있고 한 사람들은 이제 대떨이 한다고 이제 밤에, 신체 방에 있을 때 이제 마당에서 빈 들테를 메고서는 이제 오호팔랑 하면서, 그것도 이제 돈 우리느라고 그러는 거야.}

10220 # 그르카몬 또 도:늘 봐야 햐. {그렇게 하면 또 돈을 봐야 해.}

10220 # 상주더리 저릴 하고 도:닐 봐야 햐, 거가. {상주들이 절을 하고 돈을 봐야 해, 거기 가서.}

10220 @ 아 그 전날 저녁에?

10220 # 음. {응.}

10220 # 그르케 인저 그거 인제 장나 하느라구 하능겨, 무슨 머 버비 이썬 하능게 아니구, 절차가 이썬 하능게 아니구 그냥 그러케 해서 장난 하느라고. {그렇게 이제 그거 이제 장난 하느라고 하는 거야, 무슨 뭐 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장난 하느라고.}

10220 @ 그러면 그때 상여 메는 사람은 몇 명이나 메어요?

10220 # 열뚜 군정이라구 하넌데 메싸라미 메:는지 자시: 몰르건네. {열뚜 군정이라고 하는데 몇 사람이 메는 지 자세히 모르겠네.}

10220 # 열:똥두 메:구, 여덜두 메:구, 양쪽 이르게 서서 메:니께 대개 열똥 며:. {열둘도 메고, 여덟도 메고, 양쪽 이렇게 서서 메니까 대개 열둘 메어.}

10220 # 부자더런 인저 다:, 그르케 행여 미는 이덜두 인저 [x]거리마냥 인저 광:모그루 해서 이피구 하넌 사람두 이꾸. {부자들은 이제 다, 그렇게 상여 메는 이들도 이제 [*]거리처럼 이제 광목으로 해서 입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220 # 또 저기하넌 사람더런 그냥두 하구. {또 저기하는 사람들은 그냥도 하고.}

10220 @ 그 앞에서 중 딸랑딸랑 하면서 앞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 야, 야. {예, 예.}

10220 # 하도 그걸 아내서 몰르건네. {하도 그것을 안 해서 모르겠네.}

10220 # 선소리 메긴다구 해능겨, 선소리, 선소리꾸니여. {선소리 메긴다고 하는 거야, 선소리, 선소리꾼이야.}

10220 @ 선소리 메기는 사람?

10220 # 선소리꾸니여. {선소리꾼이야.}

10220 @ 선소리꾼?

10220 # 야, 그르카는 사람. {예, 그렇게 하는 사람.}

10220 @ 요령?

10220 # 요량, 요량재비. {요령, 요령잡이.}

10220 @ 요령잡이?

10220 # 예 요량재비가 선소리 메기능겨. {예 요령잡이가 선소리 메기는 거야.}

10220 @ 뭐라고 해요, 그럴 때는?

10220 # 아 인저 자기 의견대루 하더라구유. {아 이제 자기 의견대로 하더라고요.}

10220 # 머 저승찌리 멀다더니 머 대문바끼 저승이라구 하구 머. {뭐 저승길이 멀다더니 뭐 대문 밖이 저승이라고 하고 뭐.}

10220 # 그르케 저르케 그릉 걸 하드라구. {그렇게 저렇게 그런 것을 하더라고.}

10220 @ 그거 이렇게 들어보면 참 구성지고 좀... # 음. {응.}

10220 # 그래서 거 모 목소리 조은 사람더리 하자너, 대개. {그래서 거 모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하잖아, 대개.}

10220 # 자라는 사람더리, 선소리 메기년 사람더리. {잘하는 사람들이, 선소리 메기는 사람들.}

10220 @ 동네에 한 사람씩 있지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10220 # 예, 옴:나네더런 중인더리 헨넌데 지그면 머 그게 머 다: 저기 아냐. {예, 옛날에 들은 중인들이 했는데 지금은 뭐 그게 뭐 다 저기 아냐.}

10220 # 옴:나레더런 중인더런 시:배두 방에 드러와 아나구 저 뜨렁 미테서 하더라구유. {옛날에 들은 중인들은 세배도 방에 들어와 안 하고 저 뜨렁 밑에서 하더라고요.}

10220 # 그르케써, 옴:나레더런. {그렇게 했어, 옛날에 들은.}

10220 @ 소상, 대상이라는 게 뭐예요?

10220 # 소상 대상언, 저 일련 하녕건 소상이라구 하구, 삼년상 가통건 대상이라구 하구. {소상 대상은, 저 일련 하는 건 소상이라고 하고, 삼년상 같은 건 대상이라고 하고.}

10220 @ 일련 하고 그 다음에 그치는 거예요, 아니면 일련째를 소상이라고 그러고.

10220 # 예, 일련 인저 지:사 지내면 소상, 대상은 인제 삼년, 이태 하느면 삼년니라구 하능겨. {예, 일련 이제 제사 지내면 소상, 대상은 이제 삼년, 이태 지나면 삼년이라고 하는 거야.}

10220 # 인제 도러가시구 함번 도러와서 인제 그해 하구, 그 이드매 하몬, 도러가시든 해꺼지 삼년나너, 그라니께. {이제 돌아가시고 한번 돌아와서 이제 그 해 하고, 그 이듬해 하면, 돌아가던 해까지 삼년 아냐, 그러니까.}

10221 @ 그래가주구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10221 # 예. {예.}

10221 @ 어떻게 알려요?

10221 # 부고라구 하구, 부서라구 하지. {부고라고 하고, 부서라고 하지.}

10221 # 인저 글씨 써가주구 봉투에다 써가주 바거가주구 인저 봉투해서, 옴:나레넌 다:: 사람더리 가주구 댕기메 돌려짜너, 부고짱얼. {이제 글씨 써 가지고 봉투에다 써 가지고 박아 가지고 이제 봉투에 넣어서,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며 돌렸잖아, 부고를.}

10221 # 근데 지금더런 머 누가 그르케 하, 그냥 저와하구 그르카지 다. {그런데 지금들은 뭐 누가 그렇게 해, 그냥 전화하고 그렇게 하지 다.}

10221 # 옴:나레는 머 아주 저 사람 한 도러가시구 나면 머 청년더리 죽: 나서찌, 그거 돌루러 댕기느라고 동네마도 다 돌로너라고. {옛날에는 뭐 아주 저 사람 하나 돌아

가시고 나면 뭐 청년들이 죽 나섰지, 그거 돌리러 다니느라고 동네마다 다 돌리느라고.}

10221 @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조문 온다고 해요, 조상 온다고 해요? # 예, 예. {예, 예.}

10221 # 조상 온다구두 하구 조문 온다구두 하구, 그르케 해유. {조상 온다고도 하고 조문 온다고도 하고, 그렇게 해요.}

10221 @ 어떻게 해요,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221 # 오면 그췌 와서 인제 여 와서 그르케 저기 하능겨, 서루 인제 인사 하능겨, 조문 오면, 조문 간다구 하자너, 사람더리. {오면 글췌 와서 이제 여기 와서 그렇게 저기 하는 거야, 서로 이제 인사 하는 거야, 조문 오면, 조문 가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10221 # 그르카믄 인제. {그렇게 하면 이제.}

@ 상주한테만 인사하는 거예요?

야, 그르카능겨여 상주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야 상주한테만.}

10221 # 인저 상주한테만 하구, 또 가까운 지반더런 인저 방에 드리워서 인저 하구. {이제 상주한테만 하고, 또 가까운 집안들은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하고.}

10221 # 다른 사람드리야 인저 다: 한데서 먼저 상주만 보고 가녕거지. {다른 사람들이야 이제 다 바깥에서 먼저 상주만 보고 가는 거지.}

10220 @ 그래서 이제 아까같이 관을 내서 행여에 메고 가잖아요?

10220 # 예. {예.}

10220 @ 해여를 메고 가면 산으로 가잖아요?

10220 # 예. {예.}

10220 @ 그럼 거기 파 났잖아요?

10220 # 예. {예.}

10220 @ 거긴 뭐라고 해요?

10220 # 광:중 진녕거. {광중 짓는 거.}

10220 @ 광중 짓는다고 그래요?

10220 # 어 어. {응 응.}

10220 @ 거기다가 보니까 관을 넣고 나서 또 뭐 절차가 있대요?

10220 # 그러면뉴, 인저 저기 온 온 온나무 온나무. {그럼은요, 이제 저기 옷 옷 옷나무 옷 나무.}

10220 # 그거 인저 쪼개가주구서 이르게, 족:: 거기다 노쿠서 인저, 그 뭐 이르게 머여 만 산가 그거 해가주강거 덕꾸서 인저 거기다 이르게. {그거 이제 쪼개 가지고서 이렇게, 죽 거기다 놓고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뭐야 만산가 그거 해 가지고 간 거 뒹고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10220 # 과닐 빼넌 사람두 이꾸, 안뻔 판는 비쌍걸루 한 사라면 인저 그냥 이르게 느꾸, 또 관 나뻔 걸루 해 간 사라면 인저 빼꾸. {관을 빼는 사람도 있고, 안 뻔 판 비싼 것으로 한 사람은 이제 그냥 이렇게 넣고, 또 관 나뻔 것으로 해 간 사람은 이제 빼고.}

10220 # 이르게 돌:루 하머넌 인저 거 도라네다. {그렇게 돌로 하면은 이제 그 돌 안에다.}

10220 @ 관을, 상여에 메고 간 관을 광중에다 넣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하관한다고 그래나요?

10220 # 예:. {예.}

10220 @ 하관하고 나서 덮고 흙도 붓고 그러잖아요?

10220 # 야, 인저 상주더리 질투한다구 하나원 그르케 하능거여, 그건. {예, 이제 상주들이 질투한다고 하나 원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은.}

10220 # 상주더리 인제 만쌍주서부터 인제 서너번씩 이르게 떠느:짜너, 그러카능거여. {상주들이 이제 만상제부터 이제 서너번씩 이렇게 떠 넣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10220 @ 그걸 뭐 한다고 그런다고요?

10220 # 아휴 질투라가 뭐, 나도 뱅뱅 도라두 이저버려써유, 질투라구 하딩가 원. {아유 질투라던가 뭐, 나도 뱅뱅 돌아도 잊어 버렸어요, 질투라고 하던가 원.}

10220 # 머여 자관, 이저버려써, 생가기 안나. {뭐야 좌우간, 잊어 버렸어, 생각이 안나.}

10220 # 상투하, 상토했, 상토했, 상 아니여 질투 아니, 상통가, 향통가 그려. {성토, 성토했, 성토 한, 성토 한, 상 아니야 질투 아니야, 성통가, 성토인가 그래.}

10220 # 상토했다 구라지 아마. {상토했다 그러지 아마.}

10220 @ 그렇게 해서 흙을 조금 뿌리고 나서 그담에 인제 흙을 채우잖아요?

예. {예.}

@ 밟지요?

예. {예.}

@ 그걸 뭐라고 해요? 밟으면서 또 뭐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뱅뱅 돌면서?

예. {예.}

10220 # 차이구 생가기 안나, 달 다지미, 달기호? {아이고 생각이 안나, 달 다집이, 달기호?}

10220 # 달기호년 드르갈 때 그라녕거 거터요, 드르갈, 모실 때. {달기호는 들어갈 때 그러는 것 같아요, 들어갈, 모실 때.}

10220 @ 광중으로 모실 때?

음 음. {응 응.}

10220 # 그건 지재미허딩가, 지재미허라구 하딩가 원 그르케 할끼여, 지지미허랑가 하딩가 원, 그르케 할껴. {그건 지재미허던가, 지재미허라고 하던가 원 그렇게 할 거야, 지재미허라고 하던가 원, 그렇게 할 거야.}

10220 @ 그래서 이렇게 발로 밟고 땅을 다지는 거지요?

10220 # 예. {예.}

10220 @ 한 그거 한 두어 번 다지잖아요, 이렇게? 그때도 뭐 저기 또 봉투 내고 그러잖아요.

10220 # 야, 봉투 내:야지요. {예, 봉투 내야지요.}

10220 @ 그리고나면 크고 수북하게...

10220 # 야, 그르카구 떼 이피능겨. {예, 그렇게 하고 떼 입히는 거야.}

10220 # 수부:카게 싸쿠서년 인제 떼 이피능겨. {수북하게 쌓고서는 이제 떼 입히는 거야.}

10220 @ 그때 뭐라고 하는 지 아세요, 그 이렇게 밟을 때?

10220 # 그쵸, 지지미허라구 하딩가 뭐라구 히야. {글쵸, 지즈미허라고 하던가 뭐라고 해.}

10220 # 하닌데 난 잘 몰르거써. {하닌데 난 잘 모르겠어.}

10220 @ 그리고나서 그 떼 입히고 나면 그 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절 하고 이제 또.

10220 # 어 봉분지 인저 봉분지, 봉분지 지낸다구 하능겨. {어 봉분제 이제 봉분제, 봉분제 지낸다구 하는 거야.}

10220 # 거기두 인저 다 차려노쿠서 인저 또 지사 지내능겨여, 봉분제. {거기도 이제 다 차려 놓고서 이제 또 제사 지내는 거야, 봉분제.}

10223 @ 보통 때 그냥 우리가 제사 지낸다구 하는 거와는 다른 것이지요? 보통 때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때 돌아와서 제사 지내는 거.

10223 # 야, 인저 우리 할머니가 인제 동지딸 열리렌날 도리가신, 예레쎄날 열리렌날 도리가셔쎄. {예,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동짓달 열이렛날 돌아가셨, 열엿쎄날 열이렛날 돌아가셨어.}

10223 # 그라든 인저 예레쎄, 여 열리렌날 도리가셔쓰면 열, 열이렌날루 지내능 게 아니라, 여레쎄날루 산:날루, 사셔편 날루 지내능겨유. {그러면 이제 열엿새, 여 열이렛날 돌아가셨으면 열, 열이렛날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열엿새날로 산 날로, 사셨던 날로 지내는 거예요.}

10223 # 도리가신 나럴 지내능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날을 지내는 게 아니라.}

10223 @ 그걸 뭐라고 해요?

10223 # 그건 몰라, 그냥 지:사 지내능겨여. 응, 지:사 지낸다구 하지. {그건 몰라, 그냥 제사 지낸... 응, 제사 지낸다구 하지.}

10223 @ 기제사?

10223 # 어, 어, 긴 인제 기지사지. {어, 어, 기 이제 기제사지.}

10223 # 그르케 삼년상 아니구 그냥 지낸 지사는 기지사라구 하드라구유. {그렇게 삼년상 아니고 그냥 지낸 제사는 기제사라고 하더라고요.}

10223 @ 그러니까 삼년상을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내는 거는.

10223 # 기지사. {기제사.}

10223 @ 기지사. 기지사는 어디까지 지내요?

10223 # 대중 읍쎄요, 바루 지내는니, 하라부지 할머니꺼지만 지내는 사람두 이꾸, 고조할머이 고조하라부지꺼지만 지내구. {대중 없어요, 바로 지내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까지만 지내는 사람도 있고,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까지만 지내고.}

10223 # 엔:나레는 뭐 증:조 고조꺼지 다: 지내짜너, 지그몽 그르케 고조꺼지닌 지사 안 지내내벼, 시야루 시양으루 올라가구 그라지. {옛날에는 뭐 증조 고조까지 다 지냈잖아, 지금은 그렇게 고조까지는 제사 안 지내나봐, 시향으로 시향으로 올라가고 그러지.}

10223 @ 시향은 언제 해요?

10223 # 시향은 인저 날 바더서 시월따래. {시향은 이제 날 받아서 시월 달에.}

10223 # 시월따래 지내능 거 인제 시사 지내능 거고, 사멸따래 지내능 거 인저 한식차래 하녕거고. {시월 달에 지내는것 이제 시사 지내는 것이고, 삼월 달에 지내는 거 이제 한식 차래 하는 것이고.}

10223 @ 설날도 하잖아요?

10223 # 설라든 인저 지비서 하지유, 추성날두 지비서 하구. {설날은 이제 집에서 하지요, 추석날도 집에서 하고.}

10223 @ 그건 뭐라고 해요?

10223 # 그냥 며 명절 지사 지낸다구 그라드라구유. {그냥 뭐 명절 제사 지낸다구 그러더

라고요.}

10223 # 추성명저례 지사 지내구, 설: 명저례 지사 지내구 그란다구. {추석 명절에 제사 지내고, 설 명절에 제사 지내고 그한다고.}

10223 @ 한식 때 저기 산소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10223 # 그거 인저 한식차례 하는니는 따루:여. {그거 이제 한식 차례 하는 이는 따로야.}

10223 # 다 하능게 아니여 집집마다 다 하능게 아s이라, 인저 어트기 인저 자소나: 음:따거나 인저 오래된 조상이라거나 인저 어트기하면 한식차례루 이르게 하더라구유. {다 하는 게 아니야 집집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이제 자손이 없거나 이제 오래된 조상이라거나 이제 어떻게 하면 한식 차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10223 # 그냥 이르게 자손인는: 조상더런 한식차례루 안하더라구. {그냥 이렇게 자손 있는 조상들은 한식 차례로 안 하더라고.}

10224 @ 기제사는 어떻게 해요,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10224 # 기지사두 이른, 또까터유 그냥. {기제사도 이런, 똑같아요 그냥.}

10224 # 그르므뉴 다: 해야지, 떠카고 부치개 부치고 과:일 사고 머:. {그럼은요 다 해야지, 떡 하고 부침개 부치고 과일 사고 뭐.}

10224 # 다: 또까치 그르게 하녕거유.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224 # 짐: 자반 그거 사구, 조기, 또 명태루 이르게 포: 하구. {김 자반 그것 사고, 조기, ?또 명태도 이렇게 포 하고.}

10224 @ 그거 이렇게 올려 놓을 때 그 올려 놓는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10224 # 그러므유, 남자분더리 인저 다: 이러케 지:쌍 가따 노쿠서 인저 거기따가. {그럼은요, 남자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제사상 가져다 놓고서 이제 거기에다가.}

10224 # 과:이런 켈: 아피로 오고 인저 저건 그 뒤(단모음 '위')루 가고, 인저 채:소 또 고사리나물 이렇건 또 고리하구, 인저 떠건 또 고: 위(단모음 '위')루 노쿠. {과일은 제일 앞으로 오고 이제 적은 그 뒤로 가고, 이제 채소 또 고사리나물 이런 것은 또 그리로 하고, 이제 떡은 또 그 위로 놓고.}

10224 # 인전 논능거뚜 머 위:디루는 뭐 포릴 노코 어디루는 인저 머 다룽겔 노코 이르게 논능게 따루 이떠라구유. {이제 놓는 것도 뭐 어디로는 뭐 포를 놓고 어디로는 이제 뭐 다른 것을 놓고 이렇게 놓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10224 # 켈: 뒤(단모음 '위')에넌 인저 밥 국, 탕:꿍 인저 이거 노코, 잔때 노코. {제일 뒤에는 이제 밥 국, 탕국 이제 이거 놓고,잔대 놓고.}

10224 @ 그리고 나서는 또 절도 하잖아요?

10224 # 그럼 절 하지, 절 하고 인저 자손더리 잔부꾸 절하구 그라지. {그럼 절 하지, 절 하고 이제 자손들이 잔 붓고 절 하고 그러지.}

10224 @ 거기다가 뭐 써 붙이고 그런 것도 해요?

10224 # 야. {예.}

10224 # 안하는 집뚜 이찌만, 또 인저 그 저기 인저 그 냥반, 도라가신 냥반 명패. {안하는 집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저기 이제 그 양반, 돌아가신 양반 명패.}

10224 @ 그걸 뭐라고 해요, 뭘 쓴다고 하잖아요?

10224 # 으 그려, 몰라 나 응, 이저버려쎄. {응 그래, 몰라 나 잊어져 버렸어.}

10224 @ 지방?

10224 # 지:방 지:방, 생가기 이르케 안나, 어 지:방, 예 지:방이여. {지방 지방, 생각이 이렇게 안나, 어 지방, 예 지방이야.}

10224 # 더 잘 아르신네, 나 이저버려서 생가기 안나. {더 잘 아르신네, 나 잊어 버려서 생각이 안 나.}

10224 @ 그 지방을 안 쓰는 사람은 이렇게 나무에다가 뭐 새긴 것 있잖아요?

10224 # 그르케노코 하닌 이덜두 이떠라구유. {그렇게 해 놓고 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10224 # 그거뚜 그거 부칭거 인제 쥐:따가 또 내다노코 하녕거지. {그것도 그거 붙인 거 이제 뒀다가 또 내다 놓고 하는 거지.}

10224 @ 지방하고 그거 신주라고 하나요?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게 뭐예요?

10224 # 신주단지닌 그게 아니여. {신줏단지는 그게 아니야.}

10224 # 신주단지닌 보문 그저네 보면, 우리네닌 우리능 그렇건 아네바서 몰르는데, 다른 집 뽀면 장:팡에다가 무슨 단:지에다가 해꼭씩카면 그거: 해서 느쿠서닌 더퍼노쿠, 그게 신주단지라구 우:해더라구유. {신줏단지는 보면 그전에 보면, 우리네는 우리는 그런 것은 안 해 봐서 모르는데, 다른 집 보면 장독대에다 무슨 단지에다 햇곡식 하면 그것 해서 넣고서는 덮어 놓고, 그게 신줏단지라고 위하더라고요.}

10224 # 인저 베 때 대면 베 너쿠, 버리 때 대면 버리 너쿠 이르케 가러가주 너:가주구서는 그러케 노쿠 그란데, 우리는 친정에서구 여그 와서두 그렇건 안 해바썬. {이제 벼 때 되면 벼 넣고, 보리 때 되면 보리 넣고 이렇게 갈아 가지고 넣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놓고 그러는데, 우리는 친정에서고 여기와서도 그런 것은 안 해 봤어.}

10224 @ 그거 잘 살게 해달라고.

10224 # 그르치요 뭐구 다:, 으: 그르치. {그렇지요 뭐고 다, 응 그렇지.} @ 보살펴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10224 @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것은 그전에 많이 보셨겠네요, 젊으셨을 때?

10224 # 예, 사물 지사 지내쥬유. {예, 사뭇 제사 지냈지요.}

10224 # 우리 인저 교외 나가면서부터면 인저 안차려노코 그냥 음서근 머글라고 동기간더라고 머글라고 해도, 그냥 인제 지산나리문 음서근 장마내두 예배만 디리구. {우리 이제 교회 나가면서부터는 이제 안 차려 놓고 그냥 음식은 먹으려고 동기간들 하고 먹으려고 해도, 그냥 이제 제삿날이면 음식은 장만 해도 예배만 드리고.}

10224 # 또 인저 차려논넌 집떠런 또 차려노코 그냥 대충 차려노코, 그냥 그전마냥 그르케 착 골고루 요르케 논는 식때루 논능게 아니라 음식 강거니게 그냥 상에다 차려노쿠 예배드리는 집뚜 이꾸. {또 이제 차려 놓는 집들은 또 차려 놓고 그냥 대충 차려 놓고, 그냥 그전처럼 그렇게 골고루 요렇게 놓는 식대로 놓는 게 아니라 음식한 거니까 그냥 상에다 차려 놓고 예배 드리는 집도 있고.}

10224 @ 끝나면 먹으면 되니까.

10224 # 야 야. {예 예.}

10224 # 그냥 자손덜, 산: 자손덜 머글라구 하지, 조상니미 와서 그걸 먹꾸가? {그냥 자손들, 산 자손들 먹으려고 하지, 조상님이 와서 그걸 먹고 가?}

10224 @ 제사 지낼 때 초헌 아헌 종헌 이런 말도 썬요?

10224 @ 처음에 잔 # 나는 그... {나는 그...} 올리는 사람, 두번 켜 올리는 사람 뭐 이러잖아요.

10224 # 그렇건 난 잘 몰:르건네. {그런 것은 난 잘 모르겠네.}

10224 @ 침작한다고도 하잖아요?

10224 # 저기지:, 인저. {저기지, 이제.}

10224 @ 술 따라서.

10224 # 음. {응.}

10224 # 누가 인저 다른 사라미 해:가주구 인저 마지가 가따 이르게 노코 츠:메 순서대루 이르게.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해 가지고 이제 만이가 가져다 이렇게 놓고 그 처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10224 @ 철상 한다고 하고, 음복 한다고...

10224 # 어:, 그건 인제 치우... 음복카구, 음복카녕거 지사 지내구 인저 술 머꾸 음복카구 서 철쌍 하녕건 다 치우녕 거구. {어, 그건 이제 치우... 음복 하고, 음복 하는 것은 제사 지내고 이제 술을 먹고 음복 하고서 철상 하는 것은 다 치우는 거.}

10224 @ 상 차려 났던 거.

10224 # 어 야, 그거 다: 치우녕 거. {응 예, 그거 다 치우는 것.}

10225 @ 제사 지낼 때 그 음식은 누가 준비해요?

10225 # 아이구 윤:제 머 부:케서 인넌 사람더리 하지 머, 여자더리. {아이고 이제 뭐 부엌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지 뭐, 여자들이.}

10225 @ 그러니까 뭐 머느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10225 # 그르치유, 야. {그렇지요, 예.}

10225 @ 거기는 아까 얘기 하셨던 것처럼 이것 저것 다 골고루 준비해야겠네요?

10225 # 다: 하지유. {다 하지요.}

10225 @ 생선도 해요?

10225 # 야? {예?}

10225 @ 생선.

10225 # 생선? {생선?}

10225 @ 생선.

10225 # 생선? {생선?}

10225 @ 예.

10225 # 어:. {응.}

10225 @ 생선은 뭐 준비해요?

10225 # 생서넌 쓰넌니더른 쓰구 안쓰, 여기는 저 아랫넉떠른 생선 쓴다덩구문 여기더런 조기만 써, 조기. {생선은 쓰는 이들은 쓰고 안쓰, 여기는 저 아랫지역 사람들은 생선 쓴다고 하던데 여기들은 조기만 써, 조기.}

10225 # 조기만 쓰지, 생선 다른 생서넌 안써으—. {조기만 쓰지, 생선 다른 생선은 안 써요.}

10225 @ 떡 같은 거 놓고?

10225 # 다, 실과, 나물. {다, 실과 나물.}

10225 # 고사리나 무수나물: 인저 무슨 도라지나 머 다령거 이르게서, 그라구 탕:꼭 꼬리구. {고사리나 무나물 이제 무슨 도라지나 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그리고 탕국 끓이고.}

10225 @ 떡살이라는 건 뭘 떡살이라고 그래요?

10225 # 떡쌀? {떡쌀?}

10225 @ 예예

10225 # 떡싸런 떡카넨 싸릴 보구 떡싸리라구 하녕거지 머. {떡살은 떡 하는 쌀을 보고 떡살이라고 하는 거지 뭐.}

10225 @ 그러면 떡쌀하고 떡살하고, 살, 살도 있어요? 이렇게 찍는 것?

10225 # 이르케 떡싸리 저기 파니 인넨데, 다식판마냥. {이렇게 떡살이 저기 판이 있는데, 다식판처럼.}

10225 # 거그 인저 모양을 해서, 인제 쥘편거통거 이르케 노쿠서 해서 인저 그걸 가따 이리케 팡 눌러면, 저기 인저 으 짜꾸나녕거 가주구 그르케 하녕거지. {거기 이제 모양을 해서, 이제 절편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해서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팡 누르면, 저기 이제 응 자국 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10225 @ 그걸 뭐라고 해요?

10225 # 그쵸 그걸, 떡싸리라구. {글쵸 그걸, 떡살이라고.}

10225 @ 그것도 떡살이라고?

10225 # 떡 사:런 인저 싸리구. {떡살은 이제 쌀이고.}

10225 # 떡 사리라녕건 인저 그건, 그거구. {떡살이라는 건 이제 그것, 그것이고.}

10225 @ 떡 할 때는 어디에다가 해요, 그거?

10225 # 방아까네 가 해와요, 지금더런. {방앗간에 가서 해 와요, 지금들은.}

10225 @ 옛날에는요?

10225 # 옴:나레더런 지비서 다 해찌, 빠:다가. {옛날에들은 집에서 다 했지, 빵아다가.}

10225 @ 집에서 어떻게 해요?

10225 # 시루에다 찌지. {시루에다 찌지.}

10225 @ 시루에?

10225 # 어, 손결구 인제 시루 안쳐노코, 시루뻔 이르케 발르구서 인제 시루에다가 인제 찌가주구서. {응, 숯 걸고 이제 시루 안쳐 놓고, 시룻뻔 이렇게 바르고서 이제 시루에다가 이제 찌 가지고서.}

10225 @ 그 밑에 구멍 뱅뱅 뚫렸잖아요? # 야. {예.}

10225 # 그럼 미테다 인제 이르케 까려요, 머:릴. {그럼 밑에다 이제 이렇게 깔아요, 뭐틀.}

10225 # 옴:나렌 지브루 이르케 맨드러서 시루미설 난:는데, 지금더런 머 거기 인제 이르케 양철루 구녕 빠끔빠끔 뚫버징게 이짜너, 그거 깔구 보재기 고 위다 깔구서 이르케 안치구, 방아까네마냥. {옛날에는 짚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룻밑을 놓았는데, 지금들은 뭐 거기 이제 이렇게 양철로 구멍 뱅뱅 뚫어진 것 있잖아, 그거 깔고 보자기 그 위에다 깔고서 이제 이렇게 안치고, 방안간처럼.}

10225 @ 그러면 그 구멍 뚫린 것을 짚으로 이렇게 한 것을 시루...

10225 # 시룬밑. {시룻밑.}

10225 @ 시루밑.

10225 @ 그럼 그게 여러 개잖아요?

10225 # 시루꾸녀기 다: 다서 여서개 되녕거뚜 이꾸 모 마:느니께 고걸 인저 지푸래기루요:러케 요:러케 열거가주구서 맨드러서 종: 노쿠서 인저. {시루 구멍이 다 대여섯 개 되는 것도 있고 뭐 많으니까 고것을 이제 지푸라기로 요렇게 요렇게 엮어 가지고서 만들어서 죽 놓고서 이제.}

10225 # 고무렐 미테다 노코 인제 쌀까루 노코 또 고물 한채 노코 이러케 찌는데, 지금더
 른 그췌 이 양철루 하고 보재로 깔기떠래, 머 십:찌 머. {고물을 밑에다 놓고 이제
 쌀까루 놓고 또 고물 한 켠 놓고 이렇게 찌는데, 지금들은 글췌 이 양철로 하고
 보자기로 깔기 때문에, 뭐 쉽지 뭐.}

10225 @ 그걸 시룻밑이라고 그러다고요?

10225 # 예. {예.}

10225 @ 그건 누가 만들어요?

10225 # 보:케서 일:하는 여자더리 우리더리 맨드능겨. {부엌에서 일 하는 여자들이 우리
 들이 만드는 거야.}

10225 # 그라구 인제 시:캐두 하구. {그리고 이제 식해도 하고.}

10225 @ 그래서 시루 올려 놓으면 밑에 김 올라오는 것으로 찌는 거죠?

10225 # 예. {예.}

10225 # 물 부꾸서, 소테다 인저 물 부꾸서. {물 붓고서, 솥에다 이제 물 붓고서.}

10225 # 소치 인저 요:로케 이쓰며넌 요:만치 시루가 내리오게아구 이 미테는 무렐 부:짜
 너, 그라구 인저 올려노면 요:만치 시루가 드르가게 해:노쿠서 인저 거그따 가루
 이르게 개: 가주구 버널 똥:그라케 발리요. {솥이 이제 요렇게 있으면 요만큼 시루
 가 내려오게 하고 이 밑에는 물을 붓잖아, 그리고 이제 올려 놓으면 요만큼 시루
 가 들어가게 해 놓고서 이제 거기에다 가루 이렇게 개어 가지고 번을 둥그랗게 발
 라요.}

10225 # 그래가주구서 부렐 때면 인제 지미 올 올르지. {그래가지고서 불을 때면 이제 김
 이 오 오르지.}

10225 @ 그 떡 그렇게 해서 시루에 찌는 떡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225 # 그르치. {그렇지.}

10225 @ 둥그렇게, 저 이렇게 둥그렇게 긴 것도 있고.

10225 # 떡까래? {떡가래?}

10225 @ 그걸 떡가래라고 해요?

10225 # 예, 흔떡, 흔떠까래. {예, 흰떡, 흰떡가래.}

10225 # 그거는 인저 그냥 고물 안느쿠 쌀만 빠:다가 이냥 인제 시루에 느쿠 찌가주구서,
 옴:나레는 방아간 읍쓸때는 도구통에다 이르게 찌어찌 그걸 또. {그것은 이제 그
 냥 고물 안 넣고 쌀만 뽕아다가 그냥 이제 시루에 넣고 찌 가지고서, 옛날에는 방
 앓간 없었을 때는 절구통에다 이렇게 찼었어 그걸 또.}

10225 # 찌:가주구 인저 물루 이르게 우겨대매 찌: 가주구서 인저 다: 찌:지면 내:노쿠 소
 니루 이르게 주물러가주구서 인저 맨드러서 지:드라케 빼녕거유. {찌 가지고 이제
 물로 이렇게 우그리면서 찼어 가지고서 이제 다 찼어지면 내 놓고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서 기다랗게 빼는 거예요.}

10225 @ 그걸 썰어서...

10225 # 떠꾸카능겨, 길 떠꾸카능기구. {떡국 하는 거야, 그걸 떡국 하는 것이고.}

10225 # 인절미는 찹쌀루 해가주구. {인절미는 찹쌀로 해 가지고.}

10225 @ 떡?

10225 # 어 그냥 안 빠쿠서 쌀루다 그건 찌:가주구서, 방아 이췌 방아에다 인저 하년데, 방
 아가 옴:나레 읍췌 우리더런 다 도구통에다 해췌유. {어 그냥 안 뽕고서 쌀로

그건 찌 가지고서, 방아가 있으면 방아에다 이제 하는데, 방아가 옛날에 없으니까 우리들은 다 절구통에다 했어요.}

10225 # 도구통에다 인제 이르케 도구탱이루 찌:가주 이르케 이르케, 하나년 우기구 하나년 이르케 찌꾸 해가주구 다: 찌:지면 인저 떡파네 인저 칼또마에 내:노쿠서 인제 이렇니렁 쓰:러서 인저 고물 무:쳐서 그르카능거지. {절구통에다 이제 이렇게 절굿 공이로 찼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는 우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찼고 해 가지고 다 찼어지면 이제 떡판에 이제 도마에 내 놓고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이제 고물 묻혀서 그렇게 하는 거지.}

10225 @ 그러면 흰떡은 맵쌀로 하고.

10225 # 응. {응.}

10225 @ 인절미는..

10225 # (인절미)년 참쌀로 하고. {(인절미)는 참쌀로하고.}

10225 @ 참쌀로 하고

10225 # 예. {예.}

10225 @ 그리고 흰떡은 방앗간에서 가루로 빵아다 하고.

10225 # 으. {예.}

10225 @ 인절미는 그냥...

10225 # 그냥 쌀루. {그냥 쌀로.}

10225 @ 쌀로 하고?

10225 # 어, 쌀루 해서 도구통에다 찌면 디야. {응, 쌀로 해서 절구통에다 찼으면 돼.}

10225 @ 하얗게 하는 떡도 있잖아요?

10225 # 하얗게 하는 떠건 그냥 쌀가루 빠:다가, 애기덜 배길때 돌때 하년 떠건 백설기라구. {하얗게 하는 떡은 그냥 쌀가루 빵아다가, 아기들 백일 때 돌 때 하는 떡은 백설기라고.}

10225 # 그냥 하:야케 시루에다 너:가주구 그냥 찌능겨. {그냥 하얗게 시루에다 넣어 가지고 그냥 찌는 거야.}

10225 @ 그냥 아무 것도 안 넣고 하얗게?

10225 # 어:. {응.}

10225 @ 그런데 거기 콩 넣은 것도 있잖아요.

10225 # 근 망녕설기. {그건 마구설기.}

10225 # 콩 느코 거기 머 별거 다 느치 머, 대추두 느쿠 밤:두 느쿠 머, 이르케서 찌능건 망녕설기라구 하녕거구. {콩 넣고 거기 뭐 별것 다 넣지 뭐, 대추도 넣고 밤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찌는 것은 마구설기라고 하는 거고.}

10225 # 하:야케 찌능건 백설기. {하얗게 찌는 것은 백설기.}

10225 @ 호박고재기라구 그래나요? # 어 어. {응 응.}

10225 # 그렇거 그냥 호박떡 호박떡 캐명녕, 호박고재기두 느코 머, 또 날호박뚜 쓰:러너가 주구두 쌀가루 빠:다 서꺼가주구서 인저 찌:구. {그런 거 그냥 호박떡 호박떡 해 먹는, 호박고자리도 넣고 뭐, 또 날 호박도 썰어 넣어 가지고도 쌀가루 빵아다가 섞어 가지고서 이제 찌고.}

10225 @ 호박고재기, 그 말린 것 얘기하죠? 이렇게 가을에 누런 호박.

10225 # 음. {응.}

10225 @ 껌테기 까 가지고 빙빙 돌려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줄에 널었던 거 그거, # 예. {예.} @ 그걸로 하는 거지요?

10225 # 예 그 호박꼬재기떠건 그걸루 하구, 그냥 호박떠건 그냥 나로박 빨강거, 그거 칼루 인저 고:께 쓰:러가주구 이르게 쌀까루에다 버물버물 서꺼가주구서 시루에다 노코 찌:머닌 인저 호박떠기 돼, 마시썩유. {예 그 호박고자리 떡은 그걸로 하고, 그냥 호박떡은 그냥 날 호박 빨간 것, 그거 칼로 이제 곱게 썰어 가지고 이렇게 쌀까루에다 버물버물 섞어 가지고서 시루에다 놓고 찌면 이제 호박떡이 돼, 맛있어요.}

10225 # 지금더런 근데 방아까네다 호바글 어트게 가:러가주구서 호박떡뚜 그냥 서꺼서 찌더라구유. {지금들은 그런데 방앗간에다 호박을 어떻게 갈아 가지고서 호박떡도 그냥 섞어서 찌더라고요.}

10225 # 그래서 더 조터라구, 노오:랑게 색까리 노랑게. {그래서 더 좋더라고, 노란 것이 색깔이 노란 것이.}

10225 @ 무 같은 것은 썰어서 안 해요, 그렇게?

10225 # 어 무수두 엔:나레닌 무수두 해찌만, 지금더런 안히야. {응 무도 옛날에는 무도 했지만, 지금들은 안해.}

10225 # 무수두 그 쌀까루 빠다 이르게 서꺼서 무수떠기라구, 그라두 그거뚜 마시썩유, 예. {무도 그 쌀까루 빵아다 이렇게 섞어서 무떡이라고, 그래도 그것도 맛있어요, 예.}

10225 @ 글썽 저 어디서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10225 # 야, 마시썩 그거또. {예, 맛있어 그것도.}

10225 # 아이 머 엔:나레야 배고프니까 머 저 피등넙만 나면 그냥 홀터다가 밀까루에 이르게 이르게 이르게 몽치가주구서 양 소쿠데미다 찌가주구 먹꾸 머. {아 뭐 옛날에 야 배고프니까 뭐 저 스무나무잎만 나면 그냥 훑어다가 밀가루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묻혀 가지고서 그냥 소쿠리에 찌 가지고 먹고 뭐.}

10225 # 아유 엔:날 생각카른 모:리야. {아휴 옛날 생각 하면 뭘 해.}

10225 @ 비듬있요?

10225 # 예, 비듬넙. {예, 비듬있.}

10225 @ 비듬있이 뭐예요?

10225 # 저 나무에 피능게 이썩유, 비듬니피라고. {저 나무에 피는 게 있어요, 스무나무잎이라고.}

10225 @ 나무가 비듬나무예요?

10225 # 예, 비듬. {예, 비름.}

10225 # 비름나무가 저:기 저 둥구나무거치 생겨썩, 입째가 그르케 생겨썩. {비름나무가 저기 저 둥구나무같이 생겼어, 잎사귀가 그렇게 생겼어.}

10225 @ 그거 저 쌀가루 묻혀서...

10225 # 찌능기여. {어, 찌는 거야.}

10225 @ 저 느티나무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0225 #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0225 # 썩뚜 뜨더다 쌀머서 그러케서 찌서 먹꾸 머:. {썩도 뜯어다 삶아서 그렇게 해서 찌서 먹고 뭐.}

10225 # 아이구 엔:나레더리야 배더리 고프니까 머:, 일정시대때 얼마나 배고퍼유. {아이고

옛날에들이야 배들이 고프니까 뭐, 일정 시대 때 얼마나 배고파요.}

10225 # 콩깨묵 나묵 그걸루 바패머꾸:. {콩깻묵 나면 그것으로 밥 해 먹고.}

10225 @ 그걸 저기 스무나무라고도 해요?

10225 # 비듬나무릴 수무나무? {비듬나무를 스무나무?}

10225 @ 예.

10225 # 그런 소린 모뜨런넌데. {그런 소리는 못 들었는데.}

10225 @ 그 저 느티나무같이 잎이 이렇게 나오면 그거 새 잎 따다가 쌀가루하고 버무려서 해 먹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10225 # 야, 예 그거 비듬님나무. {예, 예 그게 비듬잎나무.}

10225 @ 쭉도 뜯어다가.

10225 # 쌀머가주구. {삶아 가지고.}

10225 @ 삶아 가지고.

10225 # 쌀가루에 요르케 버무려서. {쌀가루에 요렇게 버무려서.}

10225 @ 하잖아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10225 # 그건 쭉떠기라구. {그건 쭉떡이라고.}

10225 # 그건 쭉떠기라구 하구. {그건 쭉떡이라고 하고.}

10226 @ 제사 지내는 것도 옛날하고 요즘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10226 # 그러믄뇨; 옴:나레닌 꼭: 다굴때 쯤매서 지:사릴 지내꺼던:. {그럼은요, 옛날에는 꼭 닭 올 때 쯤 해서 제사를 지냈거든.}

10226 @ 새벽에?

10226 # 예. {예.}

10226 # 대굴때쨌매서 열두시 꼭 자정되:야 지내야, 그랜데 지그미야 머. {닭 올 때 쯤 해서 열두시 꼭 자정 되어야 지내요, 그랜데 지금이야 뭐.}

10226 # 우리닝 아 그러케 인제 예수 미더 그러케 안하니께 그르치만, 옴:나레 우리두 그르칼 땀 안: 미들때넌 그르케 지내썬요. {우리는 아 그렇게 이제 예수 믿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할 때는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지냈어요.}

10226 # 올:군, 막: 지내구나서 다기 우리야 하능기여. {올고는, 막 지내고 나서 닭이 울어야 하는 거야.}

10226 # 그르케 언제구 시가널 마쳐서 그르케 지내따구, 일찍케놔두 안:지니야, 으:런더리. {그렇게 언제고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지냈다고, 일찍 해 놓아도 안 지내, 어른들이.}

10226 # 꼭 고 시간 차져서 지나지. {꼭 고 시간 찾아서 지내지.}

10226 # 근데 지금더리야 안민너 이덜두 보면 초저녁게두 지내구 머 대중 읍써:. {근데 지금들이야 안 믿는 이들도 보면 초저녁에도 지내고 뭐 대중이 없어.}

10301 @ 논농사가 여기 많지요, 논농사?

10301 # 여기넌 논농사, 뭐 여 산꼬리라 논두 별로 안 망코 받또 안 마는데, 그래두 주로 논농사고 바선 얼마 엄써유. {여기는 논농사, 뭐 여기 산골이라 논도 별로 안 많고 받또 안 많은데, 그래도 주로 논농사고 받은 얼마 없어요.}

10301 # 그래서 특수장물 하넌 사라먼 아:무두 읍짜너. {그래서 특수작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10301 @ 그럼 저기 저 눈에 심어 놓은 거 있잖아요, 저거 저게 뭐예요?

10301 # 노네 시몽게 모지 모여, 모 시몽 거지, 쌀 되녕 거. {눈에 심은 게 모지 뭐야, 모 심은 거지, 쌀 되는 것.}

10301 @ 그런데 그것도 품종이 뭐 여러가지가 있다면서요?

10301 # 그르태유, 여:러가지가 이때유. {그렇대요, 여러가지가 있대요.}

10301 # 근데 머 그 이르멜 다 어티케 아려. {그런데 뭐 그 이름을 다 어떻게 알아.}

10301 # 추청베두 이꾸 머 오대베두 이꾸 머 아이구 나두 몰르건네, 또 머여. {추청벼도 있고 뭐 오대벼도 있고 뭐 아이고 나도 모르겠네, 또 뭐야.}

10301 # 무슨 무슨 베두 이꾸 머 아끼바리두 이꾸 머:. {무슨 무슨 벼도 있고 뭐 아끼바리도 있고 뭐.}

10301 # 오대베두 이꾸, 아이구 머 수천 수백 수식까지여, 베 이름두. {오대벼도 있고, 아이고 뭐 수천 수백 수십 가지야, 벼 이름도.}

10301 # 몰:라 우리는 다. {몰라 우리는 다.}

10301 @ 그런데 그게 일찍 되는 것도 있고, 늦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10301 # 그리티야, 오 오 오대베가 켈: 일찍 될끼여 아마, 저 처원서 오대베릴 하니께. {그렇대, 오 오 오대베가 제일 일찍 될 거야 아마, 저 철원에서 오대벼를 하니까.}

10301 # 그게 일찍 되야. {그게 일찍 돼.}

10301 @ 일찍 되는 것은 무슨 벼라고 해요?

10301 # 그쎄 그게 오대베라구 하녕거 거떠라구요, 어, 일찍 되능게. {글쎄 그게 오대벼라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어, 일찍 되는 게.}

10301 @ 올벼라고도 해요?

10301 # 올베라구두 하구 오대베라구두 하구. {올벼라고도 하고 오대벼라고도 하고.}

10301 @ 늦게 되는 거는 그럼?

10301 # 늑:빠라고 하구, 어. {늦벼라고 하고, 응.}

10301 # 인저 그 느추청이니 느다끼바리니 이렇건 좀 느저유. {이제 그 늦추청이니 늦아끼바리니 이런 것은 좀 늦어요.}

10302 @ 그럼 벼농사를 지을 때는요, 지금 눈에 심은 거 벼농사 하는 거잖아요. 저것도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타작해서 할 때까지.

10301 # 그럼. {그럼.}

10301 @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뭐부터 시작해요?

10302 # 아 인제 썬:나락 당구구. {아 이제 씨 담그고.}

10302 # 옴:나레더런 그 썬:나락 땅귀따가, 인제 노네다 이르케 모자리 해노코 거기다 이르케 가따 썬:나락 후:를 뿌려가주 축 트문 가따 뿌려가주구서 물대서 그냥 해썬넌데, 우리네 츠:메 할 때넌. {옛날에들은 그 법씨 담그었다가, 이제 눈에다 이렇게 모자기 해 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가져다 법씨 훌훌 뿌려 가지고 싹이 트면 가져다 뿌려 가지고서 물 대서 그냥 했었는데, 우리들 처음에 할 때는.}

10302 # 그르첸데, 지금더런 인저 앙그라자너. {그렇게 했는데, 지금들은 이제 안 그러잖아요.}

10302 # 지금더런 요만큼한 상자에다가 인저, 썬:나락 당귀가주구 요르케 초기 해끝태끝:스머넌 인저 상자에다 흑따머가주구 거기따가 인제 썬:나락 뿌리구 흐그루 더퍼가주구서. {지금들은 요만큼한 상자에다가 이제, 법씨를 담귀 가지고 요렇게 싹이

해끗해끗 트면 이제 상자에다 흙 담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뽕씨 뿌리고 흙으로 덮어 가지고서.}

10302 # 이르케 씨:뽕따가 또 초기 인제 요망:큼 터올르면 논빠다게 내 내다 노차너? {이렇게 쌓아 놓았다가 또 싹이 이제 요만큼 터 오르면 논바닥에 내 내다 놓잖아?}

10302 # 내다노코 인제 벤니루 이르케 씨우는 사람두 이꾸:, 구직포루 이르케 까는 사람두 이꾸, 그래가주구 인저 모가 크머닌 인저 또 가따 기계루 가따 심:짜너. {내다 놓고 이제 비닐을 이렇게 씌우는 사람도 있고, 부직포로 이렇게 까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가 크면 이제 또 갖다 기계로 갖다 심잖아.}

10302 # 옴:나레더리야 소니루 다: 시머찌 머, 기계가 어디씨. {옛날에들이야 손으로 다 심었지 뭐, 기계가 어디 있어.}

10302 # 옴:나렌 소니로 심:꾸, 소니로 벼:서루 밭 탈곡끼, 이거뚜 츠:메는 움:씨찌. {옛날에는 손으로 심고, 손으로 베어서 밭 탈곡기, 이것도 처음에는 없었지.}

10302 # 그냥 인저 이르케 흙:터 머꾸 머 이르케 자르개질 하구 그랜넨데 인제, 또 쪼끔 인저 개명되:서 인저 밭루 이르케, 조:긴닝거 이르케 밭디디 그렇걸 인저 사가주구 그거루 터:러찌. {그냥 이제 이렇게 흙어 먹고 뭐 이렇게 자리개질 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조금 이제 개명되어서 이제 밭로 이렇게, 조기 있는 거 이렇게 밭로 디디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사 가지고 그것으로 털었지.}

10302 @ 그럼 썬나락을 인제 뿌리고?

10302 # 어. {응.}

10302 @ 그리고 그것을 논에 심으려면 논을 저기 해야 되잖아요, 소...

10302 # 그럼:, 저 기계루유 인저, 그저넨 소루. {그럼, 저 기계로요 이제, 그 전엔 소로.} @ 요즘은 기계로 하고, 옛날에는. # 어, 옴나렌 소로 아시 가:러가주구. {응, 옛날에는 소로 애벌 갈아 가지고.}

10302 # 또 인제 쓰:레라구 이르케 막대기루 바릴 이르케 다러씨, 송꾸랑마냥 이러캐가주구서. {또 이제 씨레라고 이렇게 막대기로 밭을 이렇게 달았어, 손가락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서.}

10302 # 그걸루 인제 재:벌 인저 다:메 인저 물대가주구 땅에 흙썬 고른 다:메는 그걸루 쓰:러가주구서 인저 모릴 시머찌. {그걸로 이제 두벌 이제 밭에 이제 물 대 가지고 땅을 흙썬 고른 다음에는 그것으로 씨레질을 해 가지고서 이제 모를 심었지.}

10302 # 지금더런 머 트래타루다 함번 아시 갈:구, 인제 이듬 가:러가주구서 그냥 심:짜너. {지금들은 뭐 트랙터로 한 번 애벌 갈고, 이제 이듬 갈아 가지고서 그냥 심잖아.}

10302 @ 그럼 논은 언제 갈아요?

10302 # 벼 비구 가:레 가려논넨 이덜두 이꾸, 보메 가느니두 이꾸 그래유. {벼 베고 가을에 갈아 놓는 이들도 있고, 봄에 가는 이도 있고 그래요.}

10302 # 일: 잘: 추넨 집떠리야 다 보메 갈... 참 가:레 가:러노치, 벼 비구서. {일을 잘 줄이는 집들이야 다 봄에 갈... 참 가을에 갈아 놓지, 벼 베고서.}

10302 # 근데 일 모타넨 이덜, 나무 소네 하너이더런 인저 보메 갈:고. {그런데 일 못 하는 이들, 남의 손에 하는 이들은 이제 봄에 갈고.}

10303 @ 그 갈 때 뭘로 갈아요?

10303 # 옴:나레넨 흑쟁이루 가려넨만:, 지금더런 트래타루 가:러유. {옛날에는 흑쟁이로 갈았지만, 지금들은 트랙터로 갈아요.}

10303 @ 극쟁이요?

10303 # 흑쟁이, 소루 메워 가주구 흑쟁이루 가라쨌. {극쟁이, 소로 메어 가지고 극쟁이로 같았지.}

10303 @ 극쟁이하고 쟁기하고가?

10303 # 어 가통거여. {어 같은 거야.}

10303 # 가통건데 인제 쟁기가 줌, 흑쟁이가 인제 옴:나레 츠:메 이써꾸 또 고다메 쟁기가 나와쨌. {같은 건데 이제 쟁기가 줌, 극쟁이가 이제 옛날에 처음에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쟁기가 나왔어.}

10303 # 그걸루 종 갈:기가 쉼때유, 쟁기넌. {그것으로 줌 갈기가 쉼대요, 쟁기는.}

10303 @ 그걸로 갈아서 썬레로.

10303 # 쓰:레루 쓰:려서. {썬레로 밀어서.} @ 쓰:려서. # 으, 그래서 모릴 시:머쨌, 인저. {응, 그래서 모를 심었지, 이제.}

10303 @ 쓰레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납작한 것...

10303 # 으 번지, 번지 대능겨 그제, 번지 대능거여. {응 번지, 번지 대는 거야 그제, 번지 대는 거야.}

10303 @ 그걸로다가 번지로다가 편편하게.

10303 # 옴:나레 사람덜 주그먼 그 송판때기릴 미테 노쿠서, 수세 거들쨌 대번 인제 이르게 해 가주구서 그 미테다가 그걸 깔:구서 노커던, 신채릴. {옛날에 사람들 죽으면 그 송판때기를 밑에 놓고서, 수시 거들 때 대번에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밑에다가 그걸 깔고서 놓거든, 시체를.}

10303 # 그라먼 인제 그거넌 저기 번지, 번지뚝질 한다구 하자너? {그러면 이제 그것은 저기 번지, 번지뚝질한다고 하잖아?}

10303 # 그제 번지, 그렁걸루 번지 맨드려서 썬썬서, 옴:나레는 송판두 귀(하향 이중모음 '위'[uj])하니께 그제 번지루 가따 하너니두 이꾸, 송판니 읊쓰면 번지두 가따 그르게 해쨌. {그제 번지, 그렁 걸로 번지 만들어서 썬서, 옛날에는 송판도 귀하니까 그것을 번지를 가져다 하는 이도 있고, 송판이 없으면 번지도 갖다 그렇게 했어.}

10303 # 그래서 번지뚝질 한다구 옴:나레덜 그라자너? {그래서 [****] 한다고, 옛날에들 그러잖아?}

10302 @ 그 다음에 이제 갖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썬 뿌려서 모를 키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10302 # 그라먼 저 옴:나레더런 소니루 이러께 가 썬썬 이르게, 뽀바쨌. {그러면 이제 옛날에들은 손으로 이렇게 가서 썬썬어 이렇게, 뽀았어.}

10302 # 이르게 뽀버가주구서 인저 뽀쭈머썬 거기따 해서 지푸루 이르게 뽀여가주구 이르게 내노메서 해가주구서. {이렇게 뽀아 가지고서 이제 몇 주머썬 거기다 해서 짚으로 이렇게 동여 가지고 이렇게 내 놓으면서 해 가지고서.}

10302 # 다 인저 썬노쿠서 수고바리에다 또 거 질머지구 노네 가따 너:가주구서 인저. {다 이제 썬 놓고서 밭채에다 또 그것을 짚어지고 논에 갖다 넣어가지고서 이제.}

10302 @ 어디에다 짚어져요?

10302 # 노네, 수고바리. {논에, 밭채.}

10302 # 소고바리에다 인제 질머져야 가주가자너, 그래서 가따 노네다 인저 던져 노면 사람더리 죽: 서서 인저 줄 떠워가메 인저 심:쨌. {밭채에다 이제 짚어져야 가지고

가잖아, 그래서 갖다 눈에 던져 놓으면 사람들이 죽 서서 이제 줄 띄워 가면서 이제 심지.}

10302 # 그르치만 지금더리야 인저 머 그 모판만 번쩍번쩍 떠어다가 그냥 인저 모판 언저 노면 기계가 심:짜너. {그렇지만 지금들이야 이제 뭐 그 모판만 번쩍번쩍 떼어다가 그냥 이제 모판 얹어 놓으면 기계가 심잖아.}

10302 @ 그 썸 가지고 묶어 놓은 걸 뭐라고 해요?

10302 # 모침. {모춤.}

10302 @ 그 모춤을 소고바리에다 지고 가는 거지요? # 예. {예.} @ 그래서 이제 쓰:레질 해 놓은 눈에다가 # 어 어 어 던져. @ 던져가지고.

10302 @ 줄 띄워서, 줄도 보니까 다 뭐 이렇게 빨간...

10302 # 모쭈레 이르케 이쓰면 여기 요르케 요르케 간격 맞추너라고. {못줄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렇게 요렇게 간격 맞추느라고.}

10302 # 요르케 간격만 맞추너라고 요르케 요르케 인제 모쭈레 [XX]나짜나유. {요렇게 간격을 맞추느라고 요렇게 요렇게 이제 못줄에 [**]놔잖아요.}

10302 # 줄모하능겨 그제, 줄모. {줄모 하는 거야, 그제, 줄모.}

10302 # 그냥 상:모넌 그냥 주란:떠우구 그냥 대중해서 꺾꺾 끈넝거구. {그냥 상모는 그냥 줄 안 띄우고 대중해서 꺾고 꺾는 거고.}

10302 @ 그제 무슨 모요?

10302 # 상, 그냥 상모. {상, 그냥 상모.} @ 상모? # 응. {응.}

10302 # 그냥 상모루 싱넝, 그냥 그러케 싱:꾸, 줄모 하넝건 그르케 줄 띄워가메 싱:꾸. {그냥 상모로 심는 것은 그냥 그렇게 심고, 줄모 하는 것은 이렇게 줄 띄워가면서 심고.}

10302 @ 물도 대야 되잖아요?

10302 # 그러믄뉴:, 물 이써야, 물두 대:따 빼:따 해야 되구, 거름 줘야 되구. {그럼은요, 물 있어야, 물도 대었다 뺐다 해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10302 # 싱:끼저네 인저 비로 현치구서 갈:기저네, 언치고 가리가주구서 인저 시머노쿠서 또 주면 인저 가지거름 하넝거구. {심기 전에 이제 비료 뿌리고서 갈기 전에, 뿌리고 갈아 가지고서 이제 심어 놓고서 또 주면 이제 가지 거름 하는 것이고.}

10302 # 또 인저 팻 무루:배 하넝거 인저 이삭꺼림 하넝거고. {또 이제 팻 무릅에 하는 것 이제 이삭 거름 하는 것이고.}

10303 @ 농사 지을 때 연장이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연장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

10303 # 예. {예.}

10303 @ 아까 쟁기도 있고, 뭐.

10303 # 흑쟁이두 이써야 되(단모음 '외')구, 머 쓸, 쓰:레, 지금더런 인제 그렁 거 피료 읍 짜너, 기계루 하니까. {흑쟁이도 있어야 되고, 뭐 써 써레, 지금들은 이제 그런 것 필요 없잖아, 기계로 하니까.}

10303 # 모 심넌데는 그렁기 이꾸, 사비 이써야 되고. {모 심는 데는 그런 것이 있고, 삽이 있어야 되고.}

10303 # 또: 소시랑두 이써야 되구, 머 별거 다 이써야지 머. {또 쇠스랑도 있어야 되고, 뭐 별거 다 있어야지 뭐.}

10303 @ 땅 파는 것도 있잖아요?

10303 # 껏이. {껏이.}

10303 # 껏이, 소시랑 머:. {껏이, 쇠스랑 뒤.}

10303 @ 양쪽으로 뻘죽한 것드 있대요?

10303 # 껏, 그건 저기. {껏, 그건 저기.}

10303 @ 딱딱한 것 파는 것?

10303 # 어 그거 아이고... 이르미 뻏뻏 도넛데 안나오네, 이르케. {어 그것 아이고... 이름 이 뻏뻏 도넛데 안 나오네, 이렇케.}

10303 # 뽕꼬껏이, 뽕꼬껏이, 뽕꼬껏이. {뽕 껏껏이, 뽕 껏껏이, 뽕 껏껏이.}

10303 @ 뽕 껏껏이? 한 쪽으로 된 것드 있어요, 껏껏이같이 생긴 것?

10303 # 그건 벽채라구, 한쪼근 뻏:껏카군 줌 널버. {그것은 벽채라고, 한 쪽은 뻏껏하고 줌 널버.}

10303 # 건 자루가 껏:루운 벽채래, 옴:나레는 거 뽕꼬껏이 나기 저넛 그 벽채루 판넛데. {그것은 자루가 껏으면 벽채, 옛날에는 그거 뽕 껏껏이 나기 전에는 그 벽채로 판넛데.}

10303 # 지금 뽕꼬껏이가 인제 나가주구서넛 그걸루 하지. {지금은 뽕 껏껏이가 이제 나가지고서는 그걸로 하지.}

10303 @ 그럼 벽채가 이렇케 껏이같이 생겼는데 끝에가 뽕껏한 거, 요렇게 된 것? # 으, 어 어어. {응, 응 응응.}

10303 # 그거 지:드라케 그케, 그케 벽채어. {그거 길다랗케 그케, 그케 벽채야.}

10303 @ 한 쪽으로 된 거?.

10303 # 예. {예.}

10303 @ 논에도 그런 것 같넛데, 번지로도 이렇케 하지만 넓적한 송판 같은 걸로 자루 해가지고 죽죽 밀기도 하잖아요?

10303 # 그거 인제 너푼데 야넛데, 그케 메우너라노 고물개. {그거 이제 높은 데 얇은 데, 그거 메우는 고무래.}

10303 @ 그걸 가지고 저기 저 껏식 널었을 때드 # 예 예 예. {예 예 예.} @ 쓰는 거예요?

10303 # 고물개로 껏식 널구그라능거요. {고무래로 껏식 널고 그러는 거요.}

10303 @ 그러면 저기 그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볼 때잖아요? # 어. {어.} @ 볼 때고 나서 채 칠 때드 긁어내는 거 그건 뒤요?

10303 # 그거뚜 고물개. {그것도 고무래.}

10303 # 뒤:케서 쓰넛 고물개. {부엌에서 쓰는 고무래.}

10303 @ 옛날에는 풀드 다 뽕잖아요?

10303 # 호미

10303 @ 호미로.

10303 # 호미루 매구. {호미, 호미로 매고.}

10303 # 지금두 호미는 쓰자나유. {지금도 호미는 쓰잖아요.}

10303 @ 감자 껏 때.

10303 # 으 그런 풀, 반 뽕뽕 호미 가주가 쓰구. {응 그런 풀, 밭 뽕 때 호미 가져가 쓰고.}

10304 @ 논에 물 뽕 때요, 물이 많은 데 같으면 물 논으로 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적을 때는 이만큼 파 가지고 물 받았다가 그거 푸잖아요, 이렇게? 그걸 뭘로 푼다고 해요? 푸는 것을 뭐라고 해요?

10304 # 시방 그게 쓰는데, 양수기. {지금 그걸 쓰는데, 양수기.}

10304 @ 그건 기계잖아아요. # 예. {예.} @ 전기로 하는 거? # 예. {예.}

10304 @ 옛날에 끈 매 가지고 양쪽에서 둘이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요?

10304 # 어:, 그러. {어, 그래.}

10304 # 둥병에서 품녕 거. {웅덩이에서 푸는 것.}

10304 @ 예, 둥병에서 푸는 거.

10304 # 둥병 파노코 거기따 해서 양조게서 해가주구 이러캐서 두리 이력:케 차부달리구 하녕거. {웅덩이 파 놓고 거기에다 해서 양쪽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잡아 당기고 하는 거.}

10304 # 그 뭐여, 두루배기지. {그게 뭐야, 두레박이지.}

10304 @ 두루백?

10304 # 두루박, 두루박. {두레박, 두레박.}

10304 @ 용... 용이라고 해요, 용두레?

10304 # 그건, 그건 잘 모르겠네 우냥, 나두. {그건, 그건 잘 모르겠네 그냥, 나도.}

10304 # 물 푸녕거 그거 이르면 잘 모르거써. {물 푸는 것 그거 이름은 잘 모르겠어.}

10304 # 두루바건 물푸넌, 그저네 바가지 찌기 두루박 샤:메서 물려다 멍너라구 두루바기지. {두레박은 물 푸는, 그 전에 바가지 저기 두레박 샘에서 물 이어다 먹느라고 두레박이지.}

10304 # 그 물푸녕거 이르면 모르거써, 나두 잘. {그 물 푸는 것 이름은 모르겠어, 나도 잘.}

10304 @ 그 두레박은 저기...

10304 # 샤:메서 푸녕거. {샘에서 푸는 것.} @ 샘 깊이 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 어 어 어, 그게 두루바긴데, 그 물 푼녕거 몰:라, 모:라고 한는지. {응 응 응, 그게 두레박인데, 그 물 푸는 것은 몰라, 뭐라고 하는지.}

10304 @ 눈에 물 델 때 개울 있잖아요? # 야. {예.} @ 개울에 물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 이렇게 물을 막아 가지고 물을 고이게 했다가 그거 이렇게 눈에 대잖아요? # 예. {예.} @ 그거 막는 것을 뭐라고 해요?

10304 # 보 망넌다 구라지, 예. {보 막는다고 하지, 예.}

10304 @ 여기두 그렇게 했어요, 저기 저 앞에?

10304 # 저:기 나가면 해씨유. {저기 나가면 했지요.}

10304 # 요기 요긴 안해씨두, 저아래 나가면 해씨유, 보마거써. {요기 요기는 안 했어도, 저 아래 나가면 했어요, 보 막았어.}

10304 @ 저 아래면 개울이 더 큰가요? # 예 예. {예 예.}

10304 # 크니께 거기는 보덜 막씨유, 보 마거가주구서 인저 멘쩍씩 그 물 인저 단넌 사람 덜찌리 대:지. {크니까 거기는 보들 막지요, 보 막아 가지고서 이제 몇 집씩 그 물 이제 닿는 사람들끼리 대지.}

10304 # 인저 그거 다시 이르게 칠:때는 보치러 간다구 인저 하구, 보 마그러 간다구 하구. {이제 그거 다시 이렇게 칠 때는 보 치러 간다고 이제 하고, 보 막으러 간다고 하고.}

10304 @ 저 위에 있는 건 뭐라고 해요, 저 위에 큰 거 뭐 있다면서요?

10304 # 방죽? {저수지?} @ 방죽? # 야. {예.}

10304 # 저수지? {저수지?}

10304 # 저수지라구, 지금더튼하구 방주기라구두 하구. {저수지라고, 지금들은 하고 방죽이라고도 하고.}

10304 @ 방죽하고 저수지하고 크기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다른 거예요?

10304 # 몰:라, 그거가주구 방죽 파따구 하년데 지금 저수지라구두 하구 그라니께 몰:르지머:. {몰라, 그거 가지고 방죽 봤다고 하는데 지금 저수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지 뭐.}

10304 # 멀: 가주 그러가능긴지, 난두.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나도.}

10304 @ 물 댈 때 물이 없으면 파잖아요? # 예. {예.} @ 파 가지고도 물 대잖아요? # 야, {예.} @ 그건 뭐라 그래요?

10304 # 둑병 판다구라지유. {웅덩이 판다고 그러지유.}

10304 @ 둑병? # 응. {응.}

10304 @ 물 댈 때도 윗논 아랫논 차례차례 대지요? # 예. {예.} @ 그 이름이 있어요, 따로? 물 대는 방법.

10304 # 그렇건 몰:르거써, 나넌. {그런 건 모르겠어, 나는.}

10304 @ 옛날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대요, 요새는 본 적이 없는데, 이만한 통나무 있잖아요? 그 가운데를 요렇게 파 가지고 이렇게 죽 파 가지고 저쪽 논하고 이쪽 논하고 밑에 도랑 있으면 이렇게 걸쳐 놓고 물 죽 흘러가게 했대요. # 그러, 어 어. {그래, 어 어.}

10304 # 지금 그게 흙 파가주구 놓건데, 지그면 이런 저 저기 하우스통 이짜너? {지금 그게 흙통 파 가지고 놓은 건데, 지금은 이런 저 저기 호스 통 있잖아?} @ 예 예.

10304 # 그라니께 머 지금 누가 그렇걸히야, 이렇거 점부 고무통 사다 노코 하우스통 사다 노쿠 하지. {그러니까 뭐 지금 누가 그런 걸 해, 이런 거 전부 고무통 사다 놓고 호스통 사다 놓고 하지.}

10304 @ 옛날에 그건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이 뭐 있어요?

10304 # 몰:러, 흙: 흙파서루 흙:통을 놔:따 구라대, 흙: 파가주구. {몰라, 흙 흙통 파서 흙통 놓았다 그러대, 흙통 파 가지고.}

10304 @ 옛날에는 물이 더 귀했잖아요?

10304 # 그러믄뉴. {그럼은요.}

10304 @ 막 싸우고 그러는 것도...

10304 # 아이구 그래서 노네다가 스:스까라먹꾸 그래씨요, 우리 어려서 모 모털 모:씨머서. {아이고 그래서 논에다 조 갈아 먹고 그랬어요, 우리 어려서 모 모를 못 심어서.}

10304 # 메물 갈:구 스스까러먹꾸 그래따구. {메밀 갈고 조 갈아 먹고 그랬다고.}

10304 # 지그미니께 다: 참 이르게 웅덩이라두 파가주구 샘 파가주구서 양수기루 푸머가주구서루다 하구 그라지만. {지금이니까 다 참 이렇게 웅덩이라도 파 가지고 샘 파 가지고서 양수기로 뿔어 가지고서는 하고 그렇게 하지만.}

10304 # 옴:나레더런 그렇거두 모타구 구라니께 아:주 물가리 노니먼 최:고구. {옛날에들은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아주 물같이 논이면 최고고.}

10304 # 이런 봉:답꺼턴 데년 물이 읍써서 그냥 스:속 깔:구 메물씨 뿌리구 이래따 머건넌 데, 지그른 물가리 노는 기계가 대꾸 빠지니까 안조티야, 가격뚜 암, 더 암비싸디야. {이런 봉답같은 데는 물이 없어서 그냥 조 같고 메밀씨 뿌리고 이랬다가 먹었는데, 지금은 물같이 논은 기계가 자꾸 빠지니까 안 좋대, 가격도 안, 더 안 비싸대.}

10304 # 옴:나레는 물가리 노니면 최고루 비싸구 최고루 조안는데, 지그른 땅을 팔구 사넌 데두 물가리 노년 기계 빠지기떠래 갑씨 더 안 비싸. {옛날에는 물같이 논이면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좋았는데, 지금은 땅을 팔고 사는 데도 물같이 논은 기계 빠지기 때문에 값이 더 안 비싸.}

10305 @ 그래서 인제 모를 썬 가지구 모를 갖다가 이제 옛날에는 다 손으로 심었지요?

10305 # 예, 소니루 다: 시머찌. {예, 손으로 다 심었지.}

10305 # 그래서 머 공동자겅두 한다구 하구 머, 여자덜두 죄:(단모음 '외') 나가서 상:꾸 그래서. {그래서 뭐 공동작업도 한다고 하고 뭐, 여자들도 모두 나가서 심고 그래서.}

10305 @ 그럼 모를 심고 나서 저렇게 논에 저만큼 크잖아요. 그럼 저건 뭐라고 해요? 저거 모라고 해요, 벼라고 해요?

10305 # 아 그냥 아지근 모지유 머, 베년 안 되쫌게, 패:야 베가 되지 인저. {아 그냥 아지는 모지요 뭐, 벼는 안 되었으니까, 패야 벼가 되지 이제.}

10305 @ 패야지 베라 그래요?

10305 # 그럼. {그럼.}

10305 @ 그래서 저렇게 심어 놓으면 또 풀 나잖아요, 요즘은 사람도 없고 약 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그거...

10305 # 논 매구, 논 매구 인저 또 함번 뜯꾸, 뜯넌건 이제 뭇때는 호매~인 가주구 암 논 이르게 파: 업꾸, 뜯들 때년 호매~이년 안가주가구 그냥 소니루 이령이령 더드머썬, 노닐. {논 매고, 논 매고 이제 또 한번 뜯고, 뜯는 건 이제 뭇 때는 호미 가지고 논 이렇게 파 얹고, 뜯을 때는 호미는 안 가지고 가고 그냥 손으로 이령이령 더듬었어, 논을.}

10305 @ 그것도 이제 첫번째 하는 거, 두번째 하는 거, 세번째 하는 거 그러잖아요?

10305 # 아 맨처메 하능거, 논 매:넝거, 또 인제 두:번, 두:번배끼 안히야. {아 맨 처음에 하는 거, 논 매는 거, 또 이제 두 번, 두 번밖에 안해.}

10305 # 논 뜯넝, 상:꾸 매:구 뜯꾸 그려. {논 뜯는, 심고 매고 뜯고 그려.}

10305 # 매:구 인저 두 두:번채 하넝건 뜯넝거, 논 능친구 히야. {매고 이제 두 두번째 하는 건 뜯는 거야, 논 흙친다고 해.}

10305 # 흙친다구, 어 이르게 흙친다, 뜯넌다구두 하구 흙친다구두 하구 그저네 그래썬. {흙친다고, 어 이렇게 흙친다, 뜯는다고도 하고 흙친다고도 하고 그 전에 그랬어.}

10305 @ 아시 맨다고 해요, 애벌 맨다고 해요? 맨 처음에 하는 거요.

10305 # 아, 아시 매넝기여. {응, 애벌 매는 거요.}

10305 @ 빨래도 처음에 하는 거는 아시 빨다고 그러잖아요?

10305 # 예, 쌀머서 빨구. {예, 삶아서 빨고.}

10305 @ 첫번째 하는 건 아시 맨다고 그러고.

10305 # 그다맨 뜯는거구, 훔친다구두 하구 뜯는다구두 하구. {그 다음에는 뜯는 것이고, 훔친다고도 하고 뜯는다고도 하고.}

10305 @ 짐 맨다는 말도 써요? 지심 맨다고 그래요?

10305 # 예, 그건 다룬 동네넌 그르칸대, 그르케 한디야, 여기넌 그냥 반매러 간다구 하구 반맨다구 하던데, 다룬 동네너 지심맨다구 하구 이란대, 저 아랜너근. {예 그건 다른 동네는 그렇게 한대, 그렇게 한대, 여기는 그냥 발 매러 간다고 하고 발 맨다고 하는데, 다른 동네는 지심맨다고 하고 이런대, 저 아랫넌은.}

10305 # 여기 싸람더른 그냥 반맨다구 그라, 논 매닝거, 바테서 하면 반매러 간다구 하구 이라지, 지슴매러 간다 쏘린 잘 안히야. {여기 사람들은 그냥 발 맨다고, 논 매는 거, 밭에서 하면 발 매러 간다고 하고 이러지, 김매러 간다 소리는 잘 안해.}

10305 @ 요새는 저기 다 약 많이 치죠?

10305 # 예, 야그루 해유, 안매유 요새는. {예, 약으로 해요, 안 매요 요새는.}

10305 @ 사람도 없고.

10305 # 어 사:라미 누가 이씨야지, 노인네덜만 사르니께 지그른 싱:꾸서 메치리따 대:번 푸란나느냐 카구 이리야지. {어 사람이 누가 있어야지, 노인네들만 사니까 지금은 심고서 며칠 있다가 대번에 풀 안나는 약 하고 이래야지.}

10305 # 점부 야그루 써먹찌, 안:해야. {전부 약으로 써 먹지, 안해.}

10306 @ 밭에는 뭐 심어요?

10306 # 바테 콩. {밭에 콩.}

10306 # 어 감자 노꾸, 마늘 캐구, 인저 그거 캐:내구서넌 인저 콩 심... {어 감자 놓고, 마늘 캐고, 이제 그거 캐 내고서는 이제 콩 심(어).}

10306 # 보메 인저 마늘 녹... 마누런 가:레 놔:따 인저 여르메 캐:능기구. {봄에 이제 마늘 놓... 마늘은 가을에 놓았다가 이제 여름에 캐는 거고.}

10306 # 감자넌 인저 보메 놔:가주구 인제 여르메 캐:구서 인저 거그다 콩두 싱:꾸 머, 들 뽕모도 하구:. {감자는 이제 봄에 놓아 가지고 이제 여름에 캐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 콩도 심고 뭐, 들깻모도 하고.}

10306 # 들췌, 으. {들깨, 응.}

10306 @ 콩 말고 저 빨간 것도 있잖아요?

10306 # 판:, 판:. {팥, 팥.}

10306 @ 그거는 뭐에다 써요?

10306 # 그거는 인저 저기, 옴:나렌 떡꼬물 해머거찌유, 떡꼬물. {그거는 이제 저기, 옛날에는 떡꼬물 해 먹었지요, 떡 꼬물.}

10306 # 찰:밥 패머걸라면 인제 찰밥뚜 하구, 판 쌀머서. {찰밥 해 먹으려면 이제 찰밥도 하고, 팥 삶아서.}

10306 # 그르자느문 인저 그 판 쌀머서 인저 고물떡 칼라문 하구.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팥 삶아서 이제 고물떡 하려면.}

10306 @ 팥은 수확이 많이 나요?

10306 # 하이구, 뭇: 별루 안나유. {아이고, 뭐 별로 안 나요.}

10306 # 그냥 머글라구 쪼끔씩 카지 머 그렇거, 파선 별루 안히야. {그냥 먹으려고 쪼끔씩 하지 뭐 그런것, 팥은 별로 안해.}

10306 # 콩언 인제 메주 썬서 장: 당:꾸그라누라구 콩더럴 주로 마이 심찌:. {콩은 이제 메

주 쭈어서 장 담고 그러느라고 콩들을 주로 많이 심지.}

10306 # 파슨 머 별루 마니 안해유, 쩌:끔씩 카지. {팔은 뭐 별로 안 해요, 쪼끔씩 하지.}

10306 @ 수수팔떡 할 때도 거기...

10306 # 어, 판 쌀머서 파꼬물. {응, 팔 삶아서 팔고물.}

10306 # 콩꼬물두 하지만 수수파떡게넌 두루 파꼬무리 중:겨. {콩고물도 하지만 수수팔떡에는 두루 팔고물이 좋은 거야.}

10306 @ 고물할 때?

10306 # 야. {예.}

10306 # 그냥 판 쌀머서 하닝 게 쩌: 조:타구, 수수파떡게넌. {그냥 팔 삶아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수수팔떡에는.}

10306 @ 그게 자체가 달아요?

10306 # 당걸 뒹:서 그리여. {단 것을 넣어서 그래.}

10306 @ 단 것을 넣어서 그래요? 저는...

10306 @ 팔 넣은 것만 먹으면 늘 달아서, 팔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팔 보면 안 단 것 같아요. # 어, 허허허허허. {아, 하하하하하.}

10306 # 안: 다리요, 판 당걸 너:서 그리여, 당걸 너:서. {안 달아요, 팔 단 것을 넣어서 그래, 단 것을 넣어서.}

10306 @ 그 다음에 또 옛날에 토는, 요즘에는 벼 많이 심지만 옛날에는 보리도 많이 심었잖아요?

10306 # 예, 버리 심:꾸. {예, 보리 심고.}

10306 # 인제 비 아노면 버리 벼:내구서넌 인제 스:숙 꺾:구, 또 그거뚜 인제 스:숙뚜 이르게 갈라다 때 느즈면 인제 메:물 갈:구 그르케썬유, 옴:나렌. {이제 비 안 오면 보리 베어 내고서는 이제 조 갈고, 또 그것도 이제 조도 이렇게 갈려다 때가 늦으면 인제 메밀 갈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10306 @ 팔떡 해 먹는 거는 뭘로 해요? # 예? {예?} @ 팔떡 해 먹을 때는 뭘로 해요.

10306 # 수수파떡, 수수. {수수팔떡, 수수.}

10306 @ 그것두 두 가지가 있던데요, 빨간 거 하고 저 빗자루 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10306 # 야:. {예.} 수수 모:, 빨간 수수두 이꾸 뽀:얀 수수두 이꾸 두:가지여. {수수 뭘, 빨간 수수도 있고 뽀얀 수수도 있고 두 가지야.}

10306 @ 그거 이름이 뭐예요?

10306 # 몰리, 수수넌 그냥 장:목쭈수, 하양진. {몰라, 수수는 그냥장목수수, 하얀 것은.}

10306 @ 그 이렇게...

10306 # 어, 장:목쭈수. {응, 장목수수.}

10306 @ 그것도 찰게 있고 메게 있고 그래요? # 예, 수수두 그림. {예, 수수도 그림.}

10306 # 찰수수는 차:지구, 메수수는 메지구. {찰수수는 차지고, 메수수는 메지고.}

1.2. 구술발화자료 2

NO. 21 구술발화5 : 거주생활(집짓기) - 금기생활

조사자 : 박경래

전사자 : 김남정, 박경래

제보자 : 전국순(78세, 여자, 1929년 8월 20일생) - 호적에는 1934년생으로 되어 있음

보조제보자 : 김용기(77세, 남자, 1930년생)

주 소 :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78번지

조사장소 : 제보자의 집

조사일시 : 2006년 7월 20일

10601 @ 집 지을 때 집터를 정하는 것부터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10602 # 예. {예.}

10601 @ 그거 어떻게 하는지요,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집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서는 어떤 식으로 집 짓는지.

10601 # 여기년 집터 다올때 지대미호: 지대미호: 이래쎄. {여기는 집터 다질 때 지대미호 지대미호 이랬어.}

10601 # 이르게 인저 도:레다가, 저 사랑채 질:때 보니까 도:레다가 인저, 큰 도:럴 이르게 서 동아줄루 이르게 해서 무꺼가주 여:그 저기서 이리카면서 지대미호: 지대미호: 이리카면서. {이렇게 이제 둘에다가, 저 사랑채 지을 때 보니까 둘에다가 이제, 큰 둘을 이렇게 해서 동아줄로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여기 저기서 이렇게 하면서 지대미호 지대미호 이렇게 하며.}

10601 # 그러케배게 하던 소리 모뜨러쎄요. {그렇게 밖에 하는 소리 못 들었어.}

10601 @ 다지느라고요?

10601 # 음, 집터 다지느라구. {응, 집터 다지느라고.}

10602 @ 고사는 안 지내요?

10602 # 왜, 인저 저기 그러카구서는 인저 주춧돌 박:꾸 지둥 세우구. {왜, 이제 저기 그렇게 하고서는 주춧돌 박고 기둥 세우고.}

10602 # 인저 그라고 인 네 구렁이에 이르게 도리 언꾸서년 인저 석, 저:기 대들뽀 언질때 그때 떡캐다 노쿠 인저. {이제 그렇게 하고 이 네 귀통이에 이렇게 도리 얹고서는 이제 소 저기 대들보 얹을 때 그때 떡 캐다 놓고 이제.}

10602 @ 그 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안 하고요?

10602 # 맨: 츠:메년 그냥: 잔만 분녕거 거떠라구유, 워따. {맨 처음에는 그냥 잔만 붓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다.}

10602 # 여기는 그르케 하능거:떠라구유.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602 # 머 고:, 떠캐노쿠 이르게 고사 안 해쎄유, 맨 츠:메는. {뭐 고... 떡 캐 놓고 이렇게 고사 안 지냈어요, 맨 처음에는.}

10602 # 그러고냥 인저 대들뽀 언질때 그때 떡카고 인저 술: 사:오구 실: 가따 거기 언꾸 인저 텅여매:자나 이르게 명 저기 뭐 써가주구서 인저. {그렇게 하고는 이제 대들 보 얹을 때 그때 떡 하고 이제 술 사오고 실 갖다 거기 얹고 이제 텅여매잖아 이

렇게 명 저기 뭐 써 가지고서 이제.}

10602 # 그거 인제 연:쑤 쓰닝거 거트대, 그건. {그거 이제 연수 쓰는 것 같데, 그건.}

10602 @ 뭘 써요?

10602 # 연:쑤, 오래가 인저 무슨 해: 무슨 시:에 인저 상:낭해따녕길 인저 거 조:이에다 써서 저버가주구 인저, 문:쑤이에다 써서 저버가주구 연:꾸서는 실:루 이르게 땡:이더라구유. {연수, 올해가 이제 무슨 해 무슨 시에 이제 상량했다는 거야 이제 그 종이에다 써서 접어 가지고 이제, 문종이에다 써서 접어 가지고 엮고서는 실로 이렇게 동이더라고요.}

10602 # 몰:라, 그 집찢닝거 그렇건 난 자시. {몰라, 그 집 짓는 것 그런 것은 난 자세히.}

10602 @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10602 @ 그렇게 살려면 할 거 많잖아요.

10602 # 그러구 인저 절: 하:구, 인저 그르케 가따노쿠 절: 하:구 인저 잔 부꾸, 떡까따 노코서. {그리고 이제 절 하고, 이제 그렇게 갖다 놓고 절 하고 이제 잔 붓고, 떡 갖다 놓고서.}

10602 # 그라구 인저 머: 동네싸람 불러다 먹떠라구유, 그냥. {그리고 이제 뭐 동네 사람 불러다 먹더라고요, 그냥.}

10602 # 먹꾸 인저 대들뽀 언진다멘 인저 석꿀 갈:구 새: 박:꾸 그라구서넌 저 지병 이르게 해: 이:찌 머. {먹고 이제 대들보 엮은 다음에는 이제 서까래 올리고, 산자를 박고 그리고서는 저 지붕 이렇게 해 잇지 뭐.}

10602 @ 새 박는 게 뭐예요?(산자를 박는 것이 뭐예요?)

10602 # 새반닝건 연:나렌 지금더런 양그라지만, 연:나렌 수수깡이루 이르게 서꿀 걸구서 지병에 인제 이르게 열:거써. {새 받는 것은 옛날에는 지금들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수수깡으로 이렇게 서까래 걸고서 지붕에 이제 이렇게 엮었어.}

10602 # 그라구선 인저 흐그루다가 인저 그 지병위(하향 이중모음 '위')털 더퍼써유. {그리고서 이제 흙으로다가 이제 그 지붕 위를 덮었어.}

10602 # 그르카구서넌 인저 영:으루 여꺼찌.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엉으로 엮었지.}

10602 # 그라다가 인저 영: 빼껴내구서 저 기와 해: 잉거지. {그라다가 이제 이어 벗겨 내고서 저 기와 해 인 거지.}

10602 # 츠:메는 영:으루 해:따가. {처음에는 이엉으로 했다가.}

10602 @ 그런데 지붕에다 왜 흙을?

10602 # 흐길 언저여지, 새반는기리야 그게. {흙을 얹어야지, 새 받는 거라고 해 그게.}

10602 # 새반는다구 인저, 수수깡이루두 역:꾸 인저 가노:란 인저 호초래기거튼 막때기 가따 영:꾸 이르게 여 역:떠라구유. {새 받는다고 이제, 수수깡으로도 엮고 이제 가느다란 이제 회초리같은 막대기 갖다 엮고 이렇게 여 엮더라고요.}

10602 # 지병에 안저서, 인제 이르게 여:러시 둘러 안저서. {지붕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여럿이 둘러 앉아서.}

10602 # 그래양꾸선 흐그루다 인저 개:가주 여그서 인저 텅어리루 해서 던져주면 바더서 인제 지병에다 이르게 언저. {그래가지고는 흙으로 이제 개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텅어리로 해서 던져 주면 받아서 이제 지붕에다 이렇게 얹어.}

10602 # 그르카구, 인제 그건 찹찌 말라구 그르케 하는 사람두 이꾸, 인저 그냥 그르케 외:(단모음 '외')때기만 역:꾸서 그냥 영:때기 이:넌 사람두 이꾸:, 또 특키 저 지하

할때는 꼭 호걸 언저, 다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건 읊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냥 그렇게 [*]때기만 읊고 나서 그냥 이영 이는 사람도 있고, 또 특히 저 기와 할 때는 꼭 흙을 얹어, 다시.}

10602 # 호걸 언:꾸서 인저 기아를 언저. {흙을 얹고서 이제 기와를 얹어.}

10602 # 기아 언질때넌 호걸 누:지비구 다 언:꾸서 언:떠라구, 옴:나레 기아 해 일:때넌. {기와 얹을 때는 흙을 뒤집이고 다 얹고서 얹더라고, 옛날에 기와 해 일 때는.}

10602 @ 외때기는 뭐예요?

10602 # 외:(단모음 '외')때기는 그췌 수수깡이나 이런 가느런 막때기 가따 서끝 절:구 거기 언:는게 그게 외:때기유. {애때기는 글췌 수수깡이나 이런 가느다란 막대기 갖다 서까래 걸고 거기 얹는 게 그게 애때기.}

10602 # 영:능겨, 새바들라구. {얹는 거야, 산자 받으려고.}

10602 @ 새 받는 게 그럼...

10602 # 으 영... 그거 수수깡이나 그른 막때기루 인저 열거가주구 서까래다 대구 인저 이르게, 이게 서까래면 이 꼬널 가따 수수깡이루 이르게 느리노쿠 열거 나가능기여. {응 영... 그거 수수깡이나 그런 막대기로 이제 얹어 가지고 서까래에다 대고 이제 이렇게, 이게 서까래면 이 끈을 갖다 수수깡으로 이렇게 늘어 놓고 얹어 나가는 거야.}

10602 # 그르카구서 인저 호걸 거기따 이르게 더:꾸 그라더라구. {그렇게 하고서 이제 흙을 거기에다 이렇게 덮고 그러더라고.}

10602 @ 흙 덮는 것을 새 받는다 그래요?

10602 # 인저 수수깡이 영:꾸, 흙뽀넝걸 새받넌다구 하더라구.{이제 수수깡 얹고, 흙 덮는 것을 산자 받는다고 하더라고.}

10602 # 그낙 우리 오늘 새바들껴, 그라드라구 새받는다구. {그날 우리 오늘 산자 받을 거야, 그러더라고 산자 받는다고.}

10602 # 그라구서넌 인저 영:때기루, 말론 다맨 해:이구.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영으로, 마른 다음에는 해 이고.}

10602 @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10602 # 그췌 인제 영:때기루 해:이면 되능겨:. {글췌 이제 이영으로 해 이면 되는 거야.}

10602 # 그르카구서는 인저 벽뚜 인저 옴:날찌번 인저 수수깡이루 또 열거가주구 인저 흐 그루 발러.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벽도 이제 옛날 집은 이제 수수깡으로 또 얹어 가지고 이제 흙으로 발라.}

10602 @ 벽도요?

10602 # 야. {예.}

10602 # 흐거루 발러서 초벽 발를찌넌 인저 차:지느글 개:다 인제 지부루 쓰:러가주 서꺼가주구 이르게 인제 미:쟁이더리 발르구서넌 인저. {흙으로 발라서 초벽 바를 때는 이제 찰진흙을 개어다 이제 짚을 썰어서 섞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장인들이 바르고서는 이제.}

10602 # 만뻑칼때는 인저 또, 재: 저:기 양:쪽, 항:췌만 해따가 인저 그다:메 할때는 또 만뻑칸다구 하. {맞벽 할 때는 이제 또, 저기 양쪽, 한쪽만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맞벽 한다고 해.}

10602 @ 반대쪽에?

10602 # 어. {응.}

10602 # 이제 이쪼걸 발러서 인제 좀 말르면 저쪼걸 또 발르자너. {이제 이쪽을 발라서 이제 좀 마르면 저쪽을 또 바르잖아.}

10602 # 그르캐서 인자 양:쪼걸 다 발리노쿠서는 인저 또 다:매 하녕건 도 재:사한다구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을 다 발라 놓고서는 이제 또 다음에 하는 것은 또 재벽한다고 하고.}

10602 # 재:사 하능거 인저 갈리지지 말라고 모래로 고:운 모래 좀 세깁걸루, 그걸루 인제 재:사넌 하더라구. {재벽 하는 것은 이제 갈라지지 말라고 모래로 고운 모래 좀 섞인 걸로, 그걸로 이제 재벽은 하더라고.}

10602 # 그라든 인제 다: 되능겨, 지비.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야, 집이.}

10602 # 그러카구나서 인제 문 달구. {그렇게 하고나서 이제 문 달고.}

10602 @ 문 달으려면 또 이렇게 된 것도 필요하잖아요?

10602 # 그건 질:때 다 하녕거지 인저, 문설쭙는 질:때 인제 이런 무니 아니구 조른 쪼끄만 무니니까 인제 질:때 다 인저 문설쭙를 세우구선 인저 중방얼 디리구서 인저. {그건 지을 때 다 하는 거지 이제, 문설쭙는 지을 때 이제 이런 문이 아니고 저런 조그만 문이니까 이제 지을 때 다 이제 문설쭙를 세우고서 이제 중인방을 들고서 이제.}

10602 # 인제 이건 문 중방 디리능거 아녀, 이게. {이제 이건 중인방 들이는 거 아니야, 이게.}

10602 # 중방디려 노쿠서 인저, 다:해노쿠서 인저 무넌 가따 달지. {중인방 들여 놓고서 이제, 다 해 놓고서 이제 문은 갖다 달지.}

10602 @ 어떤 걸 문설쭙라고 해요?

10602 # 문설쭙는 인저 이렇거, 이렇게 문설쭙여. {문설쭙는 이제 이런 것, 이런 게 문설쭙야.}

10602 @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10602 # 야, 이거. {예, 이거.}

10602 # 이걸보구 문설쭙라구 하구 이건 중방이라구 하구. {이걸 보고 문설쭙라고 하고 이건 중인방이라고 하고.}

10602 @ 이걸 문설쭙라 그래요? 그럼 저기서는 지금.

10602 # 그저네 옴:나레 저런. {그전에 옛날에 이런.} @ 매달려 있는 것을 문설쭙라 그래요? 이쪽에 이렇게 턱을 문설쭙라 그래요? # 야, 중방. {예, 중인방.}

10602 # 중방디리구 인저 문설쭙. {중인방 들고 이제 문설쭙.}

10602 @ 그러니까 요렇게 틀, 네모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 예 예. {예 예.} @ 저걸 문설쭙라 그래요? 저기 지금 문에 달려 있는... # 무네 달링거. {문에 달린 것.}

10602 # 무네 달링거, 이거 인전 중방디려 농겨, 문설... {문에 달린 것, 이거 이제 중인방 들여 놓은 거야, 문설...}

10602 # 이거뚜 문설쭙라 하나, 아니여 지동이여, 이진. {이것도 문설쭙라고 하나, 아니야 기둥이야, 이진.}

10602 # 그건 문 중방이라구 하구 아래 위(이중모음 '위'[wi]) 다, 이거 통트러서. {그건 중인방이라고 하고 아래 위 다, 이거 통 털어서.}

10602 @ 저기도 뭐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 문, 고리. {문고리.}

10602 # 문꼬리, 이르게 뚱고랑거 세달링거 이르게 열:구 단녕거 문, 고리. {문고리, 이렇게 동그란 것 쇠 달린 것 이렇게 열고 닫는 것 문고리.}

10602 # 인저 또 저:기. {이제 또 저기.}

10602 # 저기 밤, 여 무네 이르게 뚱 방녕거 이르게 구녕 뚱빙거 하구 이러케 끈녕거, 그건 뭐라고 하지. {저기 방, 여기 문에 이렇게 또 박는 것 이렇게 구멍 뚫린 것 하고 이렇게 쾅는 것, 그건 뭐라고 하지.}

10602 # 문쩌두리, 문, 지:두리, 그건 지:두리. {돌쩌귀, 문 돌쩌귀, 그건 돌쩌귀.}

10602 # 지:두리 이건 문 고리, 자부달리능건 고리, 거기 방녕건 문 지:두리. {돌쩌귀 이건 문고리, 잡아 당기는 건 고리, 거기에 박는 건 돌쩌귀.}

10602 @ 그리고나서 거기다 또 바르잖아요.

10602 # 문쫑이루유. {문종이로요.}

10602 # 문쫑이루 다 발라야 햐. {문종이로 다 발라야 해.}

10602 # 문쫑이루. {문종이로.} @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602 # 문쫑이루다, 인저 저르케 무널 짜서 다리짜너. {문종이로, 이제 저렇게 문을 짜서 달았잖아.}

10602 # 그러면 인저 고기 떼어가주구 마당에 노쿠 인저 풀 쏘서 문쫑이에다 발라가주구 요:로케 발라서 말려서 달:구. {그러면 이제 거기 떼어 가지고 마당에 놓고 이제 풀 쏘어서 문쫑이에다 발라 가지고 요렇게 발라서 말려서 달고.}

10602 # 인저 바람 드러온다구 거기따 인저 또 조:이 쓰:러서 이러케 대:면 인저 문풍지 단다구 하고. {이제 바람 들어온다고 거기에다 이제 또 종이 썰어서 이렇게 대면 이제 문풍지 단다고 하고.}

10602 @ 그럼 바람...

10602 # 드러온다구 인저 망느라구. {들어온다고 이제 막느라고.}

10602 @ 바람 안 들어오게? # 예~. {응.}

10602 # 요:기따 인저 무널 다리썹 요기 새:가 이짜너, 막때기찌리 다:쓰니께, 인저 문 요:기따가 인저 문 종이털 찌저서 요:로케 발리면 요러케 가리막짜너, 그라니께 이제 그게 문:풍지 단다구 하구, 바람 드러온다구. {요기에다 이제 문을 달았으면 요기 사이가 있잖아, 막때기끼리 닿았으니까, 이제 문 요기에다가 이제 문 종이를 찢어서 요렇게 바르면 요렇게 가로막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풍지 단다고 하고, 바람 들어온다고.}

10602 # 우리 사랑방에 저기 그저 무니 이짜너, 그런문. {우리 사랑방에 저기 그저 문이 있잖아, 그런 문.}

10602 @ 그런데 그 문에도 바깥에 누가 오나 보려고 유리...

10602 # 유리 요러케 대:유. {유리 요렇게 대요.}

10602 @ 그건 뭐라고 해요?

10602 # 이제 그 문네다 유리 부쳐따구라지 머 거 쪼끔, 요로케. {이제 그 문에다 유리 붙였다고 하지 뭐 그 조금, 요렇게.}

10602 # 암부친 집뚜 이꾸 이제 부친집뚜 이꾸, 무널 무네다 유리털 쪼가리 쪼끔 대:따구라지 머, 한테 내다 불라구 요거드를 쪼끔 대:따고. {안 붙인 집도 있고 이제 붙인 집도 있고, 문을 문에다 유리를 쪼가리 조금 댔다고 하지 뭐, 바깥에 내가 보려고 유리를 조금 댔다고.}

10602 @ 지붕 일 때는 어떻게 해요?

10602 # 지붕일:뎨 무, 무슨 소리 읍:썌, 지붕이넌데는. {지붕 일 때는 무 무슨 소리 없어, 지붕 이는 데는.}

10602 @ 어떻게 해요?

10602 # 그냥 영: 여꺼서 이러케 둘루구. {그냥 이영 엮어서 이렇게 두르고.}

10602 @ 뎨 처음에. 그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10602 # 뎨: 츠:메는뉴, 그췌 영:얼 여꺼서 이제 땅에서 여꺼가주구서 인저 사람더리 여래 모여가주구, 인제 해:이느니가 따루 이썌. {뎨 처음에는요, 글췌 이영을 엮어서 이제 땅에서 엮어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가지고, 이제 해 이는 이가 따로 있어.}

10602 # 그거뚜 잘: 여:야 비가 안새게 해기떠래. {그것도 잘 이어야 비가 안 새게 하기 때문에.}

10602 # 그래서 인제 이르케 한 마람씩 미테서부텀 이러케 둘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마름씩 밑에서부터 이렇게 둘러 올라가더라고요.}

10602 # 그래가주구서넌 인제 츠:메넌 이르케 똥꾸녀기 여기 아니여?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끝이 여기 아니야?}

10602 # 그람 이러케 가따 놔:, 지붕 꼬테다 이러케 이걸 이러케, 이러케 가따 노쿠서넌 인저 그다메는 이 췌:기럴 이러케 노 녹키 시자걸 하능기여, 여기서버텀. {그럼 이렇게 갖다 놔, 지붕 끝에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새뻬기를 이렇게 노 놓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10602 # 음 뎨:미테넌 이르케 꺼꿀루 한 주럴 더꾸서넌 인저 고: 위서 여:나갈때넌 췌:기가 이르케 나오게 이르케 밍, 인저 한 데 둘루구 또 요만:치다 또 한 채 둘루구 차차:루 이러케 둘러 올라가유. {음 뎨 밑에는 이렇게 거꾸로 한 줄을 덮고서는 이제 고기에서 이어 요나갈 때는 새뻬기가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밍, 이제 한 채 두르고 또 요만치에다 또 한 채 두르고 차차 이렇게 둘러 올라가요.}

10602 # 날망꺼지 다: 둘러 올라가구서는 인저 용고새럴 트러서 덤떠라고. {꼭대기까지 다 둘러 올라가고서는 이제 용마름을 틀어서 덮더라고.}

10602 # 그건 인저 췌:기가 양쫐그루 이르케 나오게 트러. {그건 이제 새뻬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틀어.}

10602 # 이짜그루 췌:기가 나오구 이짜그루 나오게 하구서넌, 가문테는 인저 이르케 자:꾸 파:가주구 한: 머심씩 대:구서 이르케 파:서 여꺼나와. {이쪽으로 새뻬기가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서는,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자꾸 파 가지고 한 모습씩 대고서 이렇게 파서 엮어 나와.}

10602 # 갈따가 인저 그 위(하향 이중모음 '위'[uj]) 다 언:떠라구,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위에다 엮더라고, 그걸.}

10602 # 그래서 용구새 트러 언는다구 하구. {그래서 용마름 틀어 언는다고 하고.}

10602 # 영: 둘룬다구 하구 그라자나. {이영 두룬다고 하고 그러잖아.}

10602 @ 고것은 집 지을 때 언제 하는 거예요?

10602 # 뭐? 영:영... {뭐? 이영 엮는 것?}

10602 # 인제 집 다: 지꾸서. {이제 집 다 짓고서.}

10602 # 베룸빡 참 저기 인저, 서끌 다: 걸:구, 인저 이런데 다: 해:노쿠서 인저 해:이녕거

유. {벽 참 저기 이제, 서까래 다 걸고, 이제 이런 데 다 해 놓고서 이제 해 이는 거예요.}

10602 # 그래 이제 비가 안 새야 인저 이른 베키 부터이짜너, 지붕을 해 여야. {그래 이제 비가 안 새야 이제 이런 벽이 붙어 있잖아, 지붕을 해 이어야.}

10602 # 외:(단모음 '외')만, 쭈순... 여기가따 베름빡까따 대:넝건 외:(단모음 '외') 영넝다구 하. {외만, 수수... 여기 갖다 벽에 갖다 대는 것은 외 엮는다고 해.}

10602 # 외:(단모음 '외') 영넝다구, 이르케 수수깁이루 영넝건. {외 엮는다고, 이렇게 수수 깁으로 엮는 건.}

10602 # 그거넝 외: 영능기여, 외: 영, 외: 열거노쿠서넝 인저 지붕 해: 이구서넝 인저 만빡 카구 인저, 초벽카구 참 만빡카구 재:사하구, 그라민 다: 발리지능기여. {그거는 외 엮는 거야, 외 엮, 외 엮어 놓고서는 이제 지붕 해 이고서는 이제 맞벽 하고 이제, 초벽 하고 참 맞벽 하고 재벽 하고, 그러면 다 발라 지는 거야.}

10602 # 엔:나레는 그냥 그르카구 사러짜너, 도배두 아나구.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 도배도 안 하고.}

10602 # 그러니께 마:뽕만 하면, 그러카구 다: 사릉기여. {그러니까 맞벽만 하면, 그렇게 하고 다 산 거야.}

10602 # 난 그거배께넝 몰러, 그러거 배끼넝. {난 그것 밖에는 몰라, 그런 것 밖에는.}

10602 # 앙그래씨유. {안 그랬지요.}

10602 # 여 눈 수술하구 나서 그러. {여기 눈 수술하고 나서 그래.}

10602 @ 무슨 수술 하셨는데요?

10602 # 누늘 수술해씨유. {눈은 수술했어요.}

10602 @ 뭐 때문예요?

10602 # 뭐 눈:, 여:가 어티타구 하더라, 그러서. {뭐 눈... 여기가 어떻다고 하더라, 그래서.}

10602 # 뽕내장::인테, 또 뭐:가 어티타구래서. {뽕내장인데, 또 뭐가 어떻다고 해서.}

10602 # 두:버니나 해씨유, 기만파에 가 함버나:구 미낭파에 가 함버나:구. {두번이나 했지, 김안파에 가서 한 번 하고 민안파에 가서 한 번 하고.}

10602 @ 그리고나서는 이제...

10602 # 가까운 데. {가까운 데.}

10602 # 음, 양:경얼 버스꾸시 이르케 봐야 다: 보이고, 저만치 명건 양:경을 씨야 보여. {음, 안경을 벗고 이렇게 봐야 다 보이고, 저만치 먼 것은 안경을 씨야 보여.}

10602 @ 그럼 글씨 볼 때는 이제 안경을.

10602 # 버서야대. {벗어야 돼.}

10602 # 교외가서 승:경책 볼때는 이걸 버서야대. {교회 가서 성경책 볼 때는 이걸 벗어야 되고.}

10602 # 목사님 쳐:다볼때는 씨요. 씨따 버서따 하 그래. {목사님 쳐다 볼 때는 씨요. 썼다 벗었다 해 그래.}

10602 @ 아까 집 이는 것 얘기 했잖아요?

10602 # 예. {예.}

10602 @ 집 이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붕이는 것.

10602 # 몰:르거씨 그췌 여그서 그냥 그르케 저, 우리 집 이:넝거 보면 그러케 이:더라구

유. {모르겠어 글썽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저, 우리 집 이는 것 보면 그렇게 이더라고요.}

10602 @ 갈대도 대요? 갈대.

10602 # 갈:때. {갈대.}

10602 # 저거런 옥:썩 풀. {저런 억새 풀.}

10602 # 그거 벼:다가 인저 집 음:너니덜 그걸루두 해 이자너유. {그거 베어다가 이제 쥘 없는 이들 그걸로도 해 이잖아요.}

10602 # 지봄:너이덜, 옴:나레넌 그걸루두 해: 여:썩유. {쥘 없는 이들, 옛날에는 그걸로도 해 이었어.}

10602 # 저런 산 거튼데 인저 집 외판터 하나씩 인녕진 그렇거 벼:다 하자너. {저런 산 같은 데 이제 집 외판 터에 하나씩 있는 건 그런 거 베어다 하잖아.}

10602 @ 그것도 오래 가요?

10602 # 오래가넌지 그걸루덜 해: 여:때유. {오래 가는지 그걸로도 해 이었대요.}

10602 @ 또 다른 길로는 안 하고요? 돌로도...

10602 # 돌: 기와집, 그건 기와지비지, 돌: 기와집. {돌기와집, 그건 기와집이지, 돌기와집.}

10602 # 알파:카게 돌:루 해가주구서루. {알파하게 돌로 해 가지고서.}

10602 # 옴:나레 저 벼:재라넌데 산재집 이쓸때 돌: 기와지비 이썩넌데 헐러썩. {옛날에 저 벼:재라는 데 산지기 집 있을 때 돌기와집이 있었는데 헐렸어.}

10602 # 다: 인저 거긴능거, 산썩게 인넌 지번 다: 뜨드라고 그때 그레짜너유. {다 이제 거기 있는 거, 산 속에 있는 집은 다 뜯으라고 그때 그렷잖아요.}

10602 # 그래서 다: 헐러썩유, 거기 집 메 채 이썩넌데. {그래서 다 헐렸어요, 거기 집 몇 채 있었는데.}

10602 @ 산재집이요?

10602 # 산직썩. {산지기 집.}

10602 @ 산직 집?

10602 # 음 인저 말하자면 김서방네 인저 산지기루 와서 거 와 사:너니덜. {음 이제 말하자면 김서방네 이제 산지기로 와서 거기 와 사는 이들.}

10602 # 줌 중인더리 와서 인저 거와서. {줌 중인들이 와서 이제 거기 와서.}

10602 # 옴:나레넌 그렇걸 따저짜너, 지그먼 안 따지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을 따졌잖아, 지금은 안 따지지만.}

10602 @ 뭐요?

10602 # 중이늘, 따:저짜너. {중인을, 따졌잖아.}

10602 # 옴:나레넌, 지그먼 안 따지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안 따지지만.}

10602 @ 터 닦을 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동아줄 매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맨 처음에는 그걸 하고나서 그 위에다가 또 돌도 갖다 놓지 않아요?

10602 # 그거 하구선 인저 주춧돌을 세우자너. {그거 하고서 이제 주춧돌을 세우잖아.}

10602 # 주춧돌을 노차너. {주춧돌을 놓잖아.}

10602 @ 주춧돌 놓기 전에는 돌 같은 것 안 쌓아요?

10602 # 아이 인저 지폰텐 도:릴 메우지만 인저 이런 터땅넌거는 그냥 녁까래루 일꾼 으:더서 판파:나게 해:노쿠서넌 인저 그걸루 저녀게 다지구서넌. {아 이제 깊은 데는 돌을 메우지만 이제 이런 터를 닦는 것은 그냥 녁가래로 일꾼 얻어서 판판하게 해

농고서는 이제 그걸로 저녁에 다지고서는.}

10602 @ 다질 때 뭐 넣어요?

10602 # 그쵸, 어? {글쵸, 응?}

10602 @ 모래나 뭐 자갈 같은 것.

10602 # 그냥 이르게 다져유, 그냥 흑 이르게 해노쿠 뽀뽀:나게. {그냥 이렇게 다져요, 그냥 흑 이렇게 해 놓고 판판하게.}

10602 # 다지구서넌 인저 그날찌너게넌 아마 수수과떡떠릴 해먹찌, 다질때넌. {다지고서는 이제 그날 저녁에는 아마 수수팔떡을 해 먹지, 다질 때는.}구

10602 # 그르카구서는 인저 네: 구텅이다 인저 돌:로쿠서 인저 그게 주춧돌이라구 하능거 (여).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네 귀퉁이에다 이제 돌 놓고서 이제 그게 주춧돌이라고 하는 거야.}

10602 # 그라구서는 인저 지:둥버텀 세우더라구. {그리서는 이제 기둥부터 세우더라고.}

10602 # 우리 저 사랑채 진넌데 보니까. {우리 저 사랑채 짓는 데 보니까.}

10602 # 대목떠리 와서 인저 그래서 다드머가주구 지둥 세워노쿠서는. {대목들이 와서 이제 그래서 다듬어 가지고 기둥 세워 놓고서는.}

10602 @ 그 다음에는요? 기둥 어떻게 세워요, 그냥 세우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게...

10602 # 으:, 인저. {응, 이제.}

10602 # 지둥얼 인저 다: 이르게 까껴서 인저 짜그루 끝 인제 파가주구서, 이르게 인저 여가문테 이르게 언녕거 이짜너 여기, 도:리 언녕거, 그걸 인제 다: 맞추더라고요. {기둥을 이제 다 이렇게 깎아서 이제 자귀로 끌로 이제 파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엮는 거 있잖아 여기, 도리 엮는 거, 그걸 이제 다 맞추더라고요.}

10602 # 고기서 안저 뉘퍼노쿠서 마쳐가주구서 인저 요썩 찌둥 세우구 이르게 두:개털 세울때 인저 가문테다 이르게 도리털 언저서 맞추더라구유, 그러면 안 쓰러지더라구. {이렇게 네 귀퉁이에다 요렇게 도리를 엮어서 맞추더라고요, 그럼 안 쓰러지더라고.}

10602 # 그라구 인제 사:방 다 고:일때루 고여노차너. {그리고 이제 사방 다 고일 대로 고여 놓잖아.}

10602 # 모설 바거가주 이리저리 이르게 바거노차너 인저, 몬: 너머지게. {못을 박아 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박아 놓잖아 이제, 못 넘어지게.}

10602 @ 그걸 고일 때라고 해요?

10602 # 여 고:일때루 이르게 고여놔야지, 그러캐서 몬찌래서 고여노쿠서는 인저 하더라구유. {응 고일 대로 이렇게 고여 놓아야지, 그렇게 해서 못질 해서 고여 놓고서는 이제 하더라고요.}

10602 @ 그리고나서 그럼 그 위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넘어져요?

10602 # 그걸 인저 고:이니께 새다리 노쿠 그르카구 올:러가서 하니께, 그르 갠차느니까

올:러가서 하지유. {그걸 이제 고이니까 사다리 놓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하니까, 그 괜찮으니까 올라가서 하지요.}

10602 # 목쭈더리 올:러가서 하자너. {목수들이 올라가서 하잖아.}

10602 # 여그서 인저 땅에서 다: 구녕 뜰버가주구: 대패질 해가주구 다 해가주구선 인저 그거 마쳐노코넨. {여기서 이제 땅에서 다 구멍 뚫어서 대패질 해 가지고 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거 맞춰 놓고는.}

10602 # 올:러갈때넨 인저 그 여기 도리: 하구서넨 인저 요기 이르게 또 주추릴 세우더라구, 요기따 요마, 요마:낭걸. {올라갈때는 이제 그 여기 도리 하고서는 이제 요기 이렇게 또 주추를 세우더라고, 여기다 요만 요만한 걸.}

10602 # 그르캐가주구서넨 인저 대들뽀 언저노쿠서넨 인저 서끌 걸:구.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제 대들보 얹어 놓고서는 이제 서까래 걸고.}

10602 # 그르캐선 서끌 먼저 거러노쿠서넨 인저. {그렇게 해서는 서까래 먼저 걸어 놓고서는 이제.}

10602 # 뭘: 하더라구, 인저 여 가문테 이르게 또 인저 는넹거, 중방 는넹거 그렇건 다 이제 서끌 거러노쿠서 느터라구. {뭘 하더라고, 이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또 이제 넣는 것, 중인방 넣는 것 그런 것은 다 이제 서까래 걸어 놓고서 넣더라고.}

10602 @ 그런데 그거 할 때요, 그 대목이 가지고 다니는 연장도 많잖아요.

10602 # 인저 머 끌, 대:패, 또 이르게 몬빵넨 망치, 인제 끌 대구서 이르게 파너라구 망치, 그렇거 가주 땡기지 머. {이제 뭐 끌, 대패, 또 이렇게 못 박는 망치, 이제 끌 대고서 이렇게 파느라고 망치,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뭐.}

10602 @ 또 이렇게 줄...

10602 # 어 먹줄 논넹거. {응 먹줄 놓는 거.}

10602 @ 그건 뭐예요?

10602 # 그건 먹통이라구 하구 먹줄 논넨다구 하구 그라대유. {그건 먹통이라고 하고 먹줄 놓는다고 하고 그러대요.}

10602 # 그건 땅에서 다 하. {그건 땅에서 다 해.}

10602 # 아주 다: 해가주구서 세워, 세울때. {아주 다 해 가지고서 세워, 세울 때.}

10602 # 땅에다 노쿠서 먹줄 다: 이르게, 꺼먹꺼니께 이르게 텅겨노면 거 그:미 다 이짜너. {땅에다 놓고서 먹줄 다 이렇게, 까만 거니까 이렇게 텅겨 놓으면 그 금이 다 있잖아.}

10602 # 그라면 인저 고거 항: 해가주구서 인저 뭘: 올리가서 줌 들:땡건 요르게 인저 조끔씩 인저 모:지라게 땡건 가서 하지, 여그서 다: 구녕 똑꾸 다 마런 해가주구 세우더라구유. {그러면 이제 고것 향해 가지고서 이제 뭘 올라 가서 줌 덜 된 것은 요렇게 조금씩 이제 모자라게 된 것은 가서 하지, 여기서 다 구멍 뚫고 다 마런 해 가지고 세우더라고요.}

10602 @ 그리고나서 이제 위에 서까래 걸고 저...

10602 # 외: 억꾸, 새 박꾸. {외 얹고, 산자 박고.}

10602 @ 새 받고, 외 그 지붕에도 외 얹는다고 하는 거예요?

10602 # 예. {예.}

10602 @ 수수깡...

10602 # 예. {예.}

10602 # 새바들라만 고 외, 외:(단모음 '외')릴 억떠라구. {새 받으려면 그 외, 외를 얹더라고.}

10602 # 이런 벽뚜 얼글라면 외:(단모음 '외') 영넌다구 하구. {이런 벽도 얹으려면 외 얹는다고 하고.}

10602 # 거 영넌건 외:(단모음 '외')영넌다구 다 하더라고. {그 얹는 건 외 얹는다고 다 하더라고.}10602

10602 @ 그래서 흙을 받, 넣는 게 그게 새 받는 거예요?

10602 # 예:. {예.}

10602 @ 그렇게 하고서 지붕 해 이는 거지요?

10602 # 예 예. {예 예.}

10602 @ 그러면 이제 안에도 해야 되잖아요?

10602 # 어:응, 그쵸 아:네는 이제 여기 땅에서 이르게 천장에다 또 흐걸 발라.{응, 글쵸 안에는 이제 여기 땅에서 이렇게 천장에다 또 흙을 발라.}

10602 @ 천장에다가요?

10602 # 아~, 인저. {응, 이제.}

10602 # 그 흙칼 가주구서 인저 흙깨가주구서 떠주면 이리케 이리케 발르구서 초벽카고 인저 또 만백카구 이라지만 인저. {그 흙칼 가지고서 이제 흙 개어 가지고서 떠주면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서 초벽하고 이제 또 맞벽하고 이러지만.}

10602 # 천장이야 인저 한범만 발르구 차룩 발르구서넌 인저 재:사 하구, 이른 벼근 인저 이작 발르구 저작 발르구 그라니께 초벽칸다구 하구 만백칸다구 하구 재:사한다구 하구 이라더라고. {천장이야 이제 한번만 바르고 찰흙 바라고서는 이제 재벽 하고, 이런 벽은 이제 이쪽 바르고 저쪽 바르고 그러니까 초벽한다고 하고 맞벽한다고 하고 재벽한다고 하고 이러더라고.}

10602 @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안 보이게 바르잖아요.

10602 # 이이 야, 그거 인저 그냥 이르게 해:노쿠서 서깔 이르게 나:오게 두넌 집떨두, 옴: 나레는 이꾸, 또 고미 눌른다구 하더라고. {으으 예, 그거 이제 그냥 이렇게 해 놓고서 서까래 이렇게 나오게 두는 집들도, 옛날에는 있고, 또 고미 누른다고 하더라고.}

10602 # 그거 인저 암보이게 이리케, 마라자면 반자틀 하던: 또 고 미테다 쪼꼬마큼 이르게 서끄릴 대더라고, 고 아네다. {그거 이제 안 보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반자틀 하듯 또 그 밑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서까래를 대더라고, 그 안에다.}

10602 # 그르캥건 고미 눌런따구래요. {그렇게 한 건 고미 눌렀다고 해요.}

10602 # 고미 눌런다구. {고미 누른다고.}

10602 @ 그건 왜 해요?

10602 # 예? {예?}

10602 @ 그건 왜 해요?

10602 # 인저 서까래 암:보이구 하게, 옴, 지금 반자틀마냥 이르게 하더라고. {이제 서까래 안 보이게, 옛, 지금 반자틀처럼 이렇게 하더라고.}

10602 # 그르캐서 서까래가 암: 보이게. {그렇게 해서 서까래가 안 보이게.}

10602 # 인저 다랑 느넌 집떠런 인저 다랑 느너라구 너푸게 하구서 인저 요:러캐서 다라걸 또 느코. {이제 다락 넣는 집들은 이제 다락 넣느라고 높게 하고서 이제 요렇게

해서 다락을 또 넣고.}

10602 # 다락 안는넌 집떨두 이르게 고미 눌르넌 집 이떠라구. {다락 안 넣는 집들도 이렇게 고미 누르는 집 있더라고.}

10602 # 그건 그냥 고미 눌러따고 하구, 다락 안 는 지번. {그건 그냥 고미 눌렀다고 하고, 다락 안 넣은 집은.}

10602 @ 그리고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10602 # 네, 반, 이르게 반자? 도배? {예, 반, 이렇게 반자? 도배?}

10602 # 옴:나렌 도배 안 해써:, 그냥 그검만 고미 눌르면 고미 눌런대루 살:구. {옛날에는 도배 안 했어, 그냥 그것만 고미 누르면 고미 누른 대로 살고.}

10602 # 흙뻘게서 그냥 사러써, 그러케. {흙벽에서 그냥 살았어, 그렇게.}

10602 @ 그럼 이렇게 드러누워서 보면 흙이 다 보이잖아요?

10602 # 호기 다: 보이지유. {흙이 다 보이지요.}

10602 # 이 베르빠게두 다 호기구. {이 벽에도 다 흙이고.}

10602 # 그러구 요기 그냥 방빠닥뚜 인제 흥만 발르구서넌 인저 왕:굴자리 깔구자구. {그리고 요기 그냥 방바닥도 이제 흙만 바르고서는 이제 왕굴자리 깔고 자고.}

10602 @ 그럼 이제 불 때려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10602 # 호기리 바라끼떠리 갠차너유. {흙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괜찮아.}

10602 @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뭘 해야 되잖아요.

10602 # 구들, 방꾸들. {구들, 방구들.}

10602 @ 그거 놓으려면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0602 # 인저 이르게 뻘뻘나게 인제 이룬데 다: 하구 인저 방언 이르게 우명:하게 이짜너? {이제 이렇게 판판하게 이제 이룬 데 다 하고 이제 방은 이렇게 우명하게 있잖아?}

10602 # 그러면 인저 구들똥얼 싸터라구유, 이러케. {그러면 이제 구들등을 쌓더라고요, 이렇게.}

10602 # 요러케 쪼고:타게. {요렇게 조붓하게.}

10602 @ 뭘로요?

10602 # 돌: 하구 흑카구 해서 이르게 흑땀 싹탄: 이러케 싹:서루 인저 요만:치 요르케 싹:놔:, 요로케 인저 떠워서. {돌하고 흙하고 해서 이렇게 흙담 싹듯 이렇게 싹아서 이제 요만큼 요렇게 싹아 놔, 요렇게 이제 띄어서.}

10602 # 이 방 한카니면 대여서깨:: 싹킨네, 날똥얼 이러케. {이 방 한 칸이면 대여섯 개 싹졌네, 날등을 이렇게.}

10602 # 싹쿠서는 인전 납짜칸 돌루 이르게 구들짱얼 논능거라, 그게. {쌓고서는 이제 납작한 돌로 이렇게 구들장을 놓는 거래, 그게.}

10602 # 도:털 가따 인제 요러케 놔:유, 요러케. {돌을 갖다 이제 요렇게 놔요, 요렇게.}

10602 # 족: 더퍼 방빠다걸 점:부, 그 납짜:칸 돌:로루. {족 덮어 방바닥을 전부, 그 납작한 돌로.}

10602 # 그게 구들짱 떠 웅거라 구라드라구. {그게 구들장 떠온 거라고 그러더라고.}

10602 # 그래서 더퍼노코는 인저 차르글 개:가주구 인저 여:기저기 이르게 메워놔:, 메워서넌 인저 불때서 인저 어지가니 말르면 인저 또 호그루 한번 발르구서넌, 갈리지면 영기가 올라오니께 인제 모:깔리지게 또 인저 모래 호기루 개:서 재:사릴 하더라

구. {그래서 덮어 놓고는 이제 찰흙을 개어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메워
놔, 메워서 이제 불을 때서 이제 어지간히 마르면 이제 또 흙으로 한번 바르고
서는, 갈라지면 연기가 올라오니까 이제 못 갈라지게 또 이제 모래를 흙으로 개어
서 재사를 하더라고.}

10602 # 그러카구선 인제 그거 말르면 거그따 그냥 자리깎구 자능겨:.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거 마르면 거기에다 그냥 자리 깔고 자는 거야.}

10602 @ 그 구들등 놓은 데 거기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10602 # 야, 그췌 거그따 인저 그췌... {예, 글췌 거기에다 이제 글췌...}

10602 @ 뭐라고 해요, 그걸?

10602 # 구들등 논, 싹는다구 하구. {구들등 놓는, 싹는다고 하고.}

10602 @ 구들등 싹아서 요렇게 싹아 놓으면.

10602 # 응. {응.}

10602 @ 여기 이렇게 생기잖아요.

10602 # 야:. {예.}

10602 @ 요것을 뭐라고 해요?

10602 # 거기 인저 거기는 인저 영기 드르갈테지 머, 불때면 인저 영기 나가넌 델 테지
머. {거기 이제 거기는 이제 연기 들어갈테지 뭐, 불 때면 이제 연기 나가는 데일
테지 뭐.}

10602 # 그건 얘:기 뭐:라구 하는지. {그건 얘:기 뭐:라고 하는지.} @ 나중에 저 메이면 뭐
꺼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10602 # 음, 구리재 후빈다구라 그냥, 재 채여따구 인저 거기 재:. {고랫재 후빈다고 해 그
냥, 재 찼다고 이제 거기 재.}

10602 # 재 채여따구, 구리재 후빈다구. {재 찼다고, 고랫재 후빈다고.}

10602 # 이르케 인제 진: 수수깥이루 해가주구 이르케 쭈실라면, 방 쭈신다구 하구 구리재
후벼넌다구 하구 그라더라구유. {이렇게 이제 긴 수수깥을 가지고 쭈시려면, 방
쭈신다고 하고 고랫재 후벼넌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10602 @ 구리재요?

10602 # 어, 구리재 후빈다구. {응, 고랫재 후빈다고.}

10602 # 곤:재가 거그서 나와, 이르케 후비머는. {고운 재가 거기에서 나와, 이렇게 후비
머.}

10602 # 저 이르케 나무랄 때면 날러가서 곤:재만 인저 거가 이르케 수부카게 췌여서 그제
방이 며:따구 하. {저 이렇게 나무를 때면 날라가서 고운 재만 거기에 가 이렇게
수북하게 췌여서 그제 방이 메였다고 해.}

10602 # 방이 며:췌, 구두리 며:췌, 구들짱 며:췌 이러카면 인저 구리재 휘빈다구 하면 그
거 후벼가주 글거내보면 아:주 곤: 떡가루 가통게 이르케 글거저 나와유. {방이 메
였어, 구들이 메였어, 구들장 메였어 이렇게 하면 이제 고랫재 후빈다고 하면 그
거 후벼서 굵어내 보면 아주 고운 떡가루 같은 게 이렇게 굵어져 나와요.}

10602 @ 그런데 메였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10602 # 부리 안:드러가니께. {불이 안 들어가니까.}

10602 # 부리 이르케 때:면 잘 드러갈체넌 부리 그냥 이르케 술술술술술 저리 땡겨드러가
넌데 그제 메:이면 부리 내:서 그냥 불꼬시 이리 나와가주구 이 부성니마가 새:카

- 마케 끝:구 그냥 영기가 대:꾸 나와서, 그르카면 인저 그걸루 아:녕거지. {불이 이렇게 때면 잘 들어갈 때는 불이 그냥 이렇게 술술 저리로 당겨 들어가는데 그게 메이면 불이 내서 그냥 불꽃이 이리 나와 가지고 이 이맛돌이 새까맣게 그을고 그냥 연기가 자꾸 나와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로 아는 거지.}
- 10602 # 아이구 우리 뉘:퀸 메여써, 방 메여써 이러카구서는 구리재 후벼내야디야, 이러카구 인저. {아이고 우리 부엌은 메였어, 방 메였어 이렇게 하고서는 고랫재 후벼내야돼, 이렇게 하고 이제.}
- 10602 # 또 증: 후벼두 안되면 인저 방얼 뜯넌다구 또, 방얼 뜯더가주구 인저 그 재털 죄 후벼내능기여. {또 정 후벼도 안되면 이제 방을 뜯는다고 또, 방을 뜯어 가지고 이제 그 재를 죄다 후벼내는 거야.}
- 10602 # 그라구 인저 다시 또 방얼 논닝기여.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방을 놓는 거야.}
- 10602 @ 근데 고랫재를 후빌 때는요, 언제 후벼요?
- 10602 # 아무때나 인저 방 안... 불 안드러가며 후벼. {아무때나 이제 방에 안... 불이 안 들어가면 후벼.}
- 10602 # 즈:을기나 여르미나 아무때나, 그건 머 후비는 때가 따루 인녕게 아니여. {겨울이나 여름이나 아무때나, 그건 뉘 후비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냐.}
- 10602 @ 여름에는 불 잘 안 때잖아요.
- 10602 # 아유, 왜요, 여르메넌 버리밥 꽤먹짜너, 옴:나레. {아이고, 왜요, 여름에는 보리밥 해 먹잖아요, 옛날에.}
- 10602 # 여:름죽 읍씨 때:찌, 버리찌벌. {여름[*] 없이 뻘지, 보리 짚을.}
- 10602 # 버리찢 마당에다 인저 도리깨루 투디러가주구 말려가주구, 그래가주 그거 불 때:서 버리바벌 해머걸따구, 이르게 도고질 해가주구. {보리 짚 마당에다 이제 도리깨로 두드려 가지고 말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 불 때서 보리밥을 해 먹었다고, 이렇게 절구질 해 가지고.}
- 10602 # 그르캐서 여:름내 불때지, 안 때구 우트게 사러. {그렇게 해서 여름내내 불 때지, 안 때고 어떻게 살아.}
- 10602 @ 요새는 불 안 때잖아요.
- 10602 # 으 지그믐 안때지유. {응 지금은 안 때지유.}
- 10602 # 지그믐 안: 때지만 여르메는 상:구 버리찌벌 때:가주구 그::르니께 머 땀때기 나구 사:라미 마랄쑤 이써. {지금은 안 때지만 여름에는 계속 보리 짚을 때 가지고 그 러니까 뉘 땀띠 나고 사람이 말할 수 있어.}
- 10602 # 삼시 사시 부털 때서 바벌 해야하니, 그 버리찌벌. {삼시 사시 불을 때서 밥을 해야 하니, 그 보리짚을.}
- 10602 # 그라니 일:함번 할랄래바. {그러니 일 한 번 하려고 해봐.}
- 10602 # 아침 뉘: 해 주야지, 아침 먹꾸 새이 해: 주야지. {아침 뉘 해 줘야지, 아침 먹고 새참 해 줘야지.}
- 10602 # 또 즈:신 해: 주야지, 즈:신 먹꾸 또 저녁쌔 해 주야지. {또 점심 해 줘야, 점심 먹고 또 저녁 새참 해 줘야지.}
- 10602 # 그라면 하루 다섯째 니:때릴 상::구 그 버리찢 때:서 여르메 해주녕거유. {그러면 하루 다섯 때 네 때를 계속 그 보리 짚 때서 여름에 해 주는 거예요.}
- 10602 # 그르니 머 여자더리 말할 쑤 읍씨 머, 그 사녕게 참 사능기여. {그러니 뉘 여자들

이 말할 수 없지 뭐, 그 사는 게 참 사는 거야.}

10602 # 그거 그 또 오시나 시어낭거 이버? {그거 그 또 옷이나 시원한 거 입어?}

10602 # 무명짜시 찡겔루다 인저 적삼 해입꾸, 무명치마 이:꾸 이르카구서 그르케찌. {무명으로 짠 겐로 이제 적삼 해 입고, 무명치마 입고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했지.}

10602 # 그 옴:나레 상:게, 상:게 아니유. {그 옛날에 산 게, 산 게 아니예요.}

10602 @ 그럼 방도 더울 거 아니예요?

10602 # 아이구 답:찌유, 그렇게 마당에 풀 벼다가 모기뿔 노쿠 마당에서 자자너, 방에 부덜 그러케 때:니께 모:짜서. {아이고 답지요, 그러니까 마당에 풀 벼어다가 모깃불 놓고 마당에서 자잖아, 방에 불을 그렇게 때니까 못 자서.}

10602 # 마당에서 멍석 깔구서 그냥, 그냥 거그서 자녕기여. {마당에서 멍석 깔고서 그냥, 그냥 거기서 자는 거야.}

10602 # 모기뿔 노쿠서, 이슬 다: 마즈매서 그냥. {모깃불 놓고서, 이슬 다 맞으면서 그냥.}

10602 # 머 저 혼니불때기, 인넌 사람 혼니불때기루 답:찌만 움넌 사라면 그냥 거그서 애 더라구 궁구러 자녕기여, 멍석 메개씩 퍼노쿠서. {뭐 저 훌이불로 답지만 없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애들하고 뒹굴며 자는 거야, 멍석 몇 개씩 퍼 놓고서.}

10602 @ 잘못 하면 병도 나겠는데요.

10602 # 아이구 그르치요. {아이고 그렇지.}

10602 @ 여름같은 때 비 오면 나쁘잖아요.

10602 # 비올때넌 인저 안자지, 비올때넌 인저 방에 와 자구 뜨럭꺼튼데 우트게 자구 인저. {비 올 때는 이제 안 자지, 비 올 때는 이제 방에 와서 자고 뜨럭 같은 데서 어떻게 자고 이제.}

10602 # 더워두 그냥 비비저거리구 자구 그라지. {더워도 그냥 비비적거리고 자고 그러지.}

10602 # 방이나 또 커, 우리 방 그췌 요:기가 방이여 요:기가, 방이구 조:짜근 골:방이구. {방이나 또 커, 우리 방 글췌 요기가 방이야 요기가, 방이고 저쪽은 골방이고.}

10602 # 그러쓰니 요게 머 여덜짜 방이라나, 요게. {그랬으니 요게 뭐 여덜 자 방이라나, 요게.}

10602 # 얼마나 요기 쪼바. {얼마나 요기 좁아.}

10602 # 이런데서 머 여기서 시동생덜 둘:, 시아번님, 이러캐서 저 읍뻥에는 인저 우리가 쓰구 여그서넌 메씨 자다가 인제 저 사랑 지어가주구 그르케 사라찌. {이런 데서 뭐 여기서 시동생들 둘, 시아버지, 이렇게 해서 저 윗방에는 이제 우리가 쓰고 여기서는 몇씩 자다가 이제 저 사랑채 지어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

10602 @ 마루도 놔야 되잖아요?

10602 # 예? {예?}

10602 @ 방 하면 마루도 놔야 되잖아요.

10602 # 방하면 마루두 논는데 옴:나렌 마루 논: 집뚜 그러케 읍씨췌, 그냥 뜨러게. {방 하면 마루도 놓는데 옛날에는 마루 놓은 집도 그렇게 없었어, 그냥 뜨러에.}

10602 # 호게, 흑 뜨러게 그냥 거기따 머 가마이때기나 머 깔구 이르케 자다가는 인저 낭 중에 마루라구 농게, 우리뚜 인제 여기따 마루라구 농게 인저 혼: 송관쪽 주서다가 이르케 거그다 대:구서 마루라구 그르케 노쿠 이따가 인제 이르케 해찌. {흠에,

흙뜨럭에 그냥 거기에다 뭐 가마니나 뭐 깔고 이렇게 자다가는 이제 나중에 마루라고 놓은 게, 우리도 이제 여기다 마루라고 놓은 게 이제 헌 송판쪽 주워다가 이렇게 거기에다 대고 마루라고 그렇게 놓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했지.}

10602 @ 그것도, 마루도 종류가 있어요, 큰 것도 있고?

10602 # 아 인저 지비 널러서 뜨러기 널른데년 인저 부잔찜털 거튼데년 마루털 잘: 노치. {아 이제 집이 넓어서 뜨럭이 넓은 데는 이제 부갓집들 같은 데는 마루를 잘 놓지.}

10602 # 송판두 조:응걸 가따, 그르치만. {송판도 좋은 걸로 갖다, 그렇지만.}

10602 # 음:년 집떠런 그냥 뜨러게서 살:구, 그르자느면 인저 쪼끔 또 인저 줌 저이, 오래 이따가는 인저 송판쪽 갓따 인저 머 사과 귀여짜꺼통거 그렇거 주서다가 이르게 인저 마루라:구 또 대:노쿠 이러카구두 살:구 그래썬유, 엔:나레는 그러케. {없는 집들은 그냥 뜨럭에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또 이제 줌 저기, 오래 있다가는 이제 송판쪽 갖다 이제 뭐 사과 껌짝 같은 거 그런 거 주워다가 이렇게 이제 마루라고 또 대 놓고 이렇게 하고도 살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10602 @ 마루에도 뭐 이름 있어요, 받치는 것하고?

10602 # 몰라 그렇긴 나는. {몰라 그런 것은 나는.}

10602 # 그냥 마루라구 하구 그냥 뜨러게 살:구 그래썬. {그냥 마루라고 하고 그냥 뜨럭에 살고 그랬지.}

10602 @ 그러면 아까 마루는 이제 문 밖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구들 놓고 흙으로 메워서 이렇게 바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나서 종이는 안 발랐어요?

10602 # 종이두 암: 발러썬유, 종이 발른제가 얼마나 되야. {종이도 안 발랐어요, 종이 바른 지가 얼마나 돼.}

10602 # 종인 암: 발러썬, 그냥 그썬 그 흐구에다 그냥 자리 까러썬. {종이는 안 발랐어, 그냥 글썬 그 흙 위에다 자리 깔았어.}

10602 # 그래서 엔:나레 그냥 애:덜 키울 때 인저 무슨 기저구나 이썬썬? {그래서 옛날에 그냥 애들 키울 때 이제 무슨 기저귀나 있었어?}

10602 # 엔:나레 인저 뵤, 뵤짜추 떠러장거 그렇거 모:쓰녕거 인저 그걸 걸러에서 자면 머, 이부레 똥치라구 머 애: 키우녕 거 그거 머 왕:굴자리에 그냥 자다보면 바메 똥얼뉘:서 그냥 왕:굴자리에 똥이 머:서 딱꺼지두 잘 아나구, 우리 츠:메 시집가서는 그러썬. {옛날에 이제 베, 베 떨어진 거 그런 거 못 쓰는 것 이제 그걸 걸레해서 자면 뭐, 이불에 똥칠하고 뭐 애 키우는 거 그거 뭐 왕골자리에 그냥 자다보면 똥을 뉘서 그냥 왕골자리에 똥이 메여서 닦아지지도 잘 안 하고, 우리 처음에 시집가서는 그랬어.}

10602 # 그르케 살:다가 인저 쪼:꿈 인저 더 커가주구서년 인저 머 포대기두 인저 츠:너포 대기 나:따구 해서 사다 떠두보구 이래썬. {그렇게 살다가 이제 조금 이제 더 커가지고서는 이제 뭐 포대기도 이제 치마포대기(두렁이) 났다고 해서 사다 썬보고 이랬지.}

10602 # 기저구두 읍썬썬 그때년, 우리 애 키... 나 처대 키울때년. {기저귀도 없었어 그때는, 우리 애 키... 나 첫애 키울 때는.}

10602 # 몰라 다른데 부자더런 키워썬만 우리년 어렵게 사려서 그렁겄뚜 읍썬 그냥 기저구두 읍썬 그냥, 혼: 온 떠러진 쪼가리에다 이르게 해서 그냥 기저구 채우두 모타

구 그냥. {물라 다른 데 부자들은 키웠지만 우리는 어렵게 살아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저귀도 없이 그냥, 헌 옷 떨어진 쪼가리에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기저귀 채 우지도 못 하고 그냥.}

10602 # 날자리에서 데리구 자니께 오줌싸구 똥싸면 여 왕:굴자리에 다: 배키자너, 그러면 이부레 똥칠두 하구 머 그게 상:게 상:기여. {날자리에서 데리고 자니까 오줌 싸고 똥 싸면 여기 왕굴자리에 다 박히잖아, 그러면 이불에 똥칠도 하고 뭐 그게 산 게 산 거야.}

10602 @ 그러면 저기 광목이나 뭐 이런 거를 기저귀 한 거는 한참 뒤겠네요, 호청으로 한 거?

10602 # 그러므냐:, 한참 이따 해찌. {그럼은요, 한참 있다 했지.}

10602 # 나 시지봐서 애기를 일:짱 나썸, 수무사레. {나 시집 와서 아기를 일찍 낳았어, 스무살에.}

10602 # 그르케 난는데 그때는 기저구 읍써썸, 츠:녀포대기두 읍써썸 그때년. {그렇게 낳았는데 그때는 기저귀 없었어, 치마포대기(두렁이)도 없었어 그때는.}

10602 @ 그럼 그냥 아무 것도 안 했어요?

10602 # 어 그냥 명짜치루해서 이러케 둘러 억꾸, 왜 엔:날 구닌담뇨 이써짜너, 일본, 저기 유교나구서. {응 그냥 명 자투리로 해서 이렇게 둘러 업고, 왜 옛날 군인 담요 있었잖아, 일본, 저기 육이오(6.25) 나고서.}

10602 # 그 구닌 담뇨, 국빵색, 그거면 아주 조:홍걸루 알구 떠:구. {그 군인 담요, 국방색, 그거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두르고.}

10602 # 그라구 인제 베 짜가주구서 어불떠두 인저 그걸루 꼬냉이 두:개 다러가주구 이러케 아래위 똥(단모음 '외')여서 이러케 억꾸댕기구 이래찌. {그리고 이제 베 짜 가지고서 엮는 때도 이제 그걸로 끈 두 개 달아 가지고 이렇게 아래 위로 동여서 이렇게 엮고 다니고 그랬지.}

10602 # 츠:녀포대기두 읍써썸유, 애 나 둘: 라쿠 신: 나니께 그때 인저 츠:녀포대기가 나와썸. {치마포대기(두렁이)도 없었어요, 애 나 둘 낳고 셋 낳으니까 그때 이제 치마포대기(두렁이)가 나왔어.}

10602 @ 기저귀는 그럼 언제부터 했어요?

10602 # 기저구두 우리넌 그때까지 나는 기저구 모:채워바썸 애:덜, 나중에 인저 망내딩이 나:서 기저구 채워바썸. {기저귀도 우리는 그때까지 나는 기저귀 못 채워 봤어 애들, 나중에 이제 막내둥이 낳아서 기저귀 채워 봤지.}

10602 @ 자리도 여러 가지 자리가 있었잖아요?

10602 # 그르치유, 왕:굴자리, 왕:굴루 인제 또 가늘:게 매서 돛자리. {그렇지요, 왕굴자리, 왕굴로 이제 또 가늘게 매서 돛자리.}

10602 @ 돛자리가 더 가는 거예요?

10602 # 예, 도짜리넌 왜 지금 나오자너, 화문서기라능거 예, 고:웅거 이르게 가마니틀 이레 마냥 짜넝거, 그게 도짜리네. {예, 돛자리는 왜 지금 나오잖아, 화문석이라는 거 예, 고운 거 이렇게 가마니틀 마냥 짜는 거, 그게 돛자리네.}

10602 # 그:령건 머 지:석짜리라구 그냥 지사 지낼때만 사노코서 피구서 인저 지사음식 차려노쿠 지내지, 깔:구 자구 이러케는 해볼 생각뚜 모태썸. {그런 것은 뭐 제사 자리라고 그냥 제사 지낼 때만 사 놓고서 퍼거 이제 제사 음식 차려 놓고 지내지,

깔고자고 이렇게는 해 볼 생각도 못 했어.}

10602 # 왕골자리 깔:구 그거두 모:까리서 머 꺼적짜리 깔:구 자는 사라미 수루카구 그런
 는데 머 여기두. {왕골자리 깔고 그것도 못 깔아서 뭐 거적자리 깔고 자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랬는데 뭐 여기도.}

10602 # 그르케 사런넌데 머. {그렇게 살았는데 뭐.}

10602 @ 지식자리하고 왕골자리하고 거적자리가 다른 거네요?

10602 # 예. {예.}

10602 # 왕:골자리는 왕:골 넘짜카게 해서 이르게 고드래또그루 매:닝거. {왕골자리는 왕골
 넘적하게 해서 이렇게 고드랫돌로 매는 거.}

10602 # 또 지식짜리 하능건 돛짜리털 가주구 얘기하능겨, 그건, 돛짜리. {또 초석자리 하
 는 건 돛자리를 가지고 얘기 하는 거야, 그건 돛자리.}

10602 # 꺼적짜리능 그냥 또 이른 풀거통거 또 말, 벼:서 말려가주구 그르케. {거적자리는
 그냥 또 이런 풀 같은 거 또 말, 베어서 말려 가지고 이렇게.}

10602 # 열거서 왕:골두 인제 모:태서 그런 자리 이꾸, 그리지아느면 인제 가:마니때기 깔:
 구 자구 이래썬유. {엮어서 왕골도 이제 못 해서 그런 자리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마니 깔고 자고 이랬어요.}

10602 # 그때 무르베 머 일짱 시대 때 머 사:능게 그게 사:능기여. {그때 무렵에 뭐 일정
 시대때 뭐 사는 게 그게 사는 거야.}

10602 @ 그럼 초석자리가 그 고운...

10602 # 예: 돛짜리 가주구 인저 그걸루, 돛짜리인데 인저 이건 지식짜리다 하구 잘 우해
 뒤:따 인저 지사 지낼때만 쓰니까 지식짜리라구 하능기여. {예 돛자리 가지고 이
 제 그걸로, 돛자리인데 이제 이건 초석자리다 하고 잘 위해 두었다가 이제 제사 지
 낼 때만 쓰니까 초석자리라고 하는거야.}

10602 # 돛짜리인데, 어 돛짜리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운거 사다가 그르카능기여. {돛자
 리인데, 응 돛자리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운 거 사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10602 @ 그러면 그때 저기 빈대 뭐 이런 것도 많았겠네요.

10602 # 그러먼뉴:. {그럼은요.}

10602 # 빈대가 이썬 머 자다가 그냥 호롱불 가지구 막 이르게 잠너라구, 이:두 꼬이구 머
 머리에 서카리두 이꾸, 아하이구 옴:날 산: 생각카면 마하면 머라. {빈대가 있어
 뭐 자다가 그냥 호롱불 가지고 막 이렇게 잡느라고, 이도 꼬이고 뭐 머리에 서캐
 도 있고, 아이고 옛날에 산 생각 하면 말하면 뭘 해.}

10602 # 오세두 이:가 이썬서 머 그냥 등잔 불겨노쿠 그거 잠너라구 이르카구 머 그르케
 켜. {옷에도 이가 있어서 뭐 그냥 등잔불 켜 놓고 그거 잡느라고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지.}

10602 # 농냐기 이썬 뭐:가 이썬, 그냥 머 참 그 무명오세 빨래두 자주 모:태이꾸 이라니
 게 머 사람, 식꾸덜 그냥 함방에서 지 들꿀쿠 그라니께. {농약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뭐 참 그 무명옷에 빨래도 자주 못 해 입고 이러니까 뭐 사람, 식구들 그냥
 한 방에서 죄다 들끓고 그러니까.}

10602 # 그때두 인년 이더리야 양그래썰티지 머 그냥, 초라하게 사넌 사람더리 그래썰.
 {그때도 있는 이들이야 안 그랬을테지 뭐 그냥,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랬지.}

10602 @ 서카리요?

10602 # 소카리. {서캐.}

10602 @ 소카리가 뭐예요?

10602 # 이:가:: 깔렁거. {이가 갈긴 거.}

10602 # 이가 깔려써유, 소카리털 이르게 하이:양걸 오세두 깔려노코 머리에두 깔려노코 그라자너. {이가 갈겼어요, 서캐를 이렇게 하얀 걸 옷에도 갈겨놓고 머리에다 갈겨놓고 그러잖아.}

10602 @ 머리에 있는 것 하고, 옷에 있는 것 하고...

10602 # 소카리는 또까트지유. {서캐는 똑같지요.}

10602 # 머린나라구 하구 오세이라구 하닌데, 소카리는 또까터. {머릿나라고 하고 옷의 이라고 하는데, 서캐는 똑같아.}

10602 # 하:양게 그냥 요망크망게 이르게 지브먼 똑 똑 소리가 나, 부레다 이르게 솔카리털 이 그 소카리 인능걸 이르게 가따 대면 호도둑 호도둑 카, 치느라구. {하얀 게 그냥 요만큼한 게 이렇게 집으면 똑 똑 소리가 나, 불에다 이렇게 술기를 이 그 서캐 있는 걸 이렇게 갖다 대면 후두룩 후두룩 해, 튀느라고.}

10602 # 그러써, 옴:나레는. {그랬어, 옛날에는.}

10602 @ 그럼 이는 달라요?

10602 # 또까터유, 머린나 하양, 오센니는 하이야쿠 머린니는 머리에 인능거라 종 꺼머써, 이가. {똑같아요, 머릿나 하얀, 옷의 이는 하얗고 머릿니는 머리에 있는 거라 좀 까맣어, 이가.}

10602 # 그래서 이건 머린니, 이건 오센니. {그래서 이건 머릿니, 이건 옷의 이.}

10602 @ 그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10602 # 으? {응?}

10602 @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10602 # 아 그냥 인저 불써노쿠 이르게 자버서 소니루 이르게 쥐(단모음 '위')기구 화리뿌레 이르게 뜨:더노쿠 그래써. {아 그냥 이제 불 싸 놓고 이렇게 잡아서 손으로 이렇게 죽이고 화롯불에 이렇게 뜯어 놓고 그랬어.}

10602 # 냐:, 머리는 인저 거 어리빈, 참비시루 이르게 다:꾸 참비시루 비서서, 이러캐서 인저 자버내구. {예, 머리는 이제 그 열레빗, 참빗으로 이렇게 자꾸 참빗으로 빗어서, 이렇게 해서 이저 잡아내고.}

10602 # 그래서 인저 머리털 이르게 지:러가주구 비나 찢르구 그래짜너 옴:나레닌, 그랄라먼 머리 수시 이마내가주구 비나 하나가 이만큼 할라먼 머리 빈, 그냥 머리에 소카리가 이쓰면 그냥 그 참비시루 노:다지 이르게 비서야지 머. {그래서 이제 머리들 이렇게 길어 가지고 비녀 찢르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그러려면 머리 술이 이만 해 가지고 비녀 하나를 이만큼 하려면 머리, 그냥 머리에 서캐가 있으면 그냥 그 참빗으로 항상 이렇게 빗어야지 뭐.}

10602 # 그라먼 인저 이:두 나오구 인저 소카리두 후터지구 이라지. {그러면 이제 이도 나오고 이제 서캐도 훑어지고 이래지.}

10602 @ 참빗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10602 # 네, 참비스루 하면 홀터저유. {네, 참빗으로 하면 훑어져요.}

10602 # 홀터저두 다: 아눌터지지 머. {훑어져도 다 안 훑어지지 뭐.}

10602 # 애:더린,애덜 딸래미덜 마:넌지번 머 그 더병머리에 소카리가 그냥 들벅들벅캐써,

그저네. {애들이, 애들이 딸들 많은 집은 뭐 그 더벅머리에 서캐가 그냥 그득그득 했어, 그전에.}

10602 # 아이구 지금두 생각카면 아주. {아이고 지금도 생각 하면 아주.}

10602 @ 빈대는 어떻게 생겼어요? 빈대도 있고 또 툭툭 튀는 것도...

10602 # 빼룩. {벼룩.}

10602 # 빈... 지금두 왜 나물바테 가며 이르게 툭툭 치는 벌거지 이찌? {빈... 지듬도 왜 나물발에 가면 이렇게 툭툭 치는 벌레 있지?}

10602 # 그렇:게 인저 빼루기구, 빈대는 이르게 쪼끔 무슨 벌거지 거트까. {그런 게 이제 벼룩이고, 빈대는 이렇게 쪼끔 무슨 벌레 같을까.}

10602 # 그르케 생겼는데 자:거, 지금 요마:난 벌거지 왜 기어댕기능거 이짜너요, 이 지금 두. {그렇게 생겼는데 작아, 지금 요만한 벌레 왜 기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도.}

10602 # 고런데 새카망게 요마:내유 요마:난데, 쿵건 이마:냥거뚜 이썸. {고리한테 새카만 게 요만해요 요만한테, 큰 것은 이만한 것도 있어.}

10602 # 술::술 이르게 겨댕겨. {살살 이렇게 기어 다녀.}

10602 # 그라면 자다가 그냥 무러뜨더서 자리미칠 떠르러보든 자리미테 술::술 이르게 겨 댕기자너. {그러면 자다가 그냥 물어 뜯어서 자리 밑을 들춰보면 자리 밑에 살살 이렇게 기어 다니잖아.}

10602 @ 그게 물면 아파요?

10602 # 가:려워서 못쩍디지유. {가려워서 못 견디지요.}

10602 # 가:려워서. {가려워서.}

10602 # 빈대가 무르면 그냥 가려워서 못쩍더, 못짜. {빈대가 물며 그냥 가려워서 못 견뎌, 못 자.}

10602 @ 벼룩은요?

10602 # 빼루근 툭툭 터댕기매 그르케 또 무러서 따끔따꾸마게 하고, 빼루건. {벼룩은 툭 툭 튀어 다니며 그렇게 또 물어서 따끔따끔하게 하고, 벼룩은.}

10602 # 그냥 빈대는 술:술 겨댕기며 무러서 가려꾸. {그냥 빈대는 살살 기어 다니며 물어 서 가렵고.}

10602 # 빼루궁 그냥 아주 따구워, 따끔 히아. {벼룩은 그냥 아주 따가워, 따끔 해.}

10602 # 툭툭 터댕기매 그르케 쏘면. {툭툭 튀어 다니면서 그렇게 쏘면.}

10602 @ 그럼 어떻게 잡아요?

10602 # 그건 여가내서 못짹찌유. {그건 여간 해서 못 잡지요.}

10602 # 툭툭 터댕기니께. {툭툭 튀어 다니니까.}

10602 @ 방바닥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 다음에 종이 바른 것은 한참 뒤 네요?

10602 # 구:러문뉴:. {그럼은요.}

10602 # 그거 인저 한참 이따가, 인저 종이 발러찌. {그거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종이 발 랐지.}

10602 # 인저 벼게 발르구 인저, 벼게두 인저 조이 발르기 시작카면 방빠닥뚜 인저 장판 한다구 그때는 그래썸. {이제 벽에 바르고 이제, 벽에도 이제 종이 바르기 시작하 면 방바닥도 이제 장판 한다고 그때는 그랬어.}

10602 # 그러면 인저 회푸대 쪼이 왜 이짜너유, 사료푸대 종이, 장판지나 어딘썬썬 그거 사다가 인제 이르게 발르구서넌. {그러면 이제 시멘트 포대 종이 왜 있잖아요, 사료포대 종이, 장판지나 어디 있었어 그거 사다가 이제 이렇게 바르고서는.}

10602 # 콩 이르게 갈:구 들지르마구 해서 이르게 그걸루 이러:케 문대머넌 발:가케 인저 지르메 짜러서 그러케 되(단모음 '외')지. {콩 이렇게 갈고 들기름하고 해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문지르면 발갥게 이제 기름에 절어서 그렇게 되지.}

10602 # 인저 그르케 시자캐서 그케 되(단모음 '외')배반자 하구 장판 하구 그르카기 시자 캉거지.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그케 도배 반자 하고 장판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지.}

10602 @ 그 콩 갈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한다고 해요?

10602 # 인저 이거 장파네 지름 메긴다구. {이제 이거 장판에 기름 먹인다고.}

10602 # 들지름 하:구 인저 그 콩 가룻 콩물 하구 해서 그르케 자루에 요마난 자루털 지어 가주 거기따 너:가주 이러케 이러케 다:꾸 메뻔 문때면 지르메 찢구 인제 콩무레 짜러서 장판두 질기구 노:랑게 때두 잘 때껴져. {들기름 하고 이제 그 콩 간 콩물 하고 해서 그렇게 자루에 요마난 자루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꾸 몇 번 문지르면 기름에 절고 이제 콩물에 절어서 장판도 질기고 노란 게 때도 잘 닦여져.}

10602 # 안 하면 그냥 머 오줌 싸면 조이가 흐칠흐칠 부러서 절판 나자너, 그라잉게. {안 하면 그냥 뭐 오줌 싸면 종이가 흐물흐물 붙어서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10602 # 애:더리 오줌싸구 똥싸구 구래두 그러케노면 무리 잘 안 머거서 따끄른 깨끄타거 든. {애들이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도 그렇게 해 놓으면 물이 잘 안 먹어서 닦으면 깨끗하거든.}

10602 @ 옆에도 뭐 발랐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10602 # 이거 굽두리, 요기. {이거 굽도리, 요기.}

10602 # 인저 장판 하구서어: 그 조이루다 다: 요기 구벌 요르게 돌려써, 그냥 그 종이루다. {이제 장판 하고서 그 종이로 다 요기 굽도리를 요렇게 돌렸어, 그냥 그 종이로.}

10602 # 되(단모음 '외')배하구 인저 장판 하구 이라니께 고기 새:가 이르게 이짜너, 요만치 오려가주구 인저 굽또리라구 요기 요르게 뽕: 도리 헐찌. {도배 하고 이제 장판 하고 이러니까 고기 사이가 이렇게 있잖아, 요만큼 오려 가지고 이제 굽도리라고 요기 요렇게 뽕 돌아가며 했지.}

10602 @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른 것도 여기나 여기 베름빱이라고 그러죠?

10602 # 네. {예.}

10602 @ 여기는 저 뭐라 그래요?

10602 # 반자, 반자해:파구 하구. {반자, 반자했다고 하고.}

10602 @ 반자했다고 하는 게 종이 바른 것을 반자했다고 해요?

10602 # 예. {예.}

10602 @ 종이 안 바른 것도...

10602 # 아:너:, 종이를 인저 발러야 반자헐파구라지. {아니야, 종이를 이제 발라야 반자했다고 하지.}

10602 # 그저네 그래썬. {그전에 그랬어.}

10602 # 인저 거기따가 막때기루 이르케 트릴 짜유. {이제 거기에다 막대기로 이렇게 틀을 짜요.}

10602 # 트릴 짜서 해서 철싸루 이러게 드문드문 열거노쿠서 인저, 츠:메 심문지가통 걸루 다 인저 고 소:걸 가서 이르케 부쳐 드문드문, 그래야 인저 이 되(단모음 '외')배지가 가서 붙자너. {틀을 짜서 해서 철사로 이렇게 드문드문 엮어 놓고서 이제, 처음에 신문지같은 걸로 고 속을 가서 이렇게 붙여 드문드문, 그래야 이제 이 도배지가 가서 붙잖아.}

10602 # 그라구서 인저 나중에 되(단모음 '외')배지릴 가따 이르케 부치지.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도배지를 갖다 이렇게 붙이지.}

10602 # 그래서 인저 반자틀 짜노쿠서 인제 반자: 하능기여. {그래서 이제 반자틀 짜 놓고서 이제 반자 하는 거야.}

10602 @ 그럼 제일 먼저 바르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하고 방바닥하고 벽하고 여기 반자하고.

10602 # 그르카른 인저 이 벼걸 다 발르구서 이 반, 장파널 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 벽을 다 바르고서 이 반, 장판을 해야지.}

10602 # 벼걸 발르구서. {벽을 바르고서.}

10602 # 천 천장두 발르구 인저 벽뚜 발르구 하구서 인저 장파늘 해야지. {천장도 바르고 이제 벽도 바르고 하고서 이제 장판을 해야지.}

10602 # 또 인저 살:다가 떨어지면 저 장판만두 하년 수가 이꾸. {또 이제 살다가 떨어지면 저 장판만도 하는 수가 있고.}

10602 # 장파니 안 떨어지면 인저 또 벼케 조이가 꺼머쓰먼저 되(단모음 '외')배 하년 수도 이꾸. {장판이 안 떨어지면 또 벽에 종이가 더러워졌으면 도배 하는 수도 있고.}

10602 @ 그러면 이 반자 한 것은 훨씬 뒤네요, 저는 한 것도 보고 안한 것도 보고 이랬거든요. 그전에 보면 여기 밤에 쥐가 막 다녔잖아요, 자려고 하면. 그거 어디로 들어가요?

10602 # 뭐: 인저 저런데 지병 해 여쓰니께 거그 구녁뚝꾸 드러오구, 워디 인제 저런 농통 거튼데 베름빱 이른 땅빠다걸 뚝꾸 드러오구 그라지유 머. {뭐 이제 저런 데 지붕 해 이었으니까 거기 구멍 뚫고 들어오고, 어디 이제 저런 농 톱 같은 데 벽 이런 땅바닥을 뚫고 들어오고 그러지요 뭐.}

10602 @ 집 지을 때, 저기 다락, 다락이라고 하나요?

10602 # 예 다락 예 예. {예, 다락 예 예.}

10602 @ 이게 또 방에서 부엌쪽으로도 요렇게 방에서 낸 것도 있잖아요.

10602 # 으, 요기 요기. {응, 요기 요기.}

10602 # 요기따가 인저 저짜그루 뵤:크루다가 인저 이로:케 해 느차너, 요로:케. {여기에다가 이제 저쪽으로 부엌으로다 이제 이렇게 해 넣잖아, 요렇게.}

10602 # 요르캐서 해노쿠 요기따가 문내구, 그게 다락. {요렇게 해서 해 놓고 요기에다가 문 내고, 그게 다락.}

10602 # 유:다라근 여 지병 아주 여 방우예다 전부 하능게 유다락. {유다락은 여기 지붕 아주 여기 방위에다 전부 하는 게 유다락.}

10602 @ 방 위에 또 방이 있는 거네요, 그럼.

10602 # 방이 아니라 인제 요만::치 혀, 요만:치 인제 다라근... {방이 아니라 이제 요만큼

해, 요만큼 이제 다락은...}

10602 @ 방은 아니고, 그렇지요?

10602 # 방 아니구 인제 요만:치 해서 이르게 인저 고무 눌:러서 인저 고그따가 요르게 해
노쿠는 인저 드나드는데 해노쿠 그러면 그제 유:다락. {방 아니고 이제 요만큼 해
서 이렇게 이제 고미 눌:러서 이제 거기에다 요렇게 해 놓고는 이제 드나드는데 해
놓고 그러면 그제 유다락.}

10604 @ 거는 뭐 하는 데예요?

10604 # 살림 그냥 머 허툼설거지. {살림 그냥 뭐 허툼 살림살이.}

10604 # 그저넌 지비 쪼꼬마니께 그냥 거그따 허툼설거지 는:너라구 그러케 향기여. {그전
에는 집이 조그마니까 그냥 거기에다 허툼 살림살이 넣는라고 그렇게 한 거야.}

10604 @ 어떤 것 넣어 뒀어요?

10604 # 뭐: 살림사리 머, 그냥 머 지저부낭거 거그따가 너:노차너. {뭐 살림살이 뭐, 그냥
뭐 지저분한 거 거기에다가 넣어 놓잖아.}

10604 @ 글썄 뭐 그런 거 뭐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10604 # 머 별거 다: 너유, 살림사리는 다: 너, 자우관 머. {뭐 별거 다 넣어요, 살림살이는
다 넣어, 좌우관 뭐.}

10604 # 머 자리 걷, 썩 돌짜리 거툼거 그렇거뚜 느쿠, 머 박 뽁쓰때기 거툼거뚜 너쿠 머.
{뭐 자리 거, 저 돛자리 같은 거 그런 것도 넣고, 뭐 박 박스 같은 것도 넣고 뭐.}

10604 # 아이 뭐:라구 다 머 설명할쭈가 이썬, 다: 는넝길. {아니 뭐라고 다 뭐 설명할 수
가 있어, 다 넣는 길.}

10604 # 상거툼거 사노쿠 쓰자너, 썬두 인저 또 안: 쓰넌 상두 이쓰면 그렇거뚜 가따 너:
노코 뭐:. {상 같은 거 사 놓고 쓰잖아, 썬도 이제 또 안 쓰는 상도 있으면 그런
것도 갖다 넣어 놓고 뭐.}

10604 # 다: 너: 놔:, 자우관 머 살리든 다: 여:러가지 다: 거그따 너:놔. {다 넣어 놔, 좌우
관 살림은 다 여러 가지 다 거기에다 넣어 놔.}

10604 # 인 지금 마라자든 인저 광: 사머 쓰능기여, 거기털. {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광 삼
아 쓰는 거야, 거기털.}

10604 @ 광은 나중에 생겼어요, 그러면?

10604 # 그르치유, 부자찌비더리나 광: 이썬썬, 움썬썬유 광:이. {그렇지요, 부잣집들이나
광이 있었지, 없었지요 광이.}

10604 # 우리두 저건 낭:중에 징거유. {우리도 저건 나중에 지은 거예요.}

10604 # 방 이거 하나 가주구 살:다가 인저 저 사랑채 지꾸 저 광:두 또 늑게 징겨, 낭:중
에서. {방 이거 하나 가지고 살다가 이제 저 사랑채 짓고 저 광도 또 늑게 지은
거야, 나중에.}

10604 @ 그게 유다락이고?

10604 # 여기 유:다... 우린 움:썬썬유, 유:다락. {여기 유다... 우리 없어요, 유다락.}

10604 @ 그 다음에 요기다가 한 것은?

10604 # 다락. {다락.}

10604 @ 다락은 문...

10604 # 벽짱이라구두 하구:, 요기 벽짱, 벽장. {벽장이라고도 하고, 요기 벽장, 벽장.}

10604 @ 부엌 위에다 낸 거예요?

10604 # 음, 네, 고건 벽장이라고 하고. {음 예, 고것은 벽장이라고 하고.}

10604 @ 거기는 뭐 어떤...

10604 # 그럭, 거기두 인저 머 그렇거 지저부낭거 너:. {그럼, 거기도 이제 뭐 그런 것 저분한 것 넣어.}

10604 # 뭐 음식꺼통거 여서 먹따 나머두 인저 노인네더리 할머니더리 머 여기따가 이르게 올려노쿠. {뭐 음식 같은 거 여기서 먹다가 남아도 이제 노인네들이 할머니들이 뭐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 놓고.}

10604 # 예:저네 할머니덜 담:배두 피우셔짜너, 하라부... 그람 거그따 그렇거뚜 너:노쿠. {예전에 할머니들 담배도 피우셨잖아, 할아버... 그럼 거기에다 그런 것도 넣어 놓고.}

10604 # 머 소요.. 소용 단:녕거 다: 너:봐:. {뭐 소요... 소용되는 것은 다 넣어 봐.}

10604 # 아무거나 능겨, 그림. {아무거나 넣는 거야, 그림.}

10604 @ 그런 거 한번 생각 나고 보신 거, 뭐 넣었는지 생각나는 거 차례대로 죽 이야기 해 보세요.

10604 # 아이 그걸 어트리 다: 직, 뭘:지릴 생가기 나:. {아 그걸 어떻게 다, 무엇인지 생각이 나.}

10604 # 그냥 머 주서는녕거 뭐. {그냥 뭐 주워 넣는 거 뭐.}

10604 # 국수판, 흥... 저기 유:다라게 늘:때년 거기 가보니게 머, 국수판두 느쿠, 흥두깨두 느쿠, 머 그 상:두 안쓰는 상 느쿠, 지쌍두 너노쿠, 도짜리두 너노쿠 머. {국수판, 흥... 저기 유다락에 넣을 때는 거기 가 보니까 뭐, 국수판도 넣고, 흥두깨도 넣고, 뭐 그 상도 안 쓰는 상 넣고, 제사상도 넣어 놓고, 돗자리도 넣어 놓고 뭐.}

10604 # 저른 애:덜 책 빼운거뚜 가따 싸:노쿠, 다: 너:봐: 자우관 뭘:구, 이른 허튼설거지 거기따 다: 지버느:봐:. {저런 애들 책 배운 것도 갖다 쌓아 놓고, 다 넣어봐 좌우 간 뭘고, 이런 허튼 살림살이 거기에다 다 집어 넣어봐.}

10604 @ 그런 것을 대나무나 싸리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것도 있잖아요.

10604 # 둥... 저:기, 모코리. {둥... 저기, 모코리.}

10604 # 도방구리? 모코리? {반진고리? 모코리?}

10604 @ 뭘로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10604 # 싸리까지루 이르게 역꺼서, 이르게 똥고라케 해서 밀짱 이꾸 율짱 뚜껑 이꾸 이랑 거. {싸리가지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밀짱 있고 율짱 뚜껑 있고 이런 거.}

10604 # 그게 그게 모코릴끼여 아마, 이르미. {그게 그게 모코리일 거야 아마, 이름이.}

10604 # 모코리. {모코리.}

10604 @ 거기에다 뭐 넣어요?

10604 # 거기는 인저 농이 작:꾸 그랄꺼 거트면 거그따는 이, 입쌍거통거뚜 너:노쿠. {거기는 이제 농이 작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는 이제 옷 같은 것도 넣어 놓고.}

10604 # 이르게 인저 여기 또 실경 매자너? {이렇게 이제 여기 또 시렁 매잖아?}

10604 # 실경, 여기 인저 유:다라 얹년 이더런 실경 매:가주구서 인저 고기다 실경에다 이르게 언저노치. {시렁, 여기 이제 유다라 얹는 이들은 시렁 매 가지고 이제 고기에다 시렁에다 이렇게 얹어 놓지.}

10604 # 막때기루 이렇걸루다가 이짝 구녕 뚝꾸 이짝 벽: 구녕 뚝꾸 이래서 두:개릴 이르

케 언저 노쿠, 실경이여 그케. {막대기로 이런 걸로 이쪽 구멍 뚫고 이쪽 벽 구멍 뚫고 이래서 두 개를 이렇게 얹어 놓고, 시렁이야 그케.}

10604 # 그람 인저 고기따가 이르게 그렇거 모코리에다 머: 다머서 인저 언저노쿠. {그럼 이제 고기에다 이렇게 그런 거 모코리에다 뭐 담아서 이제 얹어 놓고.}

10604 @ 도방구리는?

10604 # 도방구리는 요마냥거. {반진고리는 요만한 것.}

10604 # 도방구린 쪼망:겨. {반진고리는 조그만한 거야.} @ 그건 뭘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10604 # 도방구리는 인저 그거뚜 싸리까지루 맨드렁 거뚜 이꾸 인저, 대:개 싸리까지루 도방구리두 맨들지 요르케 쪼마:케. {반진고리는 이제 그것도 싸리 가지로 만든 것도 있고 이제, 대개 싸리 가지로 반진고리도 만들지 요렇게 조그맣게.}

10604 # 그래서 인저 그거뚜 또 이르게 뚜경 인능게 이써, 또 그거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이렇게 뚜경 있는 게 있어, 또 그것도.}

10604 # 그거뚜 요로:캐서 뚜경 우에 더퍼서 새닥떨 이르게 시지봐따구 할라면 도방구리에 다 채반 해서 보내자너, 떡까툇거 머. {것도 요렇게 해서 뚜경 위에 덮어서 새닥들 이렇게 시집 왔다가 가려면 반진고리에다 채반 해서 보내잖아, 떡 같은 거 뭐.}

10604 # 그저넌 나이롱 그거 나기 저네는 그런데다 해서 다: 보내꺼든. {그전에는 나일론 그거 나기 전에는 그런 데다 해서 다 보냈거든.}

10604 @ 그 반진고리에 또 뭐 넣어요?

10604 # 그냥 그렇... {그냥 그런...}

10604 @ 바늘, 저 바느질 하는 거.

10604 # 음:, 바느질 꼬러슨 또 따루 이써. {응, 바느질 그릇은 또 따로 있지.}

10604 # 도방구리루두 하구, 반지꼬르시 또 따루 이써. {반진고리로도 하고, 반진그릇이 또 따로 있어.}

10604 # 반, 바느질 도방구리두, 그런 데다 바느질 꼬러뚜 해:두 되(단모음 '외')구, 반진꼬르시라구 또 따루 이써써, 반지꼬르시. {반, 바느질 반진고리도, 그런 데다 바느질 그릇도 해도 되고, 반진그릇이라고 또 따로 있었어, 반진그릇이.}

10604 @ 거기는 뭐 넣어요?

10604 # 도방구리? 반지꼬른? {반진고리? 반진그릇?}

10604 # 반지꼬르슨 인저 주로 가새, 바늘, 골미, 실꾸리, 흥:겹때기두 그저네는 이르게 아주 흥:겹 보팅이럴 해가주 시지벌 가써유, 옴:나레넌. {반진그릇은 이제 주로 가위, 바늘, 골무, 실꾸리, 흥겹조가리도 그전에는 이렇게 아주 흥겹 보통이를 해 가지고 시집을 샀어요, 옛날에는.}

10604 # 흥:겹 보팅이, 흥:겹, 흥:겹때기. {흥겹 보통이, 흥겹, 흥겹조가리.}

10604 # 옴:나레는 그걸 인저 요로:케 요로캐서 네: 구팅이 해가주구 여따 꼬널 하나 다러. {옛날에는 그거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해서 네 귀통이 해 가지고 여기에다 끈을 하나 달아.}

10604 # 그래가주 인저 흥:거벌 요르케 해: 노쿠서, 광:목 짜치 인저 베 짜치 흥거벌 해 싸 노쿠서 이르게, 싸가주구 마러서 그 보팅이가 시지깔때 가주가써, 따러가써. {그래 가지고 이제 흥겹을 요렇게 해 놓고서, 광목 이제 베 흥겹을 해 싸 놓고서 이렇게, 싸 가지고 말아서 그 보통이가 시집갈 때 가지고 갔어, 따라갔어.}

10604 # 천날 이르게 시지벌 오면 인저 사밀 되(단모음 '외')자너, 사밀 되(단모음 '외')면 시어먼님더리 그 메뉴리 솜씨 볼라구, 나두 시지보니까 버선뽕을 거르라구 내:노트라구. {첫날 이렇게 시집을 오면 이제 삼일 되잖아, 삼일 되면 시어먼님들이 그 며느리 솜씨 보려고, 나도 시집 오니까 버선뽕을 걸으라고 내 놓더라고.}

10604 # 난 예레서싸레 시지벌 완는데, 아:무거뚜 안 배워가주 완넌데, 버선뽕 걸으라구 데 버선뽕 세상에 워:따 거능긴지 아러. {난 열여섯 살에 시집을 왔는데, 아무것도 안 배워 가지고 왔는데, 버선뽕을 걸으라는데 버선뽕을 세상에 어디에다 거는 건지 알아.}

10604 # 아러야 걸:지. {알아야 걸:지.}

10604 # 그래선 노쿠서 인저 버서널 향커리 인저 그 벌거룽걸 내노쿠서 봐:써. {그래서 놓고서 이제 버선을 한 켄레 이제 그 볼 건 것을 내 놓고서 봤어.}

10604 # 보니까 인저 요기 요로:케 흥거벌 대:가주구 요로::케, 눈썰미 인닌 사라먼 장판 배우구, 좀 우두난 사라먼 더디 배우구 그리여. {보니까 이제 요기 요렇게 형꼴을 대 가지고 요렇게, 눈썰미 있는 사람은 잠깐 배우고, 좀 우둔한 사람은 더디게 배우고 그래.}

10604 # 보니까 그르캐서 인저 해놔따라구.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놔더라고.}

10604 # 그래서 인저 그대:루 이르게서루 버선뽕을 거러써, 거러서 인저, 머 기구하지 머:.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해서 버선뽕을 걸었어, 걸어서 이제, 뭐 기구하지 뭐.}

10604 # 그르캐서 그냥 하니께 그냥 해:노니께 그냥 그대루 해:놔따구, 수건 내:따구. {그렇게 해서 그냥 하니까 그냥 해 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 놔다고, 식은 냔다고.}

10604 @ 형꼴 보통이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 거...

10604 # 그렇거 해:가주구 와유. {그런 거 해 가지고 와요.}

10604 # 예 그런 흥급 가주와야 하거던. {예 그런 형꼴 가지고 와야 하거든.}

10604 # 옴:나레는 다: 게 시지보문 그르케 버선뽕 거르라구 내놔 봐따야, 옴:나레더런. {옛날에는 다 그 시집 오면 그렇게 버선뽕 걸으라고 내놓아 봤대, 옛날에들은.}

10604 @ 그 왜 그래요?

10604 # 인젠 메뉴리 솜씨 보너라구 그라내버, 몰:러유 왜 그라는지는 몰:라두 그렇거 거터, 내마:메. {이제 며느리 솜씨 보느라고 그러는가봐, 몰라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 같아, 내 마음에.}

10604 # 솜씨 보너라구 인제 시어먼님더리 우리 메뉴리가 인저 바느질 배워 완나 안 배워 완나 보너라구 이거쫘 해라: 하구 내논녕거터. {솜씨 보느라고 이제 시어먼님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제 바느질을 배워왔나 안 배워왔나 보느라고 이것 쫘 해라 하고 내 놓는 거 같아.}

10604 # 그 모타년 사라먼 모탈테구, 인저 하년 사라먼 하구 그라자너. {그 못 하는 사람은 못 할 테고, 이제 하는 사람은 하고 그러잖아.}

10604 @ 그 벽장에, 벽장 말고 옆에도 문 해 가지고 넣는 거 있었잖아요.

10604 # 여페년 읍찌, 벽장 이꾸, 저기 유:다락 이꾸 하구서년 그저 골:방이여, 여기년. {옆에는 없지, 벽장 있고, 저기 유다락 있고 하고는 그저 골방이야, 여기는.}

10604 # 여기 인저 우리 저그 저 지동 인년테서 조 지동 인는데까지 이르게 문 해서 이르게 해노쿠서년, 골:방이여 거그서 인저 사람두 자기두 하구. {여기 이제 우리 저기

- 저 기둥 있는 데서 조기 기둥 있는 데까지 이렇게 문 해서 이렇게 해 놓고서는, 골방이야 거기에서 이제 사람도 자기도 하고.}
- 10604 # 또 거기따 인저 광: 사르먼 쌀판지 거룻거 거그따 양식판지 느:노쿠 인저 쌀 떠다가 해먹끼두 하구 그레써유, 우리는 골:방에다 그레써. [또 거기에다 이제 광 삼으면 쌀단지 같은 거 거기에다 양식단지 넣어 놓고 이제 쌀 떠다가 해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골방에다 그랬어.}
- 10604 # 광:이 웅:꾸 지비 웅사카니께 인저 거기따가, 식구는 아래뽕에서만 자구 거그는 머, 버리쌀 꼬를 쌀 꼬르 이렇거 노쿠 떠다 해먹꾸 인제 두태 그렁거, 광:사머 써써 우리넌 골방얼 그냥. {광이 없고 집이 웅색하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식구는 아랫방에서만 자고 거기는 뭐, 보리쌀 그릇 쌀 그릇 이런 거 놓고 떠다 해 먹고 이제 두태 그런 거, 광 삼아 썼어 우리는 골방을 그냥.}
- 10604 # 유:다락뚜 옥꾸, 다락뚜 옥꾸 우리지번 쪼꼬마니께 그러서 그냥 그르케 사라써. {유다락도 없고, 다락도 없고 우리 집은 조그마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
- 10604 @ 집도요.
- 10604 # 예. {예.}
- 10602 @ 이 문이 이렇게, 지금 이런 문도 있고 저런 문도 있잖아요. 문 모양에 따라서, 쓰는 방법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지 않나요?
- 10602 # 예, 이르게 하나는 인저 이건 미다지구, 이근 밀:짱무니라구 하구 미다지라구 하지만, 그저네는 이렇게 아니구 저 사랑방 문마냥 이르게 열:구 닥꾸 하녕겨유. {예, 이렇게 하나는 이제 이건 미닫이고, 이건 밀착문이라고 하고 미닫이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랑방 문처럼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 10602 # 그러면 인저 두:개 달린 무는 쌍바라지 무니라구 하구. {그러면 이제 두 개 달린 문은 쌍바라지 문이라고 하고.}
- 10602 # 하나 달린건 외(단모음 '외')짱무니라구, 그르치유 머. {하나 달린 것은 외착문이고, 그렇지요 뭐.}
- 10602 @ 이건 미닫이라고 하고, 그건 뭐라고 해요?
- 10602 # 그냥 쌍바라지문. {그냥 쌍바라지문.}
- 10602 # 이르게 두:개, 무니 두:개자너 사랑방에. {이렇게 두 개, 문이 두 개잖아 사랑방에.}
- 10602 # 그러서 인저 이르게 요그서 물꼬리 자버달려 열:구 닫:꾸 그라니께 인저, 그건 쌍창무니라구 하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기에서 문고리 잡아 당겨 열고 닫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쌍바라지문이라고 하고.}
- 10602 @ 쌍창문?
- 10602 # 쌍:문, 쌍:바라지문. {쌍문, 쌍바라지문.}
- 10602 # 쌍:바라지무니라구도 하구 그냥 쌍:창무니라구도 하구 그레써유. {쌍바라지문이라고도 하고 그냥 쌍창문이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 10602 # 그라구 인저 하나는 그냥, 그냥 무니라구 하구.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냥, 그냥 문이라고 하고.}
- 10602 # 이거 인제 이르게 부:자찢떠런 이르게 하면 인저 미다지무니라구 옴:나레 그르카구, 부:자찢떨 머 지면 인저 이런 무널 하구서두 또 저런 무널 배까테다 또 다리써. {이거 이제 이렇게 부자찢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미닫이문이라고 옛날에 그렇

게 하고, 부잣집들 뭐 지으면 이제 이런 문을 하고서도 또 저런 문을 바깥에다 또 달았어.}

10602 # 그라몬 인저 큰 겹무니라구 하구. {그러면 이제 그건 겹문이라고 하고.}

10602 @ 대청마루는 뭘 부르는 거예요?

10602 # 대청마루? {대청마루?}

10602 # 지금 말하자면 우리덜 거기루 머라구 하지, 거실. {지금 말하자면 우리들 거기를 뭐라고 하지, 거실.}

10602 # 거실...저거 하자너, 거게. {거실이라고 하잖아, 거기.}

10602 # 널루게 이르게, 대청마루두 인저 그르게 이썬유. {넓게 이렇게, 대청마루도 이제 그렇게 있지요.}

10602 # 여기서 인저 이 이 이:짜게 인저 부어키 부어컬 저기털 마루라구, 저 꼬털 인저 부어컬 한단 마리어 엔:나레 집짚때 큰집떠런, 그람 그게 대청마루. {여기서 이제 이 이 이쪽에 이제 부엌이 부엌을 저리를 마루라고, 저 끝을 이제 부엌을 한단 말 이야 옛날에 집 지을 때 큰집들은, 그러면 그게 대청마루.}

10602 # 이건 인저 마루구. {이건 이제 마루고.}

10602 @ 부엌 저쪽에 있는 거요?

10602 # 아니:, 인저 부어:키 이 지금 이르게 맨드러쓰잉게 이르치. {아니, 이제 부엌이 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지.}

10602 @ 아 부엌 자리에?

10602 # 부엌:짜리가 인저 거기 마루털 로쿠 하면 그게 대청마루여. {부엌 자리가이제 거기는 마루를 놓고 하면 그게 대청마루야.}

10602 # 그라구서넌 인제 부어:큰 그 뒤루 나가 이따구, 대청마루 꼬티루 가서 이썬 부어:키. {그리고서는 이제 부엌은 그 뒤로 나가 있다고, 대청마루 끝으로 가서 있어 부엌이.}

10602 @ 그럼 방은, 부엌 있고 마루가 있고 방 있고 이래요?

10602 # 인저 이르게, 그건 숭내기가 어렵, 이르게 인저 이짜너 이쓰면, 시방 그 거:시리라 능게 그게 대청마루데 그르게. {이제 이렇게, 그건 흥내내기가 어렵, 이렇게 이제 있잖아 있으면, 지금 그 거실이라는 게 그게 대청마루인데 그르게.}

10602 # 그르게 이쓰면 인저 그게 대청마루구 인저 그짜근 뵈:키구 이건 인저 방이구 그르치. {그렇게 있으면 이제 그게 대청마루고 이제 그쪽은 부엌이고 이건 이제 방이고 그렇지.}

10602 # 인저 요:기 또 이르게 요:저테 인제 부어:키면, 이짜그루 인제 요러케 마루가 이짜너, 그람 인저 저:짜그루 가서 또 그르게 이썬유. {이제 여기 또 이렇게 요 곁에 이제 부엌이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마루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조저쪽으로 가서 또 그렇게 있어요.}

10602 # 저짜그루 가서 인제 이르게 크:게 인저 이르게 널른 마루능게 이쓰면 인저 그게 이저 대:청마루구. {저쪽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넓은 마루 놓은 게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대청마루고.}

10602 # 또 거 건너다가 방이 또하나 이썬, 그라몬 인저 그건 건너뺑이고. {또 거기 건너에 방이 또 하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건 건너방이고.}

10602 # 대청마루 건:너가서 인제 또 방이 하나 이썬. {대청마루 건너 가서 이제 또 방이

하나 있어.}

10602 # 그라몬 인저 근: 건너방. {그러면 이제 그건 건너방.}

10602 # 옴:나레넨 메누리, 부자찢떨 메누리 으드면 거: 아래뽕에 안주구 거 건너방에다가 인저 새색씨 방얼 차려주구 그라자너. {옛날에는 며느리, 부자찢들 며느리 얻으면 그 아랫방에 안 주고 그 건너방에다가 이제 새색시 방을 차려주고 그러잖아.}

10602 # 이짜그루 이르케 대청마루가 인는 집뚜 이꾸, 또 저짜그루두 그러케 인는 집뚜 이꾸 그리유. {이쪽으로 이렇게 대청마루가 있는 집도 있고, 또 저쪽으로도 그렇게 있는 집도 있고 그래요.}

10602 @ 왜 그쪽에다가 새색시 방을 췌어요?

10602 # 예아. {예.}

10602 # 그르케 인저 여기 으:런더라구 줌 떠워이짜너, 대청마루루 건너가서 이쓰면. {그렇게 이제 여기 어른들하고 줌 떠워져 있잖아, 대청마루를 건너가서 있으면.}

10602 # 건너뽕은 언제구 새색씨 방얼 해주능겨, 인저 조용한데 해주너라구, 부자찢떠런. {건넌방은 언제고 새색시 방을 해 주는 거야, 이제 조용한 데 해 주느라고, 부자찢들은.}

10602 @ 언제까지 그래요? # 으? {예?} @ 언제까지.

10602 # 근: 몰:르지 언제까지 하년지, 인저 그러케 살:다가 인저 애기나꾸 그러면 워티기 사:나 몰:르지, 츠:메는 그러케덜 해:주더라구. {그건 모르지 언제까지 하는지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기 낳고 그러면 어떻게 사나 모르지, 처음에는 그렇게 들 해 주더라고.}

10602 @ 그 어떤 데는 보니까 마루가 높던 데도 있던데요, 높게.

10602 @ 방 옆에 마루가 이렇게 높고 그 마루 밑에 불 때는 데 해 놓은 데도 있데요.

10602 # 아: 아: 그른 집뚜 이씨유, 그른 집뚜 이씨. {아 아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런 집도 있어.}

10602 # 옴:나레 저 부땅꼬리라는데가 그런집 이씨씨. {옛날에 저 불담골이라는 데 그런 집이 있었어.}

10602 # 이르케 인저 방얼 해노쿠서 인저 여 미테다 인저 부어:꼴 하자너? {이렇게 이제 방을 해 놓고서 이제 여기 밑에다 이제 부엌을 하잖아?}

10602 # 인저 불때:넌 데만 쪼꼬마치 해노쿠션 인저 거그따 이르케 마루털 노쿠서 인저 거 위(하향 이중모음 '위'[uj])루 이르케 다니구 그라는지비 이씨씨유. {이제 불 때는 데만 조그맣게 해 놓고서 이제 거기에다 이렇게 마루를 놓고서 이제 그 위로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 집 있었어요.}

10602 # 옴:나레넨 그런 지비 드무러찌, 위:짜다 그런지비 이씨씨. {옛날에는 그런 집이 드물었지, 어찌다 그런 집이 있었어.}

10602 # 그런 집떨두 대:개 큰:지비여. {그런 집드리도 대개 큰 집이야.}

10602 # 큰:지비래야 그런집 이씨유, 이런 자:근지븐 그렇게 우꾸. {큰 집이라야 그런 집 있어요, 이런 작은 집은 그런 게 없고.}

10602 # 큰:집떠른 인저 대청마루두 이꾸: 한집떠런 그르케 인저 저 건너뽕에 불때너라구 하던지 윈, 워트카느라구 거그따 부어:케노쿠서 노푸게 해서 그 위(하향 이중모음 '위'[uj])다 이르케 마루털 논 집떠리 더러 이씨씨유. {큰 집들은 이제 대청마루도 있고 한 집들은 그렇게 이제 저 건너방에 불 때느라고 하든지 윈, 어떻게 하느라

고 거기에다 부엌 해 놓고서 높게 해서 그 위에다 이렇게 마루를 놓은 집들이 더 있었어요.}

10602 @ 그전에 부엌에 보면 부엌도 문이 또 있잖아요?

10602 # 야. {예.} @ 나무로 해 놔지요, 그거? # 예. {예.}

10602 # 근데 부엌:문: 이르게 해논 집털두 별루 읍썬유. {그런데 부엌문 이렇게 해 놓은 집들도 별로 없어요.}

10602 # 그래두 좀 지비 잘 진: 지비래야 부어:케 문두 해다꾸 그라지. {그래도 좀 집이 | 잘 지은 집이라야 부엌에 문도 해 닫고 그러지.}

10602 # 그냥 이러:케 드나드는데 해노쿠서닝 그냥 꺼적때기 이르게 내려노쿠서 사라져 머. {그냥 이렇게 드나드는 데 해 놓고서는 그냥 거적때기 이렇게 내려 놓고서 살았지 뭐.}

10602 # 좀 그러두 잘싼, 쪼끔 나:게 진 지비래야 거기 부엌:문 요로:케 해:노치. {좀 그래도 잘 사는, 조금 낮게 지은 집이라야 거기 부엌문 요렇게 해 놓지.}

10602 # 그냥 꺼정무니지 머. {그냥 거적문이지 뭐.}

10602 @ 대문도 있잖아요?

10602 # 그르치유, 인는 집떠른 대무니꾸, 부어:케두 이르게 대:문 해다꾸 이라지. {그렇지요, 있는 집들은 대문 있고, 부엌에도 이렇게 대문 해 닫고 이러지.}

10602 @ 잠그고 그러는 거...

10602 # 야, 그르케 해유. {예, 그렇게 해요.}

10602 @ 그건 뭐라고 해요, 이름이?

10602 # 그거 부엌:때무네, 아이구 뭐:라구 하던데 그제. {그거 부엌 대문에, 아이고 뭐라고 하는데 그제.}

10602 # 비짱이라구 헨나, 머라구 헨나, 그거 복:때문: 장구라구 이러카면 그르케 헨던데 몰르건네. {빗장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그거 부엌 대문 잠그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네.}

10602 @ 이렇게 열고 닫는 문 있잖아요.

예. {예.}

@ 그게 요렇게 동그란 게 있고 끼워서 매달잖아요?

여. {예.}

@ 이런 게 있고, 넓적한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접혔다가 폈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문 닫을 때? 그건 뭐라고 해요?

10602 # 아 이르게 인저 지두리넨 이러케 구녕 툐리구 너푸게 해서 하나 이르게 바:꾸 이래서 문 열:때 인저 이러카구 이러카녕건 지두리구. {아 이렇게 이제 돌쩌귀는 이렇게 구멍 툐리고 높게 해서 하나 이렇게 박고 그래서 문 열 때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돌쩌귀고.}

10602 # 그건 저 좀 늦게 나와썬, 그르케 향건. {그건 저 좀 늦게 나왔어, 그렇게 한 건.}

10602 # 거뚜 머 무네 저기럴, 우리 사랑방무네 그 지:두리가 절판나서 지금 그거 사다 해 쓸끼여 아마. {그것도 뭐 문에 저기를, 우리 사랑방 문에 그 돌쩌귀가 망가져서 지금 그거 사다가 했을 거야 아마.}

10602 # 이르게 양:쪼그루다가 이러케 박꾸서 여기 이르게 이르게 다러짜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박고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달았잖아.}

10602 # 거 이르면 뭐:라구 하나 몰:르건네. {그 이름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10602 # 기냥 그러거... {그냥 그런 거...}

10602 @ 정첩?

10602 # 으? {응?}

10602 @ 경첩?

10602 # 아니여. {아니야.}

10602 # 뭐:라구 하나 몰:르거써유, 그거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10604 @ 부엌 있잖아요, 부엌. 부엌 안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놓고 어디에다 뭐 놓고 어떻게 생겼어요? # 뭐걸... {부엌을...} @ 지금 저렇게 다 없어져가지고.

10604 # 보:키 인저 이게 뭐:키라구 생가글 하구 저 우뽕이 아루뽕이라구 생가걸 하먼. {부엌이 이제 이게 부엌이라고 생각오르 하고 저 윗방이 아랫방이라고 생각을 하먼.}

10604 # 인저 부엌 저르 아루뽕 저테루다 요러케 부뚜막걸 하자너, 요러:케 부뚜막. {이제 부엌 저 아랫방 곁으로 요렇게 부뚜막을 하잖아, 요렇게 부뚜막.}

10604 # 그러면 요 인저 고쿠라글 하, 요기따 인저 고쿠락. {그러면 요기 이제 아궁이를 해, 요기에다 이제 아궁이.}

10604 # 세:개털 하먼 인저 고코락, 킁고코락, 자근고코락, 쪼만고코락 이러카구 불때닝거 하구 이 뒤:에넌 인저 또 물뚜멍얼 무더유, 물뚜멍. {세 개를 하먼 이제 아궁이, 큰 아궁이, 작은 아궁이, 조그만 아궁이 이렇게 하고 불 때는 거 하고 이 뒤에는 이제 또 물독을 묻어요, 물독.}

10604 # 그르카구 인저 조짜그룬 요로케 죽따멸 싸가주구서넌 고기따넌 인저 쪼끄마치래 두 살:강이라든지 찬:짱이라든지 머 그런 씨어 어꾸 인저 반찬 느쿠 하닝거 해야 하자너. {그렇게 하고 이제 조쪽으로는 요렇게 죽담을 쌓아 가지고서는 거기에다 이제 조그맣게라도 살강이라든지 찬장이라든지 뭐 그릇 씻어 얹고 이제 반찬 넣고 하는 거 해야 하잖아.}

10604 # 우리는 그르케 사러써서 그저네, 요기따가 인제 뭐:키 요짜긴네 요가 안뽕이구런 데 요기 뭐:킨데 요저테다 바루 부뚜막캐서 인저 거그다 속결구.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어 그전에, 요기에다 이제 부엌이 이쪽인데 여기가 안방이고 그런데 요기 부엌인데 요 곁에서 바로 부뚜막 해서 이제 거기에다 솔 걸고.}

10604 # 또 요짜그루넌 인저 살강마냥 해가주구선 인저 고따 그런뽕 씨어 어꾸 인저 반찬 는닝거 또끄만 귀:(하향 이중모음 '위'[uj])짜카나 노쿠 반찬 느쿠. {또 요쪽으로는 이제 살강처럼 해 가지고서는 이제 고기에다 그릇도 씻어 얹고 이제 반찬 넣는 거 또 조그만 켈짜 하나 놓고 반찬 넣고.}

10604 # 요짜그루넌 인저 물 러다 파내기 거통거 내려 노쿠 인저 고거 물 러다 분넌 단:지 이씨, 그려써써유. {요쪽으로는 이제 물 이어다 자배기같은 거 내려놓고 이제 고기는 물 이어다 붓는 단지 있어, 그랬었어요.}

10604 # 고저테는 인저 요짜그루넌 나무까니구. {고 곁에는 이제 이쪽으로는 나뭇간이고.}

10604 @ 죽담이 뭐예요?

10604 # 죽땀? {죽담?}

10604 # 죽따먼 인저 뭐:케다가 요로케 줌 노푸다나게 요로케 싸:씨, 뷔:빠닥뽕다 쪼끔 너 푸게 이르게 싸노쿠서 여기따가 인저 뭐 언저 논닝거, 죽따미라구 그르카써유 그

거릴. {죽담은 이제 부엌에다가 요렇게 좀 높다랗게 요렇게 쌓았어, 부엌 바닥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쌓아 놓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얹어 놓는 거, 죽담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10604 @ 넓적하게 쌓는 거네요? # 어 어 예 {예, 예, 예.}

10604 # 싸:노쿠션 인저 그게 죽따미라 구래써, 죽담. {응응 예, 쌓아 놓고서 이제 그게 죽담이라고 했어, 죽담.}

10604 # 인저 손꺼튼 데넌 부뚜막, 여기넌 인저 죽담, 여기는 뽕:빠닥. {이제 술 건 데는 부뚜막, 여기는 이제 죽담, 여기는 부엌 바닥.}

10604 @ 또 뭐 거기 술은 어떤 술을 걸어요?

10604 # 여기 켈: 아페 인저 큰:술 꺼룽건, 가마술 큼거, 요 인저 가문테 쏘, 조기는 인저 웅: 술, 세:개거룽거. {여기 제일 앞에 이제 큰 술 건 것은, 가마술 큰 거, 요 이제 가운데 술, 조기는 이제 웅술, 세 개 건것.}

10604 @ 작은 걸 웅술이라고?

10604 # 예, 켈: 쪼꼬망 거 인저 웅:소시라구 하지. {예, 제일 조그만 거 이제 웅술이라고 하지.}

10604 @ 큰 거는...

10604 # 인저 가마소시라구 하구. {이제 가마술이라고 하고.}

10604 @ 중간에 것은.

10604 # 큰소시라구두 하구 가마소시라구두 하구. {큰술이라고도 하고 가마술이라고도 하고.}

10604 # 가마소테다 밥패라 하구, 큰소테다 해라 이르케두 하구. {가마술에다 밥 해라 하고, 큰술에다 해라 이렇게도 하고.}

10604 @ 그럼 제일 작은 데 하라고 하면?

10604 # 웅:소테다 하지 머, 웅:소테. {웅술에다 하지 뭐, 웅술에.}

10604 # 웅:소테다 히야, 쪼꼬마니께 이러카구. {웅술에다 해, 조그마니까 이렇게 하고.}

10604 @ 어떨 때 큰 데다 하고, 어떨 때 작은 데 해요?

10604 # 으 시꾸 마:늘 때, 일:빠라지 할때. {응 식구 많을 때, 일바라지 할 때.}

10604 # 일: 할때넌 인저 바벌 마:니, 버리싸릴 머 마:니 안쳐서 마:니 해야 하자너. {일 할 때는 이제 밥을 많이, 보리쌀을 뭐 많이 안쳐서 많이 해야 하잖아.}

10604 # 그라잉게 인저 큰소테다 밥과구, 자그소테는 인저 국꺼룽거 꼬리구 인저 머: 또 다룽거 머 찌개거텅거 하구. {그러니까 이제 큰술에다 밥 하고, 작은 술에는 이제 국 같은 거 끓이고 뭐 또 다른 거 뭐 찌개 같은 거 하고.}

10604 # 머 냄비가 이써, 옴:나레야 머 화:더기 이써 뭐:가 이써, 다: 소테다 이러케 하고. {뭐 냄비가 있어, 옛날에야 뭐 화덕이 있어 뭐가 있어, 다 술에다 이렇게 하고.}

10604 # 그리자느면 인저: 장작뿔 때:서 수뿔 다머 화:리뿌레다 장투가리 거룽거 이르케 올려노쿠 꼬려먹꾸 이래찌.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장작뿔 때:서 숯불 담아 화룻불에다 장뽕배기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끓여먹고 이랬지.}

10604 @ 거 화덕도 나중에 나온 거예요?

10604 # 그러믄요:, 나 츠:메 시지봐서는 움써썬유, 화:덕뚜. {그럼은요, 나 처음에 시집 와서는 없었어요, 화덕도.}

10604 # 화덕뚜 한참 이따 나와썬유. {화덕도 한참 있다가 나왔지요.}

10604 @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화덕이?

10604 # 화:더기? {화덕이?}

10604 # 츠:메 나온 흑풍노여 그게, 풍논데 요로:케 생겨가주구서넌 인저 이 미테넌 인저 또 요만치 이르게 생겨쓰면 요로:케 요고는 요로:케 버러지게 하구서는, 쪼끔 조뽀타게 요로케 되게 해가주구선 요기따는 요르케 구녀걸 쪼금 뿔버썩유. {처음에 나온 흑풍로야 그게, 풍로인데 요렇게 생겨 가지고서는 이제 이 밑에는 이제 또 요만큼 일허게 생겼으면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벌어지게 하고서는, 조끔 조뽀하게 요렇게 되게 해 가지고서 요기에다 요렇게 구멍을 조끔 뚫었어요.}

10604 # 그라구 이 미테루넌 또 요만:치 구녀걸 뿔버노쿠서넌 쇠루다가 인저 요로캐서 이르게 드문드문 해서 뚫고랑걸 고기따 언저노쿠서 고그따 부릴 다르면 부리 잘: 피더라구. {그리고 이 밑으로는 또 요만큼 구멍을 뚫어 놓고서는 쇠로 이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드문드문 해서 동그란 것을 거기에다 얹어 놓고 불을 담으면 불이 잘 피더라고.}

10604 # 요기 인저 구녁기 이쓰니께. {여기 이제 구멍이 있으니까.}

10604 # 그람 인저 거기따가 풍노에다 인저 장:두 꼬리구 머 인저 조마크망거 인저 투가리 올려노쿠 머 그렇거뚜 하구 그라다 냄비 나와가주 인제 냄비에다가 인저 그르케 해먹꾸 그래찌. {그럼 이제 거기에다 풍로에다 이제 장도 끓이고 뭐 이제 조그만한 거 이제 뚝배기 올려놓고 뭐 그런 것도 하고그러다가 냄비 나와 가지고 이제 냄비에다가 이제 그렇게 해 먹고 그랬지.}

10604 # 그라다가 인저 쇠개곤노 나오구 그르케찌. {그러다가 이제 석유곤로 나오고 그렇게 했지.}

10604 @ 불 잘 안 피면 이렇게 돌려서 바람 부는 것도 있잖아요.

10604 # 예, 풍구. {예, 풀무.}

10604 # 바람 피우넌 풍구, 팔랑, 풍구여 그게 쪼망:거. {바람 피우는 풀무, 팔랑, 풀무야 그게 조그만한 거.}

10604 # 이르캐서 꼬냉이루 이러케 열거가주구 이러케 이러케 돌려가주구, 그게 인제 여기 바래미 나:서 저리 드러가면 인저. {이렇게 해서 끈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 바람이 나서 저리로 들어가면 이제.}

10604 # 옴:나레 산 생가카면 지그미야 다: 부잔데두 그러두 죽꺼따구 하자너. {옛날에 산 생각 하면 지금이야 다 부잔데도 그래도 죽겠다고 하잖아.}

10604 @ 부뚜막도 있잖아요.

10604 # 예, 부뚜막.{예, 부뚜막.}

10604 @ 어디를...

10604 # 그췌 여 소꺼른데. {글췌 여기 술 건 데.}

10604 # 손꺼른데, 손꺼른데 그 흐게 이르케 해서 뚫:고라케 손걸게 이르케 해노쿠 요그 소던저짜너. {술 건 데, 술 건 데 그 흠에 이렇게 해서 동그랴게 술 걸게 이렇게 해 놓고 요기 술 얹었잖아.}

10604 # 그라구 또 인저 요기 이르케 싸:서 해논데 요짜게다 또 이르케 쪼만 손 썰구 저짜게다 쪼만손 썰구 그라문 그게 부뚜마기여.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렇게 쌓아서 해 놓은데 이쪽에다가 또 이렇게 조그만 술 걸고 저쪽에다가 조그만 술 걸고 그러면 그게 부뚜막이야.}

10604 @ 그건 뭐에 써요? # 어? {응?} @ 어떨 때 써요?

10604 # 부뚜막건 장: 인녕거지, 위:떨때 쓰능기 아니라 소설 거른데니까. {부뚜막은 늘 있는 거지, 어떨 때 쓰는 게 아니라 술을 건 데니까.}

10604 # 소시 거기 걸린데릴 거기릴 보구 부뚜막이라구 하능겨, 술 꺼른데릴. {술이 거기 걸린 데를 거기를 보고 부뚜막이라고 하는 거야, 술 건 데를.}

10604 # 속꺼를라든 이러:케 인저 똥:고라케 고코라걸 맨드러야 하자너. {술 걸려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아궁이를 만들어야 하잖아.}

10604 # 그러면 인저 가문데는 인저 요로:케 다땔 싸:서 공가니 이짜너, 요기년. {그러면 이제 가운데는 이제 요렇게 담을 쌓아서 공간이 있잖아, 요기는.}

10604 # 그르카구선 인저 또 요짜게다 똥:고라케 해서 또 술 쥘구. {그렇게 하고서 이제 또 요쪽에다 동그랗게 해서 또 술 걸고.}

10604 # 저짜뚜 그랑게 요 가문데년 인저 공가니여, 요:가. {저쪽도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이제 빈 공간이야, 요기가.}

10604 # 그러면 부뚜마크기라구는 저기 돌따미라년데 가 파오면, 발르면 아주 보:얀 호기 이써유. {그러면 부뚜흙이기라고는 저기 돌담이라는 데 가서 파 오면, 바르면 아주 뽀얀 흙이 있어요.}

10604 # 저: 노네 가 파와두 호기, 흑 색까리 그르케 보:야. {저 눈에 가서 파 와도 흙이, 흙 색깔이 그렇게 뽀애.}

10604 # 그러면 그거 파루 일부루 저 노네루 가, 남자더리 가서 한 소고바리씩 파다 노코 서년 그거 개:가주구 부뚜막걸 발르면 보:야, 부뚜마기. {그러면 그거 파러 일부러 저 눈으로 가, 남자들이 가서 한 발채씩 파다 놓고서는 그거 개어 가지고 부뚜막을 바르면 뽀애, 부뚜막이.}

10604 # 부뚜막 호기라구 따루 이써서. {부뚜막 흙이라고 따로 있어서.}

10604 # 그래서 그건 부뚜망만 발르능기여, 그 호근, 파다 애껴가면서. {그래서 그건 부뚜막만 바르는 거야, 그 흙은, 파다 아껴 가면서.}

10604 @ 어떻게 파 와요, 어디에다가?

10604 # 소고바리 지구 가서, 한 소고바리 파와유. {발채 지고 가서, 한 발채씩 파 와요.}

10604 # 한 소고바리 파 오면 두구서 부뚜망만 거 쪼끔씩 캐서 발러, 마구 쓰닝게 아니라. {한 발채 파 오면 두고서 부뚜막만 그 조금씩 해서 발라, 마구 쓰는 게 아니라.}

10604 # 나무 노네 가서 몰:래 파오거던. {남의 눈에 가서 몰래 파 오거든.}

10604 # 흑 파가면 안 조아하자너, 남더리. {흙 파 가면 안 좋아하잖아, 남들이.}

10604 # 그건 저: 먼데, 저기 가야 이써 그 호기 여기년 응:꾸. {그게 저기 먼 데, 저기 가야 있어 그 흙이 여기는 없고.}

10604 @ 어디 가면 있어요?

10604 # 저:기 저 지금 교유권 진데 그쪼걸 가야 햐. {저기 저 지금 교육원 지은 데 그쪽을 가야 해.}

10604 @ 불 땔 때는 또 뭘로 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뭘.

10604 # 나무 사네가 해다 때지. {나무 산에 가서 해다 때지.}

10604 # 부주땡이. {부지깡이.}

10604 # 으, 부주땡이루 인제 이르게 타나오면 막때기 요마냥거 뽀빠냥거 이쓰면 다: 인저 거 꺼꺼놔파 부주땡이 하자너. {예, 부지깡이로 이제 이렇게 타 나오면 막대기 요

만한 거 뽀뽀한 거 있으면 다 이제 그거 꺾어놔다가 부지깽이 하잖아.}

10604 # 시어머이 읍씨는 사라두: 부주땡이 읍씨넌 모:싼디야. {시어머니 없이는 살아도 부지깽이 없이는 못 산대.}

10604 # 볼때는데 그제 이씨야 하니께. {볼 때는 데 그제 있어야 하니까.}

10604 # 그래서 부주땡이 해놔따가 인저 그걸루 거더느매 때구. {그래서 부지깽이 해 놔다가 이제 그걸로 걷어 넣으며 때고.}

10604 # 버리짚 땡라면 그냥 재가 이르게 썰이니께 다 그르게 투디려서 인저 재릴 이르게 쪼끄마케 야트게 해노쿠서 다투 때자너. {보리짚 때려면 그냥 재가 이렇게 썰이니까 다 그렇게 두드려서 이제 재를 이렇게 조그맣게 얹게 해 놓고서 자꾸 때잖아.}

10604 # 버리짚 한번 때서 바벌 하면 재가 이르게 썰이자너. {보리짚 한번 때서 밥을 하면 재가 이렇게 썰이잖아.}

10604 @ 그럼 화로에 불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604 # 화:리에 불 담넝거 인저 버리짚 뿌런 대:번 꺼지니께 인제 머 쫄가리거통거 땡때 인저 담:썰유. {화로에 불 담는 거 이제 보리짚 불은 대번 꺼지니까 이제 뭐 나뭇가지 같은 거 땡 때 이제 담지요.}

10604 # 여르메넌 버리찌벌 때니께 여르메는 머 불 별루 저기 안 하니께. {여름에는 보리짚을 때니까 여름에는 뭐 불 별로 저기 안 하니까.}

10604 # 장 거통거 끄러머거두 옌:나레넌 끄러먹뚜 모태썰, 소테 앙끄리문. {장 같은 거 끓여 먹어도 옛날에는 끓여 먹지도 못 했어, 술에 안 끓이면.}

10604 # 그냥 버리밥과넌 데 거기따가 인저 디려노쿠 썰서 머거찌, 장:두. {그냥 보리밥 하는 데 거기에다가 이제 들여 넣고 썰서 먹었지, 장도.}

10604 # 그르캐서 머거썰유.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10604 @ 그럼 쫄가리 때 가지고 화로에 불 담아야 될 거 아니예요.

10604 # 그래야 인저 멀 끄러먹찌, 겨우레넌 인저 그르카지:. {그래야 이제 뭘 끓여먹지, 겨울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10604 @ 뭘로 당가요?

10604 # 인저 부삽뚜 이꾸 고물개두 이꾸. {이제 부삽도 있고 고무래도 있고.}

10604 # 부사비나 머 이썰 옌:나레넌, 그냥 머 파내기 깨징거 그렇거 가따가 인저 부등가리라구 해:서 인저 이르게 끌거서 당:꾸 이래찌. {부삽이나 뭘 있어 옛날에는, 그냥 뭘 자배기 깨진 거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부등가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긁어서 담고 이랬지.}

10604 # 옌:나레 부사비 어디썰썰. {옛날에 부삽이 어디 있었어.}

10604 @ 부등가리하고 # 부등가리. {부등가리.} @ 부삽하고 다른 거예요?

10604 # 부사번 인저 지금 나와쓰니께 그제 부사비지유. {부삽은 이제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제 부삽이지요.}

10604 # 그르치만 옌:나레넌 머 그냥 양철쪼가리나 머: 파내기 깨진 사기쪼, 그제 옹기쪼 가리 가따 이르게 끌거서 인저 고물개루, 막대기루 고물개 해가주구 끌거다머서 인저 화:리에 쪼꾸 쪼꾸 그라지. {그렇지만 옛날에는 뭘 그냥 양철쪼가리나 뭘 자배기 깨진 사기쪼, 그제 옹기쪼가리 갖다 이렇게 긁어서 이제 고무래로, 막대기로 고무래 해 가지고 긁어 담아서 이제 화로에 쏙고 쏙고 그러지.}

10604 # 그제 부등가리어. {그제 부등가리아.}

10604 @ 그럼 부삽은 더 나중에 나온 거네요.

10604 # 그러믄요:. {그럼은요.}

10604 # 한:참 이따 나와찌, 부사비 어디서 이썸. {한참 있다 나왔지, 부삽이 어디에 있어.}

10604 @ 그 웅기 같은 거는.

10604 # 옴:나레두 이썸썸유, 웅기년. {옛날에도 있었어요, 웅기는.}

10604 # 옴:나렐, 옴:날부툼 이썸내며 그건 뭐:, 옴:나레 선조때부툼 인저 옴:기그런 머 질 그런 머 그렇거 이썸썸께, 옴:날부툼 이썸찌 머 사기그럭 그렇건. {옛날에들, 옛날부터 있었나봐 그건, 뭐 옛날에 선조때부터 이제 웅기그릇 뭐 질그릇 뭐 그런 거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있었지 뭐 사기그릇 그런 건.}

10604 @ 그런 것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그거 어디에다 놔뒀요? 여러 개 있잖아요.

10604 # 저르케 장:팡에 어퍼노코, 장:팡에. {저렇게 장독대에 얹어 놓고, 장독대에.}

10604 @ 장팡에 있는 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보세요.

10604 # 장팡에 머 이썸, 도긴꾸:, 너리기 너리기 깨전나 인나. {장독대에 뭐 있어, 독 있고, 자배기 자비기 깨졌나 있나.}

10604 # 너리기 이꾸 머, 통개, 쪼망진 통개 이꾸 머, 쪼망거 또 부단지 이꾸 머. {자배기 있고 뭐, 통개, 조그마한 거 통개 있고 뭐, 조그마한 거 또 부단지 있고 뭐.}

10604 # 파내기두 에퍼꾸 머, 장:뚝 저기 인저 장:뚝경, 장:뚝쏘래기라구 하구. {자배기도 얹혀 있고 뭐, 장독 저기 이제 장독 뚝경, 장독쏘래기라고 하고.}

10604 # 그르카능거여, 저 쥔: 쿵진 큰 독:. {그렇게 하는 거야, 저 제일 큰 건 큰 독.}

10604 @ 큰 거는 독.

10604 # 쪼망, 이망크망진 내가 다 파리며거썸, 마:너썸년네. {조그마한, 이만큼한 건 내가 다 팔아 먹었어, 많았었는데.}

10604 # 저 쿵:거 하나만 낭귀노쿠서. {저 큰 거 하나만 남겨 놓고서.}

10604 # 그건 나 주그먼 애:더리 가따 깨내비리느라구 욱뽀자너, 깨내비리지 머해 저거. {그거 나 죽으면 애들이 갖다 깨내 버리느라고 힘들잖아, 깨내 버리지 뭐해 저 것.}

10604 @ 큰 거는 독이고요.

10604 # 옴 쪼끄망진 통개. {옴, 조그마한 건 통개.}

10604 @ 그러니까 사람 이만큼 가슴까지 오고 이렇게 큰 거, 그걸 독이라고 해요?

10604 # 옴, 큰 독:. {옴, 큰 독.}

10604 @ 그리고 또 요만한 거.

10604 # 요령거뚜 인제 새끼 도기여, 새끼독, 그르카구선 또 요망크망진 저기 쪼마크망진 이닝진 통개. {요런 것도 이제 새끼 독이야, 새끼독, 그렇게 하고는 또 요만큼한 것은 저기 조그마한 건 이런 것은 통개.}

10604 @ 그 높이는 얼마큼 되요?

10604 # 요만큼 하구 그냥 그렇진 통개라구. {요만큼 하고 그냥 그런 건 통개라고.} @ 허리 정도 오는 거?

10604 # 어, 그룽진 통개라구 하구. {옴, 그런 건 통개라고 하고.}

10604 # 또 조기 인저 더 자궁거 이짜너, 요망크망거 고령진 부단지라구 하구. {또 저기 이제 더 커 작은 거 커 있잖아, 요만큼한 것 그런 건 부단지라고 하고.}

10604 @ 부단지요.

10604 # 어, 또 파내기 요마냥건 파내기. {응, 또 자배기 요만한 건 자배기.}

10604 @ 그거는 파내기는 높이가 높아요?

10604 # 어, 야트지유, 조기 에퍼짜너 하나. {응, 알지요, 저기 얹혀 있잖아 하나.}

10604 # 조기 파내기 에퍼써. {조기 자배기 얹혔어.}

10604 @ 아, 이 저기 아구리는요?

10604 # 아구리두 또까터, 파내기는 아래위(하향 이중모음 '위'[uj])가. {아가리도 똑같아, 자배기는 아래 위가.}

10604 @ 넓이가?

10604 # 으. {응.}

10604 # 요기에 접:때 나온거 그 동이, 웅:가지 그렇건 틀리자너 쪼꿈, 웅가지는 요로케 오마카구. (요기에 접때 나온 거 그 동이, 웅자배기 그런 건 다르잖아 조금, 웅가지는 요렇게 오목하고.}

10604 @ 위에가?

10604 # 으응, 동이는 또 요러케 찰쫓카자너. {응, 동이는 또 요렇게 짧고 좁잖아.}

10604 # 요러케 쪼버:탕게, 요마:낭게 찰쫓캥게 그게 동이. {요렇게 좁은 듯한 게, 요만한 게 짧은듯 좁은 것이 그게 동이.}

10604 # 웅가지넌 요로케 가문테넌 배가 나오구서 요로케 아래위(단모음 '위')루 요로케 오목캥건 웅가지, 물리구 땡기녕거. {웅가지는 요렇게 가운데는 배가 나와서 요렇게 아래위로 요렇게 오목한 것은 웅가지, 물 이고 다니는 거.}

10604 # 파내기너 아래위(단모음 '위')가 또까터유. {자배기는 아래위가 똑같아요.}

10604 @ 동이는 그럼 어디다 써요?

10604 # 동이두 물리능기유. {동이도 물 이는 거예요.}

10604 @ 웅가지도?

10604 # 어, 웅가지두 물리녕거, 동이두 물려 오녕거여. {응, 웅가지도 물 이는 거, 동이도 물 이어 오는 거야.}

10604 # 동이루 이구 어 아넵찐러, 업찐러 지지 말라구 동이나 웅가지나 가주구 땡기매 여 땡 여 날리찌. {동이로 이고 안 얹질러, 얹지르지 말라고 동이나 웅가지나 가지고 다니며 이어 다니, 이어 날랐지.}

10604 @ 그럼 여 나를 때는 머리 아프잖아요?

10604 # 또바리, 또바리 이구서. {빠리, 빠리 이고서.}

10604 # 아이고 가차운 데서나 여 머거, 여기서 저 황청이가 여 오구. {아이고 가까운 데서나 이어다 머거, 여기서저 황청에 가서 여 오고.}

10604 # 그르자느면 저:짜게 도람말 가서 또랑에 가 여 오구, 여기넌 아주 물찌리 젤: 머른데 요기 사러써,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저 앞쪽에 도람말 가서 도랑에 가서 여 오고, 여기는 아주 물길에 제일 먼 데 요기에 살았어, 우리가.}

10604 # 저: 도람말 또랑 가 여 오구, 저 황청이 새:매가 여 오구. {저 도람말 도랑에 가서 여 오고, 저 황청 샘에 가서 여 오고.}

10604 # 그르자느면 냉:수 머결라면 저: 부땅꿀 꼭때기 가서 바가지 샤:매 가서 인저 그거 한번 퍼가주 올라면 머 한:창 가따와야 되구. {그렇지 않으면 냉수 먹으려면 저 불당꿀 꼭대기 가서 바가지샘에 가서 이제 그거 한번 퍼 가지고 오려면 뭐 한참

갔다가 와야 돼.}

10604 @ 그래서 어디에다 모아요?

10604 # 인저 물 두멍에다 부:꾸, 그르시아느른 인저 냉:수 머글껌 한:옹가지 여: 다가 그냥 노쿠서 근 냉:수로만 떠 먹꾸, 여르매. {이제 물독에다 붓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냉수 먹을 건 한 옹가지 여다가 그냥 놓고서 그건 냉수로만 떠 먹고, 여름에.}
@ 물두멍은 커요?

10604 # 아 큰건뚜 무든 집뚜 이꾸, 인저 자근거 무든 집뚜 이꾸 그리유. {아 큰것도 묻은 집도 있고, 이제 작은 거 묻은 집도 있고 그래요.}

10604 # 이마냥거 무더노쿠 물 서너 파내기 드러가녕거 무든 집뚜 이꾸, 또 한 대:파내기 머 이러케 드러가녕거 무든 집뚜 이꾸. {이만한 거 묻어 놓고 물 서너 자배기 들어가는 거 묻은 집도 있고, 또 한 다섯 자배기 뭐 이렇게 들어 가는 거 묻은 집도 있고.}

10604 # 행편대루 인저 무더노쿠 쓰녕기여. {행편대로 이제 묻어 놓고 쓰는 거야.}

10604 @ 그럼 물 매일 여 와야 되겠네요?

10604 # 그러믄유:, 매일 여 와야지, 매일 함두번 여 와가주구 디야, 뽕뽕 여 와야지. {그러믄요, 매일 이어 와야지, 매일 한 두 번 이어 와 가지고 돼, 몇 번 이어 와야지.}

10604 # 여러사람 시루, 식꾸덜 시:수 해야지, 그걸 머거야지. {여러 사람, 식구들 세수 해야지, 그걸 먹어야지.}

10604 # 또 소 매기면 구정물 해야지. {또 소 먹이면 구정물 해야지.}

10604 # 머 메빠늘 여 와야하구, 자:간 마람 머랴, 물 러다가 그거 버리쌀 안쳐 밥패머걸라 먼 해:전 이르게 서써야되지. {뭐 몇 번을 이어 와야 하고, 좌우간 말하면 뭐해, 물 이어다가 그거 보리쌀 안쳐 밥 해 먹으려면 하루종일 이렇게 씻어야 되지.}

10604 # 게다가 또 도고지릴 해봐. {게다가 또 절구질을 해봐.}

10604 # 그거 머 마랄 쭈, 말루 다 어티케 하. {그거 뭐냐 말할 수, 말로 다 어떻게 해.}

10604 # 상:거 말루 다 모태요. {산 거 말로 다 못 해요.}

10604 # 나능 그러두 고생 드:라구 상:게 그른데 머 옌:나레 더한 이더리야 말:할게 이거 썩. {나는 그래도 고생 덜 하고 산 게 그런데 뭐 옛날에 더한 이들이야 말할 게 있겠어.}

10214 @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덜 시키면 고생 덜 하지요 뭐.

10214 # 그럼요: 허허 그래. {그럼요, 하하 그래.}

10214 @ 이 동네도 시집살이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10214 # 옌:나레더런 다: 시집싸리 해따구 하지 머. {옛날에들은 다 시집살이 했다고 하지 뭐.}

10214 # 아내따구 하년 사람 움써:, 다: 시집싸리하구 사러따구 하지. {안 했다고 하는 사람 없어, 다 시집살이하고 살았다고 하지.}

10214 # 옌:나레넌 달래 시집싸리 항게 아니여, 어려서 시지벌 가니께 지비서 이:릴 몸:빠 워가주 가자너. {옛날에는 달리 시집살이 한 게 아니야, 어려서 시집을 가니까 집에서 일을 못 배워가지고 가잖아.}

10214 # 그라니께 그거 갈칠라니께 으:런더리 속쌍하니께, 걱쩍하구 갈칠라구 이러카능게 그게 시집싸리지 머, 다르게 시집싸리여.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려니까 어른들이

속상하니까, 걱정하고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시집살이지 뭐, 다른 게 시집살이야.}

10214 # 그럼 나는 일:거통거 배우넝건 별루 시집싸리 안 혀써. {그래도 나는 일 같은 거 배운 건 별로 시집살이 안 했어.}

10214 # 베짜넝거뚜 그냥 재번 배워가주구서 대번 내가 짜구. {베 짜는 것도 그냥 두번에 배워 가지고서 대번에 내가 짜고.}

10214 # 그라구 빨리 배우넝 사라면 줌 들:하구. {그래 빨리 배우는 사람은 줌 덜하고.}

10214 # 줌 두:내서 더디 배우넝 사람더런 줌 더 시집싸리하구 그래찌 머. {줌 둔해서 더디게 배우는 사람들은 줌 더 시집살이 하고 그랬지 뭐.}

10604 @ 집이 그래서 부엌이 있고 안방이 있고 골방있고.

10604 # 우똥이꾸. {윗방있고.} @ 윗방 있고, 저쪽에.

10604 # 그건 나 시지봐서 한참 이따 지어써, 저건 사랑방언. {그건 나 시집 와서 한참 있다 지었어, 저건 사랑방은.}

10604 @ 사랑방은 주로 어떨 때 써요?

10604 # 인저 사랑방언 인저 그게 남자더리 거처한다구 해서 사랑방이라구 하넝기여. {이제 사랑방은 이제 그게 남자들이 거처한다고 해서 사랑방이라고 하는 거야.}

10604 # 인제 우리 아번니미 안똥에서 주무시다가 인저 사랑에 나가서 주무시자너, 그라구 인저 남자손님덜 이르게 오시면 인저 거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안방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사랑에 나가서 주무시잖아, 그리고 이제 남자손님들 이렇게 오시면 이제 거기.}

10603 @ 집을 짓는 데 지붕에 이는 것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지요?

10603 # 그리치, 기아짱이루 해이먼 기아지병. {그렇지, 기왓장으로 해 이면 기와지붕.}

10603 # 지부루 해면 그냥 초가집:. {짚으로 하면 그냥 초가집.}

10603 # 또 인제 양철루 해이먼 양철지병. {또 이제 양철로 해 이면 양철지붕.}

10603 # 또 돌:기와루 해이먼 여 돌:기와집. {또 돌기와로 해 이면 돌기와집.}

10603 # 지병에 따라서 그 집 이리미 분넝기여. {지붕에 따라서 그 집 이름이 붙는 거야.}

10603 @ 저런 걸로 한 것은요?

10603 # 뭐? {뭐?}

10603 # 스투뜨집, 스투뜨지병이니께, 저건 인제 시체루 나와짜너, 스투뜨가 저거. {슬레이트집, 슬레이트지붕이니까, 저건 새로 나왔잖아, 슬레이트가 저거.}

10603 # 그럼 제일 먼저 있었던 게 어떤 거예요?

10603 # 초가집. {초가집.}

10603 @ 초가집.

10603 # 예. {예.}

10603 # 그다:메 인저 기아루 또 해여써유써유, 기아루. {그 다음에 이제 기와로 해 있었어요, 기와로.}

10603 # 그랜는데 또 그거 납뿌구 머 스투뜨가 조타구 또 그래서 기아릴 제: 베껴내구서 또 저 스투뜨 또 여 아네두 해 여써써. {그랬는데 또 그거 나쁘고 뭐 슬레이트가 좋다고 또 그래서 기와를 모두 벗겨 내고서 또저 슬레이트도 또 이 안에도 해 있었어.}

10603 # 그랜는데 인제 또 스투뜨 해 연년데 그건 나쁘다구 이 양처리 와서 해 이라구 구

래서 저거 해 잉겨 양철, 여기닌 아네닌. {그랬는데 이제 또 슬레이트 해 이었는데 그건 나쁘다고 이 양철이 와서 해 이라고 그래서 저거 해 이은 거야 양철, 여기는 안에는.}

10604 @ 집도 보면요, # 예 {예} @ 아까 대개 이야기를 했는데 바깥에도 이렇게 우리집 이라고 쳐 놓고 그랬잖아요. 어. {예.}

10604 바깥마당. 바깥 마당.}

10604 @ 마당 바깥에.

10604 # 어어, 고기털 바깥마당이라구. {응 응, 거기를 바깥마당이라고.}

10604 @ 마당 가에다가 이렇게 산에서 나무...

10604 # 어, 울타리. {응, 울타리.}

10604 @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604 # 그거닌 인저 조 가생이 조기 조기 조 우리 화단 한테 조 저테. {그거는 이제 조기 가에 조기 저기 조 우리 화단 한 테 조기 곁에.}

10604 # 그저네는 우리뚜 거기 울타리 해써썬유. {그전에는 우리도 거기 울타리 했었어요.}

10604 # 저 밤:나무 서비나 인저 이렇거 인저 쳐다가 말뚝걸 박꾸서닌 인저 거그다 총총이 이르게 꼬바, 족: 나가매 이르게 꼭꾸서는 인저 양쪼게다 인제 아네 하구 인저 배 까테 하구 가:노란 지::드란 호초래기루다 이르게 띠방얼 대유. {저 밤나무 썬이나 이제 이런 거 이제 쳐다가 말뚝을 박고서 이제 거기에다 총총하게 이렇게 꽃아, 족 나가며 이렇게 꽃꾸서는 이제 양쪼게다 이제 안에 하고 이제 바깥에 하고 가느란 길다란 회초리로 이렇게 덧장을 대요.}

10604 # 띠방얼 대구 인저 가끔 이르게 양쪼걸 인제 억꺼서 무꺼뒤, 그거 이러케 너머지지 말라구. {덧장을 대고 이제 가끔 이렇게 양쪼를 이제 얹어서 묶어뒤, 그거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10604 # 그게 울타리여, 그러케 논녕거. {그게 울타리야, 그렇게 놓는 거.}

10604 # 그르시아느면 인저 돌:루다 다:떨 싸턴지, 자기네 집 경개서널 해가주...

10604 @ 문도 해 놓아야지요, 문. # 응 문? {응 문?}

10604 # 어 울타리닌 무니 움:꾸 인제 여기 삽쪼문 아니면 대:무니루 저러케 하고 그라지 유. {응 울타리는 문이 없고 이제 여기 삽쪼 아니면 대문으로 저렇게 하고 그러지요.}

10604 @ 삽쪼은 어떻게 생겼어요?

10604 # 삽쪼문두 막때기루 그르케 해써. {삽쪼도 막대기로 그렇게 했어.}

10604 # 싸리까지나 며 막때기나 벼:다가 이르게 해서루 이러케 트릴 짜가주구서, 이르게 네모지게 트릴 짜유. {싸리까지나 뭐 막대기나 베어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을 짜 가지고서, 이렇게 네모나게 틀을 짜요.}

10604 # 짜가주구서 인저 거기따가 가문테다 또 띠방얼 내구서는 막때기릴 가따 인제 이르게 나무까지릴 쳐다가 양쪼게다 대구서 이르게 쪼마:, 쪼마. {짜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다가 가운데다 또 덧장을 내고서 막대기를 갖다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를 쳐다가 양쪼게다 대고 이렇게 잡아매, 잡아매.}

10604 # 끄느루 인저 [xx]가주구 이러케 여다더, 싸림무니라구. {끈으로 이제 [**] 가지고 이렇게 여닫아, 사림문이라고.}

10604 # 그라구 인저 대:문 하닌 사라면 우리 저 대:문마냥 저러케 인저 해 노쿠. {그리고 이제대문 하는 사람은 우리 저 대문처럼 저렇게 이제 해 놓고.}

10604 @ 그리고 집 뒤로 가면 뒤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10604 @ 앞에는 마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604 # 어. {응.}

10604 @ 저기 하고 뜨럭, 뜨럭이라 그래요?

10604 # 어 뜨럭, 뜨럭. {응 토방, 토방.}

10604 # 뜨럭뚜 이꾸 마루두 이꾸. {토방도 있고, 마루도 있고.}

10604 @ 그 신발 벗어 놓고, 옛날에 돌 이렇게...

10604 # 요:지또 요:지또. {응 응, 섬돌 섬돌.}

10604 # 돌 롱건 건 요:지또리라구 하구. {돌로 한 건 섬돌이라고 하고.}

10604 # 거기따 인저 심발 버서노쿠 마루로 올라서서 인저 방으루 드리오녕거지. {거기에 다 이제 신발 벗어 놓고 마루로 올라서서 이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지.}

10604 @ 마루 없는 집은 바로 들어오는...

10604 # 그냥 인저 뜨러게서 올리오지 머, 뜨러게서. {그냥 이제 토방에서 올리오지 뭐, 토방에서.}

10604 # 뜨러게서 인저, 또 뜨러게서 방이 너푸면 고기두 또 요:지또럴 놔:. {토방에서 이제, 또 토방에서 방이 높으면 거기도 또 섬돌을 놔.}

10604 # 마당에서 올리오는데두 뜨러콜러올째 너푸면 요:지또럴 노코:. {마당에서 올라 오는데도 토방에 올라 올 때 높으면 섬돌을 놓고.}

10604 # 뜨러게서 또 방에 드러가는데 너푸면 또 고기두 반질반질란 도:럴 가따 요:지또럴 놔:야하. {토방에서 또 방에 들어가는데 높으면 또 고기에도 반질반질한 돌을 갖다가 섬돌을 놓아야 해.}

10604 # 그래서 인저 그거 바:꾸 방으루 드러가구. {그래서 이제 그거 밟고 방으로 들어가고.}

10604 @ 뜨럭 말고 봉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10604 # 봉당? {봉당?}

10604 # 봉당은 그건 여긴마리 아닌데 뵤:컬 가주구 봉당이라구 하대유. {봉당은 그건 여기 말리아닌데 부엌을 가지고 봉당이라고 하대요.}

10604 # 저 아랫넝 싸라미 그라덩가 워디 싸라미 그라덩가, 강안도 싸라미 그라덩가. {저 아랫넝 사람이 그러던가 어디 사람이 그러던가, 강원도 사람이 그러던가.}

10604 # 봉당언 뵤:컬 보구 봉당이라구 하더라구. {봉당은 부엌을 보고 봉당이라고 하더라고.}

10604 # 뜨러걸 보구 그라능게 아니라. {토방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 거기 이제 앞이잖아요, 토방 있고, 섬돌 있고 이렇게 넘어서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10604 @ 요거 넘는 데를 뭐라고 해요?

10604 # 중방. {중인방.}

10604 @ 중방이라 그래요?

10604 # 으에, 문쭈방, 중방. {응, 문지방, 중인방.}

10604 @ 같은 말이에요?

10604 # 예. {예.}

10604 # 이거 이게 문쭈방, 중방. {이거 이게 문지방, 중인방.}

10604 @ 이게 이제 앞이잖아요?

10604 # 예. {예.}

10604 @ 저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10604 # 뒤에넌 저러케 이짜너, 저르케 장:짱. {뒤에는 저렇게 있잖아, 저렇게 장독대.}

10604 @ 장광도 있고 뭐 연기도 그리로 나가고...

10604 # 굴:뚝, 굴:뚝건 뒤(단모음 '위')루 인녕게 아니라 저짜그루 이찌. {굴뚝, 굴뚝은 뒤로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있지.}

10604 # 여기서 인저 뷔:키 여길꺼 거트면 인저 방, 아루뽕 거치구 우뽕 거쳐서 인저 저조구루 가지, 굴:뚝건. {여기서 이제 부엌이 여기일 것 같으면 이제 방, 아랫방 거치고 윗방 거쳐서 이제 저쪽으로 가지, 굴뚝은.}

10604 @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 안채에 딸려있는 거잖아요?

10604 # 예. {예.}

10604 @ 바깥에 또 뭐 소도 키우고 뭐 연장도 갖다 놓코.

10604 # 오양간. {외양간.}

10604 # 츠:메 인저 여기 지:끼 저네 오양간 하너라구 저:기 저기 저거, 츠:메넌 요기 사랑 뽕:찌테 요기따가 소릴 하나 매겨써써, 조기따가. {처음에 이제 여기 짓기 전에 외양간 하느라고 저기 저기 저거, 처음에는 요기 사랑 부엌 곁에 요기에 소를 하나 먹였었어, 조기에다가.}

10604 # 그라다가 인저 조기따가 쪼:끄마케 꺼적때서 저그다 오양간 조게, 그라다가는 인저 저짜그루 인저 그 널른데 거 허청, 그게 오양까니어써써 소 여러바짐 매기너라구, 거기다 오양간 저서 소매깁겨. {그러다가 이제 조기에다가 조그맣게 거적을 대서 저기에다 외양간 저것이, 그러다가는 이제 저쪽으로 이제 그 넓은 데 그 헛청, 그게 외양간이었었어 소 여러 마리 좀 먹이느라고, 거기다 외양간 지어서 소 먹인 거야.}

10604 # 연장두 그란데 인저 허간, 또 허툼설거지 그냥 그렇거 너:두넌 데넌 인저 허간. {연장도 그런 데 이제 헛간에, 또 허툼 살림살이 그냥 그런 거 넣어 두는 데는 이제 헛간.}

10604 @ 헛간에 뭐 넣어 놔요?

10604 # 머 지저부냥거 다: 는녕거유, 연장두 허까네다 두녕거뚜 이꾸 머. {뭐 지저분한 것 다 넣는 거예요, 연장도 헛간에다 두는 것도 있고 뭐.}

10604 # 인저 소비연장 거통거 머 흑쟁이 머 쓰:레 그렇거뚜 허까네다 두구, 명석꺼통거뚜 인저 허까네 두구 머, 다: 두능기여:, 지게 소구바리 그렇거 인저 비 안마께 다 허까네 다: 디려노코. {이제 연장 같은 거 뭐 극쟁이 뭐 써레 그런것도 헛간에다 두고, 명석 같은 것도 이제 헛간에 두고 뭐, 다 두는 거야, 지게 밭채 그런 거 이제 비 안 맞게 다 헛간에 다 들여놓고.}

10604 # 다: 두녕거지 머. {다 두는 거지 뭐.}

10604 @ 겨울에 눈 치는 건.

10604 # 너까래. {넉가래.}

10604 @ 그것도 거기에다 놔요?

10604 # 그럼 그렇거꾸 다: 허까네 두지유 머. {그럼 그런 것도 다 헛간에 두지요 뭐.}

10604 @ 그런데 그거에 양쪽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새끼줄이나 밧줄 매어 가지고 잡아 당기는 것도 있잖아요?

10604 # 그건 눈 치닝게 아이라, 가래:, 너까래, 가래. {그건 눈 치는 게 아니라, 가래, 너까래, 가래.}

10604 # 그 눈치닝건 너까래구, 가:래가 이썬유 가:래. {그 눈 치는 건 너까래고, 가래가 있어요 가래.}

10604 # 사비여 그건, 삽, 사빈데. {삽이야 그건, 삽, 삽인데.}

10604 # 인저 엔:나레 여 코크링 그거 읍:쓸 때는 가:래질 해가주구서 모이거통거 다: 썬짜너. {이제 옛날에 지금 굴착기 그거 없을 때는 가래질 해 가지고 묘 같은 거 다 썼잖아.}

10604 # 사부루 파가주구 그랄 때년 인저 사베 인제 이러케 하나 고리달구: 그래가주구선 꼬냉이 니:개릴 매가주구선 인전 하나는 장:치 대구 네:사라민 인저 가래쥘 네:시 자부달려서 인저 이르게 흑 파녕거유, 그게. {삽으로 파 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삽에 이제 이렇게 하나 고리를 달고 그래 가지고 끈 네 개를 매어 가지고 이제 하나는 장치 대고 네 사람은 이제 가렛줄 넷이 잡아 당겨서 이제 이렇게 흙 파는 거 예요, 그게.}

10604 # 가:래여, 가:래. {가래야, 가래.}

10605 @ 집을 짓는 재료에 따라서 집이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흙으로 짓고, 돌로도 짓고, 벽돌로도 짓고 그렇잖아요.

10605 # 예, 이근 나무때기루 장:건 인저 빼지비라구 하구. {예, 이근 나무로 지은 건 이제 뺄집이라고 하고.}

10605 # 벽돌루 장:거년 인저 벽돌지비라구 하구. {벽돌로 지은 거는 이제 벽돌집이라고 하고.}

10605 # 도:라구 호카구 이르게 싸:가매 진 지븐 돌담찌비라구 하구, 그르치유 머. {돌하고 흙하고 이렇게 쌓아가며 지은 집은 돌담집이라고 하고, 그렇지요 뭐.}

10605 @ 흙으로만도 해요? 아까같이 외 얹어서.

10605 # 그거 인저 빼지비여, 마라자면 인저 지동얼 세워야 그걸 하지, 흑찌번 그거 외릴 안얼그니께. {그거 이제 뺄집이야, 말하자면 이제 기둥을 세워야 그걸 하지, 흙집은 그거 외를 안 얹으니까.}

10605 # 흑찌번 벼게다 회(단모음 '외')릴 안 억거던 외(단모음 '외')릴, 흑찌븐 벽돌 싸구서 그냥 거그다 이르게 발러. {흙집은 벽에다 회를 안 얹거든 외를, 흙집은 벽돌 쌓고서 그냥 거기다 이렇게 발라.}

10605 @ 그럼 벽돌집하고 흙집하고 같은 거예요?

10605 # 흑, 꼬 흑뽕뽕찌비여 그게, 흑뽕뽕쩍. {흑, 그 흙벽돌집이야 그게, 흙벽돌집.}

10605 # 흑뽕뽕찌번 외릴 안 억꾸서 인저 벽또릴 채곡채곡 싸꾸서는 그냥 흥만 가따 발르닝 거유. {흙벽돌집은 외를 안 얹고서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고서는 그냥 흙만 갖다 바르는 거예요.}

10605 # 돌담쩍뚜 그러쿠, 돌담쩍뚜 인저 도:라구 호카구 이르게 개:가주구서 싸:꾸서년 거:뚜 인저 흥걸 가따가 발르기만 하지 외년 아널거. {돌담집도 그렇고, 돌담집도 이제 돌하고 흙하고 이렇게 개어 가지고 쌓고서는 그것도 이제 흙을 갖다가 바르

기만 하지 외는 안 얹어.}

10605 # 백때기 지베다 외릴 엉녕거구. {뻐다귀 집에다 외를 얹는거고.}

10606 @ 그럼 집 지을 때 사용하는 연장은 뭐가 필요해요?

10606 # 뭐 연장 별거 다 드릴테지 머. {뭐 연장 별거 다 들어갈테지 뭐.}

10606 # 톱두 들구 깡이, 참 도:키두 들구 짜:귀두 들구, 끌:두 들구. {톱도 있고 팽이, 참 도끼도 있고 자귀도 있고, 끌도 있고.}

10606 # 망치두 들구. {망치도 있고.}

10606 # 대:파들구 머 별거 다 들지 머, 그러거 다: 들지 머. {대패도 있고 뭐 별거 다 들어가지 뭐, 그런 거 다 들어가지.}

10606 @ 구멍 뚫는 것도.

10606 # 도레송고시여 그건, 도레송곤, 구녕뚫녕건. {도레송곳이야 그건, 도레송곳, 구멍 뚫는 것은.}

10606 @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것도 있고.

10606 # 그거두 다 도레송곤.{그것도 다 도레송곳.}

10606 @ 두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도.

10606 # 네, 그거뚜다. {네, 그것도 다.}

10606 @ 그 이름이 같아요?

10606 # 그르치유 머, 그게 이르게 구녕 뚫녕거니께 다 도레송곤. {그렇지요 뭐, 그게 이렇게 구멍 뚫는 거니까 다 도레송곳.}

10606 @ 또 잘 안들면 같아야 되잖아요.

10606 # 날꺼통거 가녕거? {낫 같은 거 가는 거?} @ 예.

10606 # 숯뜰. {숯돌.}

10606 @ 끌도 그렇잖아요?

10606 # 예, 끌:두 가려야지, 끌:두 거그다 가려야디야, 수또레다. {예, 끌도 같아야지, 끌도 거기에다 같아야 돼, 숯돌에다.}

10606 @ 톱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10606 # 줄:루, 토번 줄:루 쓴다구 하더라구. {줄로, 톱은 줄로 쓴다고 하더라고.}

10606 # 이르게 이짜너 줄:, 그래가주 톱 요로케 세워노쿠 요로케 요로케 쓸:더라구. {이렇게 있잖아 줄, 그래가지고 톱 요렇게 세워놓고 요렇게 요렇게 쓸더라고.}

10606 @ 삽이나 팽이 같은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칼 같은 거는 같잖아요 숯돌에, 그런데 삽이나 팽이 같은 거는.

10606 # 사번 그냥 쓰다 버려:, 사번, 깡이두 그러쿠. {삽은 그냥 쓰다가 버려, 삽은, 팽이도 그렇고.}

10606 # 나:시나 그저네 인저 호맹이 거통건, 베레다 써썬유, 대장까네 가서. {낫이나 그전에 이제 호미 같은 거는, 버려다 썼어요, 대장간에 가서.}

10606 # 조선날꺼통거 인제 이르게 무더가주구 잘 안드르면, 대장까네 가주가서 베러오구. {조선낫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무더져서 잘 들지 않으면, 대장간에 가지고가서 버려 오고.}

10606 # 호맹이두 인저 쓰다보면 몽툭케지자너, 그러면 인저 사냥가비 더: 비싸니께 그거 가주가서 꼬트머리 빼쫂카게 베러가주 와썬. {호미도 이제 쓰다보면 몽툭해 지잖아, 그럼 이제 사는 값이 더 비싸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끝을 뽕족하게 버려 가지

고 왔어.}

10606 # 그르캐서 베려다 쓰구래두 사:비나 썩이넌 그냥 쓰:다가 버려. {그렇게 해서 버려다 쓰고 그래도 샅이나 썩이는 그냥 쓰다가 버려.}

10606 # 도:키두 다시 베려다 쓰구, 안드르먼, 대장까네 가서. {도끼도 다시 베려다 쓰고, 안 들면, 대장간에 가서.}

10607 @ 집예요, 아까 일 때 처음에 것만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화기가 이렇게 온다고 했잖아요. # 예, {예.} @ 저 끝을 뭐라고 해요?

10607 # 지병, 지병추녀, 지병, 지병추녀. {지붕, 지붕추녀, 지붕, 지붕추녀.}

10607 @ 지병추녀.

10607 # 추녀끄치라구 하구. {추녀끝이라고 하고.}

10607 # 추녀끄테 고두래미 열, 달려따 구라자너, 추녀끄테. {추녀끝에 고드름이 열, 달렸다고 그러잖아, 추녀끝에.}

10607 맨 꼭대기는 뭐라고 해요?

10607 # 거그는 날망이라구 하구, 용구새. {거기는 마루라고 하고, 용마름.}

10607 @ 용구새는 이영 중에서 요렇게 된 걸 이야기 하는 거죠? # 예 예 예. {예 예 예.}

10607 # 켈: 끄트머리에 그거 이:능거니께 용구새 언는다구 하구. {제일 끝에 그거 이는 거니까 용마름 엮는다고 하고.}

10607 # 지병 날망이, 달망이라구두 하구, 지병딸망이라구두 하고. {지붕마루가, 달망이라고도 하고, 지붕달망이라고도 하고.}

10607 @ 달망.

10607 # 네, 지병딸망. {예, 지붕 마루.}

10607 @ 아까 그 실경?

10607 # 실경. {시렁.}

10607 @ 예 시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구멍 뚫어가지고 통나무로 이렇게 두 개 걸치는 거잖아요? 거기 송판도 걸치는 거 있잖아요.

10607 # 그건 선반, 선반. {그건 선반, 선반.}

10607 # 송과니루 향건 선바니라구 하구, 막때기루 이러케 통나무루 언저 놓건 실경이라구 하구, 실경. {송판으로 한 건 선반이라고 하고, 막대기로 이렇게 통나무로 엮어 놓은 건 시렁이라고 하고, 시렁.}

10607 @ 거기다 뭐 없어요?

10607 # 아무기나 다: 없어. {아무거나 다 없어.}

10607 # 선반 매노코서 우리넌 그저네 우리 친정에는 보니께 선반 매논데넌 족뽕거통거, 그거 이르게 채곡채곡 싸:놔때. {선반 매어 놓고서 우리는 그전에 우리 친정에는 보니까 선반 매 놓은 데는 족보 같은 거, 그거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났데.}

10607 # 그라고 인저 뭐 우리 할머니 기시니께 머 이러거 잡쭈따가 나뭇거 선바네 언저놔따 잡쭈구.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할머니 계시니까 뭐이런거 잡수시다가 남은 거 선반에 엮어 놓았다가 잡수시고.}

10607 # 애:기책 거통거뚜 마:니 사오니께 그런 책꺼통거뚜 고기따 이러케 언저노쿠. {이야기책 같은 것도 많이 사오니까 그런 책 같은 것도 거기에다 이렇게 엮어 놓고.}

10607 # 실경에넌 머 그냥 도방구리 거팅거 고리짝 꺼팅거, 머 그렁거 모두 언저노쿠. {시렁에는 뭐 그냥 반진고리 같은 거 고리짝 같은 거, 뭐 그런 거 모두 엮어 놓고.}

10607 @ 고리짜이 뭐예요?

10607 # 그거:. {그거.}

10607 # 모코리, 고리짜, 어 고리짜, 그게 고리짜기라구두 하구 모코리라구두 하구. {모코리, 고리짜, 응 고리짜, 그게 고리짜이라고도 하고 모코리라고도 하고.}

10607 @ 뭐 넣을 때 이렇게 열고 닫는 것도 있잖아요.

10607 # 서랍, 빼다지. {서랍, 빼단이.}

10607 # 그건 농이지 머, 빼다지 서랍농, 빼다지농. {그건 농이지 뭐, 빼단이 서랍농, 빼단이 농.}

10607 @ 그것도 이름이 뭐 다 있어요, 따로따로?

10607 # 엔:나레는 그래찌, 엔:나레 인저 혼수덜 모태오니께 그르케 서랍장만 하나 사오면 빼다지농 하나 사가주 와따 그러카구.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 이제 혼수들 못 해오니까 그렇게 서랍장만 하나 사 오면 빼단이농 하나 사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하고.}

10607 # 쪼그만 머리장 하나 사가주고 와따구도 하구:, 그르케찌 머. {조그마한 머릿장 하나 사 가지고 왔다고도 하고 그렇게 했지 뭐.}

10607 @ 그래서 이제 집 다 짓고 나서 불 때고 살잖아요, 불 때는 데 이쪽은 뭐라고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하고.

10607 # 여기넌 고코락 뵙:, 저기넌 굴:뚝, 불라가, 영기 나가넌데. {여기는 아궁이 부엌, 저기는 굴뚝, 불 나가... 연기 나가는 데.} @ 바닥 말이에요.

10607 # 뵙:빠닥, 그냥 뵙빠다기여. {부엌 바닥, 그냥 부엌바닥이야.} @ 아니, 방.

10607 # 방? 아루뽕 우뽕. {방? 아랫방 윗방.}

10607 @ 방도 이쪽 따뜻한 데가 있고...

10607 # 아룸목 움목, 여기넌 아룸목, 거기넌 움목. {아랫목 윗목, 여기는 아랫목, 거기는 윗목.}

10607 @ 겨울에 불 때도 차가운 데 있잖아요.

10607 # 거기넌 움:목. {거기는 윗목.}

10607 # 움모건 차갑짜너, 아룸몽만 뜨시구. {윗목은 차갑잖아, 아랫목만 따뜻하고.}

10607 # 불때면 그러. {불 때면 그래.} @ 그런데를 또 뭐라고 해요? 냉...

10607 # 움모건 아주 냉구리여, 아주 냉방이라구라지 머, 움모건 냉방거따구. {윗목은 아주 냉골이야, 아주 냉바이라고 하지 뭐, 윗목은 냉방 같다고.}

10607 # 냉방거따구라지, 움모건 아주 냉방이여, 부리 안드러와서 냉방이여 움모꺼지. {냉방같다고 하지, 윗목은 아주 냉방이야, 불이 안 들어와서 냉방이야 윗목까지.}

10607 # 부리 잘: 드르와 뜨시면 움목뚜 다: 뜨셔 이라구. {불이 잘 들어와 따뜻하면 윗목도 다 따뜻해 이려고.}

10607 @ 겨울에 보면 이렇게 드러누워 있으면 바닥은 따끈따끈 한데 얼굴은 차갑고.

10607 # 외, 외풍이 셔서 그리유, 외풍이. {외, 외풍이 세서 그래요, 외풍이.}

10607 # 그걸 외풍이 시다 그리야. {그걸 외풍이 세다고 해.}

10607 @ 왜 그래요?

10607 # 그췌 모르거췌 난두 그 소리만 드꾸 그냥 그르케만 사러와서. {글췌 모르겠어 나도 그 소리만 듣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와서.} 아이구 우리 방엔 아주 외풍이 셔서 추어주꺼췌. {아이고 우리 방은 아주 외풍이 세서 추워 죽겠어.} 그 바람 드려오

능걸 보구 외풍시다구 하내버. {그 바람 들어오는 걸 보고 외풍 세다고 하나봐.}

10610 @ 그런데 집을 지켜주는 게 뭐 있다고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집에 문, 샘, 외양간 이런 데다가 지켜주다고 쌀도 갖다 조그마한 단지나 그런 거 갖다 놓고 넣어 놓고 그랬잖아요, 부엌에도 그러고.

10610 # 우리넌 그렇걸 아내서 몰러, 그렇건.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서 몰라, 그런 건.} 그냥 머 터준... 딸, 애:기 드르면 터주판지럴 뒤꺼테다 하나 이르게 단지럴 해노쿠서 해꼬기 나면 거기따 너와따가 그게 그다메 해꼇날때 쏘꾸서루 다시 해꼬걸 거기따 너노쿠 그란 터주판지가 이때유. { 그냥 뭐 터주... 단, 애기 들어보면 터줏단지를 뒤꼇에다 하나 이렇게 단지를 해 놓고서 햇곡식이 나면 거기에다 넣어 놔다가 그 게 그 다음에 햇곡식 날 때 쏙고서는 다시 햇곡식을 거기에다 넣어 놓고 그러는 터줏단지가 있대요.} 터주판지. {터줏단지.}

10610 @ 그건 왜 하는 거예요?

10610 # 그거 인저 마라자멈 터주판지 인저 잘 지켜달라구 할테지 머, 지벌 잘 지켜달라구. {그거 이제 말하자면 터줏단지 이제 잘 지켜달라고 할테지 뭐, 집을 잘 지켜 달라고.} 우리능 그렇걸 찰:버툼 아내봐서 몰러. {우리는 그런 걸 처음부터 안 해 봐서 몰라.}

10610 @ 성주라는 것도 있어요?

10610 # 성주는 부엌: {성주는 부엌.}

10610 # 뷔:걸 보구성 성주. {부엌을 보고서 성주.}

10610 # 인저 이르게 안, 우리는 예수럴 미드니께찌만 안민넌 사라면 이르게 가:레 인저 농사럴 지면 안택칸다구 그리야. {이제 이렇게 안,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지 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을에 인제 농사를 지으면 안택환다고 그래.}

10610 # 그라면 인저 성주 받넌다구 하구 그라면 뷔:케서부툼 이르게 정얼 일거유. {그러 면 이제 성주 받는다고 하고 그러면 부엌에서 부터 이렇게 정을 읽어요.}

10610 # 그라면 인저 성주경얼 이꾸 방에 드루와서 인저, 또 인저 아이 무슨 경이라구 하. {그러면 이제 성주 경을 읽고 방에 들어와서, 또 이제 아이 무슨 경이라고 해?}

10610 # 그라구 인저 뒤꺼테 가서는 인저 터주경얼 익꾸 인저 이러케한다구 하구서는. {그 리고 이제 뒤꼇에 가서는 이제 터줏경을 읽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고서는.}

10610 # 성주 바더온다구 인제 하면 머 이르게 소나무 꺾꺼가주구 이르게 대잠넌다구 흔 드러가주구 가서는 인저 어디가서 뷔 대추나무를 꺾꺼와야 조티야. {성주 받아온 다고 이제 하면 뭐 이렇게 소나무 꺾어 자기고 이렇게 대잡는다고 흔들어가 가지 고 가서 이제 어디에 가서 뷔 대추나무를 꺾어와야 좋대.}

10610 # 그래서 인저 대추나무를 꺾꺼 오면 문쭙이다가 인저 요러케 그 대추나무를 싸, 저:기 해가주구서너 인저. {그래서이제 대추나무를 꺾어 오면 문쭙이에다 이제 요 령게 그 대추나무를 싸, 저기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대추나무를 꺾어 오면 문쭙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대추나무를 싸, 저기 해서 이제}

10610 # 아니다 내가 잘못 얘기럴 헨네, 성주 반넌건. {아니다 내가 잘못 얘기를 헨네, 성 주 받는 건.}

10610 # 여기 들보:, 거기다 해:서 이르게 성주 받넌다구 그걸 해가주구서 매:따러 놔. {여 기 들부엌, 거기에다 해서 이렇게 성주 받는다고 그걸 해 가지고서 매달아 놔.}

10610 @ 대추나무요?

- 10610 # 어 대추나무를 쪼끔 꺼꺼다가 종이에다 싸가주구서 심문 저기, 문종이 싸가주구서 실:루 뒹여서 요기 왜 저르케 아:내쓸째는 요만:치 모탕나무 나오자너, 고기다 이래 쫌매놔유. {응 대추나무를 조금 꺾어다가 종이에다 싸 가지고서 신문 적, 문종이 싸 가지고서 실로 동여서 요기 왜 저렇게 안 했을 대는 요만큼 모탕 나무 나오잖아, 고기에다 이렇게 잡아매어 놔요.}
- 10610 # 그래두 쥔: 츠:메는 인제 정얼 일글때 인저, 조왕, 조왕쨍부텨 잉능겨, 누:지비 가서 하던지. {그래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경을 읽을 때 이제, 조왕, 조왕 경부터 읽은 거야, 누구네 집에 가서 하든지.}
- 10610 @ 조왕이 뭔데요?
- 10610 # 뷔:케. {부엌에.}
- 10610 # 뷔케루 인저 그르카구서는 인저 여기 와서 익꾸, 인저 또 인저 저기 가서 인저 터주쨍 익꾸 이리카넌데. {부엌에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여기 와서 잃고, 이제 또 이제 저기 가서 이제 터쫌경 잃고 이렇게 하는데.}
- 10610 # 그르케 다: 하구서는 인저 성주 받넌다구 인저 나가서루 이르케 대가주 와서 대추나무 하나 꺾꺼다 성주 바더따구, 거기따 매따라 노꾸, 그제 안택카녕거리야, 그르케 하녕게. {그렇게 다 하고서는 이제 성주 받넌다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이제 나가서는 이렇게 대 가지고 와서 대추나무 하나 꺾어다 성주 받았다고, 거기에다 매달아 놓고 그제 안택하는 거래, 그렇게 하는 것.}
- 10610 @ 그 경 읽는 거를?
- 10610 # 음. {응.}
- 10610 @ 그렇게 다 경 읽는 것을 안택한다고?
- 10610 # 응, 안택칸다구 인저 성주바꾸 안택칸다구. {응, 안택한다고 이제 성주 받고 안택하라고.}
- 10610 # 엔:나레 그르케 해써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 10610 @ 조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10610 # 조왕언 뷔:컬 보구 조왕, 뷔:. {조왕은 부엌을 보고 조왕, 부엌.}
- 10610 @ 부엌을 조왕이라고 해요?
- 10610 # 응. {응.}
- 10610 # 조왕쨍 잉넌다구 하면 뷔:케서 잉넌데. {조왕 경 읽는다고 하면 부엌에서 읽는데.} @ 거기다 뭐 쌀 같은 거 놓거나 뭐 이렇게 놓지는 않았어요?
- 10610 # 시루 떡캐노꾸, 거기서두 일글때. {시루 떡 해 놓고, 거기서도 읽을 때.} @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10610 # 떡 쪼끔 해노꾸서 인저 뷔:케서는 뷔:빠다게 안저서 정각쨍이가 투디려가매 정 일거. {떡 조금 해 놓고서 이제 부엌에서는 부엌 바닥에 앉아서 무당이 두드려가며 경을 읽어.}
- 10610 # 인제 드꺼테 할때두 드꺼텐 백설기 요러케 쪼가주구서 인저 노꾸서 또 정익꾸. {이제 뒤꼍에 할 때도 뒤꼍에는 백설기 요렇게 쪼 가지고서 이제 놓고서 또 경 읽고.}
- 10610 # 여 방에서 할텐 인저 성주쨍 일글때넌 인저 큰:시루에다가 인저 고물 너:서 이르케 떡 쪼서 노꾸서루 인저 정 잉녕기여. {여기 방에서 할 때는 이제 성주경 읽을 때는 이제 큰 시루에다가 이제 고물 넣어서 이렇게 떡 쪼서 놓고서는 이제 경 읽

는 거야.}

10610 # 다: 떠게 다각각가능기여. {다 떡을 다 각각 하는 거야.}

10610 @ 그럼 조왕 할 때는 저 터줏단지처럼 그런 거는 안 놔둬요?

10610 # 안해유. {안 해요.}

10610 @ 거, 그건 없어요?

10610 # 으 으. {응 응.}

10610 @ 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610 # 업? {업?}

10610 # 어미 뭐:지? {업이 뭐지?}

10610 @ 업인가요?

10610 # 음? 업! {응? 업!}

10610 # 업 뜨리와따구 하녕거? {업 들어 왔다고 하는 거?} @ 예 예.

10610 # 업 뜨리와따구 하능건, 머 저런데 그저네 보든 저기 노인네덜 그라대. {업 들어 왔다고 하는 건, 뭐 저런 데 그전에 보면 저기 노인네들 그라대.}

10610 # 저기 거북, 왜 이르게 거북강가 두꺼빙가 드러옴, 이르게 장마질 때 왜 이르게 영금:영금 겨 드러오자너? 그라면 아이구 업 뜨리온다 야 업 뜨리와 이리카구. {저기 거북, 왜 이렇게 거북인가 두꺼빙가 드러오면, 이렇게 장마 질 때 왜 이렇게 영금영금 기어 들어오잖아, 그러면 아이고 업 들어온다 애 업 들어와 이렇게 하고.}

10610 # 어떤지번 또 보면 아주 옴:나레 보면 저 우:에 그런 지비 이씨씨. {어떤 집은 또 보면 아주 옛날에 보면 저 위에 그런 집이 있었어.}

10610 # 그냥 다:메 이런 구렁이가 누::렇게 항상 언치 이씨, 다메, 그라든 그거뚜 어비라구 하더라구유. {그냥 담에 이런 구렁이가 누런 게 항상 얹혀 있어, 담에, 그러면 그것도 업이라고 하더라고요.}

10610 # 거뚜 모끈디리게 하더라구, 어비라구. {그것도 못 건드리게 하더라고, 업이라고.}

10610 @ 그럼 좋은 거예요?

10610 # 몰르거씨유, 조은지 나쁜지 그췌 그라더라구, 아이 징그러워 죽꺼떠라구 나는 그렁거 보든 무서워서. {모르겠어요, 좋은지 나쁜지 글췌 그러더라고, 아이 징그러워 죽겠더라고 나는 그런 거 보면 무서워서.}

10610 @ 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문?

10610 # 문? {문?}

10610 @ 위하는 것. 성주나 터주나 문 이런 거. 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10610 # 무니라는 이름두 인느냐구? {문이라는 이름도 있느냐고?}

10610 # 그건 잘 모르건네, 성주 우애구 터주 우애구, 성주 우애구 그렇건 아려, 그런 소리든 드러봐씨두. {그건 잘 모르겠네, 성주 위하고 터주 위하고, 성주 위하고 그런 것은 알아, 그런 소리는 들어봤어도.}

10610 @ 그러면 저기 샘.

10610 # 어? {응?}

10610 @ 샘이나

10610 # 요왕, 그건 요왕. {요왕, 그건 요왕.}

10610 # 샤:면 요왕. {샘은 요왕.}

10610 @ 요왕.

10610 # 요왕시널 우헨다능기여, 샐:면. {요왕신을 위한다는 거야, 샘은.}

10610 @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610 # 요왕에 가서 거뚜 빌:구 이러케 하능기여. {요왕에 가서 그것도 빌고 이렇게 하는 거야.}

10610 @ 뭐 갖다 봐요?

10610 # 거기두 인저 떡뚜 해가구 인저 쌀두 한사발 떠가주가서 초뽕 꼬자노쿠, 그르카구 인저 정각쟁이가 가 비닝기여. {거기도 이제 떡도 해 가고 이제 쌀도 한 사발 떠가지고 가서 촛불 켜아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무당이 가서 비는 거야.}

10610 # 빌구 인저 우애능기여, 요왕시널 우애능기여. {빌고 이제 위하는 거야, 요왕신을 위하는 거야.}

10610 # 또 사네 가 우해면 산시널 우해러 가닝거구. {또 산에 가 위하면 산신을 위하러 가는 거고.}

10610 @ 산신 위할 때는 어떻게 해요?

10610 # 사네두 마창가지여, 그러케 떡케가주가구. {산에도 마창가지야, 그렇게 떡 해가지고 가고.}

10610 @ 동네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시향같은 것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여럿이 먹는 거니까.

10610 # 음 여러시 인저, 여러시 명녕건 그르케 인저 날바더서 동네서 부정 안드는 날, 깨 꼬타게 인제 해가주구서, 그중에서 동네서 또 깨까탄 사라미 인저 떡케가주가서, 여그서는 그 저기는 아:누애씨, 요왕은 동네서는 개인찌그루는 우애씨두. {응 여럿이 이제, 여럿이 먹는 건 그렇게 이제 날 받아서 동네에서 부정 안 드는 날, 깨끗하게 이제 해 가지고서, 그 중에서 동네에서 또 깨끗한 사람이 이제 떡 해가지고서, 여기서는 그 저기는 안 위했어, 요왕은 동네서는 개인적으로는 위했어도.}

10610 # 그라고서는 저 아페 나무, 서낭나무여씨 그게. {그리고서는 저 앞에 나무, 서낭나무였어 그게.}

10610 # 이르케 윈(단모음 '외')산내끼 꽤:서 엔:나레 이르케 똥:그러케 매노쿠 이라면, 인저 산신 우해고 서낭지 지낸다고 하면 인제 동네서 인저 동네 물겨니루다가 떠케가주 가서 거기따가 인저 우:해씨유. {이렇게 윈새끼 꼬아서 옛날에 이렇게 둥그렇게 매 놓고 이라면, 이제 산신 위하고 서낭제 지낸가고 하면 이제 동네에서 이제 동네 물건으로 떡 해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위했지요.}

10610 # 절 하고 인저 떠케다 노쿠 그라구 인저 낭중예넌 남자더리 막: 켤매기 치구 북 치구, 참 장구 머여 그게, 증, 땡땡 울리닝거, 그거 치구 엔:나레넌 그러케 우:해씨. {절 하고 이제 떡 해다 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남자들이 막 켤매리 치고 북 치고, 참 장구 뭐야 그게, 징, 땡 땡 울리는 거, 그거 치고 옛날에는 그렇게 치성을 드렸어.}

10610 # 그란테 머 엔:나레 메테 우:해더니 안 우해씨유 그거뚜. {그런데 뭐 옛날에 몇 해 위하더니 안 위했어요, 그것도.}

10610 @ 떡만 해다 놓아요?

10610 # 인저 과:일 그렇거 다: 사유, 명태 포두 사구, 밤: 대추 사구, 능금 배 사구, 다: 사닝거유. {이제 과일 그런 거 다 사요, 명태 포도 사고, 밤 대추 사고, 사과 배

사고, 다 사는 거예요.}

10610 # 워:서 하던지 다 사녕거유. {어디에서 하든지 다 사는 거예요.}

10610 # 여기서 해두 다 사구, 워:디가 해두 다 사능겨. {여기에서 해도 다 사고, 어디에 가 해도다 사는 거야.}

10610 # 지사 지내능거마냥 과:이런 다: 드러가. {제사 지내는 것처럼 과일은 다 들어가.}

10610 # 산신제는 그췌 사네 가서 인제 지내능겨, 사네 가서유. {산신제는 글췌 산에 가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산에 가서요.}

10610 @ 누가 어떻게 지내요?

10610 # 인저... {이제...} @ 누가 준지해 가지고?

10610 # 거기두 내내 떠카구 인저 거기 산신제 지내러 가는데년 하:얀 백설기떡 하구, 인저 과:일, 밤 대추, 사과 배 그거 사가주구 명태 포하구 이러케 사 가주구. {거기도 내내 떡 하고 이제 거기 산신제 지내러 가는 데는 하얀 백설기떡 하고, 이제 과일, 밤 대추, 사과 배 그거 사 가지고 명태 포하고 이렇게 사 가지고.}

10610 @ 어디다가 해요?

10610 # 인저 사서 가주가서 인저 어디 줌, 마라자면 내가 가서 우헬 꺼거트면 어디 자버논데가 이짜너, 장: 거기 가 하던데가. {이제 사서 가지고 가서 이제 어디 줌, 말하자면 내가 가서 위할 것 같으면 어디 잡아놓은 데가 있잖아, 늘 거기가 가 하는 데가.}

10610 # 사람마다 누구던지 우:해러 갈때는 이르게 장소릴 자버논데가 이써유. {사람마다 누구든지 위하러 갈 때는 이렇게 장소를 잡아 놓은 데가 있어요.}

10610 # 바위 미테릴 가던 인저, 또랑깨 가던, 사닌년 또랑깨릴 가던 저 어디릴 가던지. {바위 밑에를 가든 이제, 도랑 근처에를 가든지, 산에 있는 도랑 근처에를 가든지 저 어디를 가든지.}

10610 # 자기가 인저 고기 적당한 데릴 자버노쿠 인저 거기 가서 산시닐 장 우:애능기여. {자기가 이제 고기 적당한 데를 잡아 놓고 이제 거기 가서 산신을 늘 위하는 거야.}

10610 # 일러네 함버닐 가던지 두버닐 가던지 그르카면. {일년에 한 번을 가든지 두 번을 가든지 그렇게 하면.}

10610 # 옴:나레년 참 산신제 지넬라면 머 초상 저:기서 초상 지내두 모까 부정해서, 그런 데 지금더런 머. {옛날에는 참 산신제 지내려면 뭐 초상 저기서 초상 지내도 못가 부정해서, 그런데 지금들은 뭐.}

10610 # 그걸두 인저 세월따라 하던지 그냥 머 산신 지내루 오년대두 보면 머, 초상 난지 뭐 한 이틀 사흘 되두 그냥 오구 그라더라우유. {그것도 이제 세월따라 하는지 그냥 뭐 산신제 지내러 오는데도 보면 뭐, 초상 난 지 한 이틀 사흘 되어도 그냥 오고 그러더라고요.}

10610 # 그르케 우:애능겨, 신주두. {그렇게 위하는 거야, 신주도.}

10610 @ 그럼 집집마다 위하는 거네요?

10610 # 아니여어:, 집집마다 안 우해유, 하는 사람만 그르케. {아니야, 집집마다 안 위해요, 하는 사람만 그렇게.}

10610 @ 하는 사람이 그 집집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10610 # 네에:. {예.}

10610 @ 동네에서 전체로 하는 것.

10610 # 아:니여. {아니아.}

10610 # 전체루 하능, 전체루 할 때는 옴:나레 글썸 저 성황 그: 위옴 때만. {전체로 하는, 전체로 할 때는 옛날에 글썸 저 성황 그 위할 때만.}

10610 # 다룬 동네두 그럴꺼 아마, 다른 동네두 텔레비 보면 머 서낭제 지낼 때 동네가 전체 하데. {다른 동네도 그럴 거야 아마, 다른 동네도 텔레비전 보면 뭐 서낭제 지낼 때 동네가 전체로 하데.}

10610 # 그르케찌, 여기두 옴:날게 쫘꿈 저 서낭지 그르케 지내찌. {그렇겠지, 여기도 옛날에 조금 저 서낭제 그렇게 지냈지.}

10610 # 아안:우하 이 동네넌, 교인더리 만:쿠 이래서. {안 위해 이 동네는, 교인들이 많고 이래서.}

10610 # 그란데 인저 요기두 안 민너이더리 인저, 우리두 그저네 안미들 쟈는 해:꾸. {그런데 이제 여기도 안 믿는 이들이 이제, 우리도 그전에 안 믿을 때는 했고.}

10610 # 인저 안민너니더런 인저 그르케 하지. {이제 안 믿는 이들은 그렇게 하지.}

10610 @ 지붕도 위하는 거 있어요?

10610 # 지붕, 그렇건 몰르건는데, 지붕 우애넝건. {지붕, 그런 건 모르겠는데, 지붕 위하는 건.}

10610 @ 외양간 지켜주는 것도 있다면서요.

10610 # 오양간 지켜달라구 인제 가:레 떠캐머그먼, 인저 갈떡캐머그먼, 오양까네두 쫘꿈 떠다노쿠 머, 닥찌베두 떠다노쿠 다: 지켜달라구:. {외양간 지켜 달라고 이제 가을에 떡 해 먹으면, 이제 가을떡 해 먹으면, 외양간에도 조금 떼어다 놓고 뭐, 닭집에도 떼어다 놓고 다 지켜 달라고.}

10610 # 떠걸 인저 가주구 다 인저 굳타구나서, 인저 멍 머걸라구 할쥬 먼저 떠가주구서는 사::방 도러댕기면서 쫘꿈씩 떠놔. {떡을 이제 가지고 다 이제 굶 하고 나서, 이제 떡 먹으려고 할 때 먼저 떼어 가지고서 사방 돌아 다니면서 조금씩 떼어 놔.}

10610 # 굴뚜게다 인저 굴뚝뚝두 준다구 쫘꿈 떠 노코 머, 사:방 도러댕기며 삼작꺼리 인저 머 저:기 한다구 또 삼작꺼리두 쫘꿈 떠노쿠 인저 또 위디가따 쫘꿈 지버 내뻬리구, 그르케 떠 노터라구유, 옴:나레 으:런덜 보면. {굴뚝에다 이제 굴뚝[*]도 준다고 조금 떼어 놓고 뭐, 사방 돌아다니며 삼작 이제 뭐 저기 한다고 또 삼작거리에도 조금 떼어 놓고 이제 또 어디 갖다 조금 집어 내버리고, 그렇게 떼어 놓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

10610 # 그라능기지 머, 오양간신 그렇거 차저서 하능게 아니라 인제 그르케 갈:떡 캐먹꾸 나면 그르케 떠걸 쫘꿈씩 떠가주가서 그르케 떠노터라구. {그러는 거지 뭐, 외양간신 그런 거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가을떡 해 먹고 나면 그렇게 떡을 조금씩 떼어 가지고 가서 그렇게 떼어 놓더라고.}

10610 @ 가을떡을 가을에 해 먹는...

10610 # 예 가:레 헨 농사지어서 인저 해꺼스루 인저 우:애너이더런 인저 갈:떠캐멍는다구 함번씩 그르케 떠걸 해 먹찌유. {예 가을에 햏 농사 지어서 이제 햏 것으로 이제 위하는 이들은 이제 가을떡 해 먹는다고 한번씩 그렇게 떡을 해 먹지요.}

10611 @ 그러면 여기서는 조상들 숭배도 하고 그랬나요?

10611 # 그러면유:, 저 저기 여기따 인저 차려노쿠 할때 인저 방에다 인저 차려노쿠 인저

성주정 일글때 다: 하지유, 그르케 축싸릴 하지유. {그럼은요, 저 저기 여기에다 이제 차려 놓고 할 때 이제 방에다 이제 차려 놓고 이제 성주 경 읽을 때 다 하지요, 그렇게 축사를 하지요.}

10611 @ 조상단지라는 것도 있어요?

10611 # 어? {응?}

10611 @ 조상단지라는 거 있어요? 조상단지, 세존단지.

10611 # 조상판지는 읍쓰겔, 그런소리 모뜨러봐써, 조상판지라능건. {조상판지는 읍을 겔,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 조상단지라는 건.}

10611 # 신주판지라 쏘린 드러봐써두. {신줏단지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10611 @ 신줏단지는 뭐예요?

10611 # 신주판진 그쎄 몰르거써, 저 터주판지 그걸 논녕겔 보구 신주판지라구 하년지, 신주판지가 따루 인년지 나년 그건 듣기는 드러써두 보던 모태써, 신주판지라 쏘린. {신줏단지는 글쎄 모르겠어, 저 터줏단지 그걸 놓는 겔 보고 신줏단지라고 하는지, 신줏단지가 따로 있는지 나는 그건 듣기는 들었어도 보지를 못 했어, 신줏단지라는 소리는.}

10611 @ 신줏단지 위하듯 한다고 하잖아요?

10611 # 어 그쎄 그르케 하년 소리년 드러써두, 내가 보던 모:태따구. {응 글쎄 그렇게 하는 소리는 들었어도, 내가 보지 못했다고.}

10612 @ 산에서도 조상들 제사 지내요?

10612 # 사네 가서? {산에 가서?}

10612 @ 예. {예.}

10612 # 산소에 가서 지내너이덜두 이때유. {산소에 가서 지내는 이들도 있대요.}

10612 # 산소에 가서 지내너이더런 인저 지베서 지날 행퍼니 몬퍼년 사람더런 인저 산소에 가서 지내녕거 거터유. {산소에 가서 지내는 이들은 이제 집에서 지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이제 산소에 가서 지내는 거 같아요.}

10612 @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가을에.

10612 # 그건: 시사. {그것은 시사.}

10612 # 시사 지내능기지. {시사 지내는 거지.}

10612 # 사네 가서 인제 그르케 지내능건 시사. {산에 가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 것은 시사.}

10612 @ 그건 누구한테 어떻게 지내요?

10612 # 이저 운:때 조상한테. {이제 윗대 조상한테.}

10612 # 인저 고조나 증조꺼지만 지사릴 지내구서년 인저 그 우:때년 안 지내자너, 그러면 인저 그 조상더런 시향으루 올라간다 구라더라구. {이제 고조나 증조까지만 제사를 지내고서는 이제 그 윗대는 안 지내잖아, 그러면 이제 그 조상들은 시향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10612 # 그래가주구서는 인제 시사 지내면 인저 마라자면 우리 김서방네 시향 올릴때년 인저 산직, 옴:나레년 인저 산지기가 해써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시사 지내면 이제 말하자면 우리 김서방네 시향 올릴 때는 이제 산직, 옛날에는 이제 산지기가 했어요.}

10612 # 산지기가 인저 저 노닐 인저 멘마지기 쥘:가주 시사다비라구 쥘:가주구 그거 농사

저가주구 인저. {산지기가 이제 저 논을 이제 몇 마지기 줘, 시사답이라고 줘 가지고 그거 농사 지어서 이제.}

10612 # 참 그저네야 머 엄청하게 해찌 머, 네:꼭찌 시루다 시루 찌가주구 그냥 머 이르게 고여가주구서 시사 지내구. {참 그전에 야 뭐 엄청나게 했지 뭐, 네 꼭찌 시루에 다 시루떡 찌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고여 가지고 시사 지내고.}

10612 # 그러면 인저 여기 시 시사꾼덜 가면 다:: 봉지 하나씩 싸서 인저, 봉성 하나씩 싸서 시삼목 하나씩 싸서 노나주구. {그러면 이제 여기 시 시사꾼들이 가면 다 봉지 하나씩 싸서 이제, 봉성 하나씩 싸서 시삼목 하나씩 싸서 나누어 주고.}

10612 # 이저 구경하년 애:덜두 가면 애:덜두 다:: 봉지 하나씩 싸서 줘:서 그거 으:더머그리 애더리 막 가:구 그래짜너. {이제 구경하는 애들도 가면 애들도 다 봉지 하나씩 싸서 주고 그거 얻어 먹으러 애들이 막 가고 그랬잖아.}

10612 # 사네 가서 지내능건 그거요, 시사 지내능기여. {산에 가서 지내는 건 그거야, 시사 지내는 거야.}

10612 @ 그러니까 집에서 제사 안 지내는 대신?

10612 # 음, 사네 가서 인저. {응, 산에 가서 이제.} @ 조상들을 한꺼번에...

10612 # 예 인저. {예 이제.}

10612 @ 지내는 거지요?

10612 # 항꺼버네 지내두 인저 그 인저 어떤 조상만 지내능게 그래 따루이써. {한꺼번에 지내도 이제 그 이제 어떤 조상만 지내는 것이 따로 있어.}

10612 # 정부 지내능건 아니여. {전부 지내는 것은 아니야.}

10612 # 인저 고기 고거 으:더 잡쓸만한 양반만 인저 지내능기여. {이제 고기 고것 얻어 잡수실 만한 양반만 이제 지내는 거야.}

10612 @ 그전에는 제사 지내고 그러셨잖아요?

10612 # 예. {예.}

10612 @ 요새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고 나서는.

10612 # 교회다니구 나서는 그냥 인저 지사음저근 동기간덜 모이니께 다: 머걸라구 하, 우리년 그전대루. {교회 다니고 나서는 그냥 이제 제사 음식은 동기간들 모이니께 다 먹으려고 해, 우리는 그전대로.}

10612 # 다: 하, 철질두 부치구 떡뚜 하구 다 해도. {다 해, 철질도 하고 떡도 하고 다 해도.}

10612 @ 뭐를 해요?

10612 # 떡 꺼, 음식꺼튼거. {떡 같, 음식 같은 거.}

10612 # 해:두 이르게 고여 노턴 안 히야. {해도 이렇게 고여 놓지는 않아.}

10612 # 그르가구 그냥 하난님 아페 인제 예:배 디리구서 그냥 노나마거, 동기간덜하구.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고서 그냥 나누어 먹어, 동기간들 하고.}

10612 @ 그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했어요?

10612 # 그저네, 우리는 우리 종소니 사춘, 저 광산 김서방네 대종소니 우리 사추니거던, 저 벌터 사년데. {그전에, 우리는 우리 종손이 사춘, 저 광산김씨네 대종손이 우리 사춘이거든, 저 벌터 사는데.}

10612 # 거그서 다: 지내구 인저 하라부지 지사꺼지 머 증조하라부지 지사꺼지 거그서 다

모시고서는 인저, 우리넌 우리 아번님 도러가셔서 인저 우리 아번님 우리 어떤님 도러가셔쓰니께 인저 그 두:분만 지내써유. {거기에서 다 지내고 이제 할아버지 제사까지 뭐 증조할아버지 제사까지 거기에서 다 모시고서는 이제, 우리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두 분만 지냈어요.}

10612 # 그러면 인저 방에다가 음식 다: 해서 차려노코 인저 절 하고 이르게 지내찌, 그저 네넌:. {그러면 저 방에다가 음식 다 해서 차려 놓고 이제 절 하고 이렇게 지냈지, 그전에는.}

10612 # 그런데 인저 우리가 예수 미드메서넌 인저 그르케 차려논넝거 아니라 구래서 안 차려노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는 이제 그렇게 차려 놓는 게 아니라고 해서 안 차려 놓고.}

10612 @ 그전에 차려놓을 때는 거기 뭐 어떤 음식들 차려 났어요?

10612 # 인저 떠카구 적 뿌치구 나무새 인저 세가지 이르게 하고 짐:, 조기, 포, 과일, 인저 그르카구서넌 인저. {이제 떡 하고 적 부치고 나물 이제 세 가지 이렇게 하고 짐, 조기, 포, 과일,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10612 @ 과일은 어떤 거요?

10612 # 밤:, 대추, 쪽감, 가:멜 하던지 인저 능금, 배 인저 여름찌사 지낼라면 인저 수:박, 차미 그렁거 사다노쿠 인저 겨우레넌 그르케 지내구. {밤, 대추, 쪽감, 감을 하든지 이제 능금, 배 이제 여름 제사 지내려면 이제 수박, 참외 그런 거 사다 놓고 이제 겨울에는 그렇게 지내고.}

10612 # 그래두 머 다: 하구수퐁대루 다: 하능기여 머, 그렁거 다:: 차려노쿠 인저 조기. {그래도 뭐 다 하고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다 차려 놓고 이제 조기.}

10612 # 다렁건 다: 모태두 포하구 짐: 자반하구 과일하구넌 꼭 써야지. {다른 것은 다 못 해도 포하고 김자반하고 과일하고는 꼭 써야지.}

10612 # 탕국 꼬리구, 인저 밥패서 인저 메저따구 하구 인저 술 인저. {탕국 끓이고 이제 밥 해서 이제 메 지었다고 하고 이제 술 이제.}

10612 # 수런 우리 아번님두 모:짹썩썩, 옴:날부텀 수런. {술을 우리 아버님도 못 잡수셨어, 옛날부터 술을.}

10612 # 그래써두 인제 잔 분넌다구 인저 약쥬술 사다가 이르게 잔 분꾸 그르카구 지내찌 유. {그랬어도 이제 잔 붓는다고 이제 약주 사다가 이렇게 잔 붓고 그렇게 하고 지냈지요.}

10612 @ 그거 왜 하는 거예요?

10612 # 여? {예?}

10612 @ 그건 왜 하는 거예요?

10612 # 그쎄 인제 옴:날부텀 해나려 옴거니께 옴:찌 머, 그걸 잡쥬꾸 가거써 머 어트가거 썩, 그르차너? {글쎄 이제 옛날부터 해 내려 온 거니가 했지 뭐, 그걸 잡쥬고 가 썩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

10612 # 그래서 지그른 인저, 교외 땡기넌체가 내가 한 삼십년 가차 되넌데, 지그먼 인저 차려노털 안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닌 지가 내가 한 삼십 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차려놓지를 안 해.}

10612 # 하기년 그전:대루 다 하. {하기는 그전대로 다 해.}

10612 # 지산나리면 머 동기간덜 모이구 자손덜 오구 그라니께 가치 머거야 하자너? {제 샷날이면 뭐 동기간들 모이고 자손들 오고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 하잖아?}

10612 # 그라니께 머 시캐두 하구 머 떡뚜 하구 철질두 하구 머 다: 해서 노쿠서넌 인저 예:배 디리구서 인저 동기간덜하구 그르케 한테 안저서 먹꾸 그라지유 머. {그러니까 뭐 식해도 하고 뭐 떡도 하고 철질도 하고 뭐 다 해서 놓고서는 이제 예배 드리고서 이제 동기간들 하고 그렇게 함께 앉아서 먹고 그러지요 뭐.}

10612 @ 시아버님이 저기 약주 못 하셨는데 약주 부어서 드시면 왔다가 취하실 거 아니에요.

10612 # 어 글썄 마리어 허허허허하. {아, 글썄 말이야 허허허허.}

10612 # 그러두 그게 잔 분녕거라구 하니께 그저네 그래두 장 해썌유, 그러케 자넌 뭐:써 약썌술 사다가. {그래도 그게 잔 붓는 거라고 하니까 그전에 그래도 늘 했어요, 그렇게 잔을 부었어 약주 사다가.}

10612 @ 그런데 그제 저기 밥, 메라 그래지요?

10612 # 예, 메진는다 구라지. {예, 메 짓는다고 그러지.}

10612 @ 메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0612 # 모르거써, 이르게 메저 올린다구라구 그라데, 이르게 밥 패다 논녕걸 가주구 바비라구 안하구, 메저서 올린다구 이라카구 그라더라구유. {모르겠어, 이렇게 메 지어 올린다고 하고 그러데, 이렇게 밥 해다 놓는 걸 가지고 밥이라고 안 하고, 메 지어서 올린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10612 # 난두 뜨뚜 몰르구 그냥 으런더리 하니께 따러 해썌. {나도 뜻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하니께 따라 했어.}

10612 @ 그런데 그거 탕하고 메하고 보통 사람 먹을 때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아니면 바...

10612 # 틀리게 논는대유. {다르게 놓는대요.}

10612 # 인저 저기다 움모게다 상열 차려노면, 우리넌 인제 이러케 이러케 먹짜너? {이제 저기에다 윗목에다 상을 차려 놓으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

10612 @ 국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10612 # 그렇게 고: 혼더른 바꿔 논는다구 하녕거 거트데. {그러니까 그 혼들은 바꿔 놓는다고 하는 거 같데.}

10612 # 나 차려논녕건 잘 안바썌. {나 차려 놓는 건 잘 안 봤어.}

10612 # 머 논녕게 다 따루 이떠라구. {뭐 놓는 게 다 따로 있더라고.}

10612 # 머 어조근 어따 노쿠 머 과:이른 어따, 과:이리 젤: 아페 안떠라구. {뭐 어죽은 어디에 놓고 뭐 과일은, 과일이 제일 앞에 앉더라고.}

10612 # 그라고 인저 피가 젤 뒤에 안꾸, 잔때가 고게 양꾸 인제, 탕에 고게 양꾸, 가문테 채소 양꾸, 인저 고아페 저간꾸 그라더라구. {그리고 이제 메가 제일 뒤에 앉고, 잔대가 고기에 앉고 이제, 탕이 고기에 앉고, 가운데 채소 앉고, 이제 고 앞에 적 앉고 그러더라고.}

10612 @ 밑에, 밑에 그 상 앞에도 뭐 놓지 않아요?

10612 # 상아페 인저 향노 노쿠 하녕거, 요로케 이르게 노쿠선 인저 쪼만상 고아페다가 가 따 노쿠 인제 향노에 상뽕 피우자너. {상 앞에 이제 향로 놓고 하는 거, 요렇게

이렇게 놓고서 이제 조그만 상 고 앞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향로에 향불을 피우잖아.}

10612 # 그거 노쿠서 인저 상... 향 꼭꾸 이러케. {그거 놓고서 이제 상... 향 켜고 이렇게.}

10612 @ 뒤에는 사진 놓아요, 아니면 뭘 써 놓나요?

10612 # 저:기. {저기.}

10612 # 지:방 쯤거 이썬, 지사 지날때넌 인저 거기따 이러케 쯤겔 내:노쿠 하더라구. {지방 쓴 거 있어, 제사 지낼 때는 이제 거기에다 이렇게 쓴 걸 내 놓고 하더라고.}

10612 @ 저기 종갓집에서 할 때 그래요?

10612 # 그러믄유, 종가찌베서 그저네 인저 큰지브루 지사 지내러 가면 그러케 해노코 해썬, 똑까지 해유. {그럼은요, 종갓집에서 그전에 이제 큰집으로 제사 지내러 가면 그렇게 해 놓고 했어, 똑같이 해요.}

10616 @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어떤 거 어떤 거는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까 저기 초상 나면 산...

10616 # 부정해서 모칸다구. {부정 타서 못 간다고.}

10616 @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10616 # 그러믄유, 옴:나레넌 부정얼 여간 가려썬. {그럼은요, 옛날에는 부정을 여간 가렸어.}

10616 # 근데 지금더런 양 가리더라구, 초상나서 금방 머 초상, 행여가 지내가썬두 머, 그냥 머 우:해러 가구 그라더라구 보니까. {그런데 지금들은 안 가리더라고요, 초상나서 금방 뭘 초상, 상여가 지나갔어도 뭘, 그냥 뭘 위하러 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10616 # 지금더런 양가려. {지금들을 안 가려.}

10613 @ 음력하고 관련해서 그런 거 가리는 거 있었어요?

10613 # 음력? {음력?}

10613 @ 예.

10614 @ 음력 뭘 정월 초에, 정초에...

10614 # 아, 나무 지베 양 가구, 여자더리:. {응, 남의 집에 안 가고, 여자들이.}

10614 # 이월 초하룻날두 여자더리 나무지비 일찍 양: 가녕거구. {이월 초하룻날도 여자들이 남의 집에 일찍 안 가는 거고.}

10614 # 이월 초하룻날은 콩 보까 머거꺼든, 옴:나레넌. {이월 초하룻날은 콩 볶아 먹었거든, 옛날에는.}

10614 @ 콩요?

10614 # 예, 콩 보까 머거썬유, 옴:나레는. {예, 콩 볶아 먹었거든, 옛날에는.}

10614 # 새삼봉 농사진넌데 왜 그, 농사 안저 보셔서 몰:르지, 새사무라구 땡땡이닝쿨 거통게 그냥 곡씨게 이르게 가무올러가능게 이썬. {새삼봉 농사 짓는데 왜 그, 농사 안 지어 보셔서 모르지, 새삼이라고 땡땡이딩쿨 같은 게 그냥 곡식에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게 있어.}

10614 # 그거 봉넌다구 일찍 이러나서 새:삼 복짜 새:삼 복짜 하며 이르게 콩얼 보까썬, 옴:나레 이월 초하룻날. {그거 볶는다고 일찍 일어나서 새삼 볶자 새삼 볶자 하면서 이렇게 콩을 볶았어, 옛날에 이월 초하룻날.}

10614 # 그르캐서 먹꾸 그래서 이월 초하룻날은 여자드리 나무지비에 한:나절 되두룩 가지

마리아 히야. {그렇게 해서 먹고 그래서 이월 초하룻날은 여자들이 남의 집에 한 나절이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해.}

10614 # 아주 그날 머 어트게서 잘 몰르구서 인저 혹시 몰르는 여자가 누가 드러가면 마 나게 인저 그지비서 머 소릴 팔러 가던지 그러면 재수가 업써 모태파능기여. {아주 그날 뭐 어떻게 해서 잘 모르고서 이제 혹시 모르는 여자가 누가 들어가면 만약에 이제 그 집에서 뭐 소를 팔러 가든지 그러면 재수가 없어서 못 했다는 거 야.}

10614 # 여자가 일찍 드루와서. {여자가 일찍 들어와서.}

10614 # 그르케 엔:나렌 사사렐 떨구 사러써, 동네서두. {그렇게 옛날에는 유난을 떨고 살 았어, 동네에서도.}

10614 # 그래서 못뜰러가구 머. {그래서 못 들어가고 뭐.}

10614 # 아유 정월초승에 나무지베 워트게 일찍까 모까지, 정월 초승에넌. {아이고 정월 초승에 남의 집에 어떻게 일찍 가 못 가지, 정월 초승에는.}

10614 # 여자더런 그냥 꼼짝카지 말구 지베서나 이꾸 그래야지. {여자들은 그냥 꼼짝하지 말고 집에서나 있고 그래야지.}

10614 @ 정월 초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0614 # 아 인제 슬: 쇄구서, 초승엔 인저 한 초다쎄 한 이르케 넘뚜루건 초승이여. {아 이제 설 쇄고서, 초승은 이제 한 초닷새 한 이렇게 넘도록은 초승이야.}

10614 # 초여를 되기저넌 초승이여. {초열흘 되기 전에는 초승이야.}

10614 # 그러서 인저 그때꺼지는 뭐 나무집 일찍 모까구.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뭐 남의 집 일찍 못 가고.}

10614 # 보통때두 여자더리 그저네는, 엔:나레는 나무지비 일찍 모:뜨러가써. {보통 때도 여자들이 그 전에는, 옛날에는 남의 집에 일찍 못 들어갔어.}

10614 # 드려오능거를 그르케 꼬:려써. {들어 오는 거 그렇게 꺼렸어.}

10614 # 머 소거통거 장날 장에 가구 머, 뭐 다룽거 가주구 장에 가구 하년데 여자가 드려 오면 재수 읍따구. {뭐 소 같은 거 장날 장에 가고 뭐, 뭐 다른 거 가지고 장에 가고 하년데 여자가 들어오면 재수 없다고.}

10614 # 여자더런 그르케 모:까써. {여자들은 그렇게 못 갔어.}

10613 # 보름날 머 또 뭐: 정월보름나리면 뭐: 나무 아홉짜마그 머: 밥 아홉짜발 멍능기라 구, 저너게 일:찍 캐서 나무새 해서 또 먹꾸, 인제 열라흔날. {보름날 뭐 또 뭐 정월보름날이면 뭐 나무 아홉 짐 하고 뭐 밥 아홉 사발 먹는 거라고, 저녁 일찍 해서 나물 해서 또 먹고, 이제 열나흔날.}

10613 # 또 인저 보름날 아치메넌 또 인저 농사, 마니 싸멸 싸야 베짜질 마니 썬다구, 김: 썬 나무ړ 인저 녁쨍넙쨍칸 나물 뜨더 말려와따가 인저 그걸루 무쳐서 또 썬: 싸 먹꾸. {또 이제 보름날 아침에는 또 이제 농사, 많이 썬을 싸야 벼짝을 많이 썬는 다고, 김, 썬나물을 이제 넓적넓적한 나물 뜯어 말려 놓았다} 그 이제 그걸로 무쳐서 또 썬 싸 먹고.}

10613 @ 고거는 제가 또 따루 또 물어볼게요. 그거는.

10613 @ 그거는 이제 풍습이잖아요?

10613 # 네, 그리유. {예, 그래요.}

10613 @ 그건 풍습이고 이거는 풍습보다는 못 하게 하는 거, 하면 안되는 거 그거를.

10613 # 안:되닝거 뭔:지 몰르건네. {안 되는 거 뭔지 모르겠네.}

10613 @ 정월 초승에 뭐 남의 집에 가서 바늘 빌리면 안된다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10613 # 바누? {바늘?}

10613 @ 바늘.

10613 # 바누? {바늘?}

10613 @ 바늘, 뭐 빌리면 안된다고.

10613 # 그르치유, 되두루기먼 그저 나무지비 가지마르야 하구 그렇거 빌리닝거뚜 하지 마러야 하구. {그렇지요, 되도록이면 그저 남의 집에 가지 말아야 하고 그런 거 빌리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10613 # 엔:나레는 정초에는 그려쎄. {옛날에는 정초에는 그랬어.}

10613 @ 아까 저기 이월 초하룻날 새삼 볶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기 콩 같이 생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아 올라가는 거.

10613 # 예. {예.}

10613 @ 그거 저기 조그만 콩 같이 달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10613 # 예 예. {예 예.}

10613 # 그거 가노:랑게 인저 나무에 콩싱꾸 그라몬 가무 올라가문 그 콩나무는 절판나능 기여, 그게 가머올러가서 콩이 몬:너러. {그거 가느란 게 이제 나무에 콩 심고 그러면감아 올라가면 그 콩나무는 망가지는 거야, 그게 감아 올라가서 콩이 못 열어.}

10613 # 그라니께 인저 새삼 봉넨다구 이르게 콩 머 거기따 머 다렁거뚜 줌 너:서 뽀구 이리야. {그러니까 이제 새삼 볶는다고 이렇게 콩 뭐 거기에다 뭐 다른 것도 줌 넣어서 볶고 이래.}

10615 # 혼인날 받아놓고서도 그 서로 약혼 해놓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10615 # 아이고 몰르건네 그렇긴 잘. {아이고 모르겠네 그런 것은 잘.}

10615 @ 혼인날 받아 놓고서는 초상집에 가는 거 아니랄면서요?

10615 # 음 그리유. {응 그래요.}

10615 # 그런테두 가지 마러야 하구, 남 호니하닌 데두 양가야 되구, 예시카는 데두. {그런 데도 가지 말아야 하고, 남 혼인하는 데도 안 가야 되고, 예식하는 데도.}

10615 # 내가 호니날끼면 내가 따릴 여오거나 아더릴 여올끼머넌 남 할 때:두 양가능기여, 엔나레넌 그래쎄. {내가 혼인할거면 내가 딸을 여의거나 아들을 여일 거면 남 할 때도 안 가는 거야, 옛날에는 그랬어.}

10615 @ 왜 안가요?

10615 # 그쎄 그르케 나뿌다구 모까게 하대유, 양가능기라구. {글쎄 그렇게 나쁘다고 못가게 하대요, 안 가는 거라고.}

10615 @ 요새는 다 다니잖아요...

10615 # 지:그면 뭐 한네식짱에서 머 시간시간 하녕걸 머 무슨 상과니여. {지금은 뭐 한 예식장에서 뭐 시간시간 하는 걸 뭐 무슨 상관이야.}

10615 # 그르니께 세월따라 사라미 사녕기여, 그차너? {그러니까 세월 따라 사람이 사는 거야, 그렇잖아?}

10615 @ 또 뭐 혼인 날짜 받아놓고, 딸이, 색시 될 사람이 어디 가면 안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10615 # 그르치유, 옴:나레넨 그르케 도러댕기면 안되구 인저 다소고치 지비 이따 시집와야지 머.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되고 이제 다소곳이 집에 있다가 시집 와야지 뭐.}

10615 # 호닌날짜 바더노쿠 색:씨가 어디 도러댕기구 하면 그게 큰:: 송이지 머, 옴:나레야. {혼인 날짜 받아 놓고 색시가 어디 돌아다니고 하면 그게 큰 흥이지 뭐, 옛날에야.}

10616 # 장사 지낼 때도 뭐,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10616 # 그쵸 그렇거꾸 인... {글쵸 그런 것도 있...}

10616 @ 상주보고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10616 # 상주는 가마:니 드러안저서 여서 울, 울:기만 하구, 공마나구, 방에 드란자쓰야 하. {상주는 가만히 들어 앉아서 여기서 울 울기만 하고, 곡만 하고, 방에 들어앉았어야 해.}

10616 # 옴:나렌 상주가 한테 나와 도러댕기면 안대썸. {옛날에는 상주가 바깥에 나와 돌아다니면 안됐어.}

10616 # 그냥 오:일장 칠일장얼 해두 여기 드르안자서 그냥 오뉴월 영쳐네두 가마이 드르안저서 그냥 공마나구, 뭐 사::꾸 시간시간 곡캐야 하구. {그냥 오일장 칠일장을 해도 여기 들어앉아서 그냥 오뉴월 염천에도 가만히 들어앉아서 그냥 곡만 하고, 뭐 자꾸 시간시간 곡 해야 하고.}

10616 # 바깥쌍주덜런 저그서 인저 손님바드야 하지만 안쌍주덜두 오뉴월 영쳐네두 여그 문닫꾸 안저서 상국 공만 해야디아, 한테 나가지 말구. {바깥상주들은 거기서 이제 손님 받아야 하지만 안상주들도 오뉴월 염천에도 여기 문 닫고 앉아서 계속 곡만 해야 돼, 바깥에 나가지 말고.}

10616 # 상주가 나와 도러댕긴다구 하구 머, 나와 도러댕기면 얼마나 마:리 마너. {상주가 나와 돌아다니는다고 하고 뭐, 나와 돌아다니면 얼마나 말이 많아.}

10616 # 아이구 상주가 나와서 한테 와 도러댕기구 그란다구. {아이고 상주가 나와서 바깥에 와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10616 @ 그럼 일은 누가 해줘요?

10616 # 인저 동네쌍람더리. {이제 동네 사람들이.}

10616 # 동네쌍람더리 옴:나렌 다: 와서 해줘썸유.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와서 해줬어요.}

10616 @ 살림을 알아야 되잖아요, 쌀이 어디 있는지 뭐...

10616 # 인저 거기 또 동기간더리 이짜너, 동기간더리. {이제 거기 또 동기간들이 있잖아, 동기간들이.}

10616 @ 아 계도 참 있쵸?

10616 # 으? {응?}

10616 @ 계도 있쵸?

10616 # 옴:나레는 계:두 머 그런 계:넨 움써썸만. {옛날에는 계도 뭐 그런 계는 없었지만.}

10616 # 옴:나레넨 여기 옴:반제라구 남자덜 그런 건만 이썸썸 움써지만 지금 이 글래더리야 머 여자덜찌리두 계: 해서 크닐치루면 서루 가 도와주구 이라지만 옴:나렌 그

렁거 읍써두: 다: 와서 동네싸라미 해줘써. {옛날에는 여기 연반제라고 남자들 그런 것만 있었지 없었지만 지금 이 근래들이야 뭐 여자들끼리도 게 해서 큰일 치루면 서로 가 도와 주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도 다 와서 동네 사람이 해줬어.}

10616 @ 관 위로 고양이 가 지나가면 안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10616 # 그쵸 그렇건 모르건네, 그거 뭐 사사떠던 지비야 그래썰티지 머. {글쵸 그런 건 모르겠네, 그거 뭐 유난 떠는 집이야 그랬을테지 뭐.}

10616 @ 관에는 못질 안 하는 거라면서요?

10616 # 여그서넌 안하데유. {여기서는 안하던데요.}

10616 @ 그럼 어떻게 그거 맞춰요?

10616 # 그냥 고러케 맞춰지게 되인내버. {그냥 그렇게 맞추어지게 되어 있나봐.}

10616 # 우뚜껍 열구서루 그냥 이르게 느쿠서루 그냥 고걸 잘 이르게 놀루구서넌 싸:가주구서 덩(단모음 '외')이자너. {위 뚜껍 열고서는 그냥 이렇게 넣고서 그냥 그걸 잘 이렇게 누르고는 싸 가지고 동이잖아.}

10616 # 머 모시루 박꾸 그르케 아나내버, 막때기루 그냥 요르게 잘 하... 드르가구 나오게 끄 해난내버. {뭐 못으로 박고 그렇게 안 하나봐, 막대기로 그냥 요렇게 잘 하... 들어가고 나오게끔 해 냈나봐.}

10613 @ 저기 유월달에, 오월 단오나 또는 사월 한식 청명 때도 뭐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10613 # 모르거써유, 그렇건 모르구:.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고.}

10613 @ 하지 말라는 거요.

10613 # 하지 말라녕건 모르건네. {하지 말라는 것은 모르겠네.}

10613 # 이 한시기 사뮈리지, 사뮈 한식, 한식 차례는 인저 하던 사람덜 이꾸. {이 한식이 삼월이지, 삼월 한식, 한식 차례는 이제 하는 사람들 있고.}

10615 @ 아기들 낳아도 집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뭐 해 놓잖아요.

10615 # 으, 금쭈 매유, 금쭈. {응, 금쭈 매요, 금쭈.}

10615 @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615 # 윈:(단모음 '외')산내끼 이르게 파:가주구서 솔립, 꼬추, 거멍, 숯: 그거 세:가지럴 이르게 꼬자놔유. {윈새끼 이렇게 파 가지고 솔잎, 꼬추, 숯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꽂아 놓아요.}

10615 # 솔리번, 솔리파구 아마 거멍하구넌 부정: 탄다구, 부정 물리너라구 쯔넌다구 하닝 거터유. {솔잎, 솔잎하고 아마 숯하고는 부정 탄다고, 부정 물리느라고 쯔는다고 하는 거 같아요.}

10615 # 그라구 인저 꼬추넌 인저 아더리라구, 아덜 나따구 이러케 쯔넌거구. {그리고 이제 꼬추는 이제 아들이라고, 아들 낳았다고 이렇게 쯔는 거고.}

10615 # 그르캐서 윈산내끼럴 파난, 파:서 삼짜게다 이르게 매달자너. {그렇게 해서 윈새끼를 파서 삼짜에다 이렇게 매달잖아.}

10615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615 # 그러케 매:다러 논넌다구 그쵸, 삼짜게다 그걸. {그렇게 매달아 놓는다고 글쵸, 삼짜에다 그걸.}

10615 # 애기 나따구 하먼 인제 그 금쭈버툼 파:서 매:다러놔, 사람 몬뜨러오게 하너라구,

부정한 사람 못뜨러오게 하느라구. {아기} 낳았다고 하면 이제 그 금줄부터 파서 매달아 놔,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부정한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10615 # 삼날 머 한니레꺼지 못뜨러오지유. {삼일 뭐 한 이레까지는 못 들어오지요.}

10615 @ 딸 낳으면 어떻게 해요?

10615 # 딸라면 꼬추릴 앙꿈꾸 인저 술하고 거명하고만 꿈녕건 따리구. {딸 낳으면 고추를 안 꽃고 이제 술있하고 술하고만 꽃는 건 딸이고.}

10615 # 꼬추릴 이르게 꼬봉건 아더리구 그런데: 지금 참 그래두 대:개는 또 딸라도 그냥 꼬추 꿈넌 집떨 더러 이떠라구, 앙꿈는 집뚜 이찌마는. {고추를 이렇게 꽃은 건 아들이고 그런데 지금 참 그래도 대개는 또 딸 낳아도 그냥 고추 꽃는 집들이 더러 있더라고, 안 꽃는 집도 있지만.}

10615 @ 그게 부정 타지 말라고...

10615 # 네, 그르케해서 술림파구 거명하구넌 그래 꿈넌대유. {예, 그렇게 해서 술있하고 술하고는 그래서 꽃는대요.}

10614 @ 또 남의 집에 부정타지 말라고 하는 거 또 있어요?

10614 # 나무지비? {남의 집에?}

10614 # 그쵸. {글쵸.}

10614 @ 부정 타지 말라고 하는 거, 또 어떨 때 부정 타지 말라고 하는 거.

10614 # 그건 몰:르건는데. {그것은 모르겠는데.}

10614 @ 그전에는 저 뭐야, 아침에 일찍 여자들이 남자들 앞에도 못 지나가게 했다면서요.

10614 # 그렇게 인저 나무지비 가지마:라 인저 남자더라페, 여자는 자:간 일찌가치 워디 모:왕내래해쵸:. {그런 게 이제 남의 집에 가지 마라 이제 남자들 앞에, 여자는 좌우간 일찌감치 어디 못 왕래를 했어.}

10614 # 새:메 몰: 이러 나가두 그거뚜 인전 남 보기저네 새보게 가따오던지 그리자느면 인저 줌 느껴 가던지 그르케 땡기구 그래쵸. {샘에 몰 이러 나가도 그것도 이제 남 보기 전에 새벽에 갔다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늦게 가든지 그렇게 다니고 그랬지.}

10614 # 머 이르게 장에 인저 가넌데두 청주장 갈라면 이:리 가자너 미테꼬개루. {뭐 이렇게 장에 이제 가는데도 청주 장 가려면 이리 가잖아, 밑에 고개로.}

10614 # 남자덜 지내가는데 여자가 물똥이 이구 아페 썩:건너가면 그날 채수 읍따구 하구 그래쵸유. {남자들 지나가는데 여자가 물동이 이고 앞에 슥 건너가면 그날 채수 없다고 하고 그랬어요.}

10614 # 장:: 조심해쵸 머, 장: 조시매쵸. {늘 조심했지 뭐, 늘 조심했어.}

10614 @ 실제로 채수가 없는 거예요?

10614 # 하이구 몰르거쵸유 그른지, 아니 그런데: 그릉게 사:라미 맘:먹기 달링겨:.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른지,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먹기 달린 거야.}

10614 # 인제 그날 장날 인저 소릴 여그서 옴:나레더른 말짱 집찌비 인저 소릴 하나쵸 메겨가주구 소릴 팔러땡기구 그러케 하니께. {이제 그날 장날 이제 소를 여기서는 옛날에들은 모두 집집이 이제 소를 하나씩 먹여 가지고 소를 팔러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10614 # 소장에 가넌데 여자가 드러오면, 그날 꼭 채수가 업떠야. {우시장에 가는데 여자

가 들어오면, 그날 꼭 채수가 없대.}

10614 # 소릴 그거 전거트면 더 박꾸서두 팔긴데. {소를 그거 전 같으면 더 받고서도 팔긴 데.}

10614 # 누가 드러와서 채:수가 업써서 들 박꾸두 모:팔구 그냥 끌:구 와따구 이라구. 그 러, 그러는 소리 드러써 나두. {누가 들어와서 채수가 없어서 덜 받고도 못 팔고 그냥 끌고 왔다고 이려고, 그러는 소리 들었어 나도.}

10614 # 또 어:뎌 사라문 드러가면 몰:르구 이러케 불쑥 드러간넌데 채수가 이떠야 또.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모르고 이렇게 불쑥 들어갔는데 채수가 있대 또.}:

10614 # 아무거시넌 드러완넌데 그날 참 채:수가 이써, 이라는 소리두 드러보구 그래써, 옴:나렌 그런 소릴 더러 드러봐써유. {누구는 들어왔는데 드날 참 채수가 있어, 이 러는 소리도 들어보고 그랬어,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더러 들어 봤어요.}

10616 @ 그전에 그 상여, 상여도 동네 앞으로는 못 지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10616 # 그러머뉴:, 즈이 삼:물 이쓰문 삼:물 더꾸 머 부정 탄다구 그래써유, 모찌내가게 하구. {그럼은요, 저 샘물 있으면 샘물 덮고 뭐 부정 탄다고 그랬어요, 못 지나가 게 하고.}

10616 @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10616 # 인제 저:리 도려서 이르케. {이제 저리 돌아서 이렇게.}

10616 # 이 아푸루 모까구 저짜그루 똑빵으루 이르케 도러가구 그르케 하라구. {이 앞으로 못 가고 저쪽으로 똑방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하라고.}

10616 # 아 옴:나레 저 왕서방네, 이 아푸루 지내댕기두 잘 모태써:. 모:찌내댕기게 해써 여기서 김서방네더리. {아 옛날에 저 왕서방네, 이 앞으로 지나다니지도 잘 못했 어, 못 지나다니게 했어 여기서 김서방네들이.}

10616 # 그래서루 저 산뎡갱이 저 질루 이르캐서 이르케 지내댕겨써. {그래서 저 산등성이 저 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다녔지.}

10616 # 타승이라구. {다른 성(姓)이라고.}

10616 @ 그냥 다니는 것도?

10616 # 야, 그냥 다니는데두 그르캐서 아주 그리 저 장썰 뎡기는 지리 이써써유. {예, 그 냥 다니는데도 그렇게 해서 아주 그리로 저 장에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10616 # 이리 이 아푸로 내위(하향 이중모음 '위[uj]) 하구 그라느라구 이리 모뎡기구 그르 케 뎡겨써. {이리 이 앞으로 내외하고 그러느라고 이리 못 다니고 그렇게 다녔 어.}

10616 @ 여기 왕서방들도 많이 살았었다면서요?

10616 # 예, 저 우에 한... {예, 저 위에 한...}

10616 # 건지 만 여나문썸 사러쓸껴 아마, 옴+ 나레. {거의 한 여남은 집 살았을 거야 아 마, 옛날에.}

10616 @ 저 위가 어디예요?

10616 # 저:



제2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20101	벼라구
20102	이삭	20102	벤니사, 벼이사기자너유
20103	볍씨	20103	썸나락
20104	못자리	20104	모자리를
20105	모판	20105	모자리판
20106	쟁기	20106	쟁기
20107	보습	20107	날:포라구
20108	벼	20108	*
20108-0-1	-이	20108-0-1	*
20109	극쟁이	20109	흑쟁이
20110	씨레	20110	쓰:레
20111	번지	20111	번지
20112	모내기	20112	모내기 한다구
20113	흙덩어리	20113	흑땡어리지
20114	고무래	20114	고물개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20114-1	고물개라구
20114-2	고무래(재 용도)	20114-2	고물개라구
20114-3	고무래(흙 용도)	20114-3	소시랑, 베끌끄링이, 평매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20114-4	고물개는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20114-5	고물개
20115	쇠스랑	20115	소시랑이으
20116	곡괭이	20116	꼬괭이, 뿔꼬괭이
20117	괭이	20117	괭이라구
20118	삽	20118	사빌세, 사비여
20119	호미	20119	호미
20120	농기구	20120	연장
20121	김	20121	풀, 잡푸리

20122	김매다	20122	반맨다고, 논매러간다고
20123	애벌 매다	20123	논:맨다고, 아시맨다
20123-1	두벌 매다	20123-1	이듬맨다고, 흙친다고, 논맨다고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20123-2	*
20124	논두둑	20124	논뚜렁
20125	밭둑	20125	뚜둑, 받뚜렁이라구
20126	밭두둑	20126	두두걸, 망뚝
20127	밭고랑	20127	고:리라구, 고랑, 험꼬랑은
20128	밭이랑	20128	골:
20128-1	(밭이랑을) <u>타다/갈다/째다/파다</u>	20128-1	두둑 썬는다고도, 망뚝 싸파고, 킨다고
20128-2	이랑밟기	20128-2	*
20129	보리	20129	버린니사기여, 버리, 보린니사길쎄
20129-1	가을보리	20129-1	보리
20129-2	봄보리	20129-2	봄버리가
20130	보리쌀	20130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20131	추경쳐논는다
20132	감부기	20132	감:부기
20133	두엄	20133	뒤엄탕, 디엄
20134	거름	20134	거름, 퇴:비라구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20201	추수한다구, 갈:추수해야지, 거더디려써
20202	벧단	20202	벧작, 벧판
20202-1	벧단(한 줌정도)	20202-1	*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20202-2	*
20202-3	벧단(한 아름정도)	20202-3	*
20203	가리(積)	20203	베까리, 콩까리
20204	가리다(積)	20204	싸:놔따, 썬는다구
20205	벧가리	20205	베까리
20206	난가리	20206	베까리, 줄:가리
20207	타작	20207	베턴다구, 마당질(+다), 베타작(조사자 제시)
20208	벼훑이	20208	찌깨, 훑태
20208-1	그네	20208-1	*
20209	개상	20209	개상

20209-1 자리개
 20209-2 자리개질
 20210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20210-2 도리깨열
 20210-3 도리깨꼭지
 20211 벧짚
 20211-0-1 -을
 20211-0-2 -에
 20212 새 째기
 20213 쭉정이
 20214 티
 20215 까끄라기
 20216 풍구
 20217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20219 흉년
 20220 머슴
 20221 낚
 20221-0-1 -을
 20221-1 (낚을) 사다/얻다/부리다
 20222 품앗이
 20223 품삯
 20223-0-1 -으로

20209-1 자리개끈
 20209-2 자리개질
 20210 도리깨
 20210-1 장:치, 도리깨장치
 20210-2 으ㅡ르:, 도리깨으ㅡ르:
 20210-3 꼭찌, 도리깨꼭찌라구
 20211 벼찌비라구
 20211-0-1 벼찌블
 20211-0-2 *
 20212 췌:기
 20213 빈:쭉정이
 20214 티가
 20215 버리 까끄래긴
 20216 풍구
 20217 차무막, 원두막
 20218 허두재비, 호두재비, 허수애비(+신)
 20219 흉년
 20220 머심꾼, 점머심(추가로 들어온 머슴)
 20221 풍꾸니라구, 노브더서도(조사자 제시)
 20221-0-1 노븐넝거나
 20221-1 노브드러
 20222 푸마시라구
 20223 품깁
 20223-0-1 품깁씨, 품까비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2 디딜방아
 20303 방앗공이
 20304 방아확
 20305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20307 절구
 20308 절구통

20301 방아
 20302 디딜뽕아
 20303 공이
 20304 확:
 20305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20307 돌절구라구도
 20308 도고통이라고, 절구통이라고

20309 절굿공이
20310 절구질
20311 겨
20312 보릿겨
20313 왕겨
20314 등겨
20315 김불
20316 껍질

20309 도고땡이
20310 도고질
20311 덩개라구
20312 버리땡개, 보리땡개
20313 땡:개유
20314 고운땡개, 이:개
20315 탐:씨기가
20316 껍:쫄

2.1.4. 곡물

20401 곡식
20402 찹쌀
20403 땡쌀
20404 쌀보리
20405 조
20406 차조
20407 메조
20408 좁쌀
20409 작다
20410 조이삭
20411 수수
20411-1 붉은색 수수
20411-2 장목수수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깡
20413 옥수수
20413-1 찰옥수수
20413-2 메옥수수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01 곡씨기
20402 찹쌀
20403 땡싸리라구, 메쌀
20404 쌀버리
20405 스스가니여
20406 차조두
20407 메조두
20408 좁쌀하능거, 스스싸리라구두
20409 자:러요, 자르니께
20410 스승니삭
20411 수습싸리라구
20411-1 끝:쭈수
20411-2 장:목쭈수라구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때공
20413 옥:쭈수
20413-1 차룩쭈수라고
20413-2 메옥쭈수라고
20414 기:리라능게
20415 메물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20 띄우다
 20421 곰팡이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20419 다러유, 매다러서
 20420 띠울때, 띠우고
 20421 곰팡이두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20424 깨
 20424-1 창패
 20424-2 들:괘도
 20425 고수어서

2.1.5. 채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6 나물(산, 반찬)
 20503 푸성귀
 20504 다듬다
 20505 반찬
 20506 무
 20507 썰다
 20508 무청
 20509 시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2 배추
 20513 고갱이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20517 가지(茄子)

20501 채소
 20502 산나물
 20502-1 채:소
 20502-2 채:소, 반찬
 20502-3 들:라무리라고, 나물
 20502-4 나무리여, 들라물무칭거
 20502-5 산나무리라고
 20502-6 나무리여, 산나물무칭거
 20503 푸정거리, 나물
 20504 다드머야지, 다드머서
 20505 차:니, 반찬
 20506 무수, 무
 20507 쓰:러야지, 쓰:러서
 20508 쫄거리, 무수입쌔
 20509 씨래기
 20510 무수고자기
 20511 장아리
 20512 배추라고, 배차
 20513 꼬갱이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16 오이지
 20517 가지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20 감자
 20520-1 잘다
 20521 우엉
 20522 파
 20523 고추
 20524 시금치
 20525 미나리
 20526 부추
 20527 상추
 20528 마늘
 20529 생강
 20530 냉이
 20531 달래
 20532 도라지
 20533 더덕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20 감자가
 20520-1 잔챙이, 자리
 20521 우엉잉가
 20522 파, 팔썰
 20523 고추
 20524 시금치
 20525 미나리
 20526 정구지, 부추라구두(+신)
 20527 상추
 20528 마:늘
 20529 생:강
 20530 나싱이
 20531 달:래
 20532 도라지
 20533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2 찬밥
 20602-1 더운밥
 20603 조밥
 20604 누룽지
 20605 눌은밥
 20606 승냉
 20607 뜨물
 20608 김(蒸氣)
 20609 갱죽(羹粥)
 20610 싱겁다

20601 쌀밥
 20602 참:밥
 20602-1 따신밥
 20603 조밥
 20604 누룽지
 20605 누름밥, 누룬바번
 20606 승냉
 20607 뜨물, 쌀뜨물, 버리쌀뜨물
 20608 김:, 기:미
 20609 씨래기주기라구, 김치주기라구, 진:넙죽
 20610 싱겁따고, 싱거워서

20611 국수
 20612 칼국수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20613 건더기
 20613-1 국물
 20614 고명
 20615 꾸미
 20616 미역
 20617 김(海苔)
 20618 수제비
 20619 끼니
 20620 미음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20621 엿기름
 20622 식혜(食醯)
 20623 식혜(食醯)
 20624 달다(甘)
 20625 가루
 20625-0-1 -에
 20625-0-2 -을
 20625-0-3 -도
 20626 밀가루
 20627 밀기울
 20628 미숫가루

20611 국쭈
 20612 손꼭쭈
 20612-1 곧:국쭈
 20613 건더기
 20613-1 궁무른
 20614 고명
 20615 꾸:미
 20616 며:꼭, 미역
 20617 김:
 20618 수:지비
 20619 때:럴
 20620 무음, 미우미라구두
 20620-1 끄린다구두, 쏘다구두
 20621 열절곰
 20622 감조, 단수리라구, 시캐, 감주(+구, 다)
 20623 *
 20624 달게
 20625 가루
 20625-0-1 가루예다
 20625-0-2 가루럴
 20625-0-3 *
 20626 밀까루(ㄷ와 ㄴ 중간음)
 20627 지:울
 20628 미수까루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1 간장(+신), 지렁물(+구, 조사자 제시)
20702 된장	20702 된:장도
20703 고춧가루	20703 고추까루
20704 고추장	20704 꼬추장에
20705 소금	20705 소금
20706 김치	20706 배추집치
20707 김장	20707 김장
20708 깍두기	20708 깍:뚜기(ㄷ와 ㄴ 중간음)

20709 나박김치
 20710 담그다
 20710-0-1 -고
 20710-0-2 -어라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
 20713 버섯
 20713-0-1 -이
 20714 콩나물(재료)
 20714-1 콩나물(반찬)
 20714-2 숙주(나물)
 20715 두부
 20716 비지
 20716-1 비지떡
 20717 달걀
 20718 가래떡
 20719 시루떡
 20720 송편
 20721 빻다
 20722 흰떡
 20723 고물
 20724 팔죽
 20725 새알심
 20726 백설기
 20727 튀밥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30 소주
 20731 부침개

20709 나박찜치, 나박김치
 20710 당근다고, 담넌
 20710-0-1 당글라고
 20710-0-2 일찍땅귀라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고
 20713 버서다니유
 20713-0-1 버서시
 20714 콩나물
 20714-1 콩나물반차니라구, 콩나물
 20714-2 숙쭈나무리라구
 20715 두부
 20716 비지
 20716-1 비지저기라구, 비지떠기다
 20717 달걀, 계란
 20718 떡까래라구
 20719 버무리떠기라구, 망:녕설기라구
 20720 송편
 20721 맨든다구두, 빈는다구
 20722 혼떡
 20723 고물
 20724 팔죽, 동지파죽
 20725 시알스미
 20726 백설기
 20727 티밥
 20728 수레
 20729 막걸리
 20730 쇠주, 소주릴
 20731 적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
 20802-0-1 -을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
 20802-0-1 가마소시, 소설

20802-0-2 -에
 20803 아궁이
 20803-0-1 -이
 20804 그을음
 20805 불쏘시개
 20806 연기
 20806-1 내(煙氣)
 20807 그을리다
 20808 부지깥이
 20809 부삽
 20810 냄다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0-1 -을
 20813 뚜껑
 20814 주발 뚜껑
 20815 사발 뚜껑
 20816 술뚜껑
 20817 밥주걱
 20818 숟가락
 20819 젓가락
 20820 종지
 20821 보시기
 20822 뚝배기
 20823 접시
 20824 조리
 20825 이남박
 20826 바가지
 20827 행주
 20828 행구다
 20829 설거지
 20830 개숫물
 20831 찌꺼기
 20832 화로
 20833 화롯불
 20834 부엌가락

20802-0-2 가마소테
 20803 아궁이, 고쿠라기라구(+구)
 20803-0-1 고쿠라기
 20804 거:명, 끄:름
 20805 불쏘시개
 20806 연기
 20806-1 영기
 20807 끄실러파
 20808 부주깥이
 20809 부삽
 20810 내굽찌, 내귀서
 20811 냄비
 20812 그릇, 그르시라고
 20812-0-1 그러설
 20813 뚜껑
 20814 주발뚜껑
 20815 주발뚜껑, 사발뚜껑이라고(?제)
 20816 소두방
 20817 주걱
 20818 숟까라기라구두, 수:까리라구
 20819 저까락, 저범
 20820 종지
 20821 탕끼라고, 보새기라고
 20822 장툇빼기, 장투가리, 툇빼기
 20823 접씨
 20824 조리
 20825 함지박
 20826 바가치
 20827 행주
 20828 행귀야지유, 행귀
 20829 설거지
 20830 자심물끄름, 자심물
 20831 찌깨기
 20832 화:루, 화:로
 20833 화:루뿔
 20834 불저갈

20834-0-1 -이

20834-1 불순가락

20835 다리쇠

20836 석쇠

20837 도시락

20838 바구니

20839 뒤주

20840 찬합

20841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20834-0-1 불찌까리구

20834-1 불사비라고

20835 * , 삼바리두(삼발이와 다리쇠 구별됨)

20836 적썰(약원순), 석썰라구두(약원순)

20837 변또

20838 보고리, 바구니라고

20839 두지, 쌀뚜지

20840 차납

20841 강파네다

20842 * , 개다리소바네(다리 모양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납고 현 상을 가리킴)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2 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5 감추다

20906 흙

20907 들찌귀

20907-1 암썩

20907-2 수썩

20908 미닫이

20909 여닫이

20910 덧문

20911 열다

20912 문고리

20913 자물쇠

20914 감히다

20915 열쇠

20916 잠그다

20901 안땡

20902 벽, 베름빡

20903 다락땡

20904 벽짱

20905 감취냐

20906 흐:미

20907 문찌두리, 지두리

20907-1 암:썩라구(?제)

20907-2 수썩라구(?제)

20908 미다지

20909 * , 여닫는무늘

20910 덧문

20911 여러야지유

20912 문고리, 문꼬리

20913 자물통

20914 가쳐

20915 으—르:썰

20916 장구지

20917 구멍
 20917-1 쥐구멍
 20918 찢다
 20919 구들
 20920 흙받기
 20921 흙손
 20922 흙갈
 20922-1 흙갈(나무로 만든 것)
 20922-2 흙갈(쇠로 만든 것)

 20923 바르다
 20924 장관
 20925 종이
 20926 도배
 20927 구석
 20928 굽도리
 20929 깨끗하다
 20930 문지방
 20930-0-1 -에
 20931 틈
 20932 가장자리
 20933 가운데
 20934 시렁
 20935 살강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9 거울

 20940 걸다
 20941 호룽

20917 문꾸녕을
 20917-1 쥐굴:
 20918 찌저따구
 20919 구들짱
 20920 흙빠치미여
 20921 *
 20922 흙갈
 20922-1 *
 20922-2 호칼루(손잡이는 나무, 바르는 부분은 쇠)
 20923 바른다구, 발르라구
 20924 장관
 20925 종이루, 조이루
 20926 도배한다구
 20927 구텅이, 구석쟁이라구
 20928 굽뚜리
 20929 깨끗타고, 깔꼬마다구두, 깨끗타네
 20930 문쭈방이라구
 20930-0-1 문쭈방에
 20931 새가, 문썰로, 문트므로
 20932 가앵이
 20933 복판
 20934 실경이유
 20935 살:강이라구
 20936 선바니구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9 거울, 체경이라고(작은 것), 손꺼우리라고(작은 것), 세경이라구두(작은 것)
 20940 거러야지, 걸:지
 20941 등잔, 호룽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0-1 -에

21001 지붕으루
 21001-0-1 지붕에

21002 기와
 21003 기와집
 21004 수키와
 21005 암키와
 21006 대들보
 21007 서까래
 21008 추녀
 21009 처마
 21010 오두막
 21011 초가집
 21012 이엉
 21012-0-1 -에서
 21013 용마름
 21014 기스락
 21015 낙숫물
 21015-1 기스락물
 21016 사닥다리
 21017 용마루
 21018 토방
 21019 땃돌
 21020 마루
 21020-0-1 -에
 21021 툇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21002 기와짚이지
 21003 기와집
 21004 *
 21005 *
 21006 대들뿐
 21007 서까두, 서까래
 21008 추녀(조사자 제시)
 21009 추마, 치마
 21010 오도막찜
 21011 초가지바녀
 21012 영
 21012-0-1 영으루
 21013 용고새를, 용구새
 21014 추녀끄테
 21015 추넘물
 21015-1 *
 21016 새:다리
 21017 용마루는
 21018 뜨러게
 21019 요지또리고
 21020 마루
 21020-0-1 마루에
 21021 툇마루(약원순)
 21022 지둥
 21023 주춧돌
 21023-0-1 주춧돌
 21024 굴:뚜기

2.3.3. 마당

21101 뜰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1 뜰빠시라구
 21102 마당
 21103 널름따, 널르꾸
 21103-0-1 널루워서, 널러서
 21104 늘구야지만, 늘구지

21105	곳간	21105	광:
21106	외양간	21106	오양간
21107	마구간	21107	마구까니라구
21108	광	21108	광:이라구
21109	헛간	21109	허간
21110	쓰레기	21110	탐씨기
21111	장독대	21111	장:괘
21112	장독 뚜껑	21112	장:뚝쏘래기, 장:뚝소래기, 장:뚝뚜껑
21113	변소	21113	화장시리라구(+신), 디칸(+구)
21113-1	똥장군	21113-1	장구느, 똥짱구니라구
21114	울타리	21114	울따리
21115	담	21115	담, 담장이(+신), 다미(+구)
21115-0-1	-에	21115-0-1	담빼라게, 다믄
21115-0-2	-도	21115-0-2	*
21116	사립문	21116	삼작, 사립문, 짜리문
21117	뒤꼍	21117	뒤, 뒤킨테, 뒤탈라구두(조사자 제시)
21117-0-1	-에	21117-0-1	뒤꺼테
21118	바깥	21118	바까테
21118-0-1	-에	21118-0-1	바까테
21119	모퉁이	21119	짐모퉁이, 모탱이, 모팅이라구
21120	모서리	21120	모설갱이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1	우리동네
21202	윗마을	21202	움:말, 우:똥네
21203	이웃	21203	이운, 이운쩍, 이운싸춘
21203-0-1	-이	21203-0-1	*
21203-0-2	-에	21203-0-2	이우세
21204	마을가다	21204	마:실간다고
21205	우물	21205	샘:, 두루박싸물, 바가치싸물, 두루백쌈, 바가치시암
21206	두레박	21206	두루배기루
21207	샘(泉)	21207	약쑤무리라구, 샘물
21208	가(邊)	21208	가앵이라구, 가쟁이

21208-0-1 -을	21208-0-1 받까설
21208-0-2 -에	21208-0-2 받깨예
21209 물지개	21209 물찌개
21210 가게	21210 가:개
21211 싸다	21211 싸다
21212 비싸다	21212 비싸, 비싸다
21213 흥정	21213 흥정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4 소개부치는사라미
21215 잔돈	21215 잔돈, 잔도느루
21216 에누리	21216 에누리(많이 사용하지 않음)
21217 거스름돈	21217 거시름돈
21218 거스르다	21218 거실러
21219 꾸다(借)	21219 꺼:다가, 꺼:야지
21219-0-1 -어야	21219-0-1 꺼:야지
21220 구두쇠	21220 구두세라구
21221 말기다	21221 마껴, 매끼구
21222 나머지	21222 * , 남녕거
21223 덤	21223 드:므루
21224 뭉	21224 모거치
21224-0-1 -을	21224-0-1 모거치는
21225 빚	21225 비설, 빔찌구는
21225-0-1 -을	21225-0-1 비설
21225-0-2 -에	21225-0-2 비세
21226 이자(利子)	21226 이:자똥
21227 심부름	21227 심:부름
21228 두름	21228 한갈, 한두름, 향가시라고
21228-1 축	21228-1 한축
21228-2 꽤	21228-2 한때
21228-3 접	21228-3 한접
21228-4 씬	21228-4 한쌌미
21228-5 두름	21228-5 향가실
21228-6 단/뭇(작은 묶음)	21228-6 한다발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21228-7 한다발, 한단(조사자 제시)
21228-8 툇	21228-8 한톨, 반:토슨
21228-9 모숨	21228-9 한:주머기나, 하:노큼
21229 켄레	21229 한커레, 한켄레, 향커리

21230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21231 꾸러미
 21232 그루
 21233 포기
 21234 저울
 21235 자루(包袋)
 21235-0-1 -을
 21235-0-2 -에
 21236 하나
 21236-1 한-개
 21236-2 한-되
 21236-3 한-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1 세-개
 21238-2 세-되
 21238-3 세-말
 21239 넷
 21239-1 네-개
 21239-2 네-되
 21239-3 네-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다섯-되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2 여섯-되
 21241-3 여섯-말
 21242 일곱
 21242-1 일곱-개
 21242-2 일곱-되

21230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든 이:백평이래유
 21231 한줄, 향꾸리미라구(조사자 제시)
 21232 한 주 두: 주
 21233 포기니께
 21234 저:울
 21235 자:루
 21235-0-1 자루덜
 21235-0-2 자루에
 21236 하나
 21236-1 항개, 한개
 21236-2 한되
 21236-3 한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8 센
 21238-1 세개
 21238-2 서되, 스:되
 21238-3 세말
 21239 넌
 21239-1 네:개
 21239-2 느:되
 21239-3 네:말, 레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단떠
 21240-3 단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2 열떠
 21241-3 연말
 21242 일곱
 21242-1 일고개
 21242-2 일곱떠

21242-3 일 곱-말
 21243 여 뒹
 21243-1 여 뒹-개
 21243-2 여 뒹-되
 21243-3 여 뒹-말
 21244 아 흠
 21244-1 아 흠-개
 21244-2 아 흠-되
 21244-3 아 흠-말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2 열-되
 21245-3 열-말
 21246 스 물
 21246-1 스 무-개
 21246-2 스 무-되
 21246-3 스 무-말
 21247 서 른
 21247-1 서 른-개
 21247-2 서 른-되
 21247-3 서 른-말
 21248 마 흔
 21248-1 마 흔-개
 21248-2 마 흔-되
 21248-3 마 흔-말
 21249 쉼
 21249-1 쉼-개
 21249-2 쉼-되
 21249-3 쉼-말
 21250 예 순
 21250-1 예 순-개
 21250-2 예 순-되
 21250-3 예 순-말
 21251 일 혼
 21251-1 일 혼-개
 21251-2 일 혼-되

21242-3 일 곱 말
 21243 여 뒹
 21243-1 여 뒹 개
 21243-2 여 뒹 띄
 21243-3 여:뒹 말, 여뒹 말
 21244 아 흠
 21244-1 아 호 개
 21244-2 아 흠 띄
 21244-3 아 흠 말
 21245 열:
 21245-1 열 개
 21245-2 열:되, 열:띄
 21245-3 열:마 른, 열:말
 21246 수 물
 21246-1 수 무 개
 21246-2 수 무 되(一와 ㅏ 중간)
 21246-3 수 무 마 를, 수 무 말
 21247 서 른
 21247-1 서 른 개
 21247-2 서 른 되
 21247-3 서 른 말
 21248 마 흔
 21248-1 마 흔 개
 21248-2 마 흔 되
 21248-3 마 흔 말
 21249 쉼:
 21249-1 쉼:개
 21249-2 쉼:되
 21249-3 쉼:말
 21250 예 순
 21250-1 예 순 개
 21250-2 예 순 되
 21250-3 예 순 말
 21251 이 른
 21251-1 일 혼 개
 21251-2 이 른 되

21251-3 이 른 말

21252 여튼

21252-1 여든개

21252-2 여든되

21252-3 여든말

21253 아흔

21253-1 아흔개

21253-2 아:흔되

21253-3 아:흔말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2 백도

21254-3 뱅말

21255 이백

21256 한두리여

21256-1 *

21256-2 한두되

21256-3 *

21257 두세사람

21257-1 *

21257-2 *

21257-3 * , 뒤:말

21258 *

21258-1 *

21258-2 두서너되

21258-3 *

21259 서너너덜싸람, 세네사람

21259-1 서너너덜개('서넛'과 '네댓'이 자연스럽
게 함께 나오는 편)

21259-2 서너너덜띄

21259-3 서너말

21260 *

21260-1 *

21260-2 너더댄또이

21260-3 너:던말

21261 대:여선사람

21261-1 *

21261-2 대여섯-되
 21261-3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21262-1 예닐곱-개
 21262-2 예닐곱-되
 21262-3 예닐곱-말
 21263 일여덟
 21263-1 일여덟-개
 21263-2 일여덟-되
 21263-3 일여덟-말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21264-2 여덟아홉-되
 21264-3 여덟아홉-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21265-3 여남은-말

21261-2 대:열피, 대:여섯되
 21261-3 대연말
 21262 너니곱싸람, 예닐곱, 여닐곱싸람
 21262-1 *
 21262-2 여닐곱피
 21262-3 여닐곱말
 21263 *
 21263-1 *
 21263-2 *
 21263-3 *
 21264 여다홉
 21264-1 *
 21264-2 여다홉피
 21264-3 여다홉마른
 21265 여나문, 여나문
 21265-1 *
 21265-2 여나무되
 21265-3 *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5 두렁이
 21306 무늬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01 치마
 21302 기리, 기장이라구두, 지력찌라구두, 치만
 끼리
 21303 조고리, 호장쫄고릴세
 21304 색똥조고리
 21305 두렁이는, 배두덩이라고, 배두덩이, 배두
 랭일
 21306 무늬, 무니, 얼룩무늬
 21307 고쟁이유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개

21310	의복	21310	오시나, 의보기나, 입쟁, 의복
21311	꾸겨지다	21311	꾸개진다고, 꾸겨져
21312	옷고름	21312	고름, 고름달려짜나, 오꼬름
21313	단추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4	동정
21315	걸	21315	거죽
21315-0-1	-에	21315-0-1	거주게
21315-0-2	-을	21315-0-2	거주카구
21316	홀옷	21316	홀쩍쌈
21317	겹옷	21317	겨불, 적꺼
21318	잠방이	21318	잠:뱅이라구, 잠:뱅이중이라구
21319	누더기	21319	누:데기온
21320	거지	21320	구걸한다는
21322	조끼	21322	쫓끼지
21323	내의	21323	속:쩍쌈
21324	껴입다	21324	껴이버야지
21325	소매	21325	소매가
21326	주머니	21326	호:주머니
21327	호주머니	21327	주머니라구, 호주머리라구두
21328	허리띠	21328	쾌:리라구두(+구)
21329	탱기	21329	탱:기
21330	도포	21330	도:포
21331	삿갓	21331	사:까시구
21331-0-1	-에	21331-0-1	사까슨
21332	고깔	21332	꼬까른
21333	사모	21333	사:무관대, 사모관대한다구, 사무관대
21334	유건	21334	*
21335	대님	21335	덴님, 켄님
21336	감발	21336	*
21337	짚신	21337	집썌, 집썌기라구두, 집썌니라구, 집썌개, 집썌기
21338	미투리	21338	꼬:땡이신이라구, 꼬땡이라구두, 미투리 라구두
21338-1	(짚신을) <u>쌌다/만들다/트다/걸다</u>	21338-1	맨드러썌, 집썌기사머, 집썌맨드러
21339	나막신	21339	나막썌, 나무깨
21340	설피	21340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	명주
21401-1	명주실	21401-1	명주실
21402	목화	21402	모카
21402-1	목화다래	21402-1	모카따래
21403	무명	21403	명:이라구, 무명
21403-1	무명실	21403-1	무명실
21404	씨아	21404	씨아
21405	자새	21405	연:또래
21406	물래	21406	물래, 물래를
21407	배	21407	배
21408	길쌈	21408	질:쌈
21409	골무	21409	골미여
21410	반질고리	21410	도방구리, 받지끄르시라구두
21411	가위	21411	가새루(+구), 가위
21411-0-1	-을	21411-0-1	가새 줌 가주와
21411-0-2	-에	21411-0-2	가사예
21412	마르다(裁)	21412	마른다, 말른다구
21412-0-1	-고	21412-0-1	*
21412-0-2	-어라	21412-0-2	말르라구라지
21413	형겔	21413	홍:거비라구두, 홍:겹조가리
21413-0-1	-을	21413-0-1	홍:거블
21413-0-2	-에	21413-0-2	*
21414	바늘	21414	바늘
21415	꿰다	21415	꼬여야지
21415-0-1	-고	21415-0-1	*
21415-0-2	-어라	21415-0-2	꼬여라
21416	바느질	21416	바누질한다구, 바느질
21417	재봉틀	21417	자방치미라구두, 재봉틀
21418	끈	21418	끄니, 끄니루
21419	노끈	21419	노끄닌테
21420	참바	21420	동아:주린테
21421	매듭	21421	매드비라구두 하구, 웅:매디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21421-1	맨드러뵈냐구, 천네
21422	보자기	21422	보재기, 책뽀

21423	이불	21423	이불
21424	숨	21424	숨
21425	포근하다	21425	포싸:강게
21426	홀이불	21426	혼니불
21427	겹이불	21427	겹니불,
21427-1	숨이불	21427-1	숨니불
21428	누비이불	21428	누비이불
21429	베개	21429	베:개
21430	베갯잇	21430	비개호칭
21430-0-1	-에	21430-0-1	비개호칭에
21431	목침	21431	목치미라구, 토마기라구
21432	퇴침	21432	퇴:침
21433	방석	21433	깔개방서기(+구), 자부동이라구두(+신)
21434	담요	21434	담:뇨
21435	빨래하다	21435	빨래빠래야한다구, 빨래한다구
21436	빨랫방망이	21436	방망이, 빨래뽕망이여
21437	빨래터	21437	빨래터라구
21438	빨랫줄	21438	빨래줄
21439	다리미	21439	다리미
21439-1	다림질	21439-1	다리미질한다구, 다린다
21440	인두	21440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1	다디미뽕망이
21442	다듬잇돌	21442	다드미또기여, 다디미또
21443	다듬이질	21443	다디미질(통칭), 한다디미(1인이 방망이 1개로), 두다디미(1인이 방망이 2개로), 네:다디미(=쌍다디미; 2인이 방망이 4개로), 쌍다디미(=네다디미; 2인이 방망이 4개로)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1	설:라라녀
21502	설	21502	설:명절, 스:라녀
21503	섣달 그믐날	21503	스딸그믐날

21504 목은세배
 21505 올해
 21505-0-1 -는
 21505-1 작년
 21505-2 재작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6 작은설
 21507 웃
 21507-0-1 -을
 21507-0-2 -에
 21507-1 웃놀이
 21508 웃가락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웃
 21508-5 모
 21509 단동
 21509-1 외동무니
 21509-2 두동무니
 21509-3 석동무니
 21509-4 녁동무니
 21509-5 막동
 21509-6 단동무니
 21510 보름
 21510-1 삭망
 21511 추석
 21512 망월
 21513 쥐불놀이
 21514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21514-2 긴막대
 21515 수수깨끼
 21516 호미씻이

21504 무그년사
 21505 오래, 금년
 21505-0-1 오래는
 21505-1 장녀니, 지난해
 21505-2 저장년, 저지난해
 21505-3 내년
 21505-4 후녀니지
 21505-5 내후년
 21506 자근설:, 자근슬: 자근설랄, 자근슬랄,
 21507 윤, 윤:논다
 21507-0-1 유:설
 21507-0-2 유시니께
 21507-1 윤노리
 21508 유탕까치, 유까라카나
 21508-1 도고
 21508-2 개
 21508-3 거리나오른
 21508-4 윤
 21508-5 모
 21509 *
 21509-1 외동무니지
 21509-2 두동무니
 21509-3 숙:똥무니가
 21509-4 느:동무니
 21509-5 막똥무니
 21509-6 *
 21510 보름날, 정월보름날
 21510-1 상망에
 21511 추성명절, 한가위라구두
 21512 망월 본다구하구
 21513 지:불로리
 21514 자치기
 21514-1 *
 21514-2 자막때기라구, 큰:막때기루
 21515 수수깨끼
 21516 백:쫓

21517 팽과리
21518 장구
21519 겉두리
21520 무당
21520-1 박수

21521 고수레
21521-1 고수레!
21522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21524 굴건
21525 제사
21526 제기
21527 귀신
21528 도깨비

21517 갯가리
21518 장구
21519 새:참
21520 만신, 무당이라구, 정각쟁이라구
21520-1 남자무당이라구, 정각쟁이라구, 만신이
라구두하구
21521 고시네
21521-1 고시네, 꼬시네하구
21522 만시니라구, 점쟁이, 정각쟁이라구
21523 무당이여, 상여미구
21524 건, 굴근지복
21525 지:사
21526 목끼
21527 귀:신, 영호니, 호니, 홀령을
21528 도깨비라구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21602 굴레
21603 멍애
21604 길마
21605 부리망
21606 구유
21607 작두
21608 썰
21609 여물
21610 쇠죽
21611 쇠죽바가지
21612 수레
21613 끌다
21613-0-1 -고
21614 바퀴
21615 새끼(繩)
21615-1 새끼(짐승의)

21601 쇠고삐
21602 *
21603 멍애
21604 질:마
21605 쇠망, 쇠임망
21606 구수(+다), 구유
21607 작두
21608 쇠칼, 칼(보조제보자)
21609 여물
21610 쇠죽, 소죽
21611 쇠물뺨
21612 구루마(바퀴 4개), 달구지(?제)
21613 끌구가지유
21613-0-1 끌구간다구
21614 바퀴
21615 산:내끼, 새끼, 새끼주리지
21615-1 새끼여

21616	망태기	21616	망:태기, 짐망태기
21617	떡등구미	21617	등구떡
21618	거적	21618	꺼작때기라구
21619	가마니	21619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21619-1	가마니트리유
21620	돛자리	21620	도짜리
21621	자리틀	21621	자리틀
21621-1	(자리틀) <u>짜다/치다/만들다/결다</u>	21621-1	맨다구
21622	왕골	21622	왕:고를
21623	삼태기	21623	산:태미
21623-1	짚 삼태기	21623-1	산:태미
21623-2	싸리 삼태기	21623-2	어렁이
21624	명석	21624	명석
21625	어레미	21625	얼:기미
21625-1	고운체	21625-1	고운체, 곤:체
21625-2	굵은체	21625-2	영근체(중체보다 큼), 중체
21626	대장장이	21626	석쭈쟁이라구, 대장쟁이
21627	대장간	21627	대장간
21628	풀무	21628	풍구
21629	모루	21629	*
21630	모루채	21630	망치(?조), 쇠망치(?조)
21631	갈퀴	21631	갈:키
21632	집게	21632	찌깨라구
21633	장도리	21633	장:도리
21633-1	노루발	21633-1	장:도리(?조)
21634	툽	21634	툽:
21634-0-1	-에	21634-0-1	토:베
21635	도끼	21635	도:키
21636	자루(柄)	21636	자루
21636-0-1	-을	21636-0-1	자루털
21636-0-2	-에	21636-0-2	자루에
21637	갈고리	21637	갈구리(걸어놓을 때 쓰는 것), 알그라지, 갈구라지(잡아서 끌어당기는 것),
21638	썰기	21638	보침
21639	송곳	21639	송고선(통칭), 도래송고선(구멍을 크게 뚫으려면)
21639-0-1	-에	21639-0-1	도래송고시루

21640 뽕죽하다

21641 솟돌

21641-0-1 -에

21642 맷돌

21642-1 수쇠

21642-1 암쇠

21643 지게

21644 밭채

21645 지게 작대기

21646 막대기

21647 몽둥이

21640 빼쫓개서

21641 수:뿔

21641-0-1 수또레

21642 매:뿔

21642-1 수쇠

21642-2 암:쇠

21643 지게

21644 소고리라구, 소고바리

21645 작때기, 지게작때기

21646 막때기라던지

21647 몽:덩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4 함지

21705 풀비

21705-1 귀알

21706 독

21706-0-1 -에

21707 물독

21708 향아리

21709 단지

21710 물동이

21711 빠리

21712 옹기

21713 표주박

21714 키(箕)

21715 떡살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0-1 -을

21717-0-2 -에

21701 비짜룬데

21702 광:주리(+다), 광우리

21703 소코리, 대소코리

21704 함지바기라구, 나무함지박, 나무함지배기
라구, 나무함지바기라구

21705 풀쏘리라구

21705-1 풀쓸

21706 독(큰것), 단:지, 독썰끼, 부단지

21706-0-1 단:지에

21707 물뚜멍, 두멍

21708 장또기라구, 향아리라구도

21709 장:판지여

21710 동이, 물똥이, 옹가지

21711 또바리, 뽕아리라구도, 또아리

21712 옹:기, 옹:기그러시

21713 종고래기

21714 치:라구(+구, +다), 키:

21715 떡살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0-1 시루럴

21717-0-2 시루에다

21718 시룻밑
 21718-0-1 -에
 21719 시룻번
 21720 부싯돌
 21720-0-1 -을
 21721 부시
 21722 부싯깃
 21723 담배
 21724 담배대
 21725 담배설대
 21726 담배통
 21727 물부리
 21728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2 가락지
 21733 비녀
 21734 참빗
 21734-0-1 -을
 21734-0-2 -에
 21735 열레빗
 21736 세숫대야
 21737 비누
 21738 도투마리
 21739 활대
 21740 잉앗대
 21741 부티
 21742 도롱이

21718 시룬미시라구
 21718-0-1 시룬미시
 21719 번, 시루뽕
 21720 부시또리래유, 부시루
 21720-0-1 부시또럴
 21721 부시루, 부시쌔미에
 21722 *
 21723 담배
 21724 담:배때
 21725 물푸리(?조)
 21726 대꼬바리
 21727 빨뿌리, 빨쭈리
 21728 담배쌈지(+다), 담배쌈미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2 가락찌
 21733 비녀, 비너
 21734 참빈
 21734-0-1 참비시
 21734-0-2 참비세
 21735 어리빈, 열기비세
 21736 시수때야, 노때야
 21737 시수빼누, 비누(통칭)
 21738 도꾸마리
 21739 활때
 21740 잉:아, 잉아때
 21741 부티
 21742 도:링이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2 이마빼기

21801 이마
 21802 마빡, 이마빼기라구두

21803 눈자위
 21804 검은자위
 21805 흰자위
 21806 눈꺼풀
 21807 거적눈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9 속눈썹
 21809-0-1 -이
 21810 눈두덩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3 돋보기
 21814 주름살
 21814-0-1 -이
 21815 앳되다
 21816 수염
 21817 구레나룻
 21817-0-1 -을
 21818 코
 21818-0-1 -이
 21819 콧수염
 21820 코딱지
 21821 콧구멍
 21821-0-1 -을
 21821-0-2 -에
 21822 콧물
 21823 입술
 21823-0-1 -에
 21824 다물다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7 휘파람
 21828 침
 21829 삼키다
 21830 가래(痰)

21803 *
 21804 꺼먹창, 동자, 눈뚱자
 21805 힌창
 21806 능꺼풀
 21807 *
 21808 눈썹
 21808-0-1 눈썹비라구
 21809 송:눈썹
 21809-0-1 송:눈썹비
 21810 눈팅이에
 21811 안:경,
 21812 양:경쩍
 21813 도빠기
 21814 주름싸리(+다), 찻름쌀
 21814-0-1 주름싸리
 21815 앳떠보인다, 앳떠다
 21816 수여멀
 21817 구렌나레 시여미
 21817-0-1 *
 21818 코
 21818-0-1 코가
 21819 코쭈염
 21820 코딱쟁이
 21821 코꾸멍, 코꾸녀기(조사자 제시)
 21821-0-1 코꾸멍을
 21821-0-2 코꾸녕에서, 코꾸녀게서
 21822 콤물
 21823 입썰
 21823-0-1 입쏘레
 21824 다무리라구두, 닥쳐
 21825 아:굼니, 아금니
 21826 던니
 21827 해파람
 21828 침, 처멀
 21829 생켜따
 21830 가:래

21831 뺨다
 21832 혀
 21833 헛바늘
 21834 킷불
 21835 귀고리
 21835-1 귀걸이
 21836 귀지
 21837 귀이개
 21838 소리
 21839 엇듣다
 21840 귀청
 21841 귀밑
 21841-0-1 -을
 21842 관자놀이
 21843 기미
 21844 주근깨
 21845 턱
 21846 턱수염
 21847 뺨
 21847-1 볼
 21848 가름하다
 21849 보조개
 21850 머리카락
 21851 비듬
 21852 기계충
 21853 정수리
 21854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21856 가르마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21857 가마
 21857-1 가마(鼎)
 21857-2 가마(轎)
 21857-3 가마(질그릇)
 21857-4 가마(가마니)
 21858 뒤통수

21831 배터애지, 배터따
 21832 세빠닥
 21833 세빠눌
 21834 귀빠비, 귀뺨
 21835 귀거리
 21835-1 귀거리, 귀마개(조사자 제시)
 21836 귀쏘기
 21837 귀후비개
 21838 소리가
 21839 으:뜯는다
 21840 귀:창
 21841 귀미테, 귀미치라구
 21841-0-1 귀미털
 21842 관자노리
 21843 기미
 21844 주궁깨
 21845 턱, 테거리(평칭), 턱쭈가지(+비)
 21846 턱수염
 21847 뺨, 뺨데기(+비), 볼:팅이(+비)
 21847-1 볼
 21848 갈쫂:캉개, 가로:망개(조사자 제시)
 21849 샴이
 21850 머리카락
 21851 비눌
 21852 기계또기
 21853 장바구리
 21854 대:머리
 21855 고도머리
 21856 가름배
 21856-1 타서
 21857 가:마
 21857-1 가마소테
 21857-2 가:마
 21857-3 가마여
 21857-4 다서까마
 21858 뒤통시, 디통시

21859 뒷덜미
21860 목
21861 먹살

21859 목덜미
21860 모기, 모가지
21861 먹:쌀

2.6.2. 상체

21901 어깨
21902 밀치다
21903 겨드랑
21904 등
21905 가슴
21906 걸리다
21907 갈비뼈
21908 허파
21909 쓸개
21910 콩팥
21910-0-1 -에
21910-0-2 -을
21911 팔
21912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21914 손톱
21915 오른손
21916 왼손
21917 다르다
21917-0-1 -아서
21917-1 틀리다
21918 왼손잡이
21919 엄지손가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1 가운데손가락
21922 약손가락
21923 새끼손가락
21924 생인손
21925 사마귀

21901 어깨, 어깨뼈디
21902 밀:쳐따, 치바더따
21903 저드랑
21904 등어리
21905 아까심
21906 걸리지유
21907 갈비뼈
21908 숨통
21909 씨래라구
21910 *
21910-0-1 콩파세
21910-0-2 콩파설
21911 팔
21912 팔뚝꿈치
21913 깔:짱찌구
21914 손톱
21915 바른손, 오른손
21916 왼:손
21917 틀리지유
21917-0-1 틀리지
21917-1 틀려서
21918 왼:손재비
21919 엄지, 엄지송꼬락, 엄지가락
21920 *
21921 가문테송꼬라기라고
21922 *
21923 새끼송꼬라기라고, 새끼송꼬락
21924 생인손
21925 무사마구, 사:마구

21926 손아귀
 21927 손목
 21928 뺨
 21929 허리
 21930 지팡이
 21931 옆구리
 21932 간지럽다
 21933 간지럼
 21934 잔허리
 21935 근육
 21936 배꼽
 21937 목물

21926 소나구
 21927 홀모기, 홀모기라구
 21928 뺨물, 함뺨
 21929 허리
 21930 지팡이
 21931 여꾸리라구
 21932 간지러워서
 21933 간지름
 21934 *
 21935 근:뉴기(?제), 알통이
 21936 배꼽:
 21937 등목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2 발가락
 22003 발바닥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6 고린내
 22007 굳은살
 22008 정강이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
 22011 회초리
 22012 무릎
 22012-0-1 -을
 22012-0-2 -에
 22013 오금
 22014 엉덩이
 22015 궁둥이
 22016 발기
 22017 멍
 22018 멍울
 22019 가랑이

22001 복쌍씨
 22002 발꼬락
 22003 발빠당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6 꼬랑내가
 22007 모시배겨유
 22008 장:쟁이라구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가
 22011 호초리
 22012 무르팍, 무릅
 22012-0-1 무루벌
 22012-0-2 무루베
 22013 오곰쟁이라구
 22014 엉:덩이는, 응:덩이라구
 22015 망덩이라구
 22016 발기 짝기라구
 22017 멍
 22018 망:우리
 22019 가:랭이

22020	사이	22020	사이가
22021	살	22021	사타구니라구, 사타구미라고 사타굼 정가
22021-0-1	-이	22021-0-1	*
22021-0-2	-을	22021-0-2	*
22022	사타구니	22022	사타구니라고
22023	가래툰	22023	가래툰, 가렘마울, 가렘망우리라고, 사타 굼 지에
22023-0-1	-을	22023-0-1	*
22024	허벅다리	22024	넙쩍따리라고
22025	넙적다리	22025	넙쩍따리라구
22026	가부좌(跏趺坐)	22026	책쌍다리
22026-1	가부좌(跏趺坐) <u>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u>	22026-1	책쌍다리하고 안저따구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22101	강:기느, 고뿌리(조사자 제시)
22102	기침	22102	기침
22103	채채기	22103	채치기
22104	사레	22104	사:레
22104-1	(사레) <u>들리다/만나다/걸리다</u>	22104-1	사:레가 들려서
22105	딸꾹질	22105	꼴:띠기
22106	트름	22106	게:트름
22107	곰보	22107	곰보라구두, 얼금배기라구
22108	천연두	22108	마:마, 손니밍가
22109	여드름	22109	여드름
22110	학질	22110	초:악, 초아
22110-1	하루거리	22110-1	초악
22110-2	이틀거리	22110-2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22110-3	*
22111	홍역	22111	호녀기지
22112	볼거리	22112	볼거리라구, 항아리손님(+다)
22113	땀띠	22113	땀:띠
22114	두드러기	22114	두데래기유, 두드래기
22115	버짐	22115	버듬두
22115-1	마른버짐	22115-1	마른버드른

22115-2 진버집
 22115-3 도장 버집
 22116 문둥이
 22116-1 문둥병
 22117 부스럼
 22117-1 종기
 22118 고름
 22119 곱기다
 22120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22122 언청이
 22123 소경
 22123-1 달달봉사
 22124 애꾸
 22125 눈곱
 22126 다래끼
 22126-1 다래끼(눈 위쪽)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22127 절름발이
 22128 곱사등이
 22129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22131 병어리
 22132 잠꾸러기
 22133 졸리다
 22134 하품
 22135 졸음
 22135-0-1 -을
 22135-0-2 -에
 22136 잠꼬대

22115-2 진버듬
 22115-3 도장뽕이구
 22116 나환자라고(+신) 문:둥이
 22116-1 문둥뽕이라구
 22117 부시러미라구, 부시름
 22117-1 부시르미, 종:기가(조사자 제시)
 22118 고름, 고르미
 22119 공겨따구
 22120 난:쟁이라구
 22121 새파리누니라구, 흘기누니라구
 22122 어청이
 22123 땡이나라구, 봉:사라구
 22123-1 달:달봉사라구
 22124 외통배기
 22125 농꼽
 22126 다래끼
 22126-1 다래끼라구
 22126-2 민다래끼
 22127 절름바리라구, 찢뚝빠리(조사자 제시)
 22128 곱처라구두, 곱:싸탱이라구
 22129 귀머거리라구
 22130 머:럴 더듬는다구, 밤:병어리거따고도
 22131 병어리
 22132 잠뽀라구
 22133 졸린다구
 22134 하:품
 22135 조:르미
 22135-0-1 조:르멀
 22135-0-2 조르미
 22136 장꼬대, 허쏘리

2.7. 육아

22201 입덧
 22201-0-1 -을

22201 입땀
 22201-0-1 입떠설

22202 잣난아이
 22203 어린아이
 22204 경기(驚氣)하다
 22205 눅히다
 22206 계집아이
 22207 예쁘다
 22208 사내아이
 22209 아우
 22209-1 아우보다
 22209-2 아우 타다
 22210 야위다

 22211 쌍둥이
 22212 오줌
 22213 똥
 22214 기저귀
 22215 뉘다(排便)
 22216 방귀
 22216-1 꺾다
 22217 구린내
 22218 구리다
 22219 포대기
 22220 기지개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22221 거짓말
 22222 남부끄럽다
 22223 겁쟁이
 22224 불쌍하다
 22225 죄암죄암
 22226 곤지곤지
 22227 따로따로
 22228 도리도리
 22229 짹짹
 22230 부라부라

22202 꺾난애기라구
 22203 어리내기
 22204 경끼릴 한다구, 정끼 한다구
 22205 뉘:어라, 뉘:지
 22206 기:지배라구
 22207 이뿌다구
 22208 머스매라구
 22209 동생이라구, 아우라구
 22209-1 동생본다구, 아수본다구, 아우본다구
 22209-2 아수타너라구, 아수탄다구
 22210 꼬리틀려따구, 여여씨(주로 어른에게),
 여왕거거터(어린아이에게는 잘 쓰지 않음)
 22211 쌍:둥이
 22212 오줌(ㄷ와 ㄱ 중간음 정도)
 22213 똥
 22214 기저구
 22215 뉘어야지, 뉘자네
 22216 방:귀, 방구
 22216-1 꺾쓰니께, 끼지말라구, 킨다구
 22217 쿠룬내
 22218 쿠리다
 22219 포대기
 22220 기지개, 지지개
 22220-1 쓰구이따구, 킨다구
 22221 거짓말
 22222 남부꾸럽따구(조사자 제시), 쉹피해
 22223 겁쟁이
 22224 따카다구, 불쌍하다구
 22225 지암자미여, 지암지암
 22226 곤지곤지
 22227 따루따루따루
 22228 도리도리
 22229 짹짹
 22230 달강:달강:(앞뒤로 흔드는 것), 부라:부
 라:(좌우로 흔드는 것)

22231 걸음마
 22232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22234 곤두박질

 22235 안기다
 22236 바람개비
 22237 호드기
 22238 숨바꼭질
 22239 소꿉놀이
 22240 사금파리
 22241 연
 22241-1 방패연
 22241-2 가오리연
 22242 걸리다
 22243 고누
 22244 땅뺨기
 22245 뽕이
 22246 딱지치기
 22247 구슬
 22248 그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22249 밑신개
 22250 굴렁쇠
 22251 굴리다
 22251-0-1 -고
 22251-0-2 -어야
 22252 자전거
 22253 목말
 22254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22256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22256-2 송곳

22231 거름마
 22232 뚝뚝:(한발 한발 천천히 걷는 모습), 아장아장(뚝뚝뚝뚝에 비해서 잘 걷는 모습)
 22233 너머지지
 22234 곤도박질, 곤두박질(떨어져서 한 번 더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말함)
 22235 앵기지
 22236 팔랑개비
 22237 호:디기
 22238 술:래재비, 숨바꼭질
 22239 동고파리(+구), 동곶질(+구), 소꿉장난
 22240 새금파리
 22241 연:
 22241-1 방패여나라구
 22241-2 *
 22242 걸리든
 22243 꼬누(조사자 제시)
 22244 뺨재기
 22245 뽕이
 22246 딱찌치기(+신), 포치기(+구)
 22247 다마
 22248 그누, 그느
 22248-1 뒸다구
 22249 안질개
 22250 *
 22251 둥구리며
 22251-0-1 둥구리구
 22251-0-2 *
 22252 자장구
 22253 다름질, 뽕박질, 몽말
 22254 말타기라구(?제)
 22255 다름질, 뽕박질
 22256 쓰깨또
 22256-1 타구서
 22256-2 송:곶

22257 엄살
22257-1 (엄살)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22258 부아

22257 엄살
22257-1 떠네
22258 부아(조사자 제시), 부애두

2.8. 친족

22301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22302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22303 할아버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22304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22305 남편
22305-1 남편(호칭)

22306 아내
22306-1 아내(호칭)
22307 형

22307-1 형(호칭)
22308 아우
22308-1 아우(호칭)
22309 누나
22309-1 누나(호칭)
22310 누이
22310-1 누이(호칭)
22311 자식

22312 말아들
22313 막내
22314 오라버니
22314-1 오라버니(호칭)
22315 오빠

22301 부친, 아버지라구
22301-1 아번니미라구
22302 어머니
22302-1 어머니라구, 엄마라구(주로 아이들이)
22303 하라버지
22303-1 조분니미라고, 하라버지, 하라부지라고
22304 할머니
22304-1 할머니
22305 남편
22305-1 당시니라구, 아무거시아빠라구, 여보라구, 즈아부지라구
22306 아내, 집싸라미라구
22306-1 여보라구
22307 형님(장가 든 이후에), 형이라구(아이들 끼리)

22307-1 형니미라구, 형이라구
22308 동생, 아우
22308-1 동생이라구
22309 누나라고, 눈님
22309-1 누나라고, 눈니미라고
22310 여동생
22310-1 동생, 아무거시아(이름을 부름)
22311 애더리라구, 여러남매 뒤:따구, 자식떠리라구
22312 마다더럴, 장:남, 크나덜
22313 망내
22314 오라버니
22314-1 오라버니(존댓말과 함께 씀)
22315 오빠

22315-1 오빠(호칭)	22315-1 오빠(반말과 함께 씀)
22316 언니	22316 성이라구(+구), 형
22316-1 언니(호칭)	22316-1 성(+구), 언니, 형님
22317 아버지	22317 아무거시애비라구, 애비라구
22317-1 아버지(호칭)	22317-1 애비야(아이가 있을 때), 애
22318 어머니	22318 아무거시에미라구, 우리며누리라구
22318-1 어머니(호칭)	22318-1 아무거시에미야(아이가 있을 때), 애 애, 에미야(아이가 있을 때)
22319 손자	22319 손자
22320 손녀	22320 손녀
22321 사위	22321 사위
22321-1 사위(호칭)	22321-1 김서방, 박서방
22322 외손자	22322 외손자
22323 외손녀	22323 외손녀
22324 꾸짖다	22324 걱정하구, 꾸지름 드리따구, 나무랜다구, 혼내준다고
22324-0-1 -고	22324-0-1 나무래구 이따구
22324-1 나무라다	22324-1 나무랜다구
22325 총각	22325 총각뚜
22326 처녀	22326 처:녀두
22327 혼인	22327 혼닌한다구
22327-1 혼인식	22327-1 겨론식, 호닌식, 혼닌한다구
22328 혼인 잔치	22328 잔치
22329 장가가다	22329 색:씨 데리온다구, 장:가간다고, 장:가드리 따고, 장:가드러온다구
22329-1 시집가다	22329-1 시집온다구, 시집깎다구
22330 혼숫감	22330 혼수
22331 함	22331 함:
22332 겹사돈	22332 겹싸돈
22333 새색시	22333 새:새탁, 새색씨
22333-1 새색시(호칭)	22333-1 새탁
22334 시아버지	22334 시아번님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4-1 아번님
22335 시어머니	22335 시어먼님
22335-1 시어머니(호칭)	22335-1 어먼님
22336 비위	22336 비우렐

22337	아주버니	22337	시아주번님
22337-1	아주버니(호칭)	22337-1	아주번님
22338	서방님	22338	서방님, 시동생
22338-1	서방님(호칭)	22338-1	서방님
22339	도련님	22339	시동생이여
22339-1	도련님(호칭)	22339-1	테련님, 도련님, 삼촌(화자가 아이를 낳은 이후), 삼추니라구두
22340	형님	22340	맏똥세, 형니미라구
22340-1	형님(호칭)	22340-1	형님
22341	시누이	22341	시누이
22341-1	시누이(호칭)	22341-1	고몬님(화자가 아이를 낳은 후), 시눈님, 아가씨
22341-2	아가씨	22341-2	시누, 우리아가씨여
22341-3	아가씨(호칭)	22341-3	아가씨
22342	올케	22342	우리올케
22342-1	올케(호칭)	22342-1	올케
22343	매형	22343	매향
22343-1	매형(호칭)	22343-1	매향이라구
22344	매제	22344	매제
22344-1	매제(호칭)	22344-1	김서방, 매제
22345	큰아버지	22345	백뿐니미라구, 크나부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22345-1	크나버지, 크나번님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22345-2	둘째아부지라구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22345-3	시:째아부지라구(?제)
22346	큰어머니	22346	크너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1	크너머니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22346-2	둘째크너머니, 크너머니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22346-3	세:째크너머니라구, 크너머니구
22347	큰집	22347	큰대기라구,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22348	숙뿌라고, 숙뿐니미라구, 자그나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22348-1	자그나부지라구
22349	작은어머니	22349	송모니미라구, 송모라구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49-1	자그너머니
22350	삼촌	22350	삼촌
22350-1	삼촌(호칭)	22350-1	삼촌, 삼촌
22351	아저씨	22351	당숙

22351-1	아저씨(호칭)	22351-1	당숙아자씨, 아자씨
22352	아주머니	22352	당고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2-1	고모, 당고모
22353	조카	22353	조카
22354	조카딸	22354	조카따리라구
22355	고모	22355	고모여, 고무라구
22355-1	고모(호칭)	22355-1	고무
22356	고모부	22356	고무부
22356-1	고모부(호칭)	22356-1	고무부
22357	고종	22357	고종더리여(직접 사람을 가리킬 때), 고종사:춘
22358	이모	22358	이모
22358-1	이모(호칭)	22358-1	이모라구
22359	이모부	22359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22359-1	이모부
22360	이종	22360	이종사:춘
22361	외삼촌	22361	외삼춘
22361-1	외삼촌(호칭)	22361-1	오삼춘니라구, 외삼추니여
22362	외숙모	22362	외승모
22362-1	외숙모(호칭)	22362-1	외승모여
22363	외종	22363	외사춘
22364	외할아버지	22364	외조부, 외하라부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22364-1	외하라부지여
22365	외할머니	22365	외조모, 외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5-1	외할머니
22366	장인	22366	병장으른, 장이느르니라구, 장인
22366-1	장인(호칭)	22366-1	병장으르니라구, 장이니여
22367	장모	22367	장몬님
22367-1	장모(호칭)	22367-1	병몬니미라구
22368	처남	22368	처남
22368-1	처남(호칭)	22368-1	형니미라구
22369	처남댁	22369	처나무댁
22369-1	처남댁(호칭)	22369-1	외승모, 큰처나무댁, 작은처나무댁, 아무거시외승모
22370	홀아버	22370	호래비라구
22371	홀어미	22371	과:부땡, 호래미과부땡

22372	계모	22372	재:추, 재:취라구, 재:추때기라구, 후:추때 기라구(남들이 가리킬 때), 스:몬데, 어머 니라구(자녀가 부를 때)
22372-1	계부	22372-1	으부다버지라구
22373	아저씨	22373	아자씨라구
22373-1	아저씨(호칭)	22373-1	으르시니라구(나이가 많으면), 형(나이가 비슷하거나 한두 살 많은 대상에게), 아 자씨
22374	아주머니	22374	아주머이라구
22374-1	아주머니(호칭)	22374	아주머니, 아무거시뻑(또래끼리는)
22375	사나이	22375	질문청녀니라구, 머스매
22376	영감	22376	으-ㅇ:감니미라구, 아무거시하라부지, 여보:
22376-1	할망구	22376-1	저느무할망귀는
22377	나이	22377	나이
22377-0-1	-를	22377-1	나이럴
22378	환갑	22378	육썬, 향:갑, 회갑
22378-1	환갑 잔치	22378-1	향:갑잔치, 수연잔치
22379	사투리	22379	토배기마리라구, 사:투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1	물꼬기
22402	민물고기	22402	물꼬기라고
22403	피라미	22403	피래미
22404	지느러미	22404	꽁지, 날개
22405	아가미	22405	*
22406	창자	22406	창사귀, 쓸개
22407	송사리	22407	송사리, 중태기
22408	헤엄	22408	흐염친다구
22409	메기	22409	메:기
22410	자라	22410	자라

22411 거북
 22412 미꾸라지
 22413 개구리
 22414 올챙이
 22415 두꺼비
 22416 거머리
 22417 다슬기
 22418 우렁이
 22419 고둥
 22420 달팽이
 22421 새우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3 새우(바다 대)
 22422-4 새우(바다 소)
 22422 새우젓
 22422-0-1 -이
 22423 가재
 22424 갈치
 22425 고등어
 22426 가오리
 22427 가자미
 22428 멸치
 22429 명태
 22429-1 동태
 22429-2 황태
 22429-3 노가리
 22429-4 북어
 22429-5 생태
 22430 조기
 22431 도미
 22432 뱀장어
 22433 낚시
 22434 미끼
 22435 낚싯대
 22436 얼레

22411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꾸리라구두
 22413 개구락찌, 청개구리, 왕개구리, 개구리
 22414 올챙이
 22415 독꺼비, 두꺼비, 두꺼비
 22416 금:저리, 그:머리
 22417 베틀올갱이
 22418 올갱이, 우렁이라구
 22419 *
 22420 달:팽이, 지븨는달팽이
 22421 새우, 새뱅이라구두
 22421-1 징:개미
 22421-2 민물새우
 22421-3 왕새우
 22421-4 새우유
 22422 새우젼
 22422-0-1 새우저시
 22423 가:재
 22424 갈치
 22425 고등어
 22426 가오리라구
 22427 *
 22428 메르치, 멸치
 22429 명:태
 22429-1 동태라구두, 생부거라구두, 명태, 동태구
 22429-2 황태
 22429-3 노가리새끼라고
 22429-4 부거라구(조사자 제시)
 22429-5 생부거
 22430 조기
 22431 *
 22432 뱀장어, 뱀:장어, 뱀쟁이
 22433 낚씨, 낚씨질하는
 22434 떡밥, 지낙씨빠블, 미끼털
 22435 낚씨때, 낚씨주리
 22436 도롱태라구

22437 조개
22438 소라

22437 조개비
22438 소:라라구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2 날벌레
22503 파리
22503-1 쉬파리
22504 쉬슬다
22505 가시
22506 진딧물
22506-1 (진딧물) 끼다/얹다/생기다
22507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22508-1 암컷
22508-2 수컷
22509 메뚜기
22510 여치
22511 사마귀
22512 벌
22512-1 (벌) 치다/기르다/키우다
22513 땅벌
22514 나비
22515 하루살이
22516 풍뎡이
22517 모기
22518 장구벌레
22519 매미
22520 개똥벌레
22521 반딧불
22522 거미
22523 굼벵이
22524 구더기
22525 노래기

22501 벌거지(+구)
22502 벌레가, 날빨거지
22503 파:리
22503-1 쇠파리, 쉬파리
22504 쉬칼리능거, 쉬:칼려서
22505 귀:디기, 까지가
22506 뜨무리여
22506-1 뜨무리 찌따구
22507 남자리, 꼬추남자리, 꼬추잠자리
22508 왕아치라고
22508-1 왕아치고, 땅개비두
22508-2 때까지라구
22509 메뚜기
22510 으:치
22511 물싸마구라고, 물사마구라고
22512 벌:, 뿔:
22512-1 버:털 기른다, 친다구
22513 땅뿔:
22514 나비
22515 하루사리
22516 풍뎡이벌거지
22517 모:기
22518 곤두벌거지
22519 매:미
22521 개똥불
22520 개똥벌레
22522 왕:거무
22523 굼:벵이
22524 귀:디기
22525 노나깅씨, 노내기라구, 누나깅씨라구

22526	그리마	22526	돈뽕거지라구
22527	지네	22527	지:네
22528	개미	22528	개:밍가
22529	바구미	22529	바:구미
22530	진드기	22530	푸진대라구
22531	벼룩	22531	빼룩
22532	이	22532	이지
22532-1	서캐	22532-1	소카리
22532-2	빈대	22532-2	빈대
22533	송충이	22533	송충이
22534	귀뚜라미	22534	귀뚜래미
22535	누에	22535	누예
22536	고치	22536	꼬추
22537	번데기	22537	번디기
22538	지렁이	22538	지렁이
22539	회충(蛔蟲)	22539	회
22540	소금쟁이	22540	소곰쟁이
22541	방개	22541	방:개거태, 쌀빵개, 똥빵개고

2.9.3. 가축

22601	가축	22601	김성
22602	암소	22602	소, 에미소, 암늪, 암소
22603	송아지	22603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4	네:미네:미 그라지
22605	황소	22605	순늪, 황소, 쏘늪
22606	길들이다	22606	질디릴라면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22606-1	이러이러 하넝거지, 이러찌찌 이러이러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22606-2	워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라)	22606-3	이러이러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라)	22606-4	저저저저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22606-5	무러무러
22607	쇠고기	22607	소고기
22608	고기(肉)	22608	고기라고, 고기사리라고, 피기가
22609	들치	22609	들치

22610	꼬리	22610	쇠꼬리
22611	망아지	22611	망아지라구
22612	당나귀	22612	당나꺽가, 당나구루
22613	갈기	22613	*
22614	돼지	22614	대:지
22614-1	멧돼지	22614-1	산돼지
22615	주둥이	22615	구드리, 주당이
22616	돼지 머리	22616	대:지머리, 대지대가리
22617	돼지우리	22617	대지집, 대지막, 대:지울칸
22617-1	오래오래	22617-1	오래오래 그래썬유
22618	개(犬)	22618	가:이
22618-1	수캐	22619	강아지
22618-2	암캐	22618-1	썬늬, 수캐, 썬깨라구
22619	강아지	22618-2	에미개, 양캐, 암:누미라구두
22620	염소	22620	염송가
22621	고양이	22621	고앵이
22621-1	수고양이	22621-1	수꼬앵이, 순누미라구
22621-2	암고양이	22621-2	암꼬앵이
22622	토끼	22622	토끼
22623	거위(鵞)	22623	게우
22624	암탉	22624	닥:, 암따기, 암딱
22625	병아리	22625	병아리
22626	모으다	22626	모아가주구, 모여가주구
22627	수탉	22627	수탉, 장딱
22627-0-1	-이	22627-0-1	다기, 장따기
22628	벼슬(鷄冠)	22628	베실, 닥베실
22629	부리	22629	주당이
22630	모이	22630	모이
22630-0-1	-을	22630-0-1	모이럴
22630-1	모이다	22630-1	모여서
22631	닭털	22631	닥터린테
22632	닭똥	22632	달기똥
22633	어리	22633	달기둥어리
22634	닭장	22634	닥쩍(+구), 닥짱이라구(+신)
22635	둥우리	22635	달기둥어리
22636	날개	22636	당날개루

22637 깃
22637-0-1 -을

22637 닥터리라구
22637-0-1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를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9 꿩지
22720 솔개
22721 독수리
22722 제비(燕)
22723 두루미
22724 소쩍새
22725 꿩
22726 장끼
22727 까투리
22727-1 꺼병이

22701 호:랭이라구
22702 살가지
22703 여우, 여수(+구)
22704 원숭이
22705 사스미라구
22706 노:루
22706-0-1 노:루가
22706-0-2 노:루털
22707 고순도치
22708 두더지, 땅뽕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황구렁이, 살뱀, 독싸, 물뱀, 백
22711 동아뱀
22712 황구렁이두
22713 독싸
22714 꿀망지
22715 박:찌
22716 꺼꿀루
22717 다람지
22718 날쫄성이지, 새
22719 꿩지라구, 꿩지털
22720 솔개미
22721 독쭈리
22722 제:비, 지:비
22723 황:새
22724 소쫄새라구
22725 꿩
22726 쟁끼
22727 까:투리, 앙꿩
22727-1 꿩:병아리, 꿩:에병아리

22728 종달새
 22729 뺨꾸기
 22730 기러기
 22731 뚝부기
 22732 올빼미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텃
 22735-0-1 -을
 22736 올가미

22728 종달새, 로고지리라구두
 22729 뺨꼭새
 22730 기러기
 22731 뚝뚝새
 22732 오빼미라능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찌개틀, 짜꾸틀, 차구틀, 찌깨틀, 차귀
 22735-0-1 찌깨틀 논는다, 짜귀틀 논는다
 22736 올가마지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22803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22805 봉선화
 22806 파리
 22807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22809 시들다
 22810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1 빨기
 22812 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씌바귀
 22815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01 창끝, 창꼬시
 22802 철쭉꼬시여
 22803 민들레
 22804 맨도래미
 22805 봉숭아
 22806 파:리(열매), 파:리나무(식물 전체)
 22807 해바래기
 22808 몽오리
 22809 시든다구, 시드룽거
 22810 질강이
 22810-1 질강이유
 22810-2 질강이 국끄린거라고
 22811 뺨뺨풀
 22812 베름, 참베름, 비름, 참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쓴나물, 씌바귀
 22815 꼬들뽕이
 22815-1 꼬들뽕이
 22815-2 꼬들뽕이 김치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20 억새
 22821 갈대
 22822 이끼
 22823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22825 수세미
 22826 덩굴
 22827 덩불
 22827-1 가시덤불
 22828 잔디

22816 고사리
 22817 괴:비, 고:비
 22818 찢디기나무, 찢디기까시나무
 22819 도꾸마리
 22820 워:썰
 22821 갈때
 22822 바위오시라구
 22823 아주까리
 22824 *
 22825 수시미나무
 22826 넝쿨
 22827 까시덤불
 22827-1 까시덤불
 22828 떼, 잔디

2.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2 솔방울
 22903 관솔
 22904 솔가리
 22905 그러모으다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8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22910 상수리
 22911 옷
 22911-0-1 -으로
 22912 버드나무
 22913 느티나무
 22914 그림자
 22914-1 그늘
 22915 숲

22901 소나무
 22902 솔뽕울
 22903 광:솔
 22904 솔까루
 22905 갈:키나무하러간다, 글그러간다
 22906 뽕나무
 22907 오돌개, 오디라구두(+신)
 22908 도토리
 22909 떡갈라무
 22910 굴:도토리
 22911 온나무에서, 오칠, 오들러
 22911-0-1 온지니루
 22912 버드나무
 22913 느트나무, 둥구나무
 22914 그림자, 나무끄늘(나무의 그림자를 말함)
 22914-1 그느리라구, 음다리라구, 음지라구
 22915 숲쏘게

22915-0-1 -을
 22915-0-2 -에
 22916 시원하다
 22917 짙레
 22918 칙
 22918-0-1 -에
 22919 가지(枝)
 22920 끝
 22920-0-1 -이
 22920-0-2 -에
 22920-0-3 -을
 22921 삭정이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22922 나무
 22922-0-1 -을
 22922-0-2 -에
 22923 나무하다
 22924 그루터기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22925 등걸
 22926 장작
 22927 패다
 22928 부스러기
 22929 솟
 22929-0-1 -이
 22929-0-2 -을
 22929-0-3 -에
 22930 불잉걸
 22931 짝
 22932 잎
 22932-0-1 -을
 22932-1 잎사귀
 22933 가랑잎
 22934 뿌리

22915-0-1 솟쫂걸
 22915-0-2 솟쫂게
 22916 시연:하다, 시원:하다구
 22917 짙레나무
 22918 칠거지
 22918-0-1 칙뎡쿠레
 22919 겨까지
 22920 꺾트매기지, 끝
 22920-0-1 꺾치
 22920-0-2 꺾테
 22920-0-3 꺾철
 22921 삭쟁가리, 삭쟁가리
 22921-1 꺾꺾따구
 22922 나무, 재목
 22922-0-1 나무털, 낭구털(+구)
 22922-0-2 나무에, 낭구에(+구)
 22923 나무하러가자구, 땀라무해와따구
 22924 미똥가리
 22924-1 *
 22925 나무똥가리, 나무토막, 동가리
 22926 장작
 22927 나무팬다, 쪼갬다구
 22928 뿌시리기, 장작뿌스레기, 지지겹찌라구
 22929 솟
 22929-0-1 수시
 22929-0-2 수설
 22929-0-3 수세다
 22930 불뎡어리가
 22931 짝(주로 곡식에), 초기튼다, 축(나무, 고추, 벼 등)
 22932 나문넙, 이피, 입썰
 22932-0-1 이펼
 22932-1 입썰기가
 22933 가랑넙
 22934 나무뿌링이, 뿌리, 뿌링이지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1	*
23002	돌배	23002	돌배나무, 돌배라구
23003	복숭아	23003	복쌕, 복쑹, 복쑹아
23004	곶감	23004	꼬:감
23005	홍시	23005	홍시
23006	고욤	23006	고욤
23007	살구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09	자두라구, 자루라구
23010	오얏	23010	옹아여
23010-0-1	-을	23010-0-1	옹아털
23011	석류	23011	성뉴:
23012	모과	23012	모:과가
23013	과일	23013	실과라구
23014	꼭지	23014	꼭찌라구
23015	밤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1	밤:송아리
23015-2	꽃밤	23015-2	푸뺨
23015-3	알밤	23015-3	알밤
23015-4	쌍둥밤	23015-4	쌍톨배기
23016	보늬	23016	속:껍띠기
23017	호두	23017	호도
23018	가래(楸子)	23018	*
23019	개암	23019	깨:금
23020	머루	23020	머:루, 털:구
23021	다래	23021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23022	망개, 멧개, 멩개
23023	으름	23023	으:름
23024	참외	23024	깨구리차미, 차:미, 청차미구
23025	딸기	23025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1	딸:기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2	*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3	*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4	멍석딸개(간혹 있음)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6 딸기(산, 야생)
 23026 뱀딸기
 23027 마름(菱)

23025-5 *
 23025-6 멍석딸개, 멍석딸기라구
 23026 뱀:딸기라구
 23027 *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2 기슭
 23102-0-1 -에
 23103 골짜기
 23104 메아리
 23105 고향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23106 묘
 23107 뿔자리
 23107-1 광중
 23108 구덩이
 23109 비탈
 23110 가파르다
 23111 언덕
 23112 낭떠러지
 23113 들(野)
 23113-0-1 -에
 23114 벌
 23115 갈림길
 23116 헤어지다
 23117 바위
 23117-0-1 -을
 23117-0-2 -에
 23118 돌(石)

23101 산꼭때기, 산봉오리
 23102 지슬가지
 23102-0-1 산지슬가지에
 23103 구렁텅이
 23104 사눌림
 23105 소리지른다구, 호통
 23105-1 고향을질른다(고함은 조사자가 제시)
 23106 모이, 무덤, 산소라구
 23107 모이짜리두, 산소짜리
 23107-1 광:중
 23108 구덩이
 23109 비알, 산뺨알
 23110 가빠러서(조사자 제시), 가빠르다(조사자 제시), 경사저따구
 23111 언더기라구, 언덕빼기라구
 23112 낭어더기라구, 낭어덕, 바위칭벽
 23113 드:리라구, 들:관
 23113-0-1 드:레가서
 23114 벌파네
 23115 갈렁길, 사갈래끼리라구, 세갈래끼리라구
 23116 갈러져야지, 작빨하야, 헤어지자구
 23117 바위
 23117-0-1 바위털
 23117-0-2 바위에
 23118 돌:

23118-0-1 -을
 23118-0-2 -에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0-1 -를
 23121 진흙
 23121-1 찰흙

23118-0-1 도:렐
 23118-0-2 도:레
 23119 자갈
 23120 모래라구
 23120-0-1 모래렐
 23121 지:느기라구, 진:흙:
 23121-1 차:지느기, 차륵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2 거품
 23203 개운하다
 23204 도랑
 23204-1 붓도랑
 23205 둑
 23206 잠기다
 23207 개울

 23208 내(川)
 23209 미역 감다

 23210 발가숭이
 23211 목욕하다
 23212 수채
 23213 개골창
 23214 시궁창
 23215 웅덩이
 23216 수렁
 23217 늪
 23217-0-1 -에
 23218 배(船)
 23219 나루터
 23220 돛
 23220-0-1 -에

23201 무레, 물
 23202 거품
 23203 깨우:나다, 깨운:하다, 시언:하구
 23204 또랑이라구
 23204-1 보또랑이라구
 23205 뚝뺑, 방:죽, 방죽뚜기
 23206 무레쟁겨따구
 23207 개우리라구(+신, 도랑과 개울의 크기 차
 이 없음), 도랭이라구, 또랑이라구(+구)
 23208 념무리라구
 23209 며:까므러가, 모요칸다(+신), 미역깎는다
 (+구)
 23210 뺨꺼덩이, 알모미라구
 23211 모요카러간다구
 23212 수채, 수채꾸녀그루, 수채꾸녀
 23213 개골창(조사자 제시)
 23214 수채꾸녀기, 시궁창이라구, 시궁챙이여
 23215 웅:덩이
 23216 고노니라구
 23217 쉬:논
 23217-0-1 쉬:예, 쉬노네
 23218 돌판배라구, 배라구
 23219 나루터(조사자 제시)
 23220 돛
 23220-0-1 도설, 도신지

23221 돛대
 23222 돛배
 23223 돛 줄
 23224 닻 줄
 23225 거루
 23226 상앗대
 23227 개(필)
 23228 물
 23228-0-1 -으로
 23229 밀물
 23230 썰물
 23231 가라앉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23221 도매
 23222 둔판배라구
 23223 *
 23224 *
 23225 *
 23226 *
 23227 *
 23228 육찌라구
 23228-0-1 무티라구(?제), 무티루(?제)
 23229 *
 23230 썰무리라구(?제)
 23231 가러안저따구
 23232 그:무리라구
 23233 해:녀라구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설핏하다
 23308 노을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23310 해거름
 23311 땅거미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위
 23315 추위
 23316 가을

23301 먼동틀때라구, 새벽가침, 새벽 아침
 23302 새벽밤머거따구, 새벽조반
 23303 아침(食), 아침때라구
 23304 아침빤머거따구, 아침조반, 조반
 23305 점심빤머거(食), 즈:심(食), 즈썌때라구
 23306 저녁(時), 저녁때(때와 밥을 정확하게 구
 분하지 않음), 저녁빤, 저녁머글(食)

 23307 설푸:타니께
 23308 농울찌따
 23308-0-1 농우털보구이따, 농우리찌먼
 23309 빨:거차너, 빨:거쿠
 23310 해거르미라구
 23311 어드머듬할때
 23312 보매, 봄철
 23313 여:름
 23314 늘떠위두, 더위가
 23315 추위가
 23316 가:으리지유, 늑까을, 초가을

23316-0-1 -에
 23317 겨울
 23317-0-1 -에
 23318 얼음
 23319 오늘
 23320 내일
 23321 모레
 23322 글피
 23323 그글피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7 훗날
 23328 하룻날
 23329 이틀날
 23330 사흘날
 23331 나흘날
 23332 다섯날
 23333 엿새날
 23334 이렛날
 23335 여드렛날
 23336 아흐렛날
 23337 열흘날
 23338 하루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1 나흘
 23342 다섯
 23343 엿새
 23344 이레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7 열흘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믐

23316-0-1 가:레
 23317 겨우리
 23317-0-1 겨우레
 23318 어름
 23319 오느른, 오늘
 23320 내일
 23321 모:레
 23322 글패
 23323 그글패라구
 23324 어제
 23325 어끄제
 23326 *
 23327 훈:날, 훈:나린
 23328 초하룻날, 하룻날
 23329 초이튼날, 초이틀
 23330 초사흘날
 23331 초나흘날
 23332 초다새, 초다썬나라구
 23333 초여썬날
 23334 초이렌날
 23335 초여드렌날
 23336 초아흐렌날
 23337 초열흘날
 23338 하루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1 나흘
 23342 다새
 23343 여썬
 23344 이레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7 열흘
 23348 반나절, 한나절
 23348-1 반나저리지, 저녕나절반나절
 23349 그믐

23349-1 그믐 께
 23350 지금
 23351 아직
 23352 이제
 23353 이미
 23354 요즈음
 23355 금방

23349-1 그믐 께
 23350 지금
 23351 아직
 23352 인저, 지금
 23353 인저 느저따
 23354 요즈먼(+다), 요즘
 23355 금방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0-1 -이
 23401-0-2 -을
 23402 따스하다
 23403 아지랑이
 23404 응달
 23405 양달
 23406 비(雨)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10 는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3 갑자기
 23414 홍수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8 무섭다
 23419 함박눈
 23420 싸락눈
 23421 말자국
 23422 진눈깨비
 23423 우박

23401 베테, 해뻬테
 23401-0-1 베시
 23401-0-2 베철
 23402 따뜨타다
 23403 아지랭이
 23404 음다레
 23405 양달, 양지쪽
 23406 비뻥울, 비온다구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양:개
 23410 *
 23411 무지개
 23412 쏘낙뻬, 쏘내기하구
 23413 각쫑예
 23414 홍수가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7 베탕, 벼락
 23418 무서워서, 무섭따구
 23419 눈:, 함방누니
 23420 싸랑눈, 싸래기누는
 23421 말짜옥
 23422 진눈깨비
 23423 우:박

23424	고드름	23424	고두래미, 고두루미라구, 고두름
23425	햇무리	23425	햄무럴에워따
23426	달무리	23426	달무럴에워따구
23427	등글다	23427	등:그러케
23428	은하수	23428	으나수 (조사자 제시)
23429	금성	23429	새벽빼리, 새빨리라구두(?제)
23430	가뭇	23430	가물드러따, 가뭇드러따
23431	마르다	23431	말르지유, 말른다
23431-0-1	-어서	23431-0-1	말러서
23432	위	23432	위예
23433	아래	23433	아래루
23434	왼쪽	23434	왼:쪽
23435	오른쪽	23435	바른쪽, 오른쪽
23436	겉	23436	여폐나, 저테나
23436-0-1	-에	23436-0-1	여폐, 저테
23437	회오리바람	23437	회오리바람
23438	북풍	23438	북풍
23439	남풍	23439	남풍
23440	동풍	23440	동남풍이(+다), 동풍이(사용빈도 적음)
23441	서풍	23441	서북풍이(+다), 서풍(사용빈도 적음)



제3편 음 운

3.1. 음운 체계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1	테가
31001-0-2	테(輪)-보다	31001-0-2	테보다
31002-0-1	태(胎)-이/가	31002-0-1	태가
31002-0-2	태(胎)-보다	31002-0-2	태럴
31003-0-1	떼(群)-이/가	31003-0-1	새 떼가
31003-0-2	떼(群)-보다	31003-0-2	새 떼루
31004-0-1	때(時)-이/가	31004-0-1	때가
31004-0-2	때(時)-보다	31004-0-2	때하구
31005-0-1	틀(機)-이/가	31005-0-1	트리
31005-0-2	틀(機)-보다	31005-0-2	자리틀보다
31006-0-1	털(毛)-이/가	31006-0-1	터리
31006-0-2	털(毛)-보다	31006-0-2	털보다
31007-0-1	글(文)-이/가	31007-0-1	그리
31007-0-2	글(文)-보다	31007-0-2	그런
31008-0-1	걸(옷)-이/가	31008-0-1	거리
31008-0-2	걸(옷)-보다	31008-0-2	걸보다
31009-0-1	기(旗)-이/가	31009-0-1	귀때가
31009-0-2	기(旗)-보다	31009-0-2	귀때라구

31010-0-1	귀(耳)-이/가	31010-0-1	귀가
31010-0-2	귀(耳)-보다	31010-0-2	귀보다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1	메씨예
31011-0-2	시(生時)-보다	31011-0-2	시:릴
31012-0-1	쉬(蠅卵)-이/가	31012-0-1	쉬깔려따구
31012-0-2	쉬(蠅卵)-보다	31012-0-2	쉬릴
31013-0-1	쇠(鐵)-이/가	31013-0-1	쇠가
31013-0-2	쇠(鐵)-보다	31013-0-2	쇠가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1	외궁여행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4-0-2	외국뿐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31015-0-1	왜눔더리라구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5-0-2	왜눔더리
31016-0-1	쉬:다(休)-이/가	31016-0-1	섧참두
31016-0-2	쉬:다(休)-보다	31016-0-2	쉬어서
31017-0-1	쇠:다(설을~)-이/가	31017-0-1	셧다고, 쉧다구라지
31017-0-2	쇠:다(설을~)-보다	31017-0-2	*
31018-0-1	베(布)-이/가	31018-0-1	베가
31018-0-2	베(布)-보다	31018-0-2	베라구
31019-0-1	배(船)-이/가	31019-0-1	배가
31019-0-2	배(船)-보다	31019-0-2	배릴
31020-0-1	배(腹)-이/가	31020-0-1	배가
31020-0-2	배(腹)-보다	31020-0-2	배릴
31021-0-1	(떡)메-이/가	31021-0-1	띵메가
31021-0-2	(떡)메-보다	31021-0-2	띵메릴

31022-0-1	매(鞭)-이/가	31022-0-1	매 라구
31022-0-2	매(鞭)-보다	31022-0-2	매마즈께 배
31023-0-1	메:다(擔)-이/가	31023-0-1	메:구
31023-0-2	메:다(擔)-보다	31023-0-2	메:구
31024-0-1	매:다(繫)-이/가	31024-0-1	맨:다는
31024-0-2	매:다(繫)-보다	31024-0-2	매:라고
31025-0-1	떼:다(分離)-이/가	31025-0-1	떼:노 라구
31025-0-2	떼:다(分離)-보다	31025-0-2	떼:라
31026-0-1	때:다(炊)-이/가	31026-0-1	때:라구
31026-0-2	때:다(炊)-보다	31026-0-2	때:라
31027-0-1	베:다(切斷)-이/가	31027-0-1	비러 간다
31027-0-2	베:다(切斷)-보다	31027-0-2	빈:다구
31028-0-1	배:다(孕胎)-이/가	31028-0-1	배:서
31028-0-2	배:다(孕胎)-보다	31028-0-2	배:따구
31029-0-1	세:다(算)-이/가	31029-0-1	시어바라
31029-0-2	세:다(算)-보다	31029-0-2	세:지유
31030-0-1	새:다(漏泄)-이/가	31030-0-1	새:서
31030-0-2	새:다(漏泄)-보다	31030-0-2	새:능거
31031-0-1	뒤(後)-이/가	31031-0-1	뒤:가
31031-0-2	뒤(後)-보다	31031-0-2	뒤:럴
31032-0-1	되(升)-이/가	31032-0-1	되바가지
31032-0-2	되(升)-보다	31032-0-2	되빡이
31033-0-1	게:(蟹)-이/가	31033-0-1	게:가, 그이가
31033-0-2	게:(蟹)-보다	31033-0-2	게:구, 그이구

31034-0-1 개:(犬)-이/가

31034-0-2 개:(犬)-보다

31034-0-1 개:가

31034-0-2 개:구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5-0-1 여:러시

31035-0-2 여런쁘다

31035-0-3 여:리남매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6-0-1 물껴리

31036-0-2 물결두

31036-0-3 물결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7-0-1 예의가

31037-0-2 예의범저를

31037-0-3 예의범저리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8-0-1 계혹또

31038-0-2 계혹또

31038-0-3 계호걸, 계획걸

31039-0-1 규칙(規則)-이/가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39-0-1 규칙찌긴

31039-0-2 규칙뚜

31039-0-3 규칙걸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0-0-1 공휴이리

31040-0-2 공휴이리라고

31040-0-3 공유일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1-0-1 교통이

31041-0-2 교통이

31041-0-3 교통얼

31042-0-1 효:자(孝子)-이/가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2-0-1 효:자가

31042-0-2 효자가

31042-0-3 효자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3-0-1 웬니리여
 31043-0-2 *
 31043-0-3 *

31044-0-1 궤:(絜)(櫃)-이/가
 31044-0-2 궤:(絜)(櫃)-보다
 31044-0-3 궤:(絜)(櫃)-을/를

31044-0-1 구여짜게다, 궤:짜게
 31044-0-2 *
 31044-0-3 *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5-0-1 왜놈
 31045-0-2 *
 31045-0-3 *

31046-0-1 헛대(鷄架)-이/가
 31046-0-2 헛대(鷄架)-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6-0-1 헛:예
 31046-0-2 *
 31046-0-3 *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7-0-1 *
 31047-0-2 *
 31047-0-3 원망을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8-0-1 곤:투
 31048-0-2 *
 31048-0-3 *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49-0-1 의논중
 31049-0-2 *
 31049-0-3 *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0-0-1 무늬
 31050-0-2 *
 31050-0-3 *

31051-0-1 왕(王)-이/가
 31051-0-2 왕(王)-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1-0-1 왕:이라구
 31051-0-2 *
 31051-0-3 *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52-0-1 과자
 31052-0-2 *
 31052-0-3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2 일(一)-보다

31053-0-1 이리
 31053-0-2 일보다

31054-0-1 일:(事)-이/가
 31054-0-2 일:(事)-보다

31054-0-1 이:리나
 31054-0-2 이:라구

31055-0-1 매(鞭)-이/가
 31055-0-2 매(鞭)-보다

31055-0-1 매만는다구
 31055-0-2 *

31056-0-1 매:(驚)-이/가
 31056-0-2 매:(驚)-보다

31056-0-1 매:가
 31056-0-2 매:보다

31057-0-1 밤(夜)-이/가
 31057-0-2 밤(夜)-보다

31057-0-1 밤이
 31057-0-2 밤보다

31058-0-1 밤:(栗)-이/가
 31058-0-2 밤:(栗)-보다

31058-0-1 밤:이
 31058-0-2 밤:보다

31059-0-1 눈(眼)-이/가
 31059-0-2 눈(眼)-보다

31059-0-1 누니
 31059-0-2 눈보다

31060-0-1 눈:(雪)-이/가
 31060-0-2 눈:(雪)-보다

31060-0-1 누:니
 31060-0-2 눈:보다

31061-0-1 말(馬)-이/가
 31061-0-2 말(馬)-보다

31061-0-1 마리
 31061-0-2 말보다

31062-0-1 말(斗)-이/가
 31062-0-2 말(斗)-보다

31062-0-1 마리
 31062-0-2 말보다

31063-0-1	말:(言)-이/가	31063-0-1	마:리
31063-0-2	말:(言)-보다	31063-0-2	말:보다
31064-0-1	손(客)-이/가	31064-0-1	소니
31064-0-2	손(客)-보다	31064-0-2	*
31065-0-1	손(手)-이/가	31065-0-1	소니
31065-0-2	손(手)-보다	31065-0-2	손보다
31066-0-1	손:(孫)-이/가	31066-0-1	소니
31066-0-2	손:(孫)-보다	31066-0-2	소:널, 소니
31067-0-1	배(梨)-이/가	31067-0-1	배가
31067-0-2	배(梨)-보다	31067-0-2	배보다
31068-0-1	배:(倍)-이/가	31068-0-1	배:가
31068-0-2	배:(倍)-보다	31068-0-2	*
31069-0-1	벌(罰)-이/가	31069-0-1	벌반는다
31069-0-2	벌(罰)-보다	31069-0-2	벌쓰녕거
31070-0-1	벌:(蜂)-이/가	31070-0-1	버:리
31070-0-2	벌:(蜂)-보다	31070-0-2	벌보다
31071-0-1	솔(松)-이/가	31071-0-1	소:리
31071-0-2	솔(松)-보다	31071-0-2	솔립뽀다
31072-0-1	솔:(刷)-이/가	31072-0-1	소:리
31072-0-2	솔:(刷)-보다	31072-0-2	솔:보다
31073-0-1	줄(鉉)-이/가	31073-0-1	줄맨다구
31073-0-2	줄(鉉)-보다	31073-0-2	줄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0-1	주:리
31074-0-2	줄:(연장)-보다	31074-0-2	줄:보다

31075-0-1	돌:(石)-이/가	31075-0-1	도:리
31075-0-2	돌:(石)-보다	31075-0-2	돌:보다
31076-0-1	담(牆)-이/가	31076-0-1	다미
31076-0-2	담(牆)-보다	31076-0-2	담장보다
31077-0-1	담:(膽)-이/가	31077-0-1	다:미
31077-0-2	담:(膽)-보다	31077-0-2	*
31078-0-1	들:(野)-이/가	31078-0-1	드:리
31078-0-2	들:(野)-보다	31078-0-2	들:보다
31079-0-1	달-(懸)-고	31079-0-1	매달구이따
31079-0-1	달-(懸)-더라	31079-0-1	달더라구
31080-0-1	달-(甘)-고	31080-0-1	달구
31080-0-1	달-(甘)-더라	31080-0-1	달더라
31081-0-1	달:-(熱)-고	31081-0-1	달:귀저따
31081-0-1	달:-(熱)-더라	31081-0-1	달:더라
31082-0-1	갈-(換)-고	31082-0-1	갈구이따
31082-0-1	갈-(換)-더라	31082-0-1	갈:더라
31083-0-1	갈-(磨)-고	31083-0-1	갈구이따
31083-0-1	갈-(磨)-더라	31083-0-1	갈더라
31084-0-1	갈:-(耕)-고	31084-0-1	갈구
31084-0-1	갈:-(耕)-더라	31084-0-1	갈:더라
31085-0-1	걸-(收)-고	31085-0-1	거꾸이따
31085-0-1	걸-(收)-더라	31085-0-1	거떠라
31086-0-1	걸:-(步)-고	31086-0-1	거떠라
31086-0-1	걸:-(步)-더라	31086-0-1	거리땡기구

31087-0-1	적-(書)-고	31087-0-1	적꾸이따
31087-0-1	적-(書)-더라	31087-0-1	적떠라
31088-0-1	적:-(小)-고	31088-0-1	자:꾸
31088-0-1	적:-(小)-더라	31088-0-1	작:떠라

3.2. 음운 과정

3.2.1. 활용

1) 기초 항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막찌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막꾸이따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마거쓰닝께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32001-0-5	마거, 마거서
32002-0-1	흐르-(流)[ㅡ]-지	32002-0-1	흘르지안케
32002-0-2	흐르-(流)[ㅡ]-고	32002-0-2	흘르구이따
32002-0-3	흐르-(流)[ㅡ]-더라	32002-0-3	흐르더라, 흘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32002-0-4	오니께, 흘르니께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32002-0-5	흘러간다
32003-0-1	오-(來)[ㅏ]-지	32003-0-1	오지
32003-0-2	오-(來)[ㅏ]-고	32003-0-2	오구
32003-0-3	오-(來)[ㅏ]-더라	32003-0-3	오더라
32003-0-4	오-(來)[ㅏ]-으니까	32003-0-4	오니께
32003-0-5	오-(來)[ㅏ]-아/어(왔/었다)	32003-0-5	와따가구
32004-0-1	듣-(聞)[ㅊ변]-지	32004-0-1	듣짱케
32004-0-2	듣-(聞)[ㅊ변]-고	32004-0-2	드꾸
32004-0-3	듣-(聞)[ㅊ변]-더라	32004-0-3	듣떠라
32004-0-4	듣-(聞)[ㅊ변]-으니까	32004-0-4	드르니께
32004-0-5	듣-(聞)[ㅊ변]-아/어(왔/었다)	32004-0-5	드러

32005-0-1	많:-(多)[ㄴㅎ]-지	32005-0-1	만:치유
32005-0-2	많:-(多)[ㄴㅎ]-고	32005-0-2	망:꾸
32005-0-3	많:-(多)[ㄴㅎ]-더라	32005-0-3	만:터라
32005-0-4	많:-(多)[ㄴㅎ]-으니까	32005-0-4	마:느니까
32005-0-5	많:-(多)[ㄴㅎ]-아/어(왔/었다)	32005-0-5	마:너서
32006-0-1	말:-(任)[ㅌ]-지	32006-0-1	말:찌
32006-0-2	말:-(任)[ㅌ]-고	32006-0-2	마:꾸이떠라
32006-0-3	말:-(任)[ㅌ]-더라	32006-0-3	마:꾸이떠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32006-0-4	마:트니까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32006-0-5	마:터서
32007-0-1	알:-(知)[ㄹ]-지	32007-0-1	알:지
32007-0-2	알:-(知)[ㄹ]-고	32007-0-2	알:구
32007-0-3	알:-(知)[ㄹ]-더라	32007-0-3	알:터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32007-0-4	아:르니까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32007-0-5	아:러
32008-0-1	감:-(閉眼)[ㄱ]-지	32008-0-1	감:찌
32008-0-2	감:-(閉眼)[ㄱ]-고	32008-0-2	강:꾸
32008-0-3	감:-(閉眼)[ㄱ]-더라	32008-0-3	감:떠라구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32008-0-4	까:므니까
32008-0-5	감:-(閉眼)[ㄱ]-아/어(왔/었다)	32008-0-5	까:머따
32009-0-1	벗:-(脫)[ㅅ]-지	32009-0-1	버:찌마
32009-0-2	벗:-(脫)[ㅅ]-고	32009-0-2	버:꾸, 벌:꾸
32009-0-3	벗:-(脫)[ㅅ]-더라	32009-0-3	버:떠라구
32009-0-4	벗:-(脫)[ㅅ]-으니까	32009-0-4	*
32009-0-5	벗:-(脫)[ㅅ]-아/어(왔/었다)	32009-0-5	버:서따
32010-0-1	옳:-(可)[ㄹㅎ]-지	32010-0-1	올:치아는
32010-0-2	옳:-(可)[ㄹㅎ]-고	32010-0-2	올:꾸
32010-0-3	옳:-(可)[ㄹㅎ]-더라	32010-0-3	올:터라
32010-0-4	옳:-(可)[ㄹㅎ]-으니까	32010-0-4	오:르냐
32010-0-5	옳:-(可)[ㄹㅎ]-아/어(왔/었다)	32010-0-5	오:라

32011-0-1	입-(着衣)[ㅂ]-지	32011-0-1	찌입찌마
32011-0-2	입-(着衣)[ㅂ]-고	32011-0-2	찌이꾸
32011-0-3	입-(着衣)[ㅂ]-더라	32011-0-3	찌입떠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32011-0-4	찌이브니께
32011-0-5	입-(着衣)[ㅂ]-아/어(왔/었다)	32011-0-5	찌이버떠니
32012-0-1	바꾸-(換)[ㄷ]-지	32012-0-1	바꾸지말구
32012-0-2	바꾸-(換)[ㄷ]-고	32012-0-2	바꾸구
32012-0-3	바꾸-(換)[ㄷ]-더라	32012-0-3	바꾸더라
32012-0-4	바꾸-(換)[ㄷ]-으니까	32012-0-4	바꾸니께
32012-0-5	바꾸-(換)[ㄷ]-아/어(왔/었다)	32012-0-5	바꿔가주
32013-0-1	덮-(覆)[ㅍ]-지	32013-0-1	덱찌
32013-0-2	덮-(覆)[ㅍ]-고	32013-0-2	더꾸
32013-0-3	덮-(覆)[ㅍ]-더라	32013-0-3	덱떠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32013-0-4	더프닝께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32013-0-5	더퍼
32014-0-1	묻:- (問)[ㄷ 변]-지	32014-0-1	무:찌
32014-0-2	묻:- (問)[ㄷ 변]-고	32014-0-2	무:꾸
32014-0-3	묻:- (問)[ㄷ 변]-더라	32014-0-3	무:떠라구
32014-0-4	묻:- (問)[ㄷ 변]-으니까	32014-0-4	무르니께
32014-0-5	묻:- (問)[ㄷ 변]-아/어(왔/었다)	32014-0-5	무리보구
32015-0-1	낫:- (癒)[ㅅ 변]-지	32015-0-1	나:찌앙케
32015-0-2	낫:- (癒)[ㅅ 변]-고	32015-0-2	나:께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32015-0-3	나떠라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32015-0-4	나:니께
32015-0-5	낫:- (癒)[ㅅ 변]-아/어(왔/었다)	32015-0-5	나:찌
32016-0-1	닫-(閉)[ㄷ]-지	32016-0-1	달찌
32016-0-2	닫-(閉)[ㄷ]-고	32016-0-2	달꾸
32016-0-3	닫-(閉)[ㄷ]-더라	32016-0-3	다떠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32016-0-4	다드니께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32016-0-5	다덜따

32017-0-1	쫓-(追)[ㅈ]-지	32017-0-1 쫓쫓말랑께
32017-0-2	쫓-(追)[ㅈ]-고	32017-0-2 쫓꾸
32017-0-3	쫓-(追)[ㅈ]-더라	32017-0-3 쫓떠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32017-0-4 쫓즈니까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32017-0-5 쫓치른
32018-0-1	베:-(枕)[베]-지	32018-0-1 비지
32018-0-2	베:-(枕)[베]-고	32018-0-2 비구
32018-0-3	베:-(枕)[베]-더라	32018-0-3 비더라구
32018-0-4	베:-(枕)[베]-으니까	32018-0-4 비니까
32018-0-5	베:-(枕)[베]-아/어(왔/었다)	32018-0-5 벼서루
32019-0-1	깨:-(破)[깨]-지	32019-0-1 깨지
32019-0-2	깨:-(破)[깨]-고	32019-0-2 깨구
32019-0-3	깨:-(破)[깨]-더라	32019-0-3 깨더니
32019-0-4	깨:-(破)[깨]-으니까	32019-0-4 깨쓰니까
32019-0-5	깨:-(破)[깨]-아/어(왔/었다)	32019-0-5 깨:따
32020-0-1	펴-(伸)[펴]-지	32020-0-1 피지
32020-0-2	펴-(伸)[펴]-고	32020-0-2 피구
32020-0-3	펴-(伸)[펴]-더라	32020-0-3 피더니만
32020-0-4	펴-(伸)[펴]-으니까	32020-0-4 피닝께
32020-0-5	펴-(伸)[펴]-아/어(왔/었다)	32020-0-5 펴서
32021-0-1	밟-(明)[밟]-지	32021-0-1 밟쫓안케
32021-0-2	밟-(明)[밟]-고	32021-0-2 밟꾸
32021-0-3	밟-(明)[밟]-더라	32021-0-3 밟떠라
32021-0-4	밟-(明)[밟]-으니까	32021-0-4 밟그니까
32021-0-5	밟-(明)[밟]-아/어(왔/었다)	32021-0-5 밟거서
32022-0-1	쌈:-(烹)[쌈]-지	32022-0-1 쌈:쫓
32022-0-2	쌈:-(烹)[쌈]-고	32022-0-2 쌈:꾸
32022-0-3	쌈:-(烹)[쌈]-더라	32022-0-3 쌈:떠니
32022-0-4	쌈:-(烹)[쌈]-으니까	32022-0-4 쌀:므니까
32022-0-5	쌈:-(烹)[쌈]-아/어(왔/었다)	32022-0-5 쌀머야지

32023-0-1	음-(吟)[ㄴ]-지	32023-0-1	음프지
32023-0-2	음-(吟)[ㄴ]-고	32023-0-2	음프구
32023-0-3	음-(吟)[ㄴ]-더라	32023-0-3	음푸더라
32023-0-4	음-(吟)[ㄴ]-으니까	32023-0-4	음푸니까
32023-0-5	음-(吟)[ㄴ]-아/어(왔/었다)	32023-0-5	음퍼바라

32024-0-1	밟:-(踏)[ㄹ]-지	32024-0-1	밟:찌앙케
32024-0-2	밟:-(踏)[ㄹ]-고	32024-0-2	바:꾸
32024-0-3	밟:-(踏)[ㄹ]-더라	32024-0-3	밟:떠라
32024-0-4	밟:-(踏)[ㄹ]-으니까	32024-0-4	발브니까
32024-0-5	밟:-(踏)[ㄹ]-아/어(왔/었다)	32024-0-5	발버떠니

32025-0-1	하-(爲)[ㅏ 변]-지	32025-0-1	하지
32025-0-2	하-(爲)[ㅏ 변]-고	32025-0-2	이라구
32025-0-3	하-(爲)[ㅏ 변]-더라	32025-0-3	하더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32025-0-4	이러라니까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32025-0-5	일해따

32026-0-1	맷-(結)[ㅈ]-지	32026-0-1	맷찌마
32026-0-2	맷-(結)[ㅈ]-고	32026-0-2	매저가지구
32026-0-3	맷-(結)[ㅈ]-더라	32026-0-3	매떠니
32026-0-4	맷-(結)[ㅈ]-으니까	32026-0-4	매즈니까
32026-0-5	맷-(結)[ㅈ]-아/어(왔/었다)	32026-0-5	매저따, 매저따구

32027-0-1	업:-(無)[ㅍ]-지	32027-0-1	업:찌
32027-0-2	업:-(無)[ㅍ]-고	32027-0-2	우:꾸
32027-0-3	업:-(無)[ㅍ]-더라	32027-0-3	업:떠라
32027-0-4	업:-(無)[ㅍ]-으니까	32027-0-4	웁쓰니까
32027-0-5	업:-(無)[ㅍ]-아/어(왔/었다)	32027-0-5	업써서, 웁:찌

32028-0-1	앉-(坐)[ㅇ]-지	32028-0-1	안찌
32028-0-2	앉-(坐)[ㅇ]-고	32028-0-2	안:꾸
32028-0-3	앉-(坐)[ㅇ]-더라	32028-0-3	안:떠니
32028-0-4	앉-(坐)[ㅇ]-으니까	32028-0-4	안:지닝께
32028-0-5	앉-(坐)[ㅇ]-아/어(왔/었다)	32028-0-5	안저이떠라

32029-0-1	비비-(刮)[ㅣ]-지	32029-0-1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32029-0-2 비비구
32029-0-3	비비-(刮)[ㅣ]-더라	32029-0-3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32029-0-4 비비닝께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32029-0-5 비벼써
32030-0-1	끄-(消)[ㅡ]-지	32030-0-1 끄지
32030-0-2	끄-(消)[ㅡ]-고	32030-0-2 끄구
32030-0-3	끄-(消)[ㅡ]-더라	32030-0-3 끄더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32030-0-4 끄:니께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32030-0-5 꺼:써유
32031-0-1	꺼-(折)[ㄱ]-지	32031-0-1 꺼찌
32031-0-2	꺼-(折)[ㄱ]-고	32031-0-2 꺼꾸
32031-0-3	꺼-(折)[ㄱ]-더라	32031-0-3 꺼떠라
32031-0-4	꺼-(折)[ㄱ]-으니까	32031-0-4 꺼끄니께
32031-0-5	꺼-(折)[ㄱ]-아/어(왔/었다)	32031-0-5 꺼꺼따
32032-0-1	신:-(履)[ㄴ]-지	32032-0-1 신찌
32032-0-2	신:-(履)[ㄴ]-고	32032-0-2 신:꾸
32032-0-3	신:-(履)[ㄴ]-더라	32032-0-3 신떠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32032-0-4 시느니께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32032-0-5 시너서
32033-0-1	보-(視)[ㅇ]-지	32033-0-1 보지
32033-0-2	보-(視)[ㅇ]-고	32033-0-2 보구
32033-0-3	보-(視)[ㅇ]-더라	32033-0-3 보더라
32033-0-4	보-(視)[ㅇ]-으니까	32033-0-4 디다보니께
32033-0-5	보-(視)[ㅇ]-아/어(왔/었다)	32033-0-5 봐:야지
32034-0-1	추-(舞)[ㅈ]-지	32034-0-1 추지
32034-0-2	추-(舞)[ㅈ]-고	32034-0-2 추구
32034-0-3	추-(舞)[ㅈ]-더라	32034-0-3 추더라구
32034-0-4	추-(舞)[ㅈ]-으니까	32034-0-4 추니께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32034-0-5 춰:쓰닝께

32035-0-1	피우-(吸煙)[ㅌ]-지	32035-0-1	피우지
32035-0-2	피우-(吸煙)[ㅌ]-고	32035-0-2	피우구
32035-0-3	피우-(吸煙)[ㅌ]-더라	32035-0-3	피우더니
32035-0-4	피우-(吸煙)[ㅌ]-으니까	32035-0-4	피우니께
32035-0-5	피우-(吸煙)[ㅌ]-아/어(왔/었다)	32035-0-5	피워서
32036-0-1	서-(立)[ㅅ]-지	32036-0-1	스지
32036-0-2	서-(立)[ㅅ]-고	32036-0-2	스구
32036-0-3	서-(立)[ㅅ]-더라	32036-0-3	스더니
32036-0-4	서-(立)[ㅅ]-으니까	32036-0-4	스니께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32036-0-5	서서
32037-0-1	기-(匍腹)[ㅣ]-지	32037-0-1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32037-0-2	기구
32037-0-3	기-(匍腹)[ㅣ]-더라	32037-0-3	기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32037-0-4	기니께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32037-0-5	겨간다
32038-0-1	이-(戴)[ㅣ]-지	32038-0-1	이지
32038-0-2	이-(戴)[ㅣ]-고	32038-0-2	이구
32038-0-3	이-(戴)[ㅣ]-더라	32038-0-3	이더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32038-0-4	이니께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32038-0-5	여날르니께
32039-0-1	아니-(否)[ㅣ]-지	32039-0-1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ㅣ]-고	32039-0-2	아니구
32039-0-3	아니-(否)[ㅣ]-더라	32039-0-3	아니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32039-0-4	아니니께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32039-0-5	아녀썸
32040-0-1	되-(升)[ㅍ]-지	32040-0-1	되지
32040-0-2	되-(升)[ㅍ]-고	32040-0-2	되:구
32040-0-3	되-(升)[ㅍ]-더라	32040-0-3	되더라
32040-0-4	되-(升)[ㅍ]-으니까	32040-0-4	되니께
32040-0-5	되-(升)[ㅍ]-아/어(왔/었다)	32040-0-5	되:떠니

32041-0-1	있-(有)[ㅅ]-지	32041-0-1	이찌
32041-0-2	있-(有)[ㅅ]-고	32041-0-2	이꾸
32041-0-3	있-(有)[ㅅ]-더라	32041-0-3	이떠라
32041-0-4	있-(有)[ㅅ]-으니까	32041-0-4	이쓰니까
32041-0-5	있-(有)[ㅅ]-아/어(있/었다)	32041-0-5	이써서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노치
32042-0-2	놓-(放)[ㅎ]-고	32042-0-2	노쿠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3	놀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노니까
32042-0-5	놓-(放)[ㅎ]-아/어(있/었다)	32042-0-5	잘라뒤써
32043-0-1	훔-(擄)[ㅈ]-지	32043-0-1	훔찌말라구
32043-0-2	훔-(擄)[ㅈ]-고	32043-0-2	훔꾸
32043-0-3	훔-(擄)[ㅈ]-더라	32043-0-3	훔떠라
32043-0-4	훔-(擄)[ㅈ]-으니까	32043-0-4	훔트니까
32043-0-5	훔-(擄)[ㅈ]-아/어(있/었다)	32043-0-5	훔터서
32044-0-1	곰:-(麗)[ㄷ 변]-지	32044-0-1	곰찌안케
32044-0-2	곰:-(麗)[ㄷ 변]-고	32044-0-2	고:꾸
32044-0-3	곰:-(麗)[ㄷ 변]-더라	32044-0-3	곰:떠라
32044-0-4	곰:-(麗)[ㄷ 변]-으니까	32044-0-4	고우니까
32044-0-5	곰:-(麗)[ㄷ 변]-아/어(있/었다)	32044-0-5	고와서
32045-0-1	쥐:-(握)[ㄱ]-지	32045-0-1	쥐:지
32045-0-2	쥐:-(握)[ㄱ]-고	32045-0-2	쥐구
32045-0-3	쥐:-(握)[ㄱ]-더라	32045-0-3	*
32045-0-4	쥐:-(握)[ㄱ]-으니까	32045-0-4	쥐:니까
32045-0-5	쥐:-(握)[ㄱ]-아/어(있/었다)	32045-0-5	꼭쥘어서
32046-0-1	가-(去)[ㄱ]-지	32046-0-1	가지
32046-0-2	가-(去)[ㄱ]-고	32046-0-2	가구
32046-0-3	가-(去)[ㄱ]-더라	32046-0-3	가더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32046-0-4	가니까
32046-0-5	가-(去)[ㄱ]-아/어(있/었다)	32046-0-5	가따와짜너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32047-0-1	먹찌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47-0-2	머거서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32048-0-1	뜨꾸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48-0-2	뜨드니께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32049-0-1	가꾸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49-0-2	또까터서
32050-0-1	얹-(淺)-지, -고, -더라	32050-0-1	야꾸
32050-0-2	얹-(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0-0-2	야:터서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32051-0-1	흐꾸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1-0-2	흐터난:네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32052-0-1	나르지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2-0-2	잘랄러서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32053-0-1	울:지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3-0-2	우러씨
32054-0-1	일:-(洶)-지, -고, -더라	32054-0-1	일구
32054-0-2	일:-(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4-0-2	이러서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32055-0-1	얼:더라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5-0-2	어러서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32056-0-1	넘:떠라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6-0-2	너머서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32057-0-1	숨:찌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7-0-2	수머이씨서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32058-0-1	쉬:꾸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8-0-2	쉬:워서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32059-0-1	눅찌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9-0-2	누워이떠라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32060-0-1	기꾸이떠라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0-0-2	겨:서
32061-0-1	밍:-(憎)-지, -고, -더라	32061-0-1	밍:찌앙케
32061-0-2	밍:-(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1-0-2	미워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32062-0-1	노꾸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2-0-2	노퍼서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32063-0-1	지:꾸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3-0-2	지어떠라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32064-0-1	부:꾸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4-0-2	뵈:서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32065-0-1	우꾸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5-0-2	우서떠니
32066-0-1	짓:-(吠)-지, -고, -더라	32066-0-1	지:꾸
32066-0-2	짓:-(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6-0-2	지서서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32067-0-1	폼찌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7-0-2	꼬즈니께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32068-0-1	나쿠이따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8-0-2	나:니께
32069-0-1	땅:-(辯)-지, -고, -더라	32069-0-1	따치
32069-0-2	땅:-(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9-0-2	따:가주구
32070-0-1	끊:-(切)-지, -고, -더라	32070-0-1	끈꾸
32070-0-2	끊:-(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0-0-2	끈넌다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32071-0-1	괜찬쿠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1-0-2	괜차너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32072-0-1	이꾸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2-0-2	일그니께
32073-0-1	땀:-(澁)-지, -고, -더라	32073-0-1	땀:꾸
32073-0-2	땀:-(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3-0-2	땀:버서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32074-0-1	올르구, 옮:꼬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4-0-2	올러서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32075-0-1	뜨꾸, 뜰루구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5-0-2	뜰러서
32076-0-1	꿨-(跪)-지, -고, -더라	32076-0-1	꿨꾸
32076-0-2	꿨-(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6-0-2	꾸러따
32077-0-1	닿-(扞, 연필심이)-지, -고, -더라	32077-0-1	달꾸
32077-0-2	닿-(扞, 연필심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7-0-2	다러서
32078-0-1	닿:-(煎, 솥에서장이)-지, -고, -더라	32078-0-1	달꾸
32078-0-2	닿:-(煎, 솥에서장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8-0-2	다러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32079-0-1	짜구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9-0-2	짜서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32080-0-1	말구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0-0-2	마러서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32081-0-1	쓰구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1-0-2	써서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32082-0-1	올러가구, 올러가구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2-0-2	올라가서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32083-0-1 바쁘구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3-0-2 바빠서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32084-0-1 고프구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4-0-2 고파서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32085-0-1 쏘:구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5-0-2 쏘:따구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32086-0-1 꾸:구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6-0-2 꿔:따구, 꿔:저서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32087-0-1 머물구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7-0-2 머물구이썬서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32088-0-1 다듬꾸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8-0-2 다드머서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32089-0-1 견디구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9-0-2 견디내더라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32090-0-1 말르라구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0-0-2 말러썬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32091-0-1 끼구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1-0-2 썬서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32092-0-1 마시구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2-0-2 마셔서
32093-0-1	세:-(强)-지, -고, -더라	32093-0-1 세구
32093-0-2	세:-(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3-0-2 세:서, 셔서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32094-0-1 포개구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4-0-2 포개서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32095-0-1	뚜드리구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5-0-2	뚜드려서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32096-0-1	키구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6-0-2	켜:따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32097-0-1	쏘이구
32097-0-2	썰:-(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7-0-2	쏘여서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32098-0-1	쇠:구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8-0-2	쇠:서, 쇠:썩
32099-0-1	쉬:-(饅)-지, -고, -더라	32099-0-1	쉬:구
32099-0-2	쉬:-(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9-0-2	쉬:어서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32100-0-1	히구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0-0-2	혀서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32101-0-1	보꾸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1-0-2	보까라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32102-0-1	끼안꾸, 안꾸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2-0-2	아너서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32103-0-1	무꾸, 묻꾸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3-0-2	무더서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32104-0-1	불구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4-0-2	부러서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32105-0-1	빨구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5-0-2	빠러따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32106-0-1	죽꾸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6-0-2	주거서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32107-0-1	거꾸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7-0-2	거러서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32108-0-1	가물구, 가물구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8-0-2	가무러서
32109-0-1	줄:-(睡)-지, -고, -더라	32109-0-1	줄:꾸
32109-0-2	줄:-(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9-0-2	조라서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32110-0-1	썰구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0-0-2	썩러서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32111-0-1	강:꾸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1-0-2	가머서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32112-0-1	더등꾸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2-0-2	더드머서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32113-0-1	꾸꾸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3-0-2	꾸어서, 꺾:서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32114-0-1	무거꾸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4-0-2	무거워서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32115-0-1	이꾸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5-0-2	이서라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32116-0-1	비꾸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6-0-2	비서서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32117-0-1	까마꾸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7-0-2	까:매서, 꺾머서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32118-0-1	느꾸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8-0-2	너:서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32119-0-1 꼬꾸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9-0-2 파가주구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32120-0-1 언:꾸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0-0-2 언저서
32121-0-1	귀찮-(囁)-지, -고, -더라	32121-0-1 귀창케
32121-0-2	귀찮-(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1-0-2 귀차너서
32122-0-1	바르-(剔, 생선뼈를)-지, -고, -더라	32122-0-1 발르구
32122-0-2	바르-(剔, 생선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2-0-2 발러서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32123-0-1 막꾸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3-0-2 말거서
32124-0-1	끓:-(膿)-지, -고, -더라	32124-0-1 끓:꾸
32124-0-2	끓:-(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4-0-2 끓마서
32125-0-1	끓:-(太)-지, -고, -더라	32125-0-1 구:꾸
32125-0-2	끓:-(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5-0-2 끓:거서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32126-0-1 으ㄴ:항거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6-0-2 으ㄴ:해서
32127-0-1	쑤-(春)-지, -고, -더라	32127-0-1 썰꾸
32127-0-2	쑤-(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7-0-2 썰런다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32128-0-1 일꾸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8-0-2 이러따
32129-0-1	훅-(舐)-지, -고, -더라	32129-0-1 할꾸
32129-0-2	훅-(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9-0-2 할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32130-0-1 찢꾸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0-0-2 찢러서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32131-0-1 놀래구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1-0-2 놀래서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32132-0-1 자구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2-0-2 자야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32133-0-1 모타구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3-0-2 모태서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32134-0-1 모르구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4-0-2 몰:라서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32135-0-1 아프구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5-0-2 아퍼서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32136-0-1 크구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6-0-2 커서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32137-0-1 꼬꾸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7-0-2 째:서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32138-0-1 쭈구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8-0-2 쭈:서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32139-0-1 맞추구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9-0-2 마춰라
32140-0-1	테우-(梧)-지, -고, -더라	32140-0-1 테우구
32140-0-2	테우-(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0-0-2 테워서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32141-0-1 이:구, 해이구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1-0-2 해여서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32142-0-1 갈기구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2-0-2 갈겨따, 갈려서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32143-0-1 기다리구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3-0-2 기다려서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32144-0-1 세:구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4-0-2 세:서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32145-0-1 빼:구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5-0-2 빼서
32146-0-1	켜-(搥을)-지, -고, -더라	32146-0-1 키구
32146-0-2	켜-(搥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6-0-2 켜서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32147-0-1 되:구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7-0-2 되:어서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32148-0-1 쉬:구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8-0-2 쉬어서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32149-0-1 허비구, 헐키구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9-0-2 허벼서, 헐켜서
32150-0-1	눈:-(爇)-지, -고, -더라	32150-0-1 누께하구
32150-0-2	눈:-(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0-0-2 누러서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32151-0-1 깨다꾸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1-0-2 깨다러서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32152-0-1 매러꾸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2-0-2 매루워서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32153-0-1 남부끄럽찌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3-0-2 부끄루워서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32154-0-1 가까꾸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4-0-2 가까워서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32155-0-1 기꾸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5-0-2 기퍼서
32156-0-1	긔-(劃)-지, -고, -더라	32156-0-1 그꾸, 기꾸
32156-0-2	긔-(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6-0-2 거:라, 거노니께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32157-0-1 씨꾸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7-0-2 씨스라
32158-0-1	쪼-(搗)-지, -고, -더라	32158-0-1 찌꾸
32158-0-2	쪼-(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8-0-2 찌어따
32159-0-1	깎-(擻)-지, -고, -더라	32159-0-1 꼬꾸
32159-0-2	깎-(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9-0-2 끌거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32160-0-1 궁:꾸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0-0-2 굴머따
32161-0-1	닢-(似)-지, -고, -더라	32161-0-1 당:께
32161-0-2	닢-(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1-0-2 달머서, 달머씨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32162-0-1 실꾸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2-0-2 시러서
3216-0-1	끓-(𪗇)-지, -고, -더라	32163-0-1 골꾸
3216-0-2	끓-(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3-0-2 고라서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32164-0-1 부꾸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4-0-2 뷔라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32165-0-1 타꾸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5-0-2 탄는데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32166-0-1 말르꾸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6-0-2 말러서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32167-0-1 쓰구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7-0-2 써서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32168-0-1 슬프지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8-0-2 슬퍼서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32169-0-1 기뿌구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9-0-2 기뻐서
32170-0-1	쏘-(蜚, 벌이)-지, -고, -더라	32170-0-1 쏘:구
32170-0-2	쏘-(蜚, 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0-0-2 쏘:서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32171-0-1 주구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1-0-2 줘:서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32172-0-1 키우구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2-0-2 키워서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32173-0-1 가두구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3-0-2 가둬라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32174-0-1 뿌시구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4-0-2 뿌서라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32175-0-1 나누구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5-0-2 나눠서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32176-0-1 소기구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6-0-2 소겨두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32177-0-1 끼:구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7-0-2 끼는대두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32178-0-1 티지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8-0-2 터나가서, 튀어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32179-0-1 고이구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9-0-2 고여라
32180-0-1	여위-(羶)-지, -고, -더라	32180-0-1 여우지
32180-0-2	여위-(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0-0-2 여여씨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32181-0-1 매희꾸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1-0-2 매희서
32182-0-1	뀌:-(屍)-지, -고, -더라	32182-0-1 꺾구
32182-0-2	뀌:-(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2-0-2 꺾썬, 꺾어썬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32183-0-1 고치구, 곧치구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3-0-2 고쳐떠라, 곧쳐떠
32184-0-1	실:-(載)-지, -고, -더라	32184-0-1 *
32184-0-2	실:-(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4-0-2 *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32185-0-1 어더오구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5-0-2 으:더오더라
32186-0-1	뽕-(粉碎)-지, -고, -더라	32186-0-1 빠구, 빠쿠
32186-0-2	뽕-(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6-0-2 빠:서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32187-0-1 새 파라쿠, 파라쿠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7-0-2 시퍼래서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32188-0-1 다르구, 틀리구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8-0-2 달러서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32189-0-1 푸구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9-0-2 퍼서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32190-0-1 누쿠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0-0-2 뉘쓰닝께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32191-0-1 드:러꾸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1-0-2 드:러워서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32192-0-1 거두구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2-0-2 거더디려서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32193-0-1 끓꾸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3-0-2 끄러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32194-0-1 이기구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4-0-2 이겨서, 이겨써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32195-0-1 부시구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5-0-2 부셔서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32196-0-1 자빠지구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6-0-2 자빠져서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32197-0-1 이러꾸구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7-0-2 이러꿔서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32198-0-1 당기구, 땡기구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8-0-2 땡겨서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32199-0-1 버리구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9-0-2 버려라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32200-0-1 훔쳐오구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0-0-2 훔쳐와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32201-0-1 지구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1-0-2 저떠니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32202-0-1 외우구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2-0-2 외워라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32203-0-1 사:귀구, 새기구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3-0-2 새겨라
32204-0-1	썩-(腐)-지, -고, -더라	32204-0-1 썩꾸
32204-0-2	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4-0-2 썩거서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32205-0-1 질게, 질구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5-0-2 지러서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32206-0-1 까부르구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6-0-2 까블러서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32207-0-1 드물구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7-0-2 드무릉기어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32208-0-1 줄:구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8-0-2 주러부터서, 주러서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32209-0-1 심:꾸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9-0-2 시머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32210-0-1 쓰다듬꾸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0-0-2 쓰다드머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32211-0-1 사납찌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1-0-2 사나워서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32212-0-1 개버꾸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2-0-2 개부워서
32213-0-1	젓:-(撈)-지, -고, -더라	32213-0-1 젓:꾸
32213-0-2	젓:-(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3-0-2 저서라, 저어라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32214-0-1 뚜꺼꾸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4-0-2 뚜꺼워서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32215-0-1 물르게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5-0-2 물러서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32216-0-1 뿐질구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6-0-2 뿐지러서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32217-0-1 배우구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7-0-2 배워와서
32218-0-1	다리-(撻)-지, -고, -더라	32218-0-1 다리구
32218-0-2	다리-(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8-0-2 다려서
32219-0-1	후비-(沓, 귀를)-지, -고, -더라	32219-0-1 휘비구
32219-0-2	후비-(沓,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9-0-2 후벼서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32220-0-1 아리구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0-0-2 아리여
32221-0-1	그리-(畵)-지, -고, -더라	32221-0-1 그리구
32221-0-2	그리-(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1-0-2 그려서
32222-0-1	저리-(癰)-지, -고, -더라	32222-0-1 저리구
32222-0-2	저리-(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2-0-2 저려서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32223-0-1 불구구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3-0-2 불귀라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32224-0-1 뜨시구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4-0-2 뜨셔서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32225-0-1 끓리구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5-0-2 끓려라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32226-0-1 누비구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6-0-2 누벼서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32227-0-1 꾸기구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7-0-2 꾸겨서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32228-0-1 비구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8-0-2 벼:서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32229-0-1 시쿠구, 시쿠라구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9-0-2 시꿔서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32230-0-1 매:구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0-0-2 매:야지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32231-0-1 쫌:매구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1-0-2 쫌:매서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32232-0-1 떠구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2-0-2 떼: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32233-0-1 당:꾸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3-0-2 다머서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32234-0-1 가려꾸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4-0-2 가려워서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32235-0-1 때리구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5-0-2 때려서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32236-0-1 어두꾸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6-0-2 어두워서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32237-0-1 작꾸, 쥐:구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7-0-2 자버서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32238-0-1 차구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8-0-2 차서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32239-0-1 모:지라구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9-0-2 모:지래서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32240-0-1 부르구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0-0-2 불러서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32241-0-1 따루구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1-0-2 따러서
32242-0-1	쪼:- (啄)-지, -고, -더라	32242-0-1 쪼:구
32242-0-2	쪼:- (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2-0-2 쪼:서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32243-0-1 두구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3-0-2 뒤:서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32244-0-1 시키구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4-0-2 시켜떠니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32245-0-1 지리구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5-0-2 지려서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32246-0-1 던지구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6-0-2 던져서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32247-0-1 모이구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7-0-2 모여드러서
32248-0-1	만지-(搯)-지, -고, -더라	32248-0-1 만지구
32248-0-2	만지-(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8-0-2 만져서
32249-0-1	쪼:- (曬)-지, -고, -더라	32249-0-1 쪼이구
32249-0-2	쪼:- (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9-0-2 쪼여떠니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32250-0-1 비틀구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0-0-2 비트러서

32251-0-1	돕:- (助)-지, -고, -더라	32251-0-1 도와주구
32251-0-2	돕:- (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1-0-2 도와줘따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32252-0-1 씹:꾸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2-0-2 씹버서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32253-0-1 미끄러꾸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3-0-2 미끄러워서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32254-0-1 다:찌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4-0-2 다:서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32255-0-1 누루구, 눌루구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5-0-2 눌러서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32256-0-1 주물르구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6-0-2 주물러서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32257-0-1 메우구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7-0-2 메워따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32258-0-1 꼬수꾸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8-0-2 꼬수워서, 꼬수해서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32259-0-1 나리구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9-0-2 내려서, 내려서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32260-0-1 굴르구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0-0-2 굴러오구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32261-0-1 맨들구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1-0-2 맨드러서
32262-0-1	늪-(老)-지, -고, -더라	32262-0-1 늑꾸
32262-0-2	늪-(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2-0-2 늑거서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32263-0-1 알쿠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3-0-2 알려서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32264-0-1 따루구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4-0-2 따러서, 따뤄서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32265-0-1 사구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5-0-2 사서, 파러와야지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32266-0-1 치우구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6-0-2 치워라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32267-0-1 뿌러지구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7-0-2 뿌러져서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32268-0-1 다치구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8-0-2 다쳐서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32269-0-1 느리지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9-0-2 느려서
32270-0-1	무치-(和,나물을)-지, -고, -더라	32270-0-1 무치구
32270-0-2	무치-(和,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0-0-2 무쳐서
32271-0-1	죄:- (締)-지, -고, -더라	32271-0-1 조이구
32271-0-2	죄:- (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1-0-2 조여서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32272-0-1 내:구, 팔구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2-0-2 내:서, 파러라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32273-0-1 뽑꾸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3-0-2 뽑바두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32274-0-1 두지구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4-0-2 두져서래두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32275-0-1 맞추구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5-0-2 마춰서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32276-0-1 저리구, 절구구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6-0-2 저려서, 절꿔떠니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32277-0-1 휘구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7-0-2 휘어서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32278-0-1 주꾸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8-0-2 주서서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32279-0-1 빼꾸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9-0-2 빼서서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32280-0-1 기우리구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0-0-2 기우려라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32281-0-1 아깝따구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1-0-2 아까워서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32282-0-1 방가꾸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2-0-2 방가워서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32283-0-1 찌구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3-0-2 찌썩두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32284-0-1 노:라꾸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4-0-2 노:래서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32285-0-1 시퍼러꾸, 푸루구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5-0-2 시퍼래서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32286-0-1 서들르구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6-0-2 서들러서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32287-0-1 서툴구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7-0-2 서투러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32288-0-1 게우루구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8-0-2 게우러서, 게올러서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32289-0-1 따뜨:타구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9-0-2 따뜨태서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32290-0-1 चु꾸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0-0-2 चु워서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32291-0-1 뜨거꾸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1-0-2 뜨거워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32292-0-1 미지근:하구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2-0-2 미지근:해서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32293-0-1 차구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3-0-2 차구워서, 차서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32294-0-1 부러꾸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4-0-2 부러워서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32295-0-1 알밋찌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5-0-2 알미워서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32296-0-1 비스타구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6-0-2 비스타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32297-0-1 *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7-0-2 새로워지구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32298-0-1 서:러꾸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8-0-2 서:러워서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32299-0-1 까다럽찌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9-0-2 까다러워서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32300-0-1 외로꾸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0-0-2 외로워서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32301-0-1 아쉽찌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1-0-2 아서워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32302-0-1 단단하구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2-0-2 단단해서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32303-0-1 늦꾸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3-0-2 느저서
32304-0-1	남:- (餘)-지, -고, -더라	32304-0-1 남:찌
32304-0-2	남:- (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4-0-2 나머서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32305-0-1 남구지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5-0-2 남귀서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32306-0-1 너머티리지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6-0-2 너머티려서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32307-0-1 찌부러티리구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7-0-2 찌부러티려서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32308-0-1 겨누구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8-0-2 견줘바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32309-0-1 외우구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9-0-2 외운다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32310-0-1 문대구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0-0-2 문대서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32311-0-1 가르치지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1-0-2 가르쳐두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32312-0-1 가르치구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2-0-2 가르쳐서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32313-0-1 겨누구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3-0-2 겨눠서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32314-0-1 겨루구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4-0-2 겨러보자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32315-0-1 달래구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5-0-2 달래야지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32316-0-1 *
32316-0-2	본받-(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6-0-2 본바더바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32317-0-1 *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7-0-2 어질러파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32318-0-1 달리구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8-0-2 달려간다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32319-0-1 *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9-0-2 우겨대:구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32320-0-1 중얼거리지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0-0-2 중얼거려서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32321-0-1 지꺼리구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1-0-2 지끄러떠니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32322-0-1 땡기구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2-0-2 땡겨서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32323-0-1	떠러푸리지, 떠러뜨 리지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3-0-2	떠러푸려서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32324-0-1	깨:지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4-0-2	깨:서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32325-0-1	시:지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5-0-2	시:어서
32326-0-1	쏟-(湧)-지, -고, -더라	32326-0-1	소쩌
32326-0-2	쏟-(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6-0-2	소사서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32327-0-1	조:쿠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7-0-2	조:아서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32328-0-1	빨가쿠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8-0-2	빨:개서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32329-0-1	끌:구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9-0-2	끄러서
32330-0-1	얇:-(薄)-지, -고, -더라	32330-0-1	*
32330-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30-0-2	*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32331-0-1	하야쿠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31-0-2	하:어서, 혀서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구기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구걸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구게서
32332-0-4	국(羹)-으로	32332-0-4	구그루
32332-0-5	국(羹)-도	32332-0-5	국뚜

32333-0-1 논(畓)-이/가
 32333-0-2 논(畓)-을/를
 32333-0-3 논(畓)-에(서)
 32333-0-4 논(畓)-으로
 32333-0-5 논(畓)-도

32333-0-1 노니
 32333-0-2 노닐
 32333-0-3 노네서
 32333-0-4 노네루
 32333-0-5 논두

32334-0-1 쌀(米)-이/가
 32334-0-2 쌀(米)-을/를
 32334-0-3 쌀(米)-에(서)
 32334-0-4 쌀(米)-으로
 32334-0-5 쌀(米)-도

32334-0-1 싸리
 32334-0-2 싸럴
 32334-0-3 싸레서
 32334-0-4 쌀(로)/루
 32334-0-5 쌀두

32335-0-1 봄(春)-이/가
 32335-0-2 봄(春)-을/를
 32335-0-3 봄(春)-에(서)
 32335-0-4 봄(春)-으로
 32335-0-5 봄(春)-도

32335-0-1 보미
 32335-0-2 보멸
 32335-0-3 보메
 32335-0-4 *
 32335-0-5 봄두

32336-0-1 집(家)-이/가
 32336-0-2 집(家)-을/를
 32336-0-3 집(家)-에(서)
 32336-0-4 집(家)-으로
 32336-0-5 집(家)-도

32336-0-1 지비
 32336-0-2 지벌
 32336-0-3 지베서
 32336-0-4 지브루
 32336-0-5 집두

32337-0-1 옷(衣)-이/가
 32337-0-2 옷(衣)-을/를
 32337-0-3 옷(衣)-에(서)
 32337-0-4 옷(衣)-으로
 32337-0-5 옷(衣)-도

32337-0-1 오시라구
 32337-0-2 오설, 입쌍얼
 32337-0-3 오세서, 입쌍에서
 32337-0-4 오스루, 입쌍으루
 32337-0-5 온뚜, 입쌍두

32338-0-1 망(房)-이/가
 32338-0-2 망(房)-을/를
 32338-0-3 망(房)-에(서)
 32338-0-4 망(房)-으로
 32338-0-5 망(房)-도

32338-0-1 망이
 32338-0-2 망얼
 32338-0-3 망에서
 32338-0-4 망으루
 32338-0-5 망두

32339-0-1	낮(晝)-이/가	32339-0-1	나지, 나지나
32339-0-2	낮(晝)-을/를	32339-0-2	*
32339-0-3	낮(晝)-에(서)	32339-0-3	나제
32339-0-4	낮(晝)-으로	32339-0-4	*
32339-0-5	낮(晝)-도	32339-0-5	나제두, 날두
32340-0-1	낮(顔)-이/가	32340-0-1	나시라구
32340-0-2	낮(顔)-을/를	32340-0-2	나설
32340-0-3	낮(顔)-에(서)	32340-0-3	*
32340-0-4	낮(顔)-으로	32340-0-4	*
32340-0-5	낮(顔)-도	32340-0-5	나뚜
32341-0-1	부억(廚)-이/가	32341-0-1	부어기
32341-0-2	부억(廚)-을/를	32341-0-2	부어걸
32341-0-3	부억(廚)-에(서)	32341-0-3	부어켜서
32341-0-4	부억(廚)-으로	32341-0-4	부어크루
32341-0-5	부억(廚)-도	32341-0-5	부억뚜
32342-0-1	밭(田)-이/가	32342-0-1	바시
32342-0-2	밭(田)-을/를	32342-0-2	바설
32342-0-3	밭(田)-에(서)	32342-0-3	바테서
32342-0-4	밭(田)-으로	32342-0-4	바테루
32342-0-5	밭(田)-도	32342-0-5	바뚜
32343-0-1	앞(前)-이/가	32343-0-1	아피
32343-0-2	앞(前)-을/를	32343-0-2	아펼
32343-0-3	앞(前)-에(서)	32343-0-3	아페서
32343-0-4	앞(前)-으로	32343-0-4	아프루
32343-0-5	앞(前)-도	32343-0-5	압뚜
32344-0-1	넋(魂)-이/가	32344-0-1	너기
32344-0-2	넋(魂)-을/를	32344-0-2	너걸
32344-0-3	넋(魂)-에(서)	32344-0-3	*
32344-0-4	넋(魂)-으로	32344-0-4	*
32344-0-5	넋(魂)-도	32344-0-5	*

32345-0-1 흙(土)-이/가

32345-0-2 흙(土)-을/를

32345-0-3 흙(土)-에(서)

32345-0-4 흙(土)-으로

32345-0-5 흙(土)-도

32345-0-1 호기

32345-0-2 호걸

32345-0-3 호게서

32345-0-4 호기루

32345-0-5 흑뚜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5 여덟(八)-도

32346-0-1 여더리

32346-0-2 여더럴

32346-0-3 여더레서

32346-0-4 여덜루

32346-0-5 여덜두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5 돌(週歲)-도

32347-0-1 도리

32347-0-2 도럴

32347-0-3 *

32347-0-4 *

32347-0-5 *

32348-0-1 값(價)-이/가

32348-0-2 값(價)-을/를

32348-0-3 값(價)-에(서)

32348-0-4 값(價)-으로

32348-0-5 값(價)-도

32348-0-1 가비

32348-0-2 갑썰, 갑쓸

32348-0-3 갑썰서

32348-0-4 가브루

32348-0-5 쌀갑뚜

32349-0-1 속:(內)-이/가

32349-0-2 속:(內)-을/를

32349-0-3 속:(內)-에(서)

32349-0-4 속:(內)-으로

32349-0-5 속:(內)-도

32349-0-1 소:기

32349-0-2 소:걸

32349-0-3 소:게서

32349-0-4 소:그루

32349-0-5 속:뚜

32350-0-1 돈:(錢)-이/가

32350-0-2 돈:(錢)-을/를

32350-0-3 돈:(錢)-에(서)

32350-0-4 돈:(錢)-으로

32350-0-5 돈:(錢)-도

32350-0-1 도:니

32350-0-2 도:널

32350-0-3 도:네서

32350-0-4 도:니루

32350-0-5 돈:두

32351-0-1 발(足)-이/가
 32351-0-2 발(足)-을/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4 발(足)-으로
 32351-0-5 발(足)-도

32351-0-1 바리
 32351-0-2 바릴
 32351-0-3 바레서
 32351-0-4 발루
 32351-0-5 발두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5 짐(荷物)-도

32352-0-1 지미
 32352-0-2 지(멸)/지물
 32352-0-3 지메서
 32352-0-4 지르루
 32352-0-5 짐두

32353-0-1 입(口)-이/가
 32353-0-2 입(口)-을/를
 32353-0-3 입(口)-에(서)
 32353-0-4 입(口)-으로
 32353-0-5 입(口)-도

32353-0-1 이비
 32353-0-2 이벌
 32353-0-3 이베서
 32353-0-4 이루, 이브루
 32353-0-5 입뚜

32354-0-1 낫(鎌)-이/가
 32354-0-2 낫(鎌)-을/를
 32354-0-3 낫(鎌)-에(서)
 32354-0-4 낫(鎌)-으로
 32354-0-5 낫(鎌)-도

32354-0-1 나시
 32354-0-2 나설
 32354-0-3 *
 32354-0-4 나시루
 32354-0-5 나뚜

32355-0-1 강(江)-이/가
 32355-0-2 강(江)-을/를
 32355-0-3 강(江)-에(서)
 32355-0-4 강(江)-으로
 32355-0-5 강(江)-도

32355-0-1 강이
 32355-0-2 강얼
 32355-0-3 강에서
 32355-0-4 강에루
 32355-0-5 강두

32356-0-1 젓(乳)-이/가
 32356-0-2 젓(乳)-을/를
 32356-0-3 젓(乳)-에(서)
 32356-0-4 젓(乳)-으로
 32356-0-5 젓(乳)-도

32356-0-1 저시
 32356-0-2 저설
 32356-0-3 저세서
 32356-0-4 저시루
 32356-0-5 절뚜

32357-0-1 꽃(花)-이/가
 32357-0-2 꽃(花)-을/를
 32357-0-3 꽃(花)-에(서)
 32357-0-4 꽃(花)-으로
 32357-0-5 꽃(花)-도

32357-0-1 꼬시
 32357-0-2 꼬설
 32357-0-3 꼬세서
 32357-0-4 꼬시루
 32357-0-5 꼬뚜

32358-0-1 팔(赤豆)-이/가
 32358-0-2 팔(赤豆)-을/를
 32358-0-3 팔(赤豆)-에(서)
 32358-0-4 팔(赤豆)-으로
 32358-0-5 팔(赤豆)-도

32358-0-1 파시
 32358-0-2 파설
 32358-0-3 파세서
 32358-0-4 파시루
 32358-0-5 파뚜

32359-0-1 옆(側)-이/가
 32359-0-2 옆(側)-을/를
 32359-0-3 옆(側)-에(서)
 32359-0-4 옆(側)-으로
 32359-0-5 옆(側)-도

32359-0-1 여피
 32359-0-2 여펼
 32359-0-3 여페서
 32359-0-4 여페루
 32359-0-5 엽뚜

32360-0-1 샅(賃金)-이/가
 32360-0-2 샅(賃金)-을/를
 32360-0-3 샅(賃金)-에(서)
 32360-0-4 샅(賃金)-으로
 32360-0-5 샅(賃金)-도

32360-0-1 풍갑씨
 32360-0-2 풍갑썰
 32360-0-3 *
 32360-0-4 그갑쓰루
 32360-0-5 *

32361-0-1 닭(鷄)-이/가
 32361-0-2 닭(鷄)-을/를
 32361-0-3 닭(鷄)-에(서)
 32361-0-4 닭(鷄)-으로
 32361-0-5 닭(鷄)-도

32361-0-1 다기
 32361-0-2 다걸
 32361-0-3 *
 32361-0-4 다그루
 32361-0-5 *

32362-0-1 막(外)-이/가
 32362-0-2 막(外)-을/를
 32362-0-3 막(外)-에(서)
 32362-0-4 막(外)-으로
 32362-0-5 막(外)-도

32362-0-1 바까치
 32362-0-2 바까철
 32362-0-3 바까테서
 32362-0-4 바까테루
 32362-0-5 바까뚜



제4편 문 법

4.1. 대명사

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1 내가
40101-0-2 내	40101-0-2 내꺼라구
40101-0-3 나-를	40101-0-3 나럴
40101-0-4 나-에게	40101-0-4 나럴, 나한테
40101-0-5 나-와	40101-0-5 나하구
40101-0-6 나-는	40101-0-6 나넌
40101-0-7 나-도	40101-0-7 나두
40102 저/제-가	40102 저라고, 제가
40102-0-1 저-가	40102-0-1 제:가
40102-0-2 저-의	40102-0-2 제꺼
40102-0-3 저-을/를	40102-0-3 저럴
40102-0-4 저-에게	40102-0-4 저한테
40102-0-5 저-와/과	40102-0-5 저하구
40102-0-6 저-는	40102-0-6 저넌
40102-0-7 저-도	40102-0-7 저도
40103 우리	40103 우리 아버지
40104 저희	40104 저이 부친, 저이 아버지
40105 너	40105 너
40105-0-1 -가	40105-0-1 니:가
40105-0-2 -의	40105-0-2 네:
40105-0-3 -을/를	40105-0-3 너를
40105-0-4 -에게	40105-0-4 너한테
40105-0-5 -와/과	40105-0-5 너하구
40105-0-6 -는	40105-0-6 너는
40105-0-7 -도	40105-0-7 너두
40106 자네	40106 김서뱅이나 박서뱅이, 사위가, 자네가

40107 당신
40108 너희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40107 당신이, 자기가
40108 느:덜아버지, 느:아버지
40109 개:가
40109-0-1 애:가
40109-0-2 재:가
40110 저만, 제 말만
40111 하라부지 방에서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40112 누구여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꺼여, 누구해지?
40112-0-3 누구덜
40112-0-4 누구 줄꺼길래
40112-0-5 누구하구, 누구한테
40113 머냐, 머여, 머유:
40113-0-1 머가, 머냐?
40113-0-2 무슨 소리, 무슨 일
40113-0-3 머, 머덜, 머테
40113-0-4 머거치, 무어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40114 워:디
40115 메칠이지유, 어너때지유?, 언:제썸이지유
40116 어너지비, 어떤지비, 어뎡겔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머:덜하구 지내느냐구, 어티케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1 그것

40120 이거, 이건, 이게
40121 그거 머거, 그건 뭐:지

40122 저것
40123 여기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0122 저거 머거, 저건 뭐:여
40123 여기
40124 거기, 저기
40125 저기두 줌 파보구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2. 조사

1) 격조사

40201 -이/가
40202 -이/가
40203 -을/를
40204 -을/를
40205 -에 게/게
40206 -보고/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8 -에
40209 -에
40210 -에서
40211 -에서
40212 -에서
40213 -으로
40214 -으로
40215 -으로
40216 -으로
40217 -와/과
40218 -와/과
40219. -보다
40220 -처럼
40221 -만큼

40201 가져기 비싸네, 갑씨
40202 코가
40203 귀털, 코똥알, 콘나털
40204 무털
40205 느 오빠, 사람한테, 저사람
40206 나한테, 누구한테
40207 누구한테
40208 지배
40209 나중에
40210 큰지배서 지낸다
40211 서울서, 청주서
40212 여기서
40213 찹쌀루
40214 지브루 짜능거 아니여
40215 새끼루
40216 어디, 어디루
40217 차:미수:박, 수바카구 차:미(조사자 제시)
40218 나하구
40219 정보다
40220 대:지거치
40221 너만치

40222 -만큼
 40223 -아/야
 40224 -아/야
 40225 -아/야
 40226 -아/야
 40226-1 -예
 40227 -아/야
 40227-1 -요
 40228 -이랑
 40229 -커녕

40222 먹을 만치
 40223 봉나마
 40224 봉나미
 40225 영수, 영수야
 40226 누님, 누이(+신)
 40226-1 *
 40227 할아버지
 40227-1 *
 40228 수레 고기에
 40229 마:닐 커녕

2) 보조사

40230 -은/는
 40231 -만
 40232 -도
 40233 -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할라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30 수런
 40231 딸만
 40232 키두
 40233 날:마두
 40234 오늘부터
 40235 내일 까지, 내일 아네
 40236 너조차, 마실 물두, 마실물조차
 40236-1 비 올꺼 거튼데, 비가 올라구
 40237 도:넌, 도:니야
 40238 생각뚜, 그소릴랑
 40239 부자래두
 40240 너빼끼
 40241 싸가지구, 싸서

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40243 알았어-요
 40244 했지-요?

40242 오라구
 40243 아러써유
 40244 누가 해찌유?

4.3. 종결어미

1) 명령법

40301	-아라	40301	거기 안저라
40302	-게	40302	이리 줌 와서 안께, 자네 여와 줌 안저
40303	-으오	40303	안지세유
40304	-으십시오	40304	이리 오셔서 안지세유
40305	-세요	40305	장몬님 여와 안지세유

2) 청유법

40306	-자	40306	애, 가치가자
40307	-세	40307	자네 나하구 가치가
40308	-으오	40308	가치 가세유, 가치 가셔유
40309	-십시다	40309	저랑 가치 가세유, 가셔유
40310	-세요	40310	저하구 가치 가세유, 가셔유

3) 의문법

40311	-니	40311	아가 애, 비 안 오니?
40312	-나	40312	김서방 비 안 와?
40313	-오	40313	형님 한테 비 안 와유?
40314	-습니까	40314	장인으른, 비 안 와유?
40315	-나요	40315	장몬님, 한테 비 안 와유?
40316	-니	40316	애, 너 어디가니?
40317	-나	40317	자네 어디가?
40318	-시오	40318	형님, 어디 가셔유?
40319	-십니까	40319	장인으른 어디 가세유?
40320	-세요	40320	장몬님 어디 가세유?

4) 서술법

40321	-는다	40321	밥 잘 명는다, 밥 잘 명네
-------	-----	-------	-----------------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9 -으십니다
 40330 -으세요

40322 잘 머거
 40323 밥 잘 먹대유
 40324 바블 잘 먹대유
 40325 바벌 아주 잘 머거유
 40326 오시 작:따
 40327 그 오시 줌 자:그네
 40328 오시 줌 자:그네유
 40329 오시 장인으른한테 줌 자그네유
 40330 오시 줌 자그네유

5) 반말

40331 -아
 40332 -지

40331 어디 아퍼?
 40332 가야히야, 꼭 갈꺼여, 오늘은 꼭 갈꺼지

6) ‘이다’의 종결어미

40333 -이다
 40334 -이니
 40335 -이네
 40336 -인가
 40337 -이오
 40338 -이오
 40339 -입니다.
 40340 -입니다
 40341 -이시지요
 40342 -이시지요
 40343 -이냐?
 40344 -인가?
 40345 -이오?
 40346 -입니다?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어어요?

40333 내:리 네 생이리다, 생이리여
 40334 내:리 네 생이리냐?
 40335 자네 생일이여, 생일이자너, 생일일세
 40336 내:리 자네 생이리지?
 40337 내:리 형님 생일이유
 40338 형님 생신이지유?, 생이리지유?
 40339 내:리 장인으른 생신이유, 생신이지유,
 40340 생신이유?, 생신인가유?
 40341 장몬님 생신이유
 40342 생신이지유?
 40343 그게 뭐:냐?
 40344 자네 소네 들구 인녕게 뭐여?
 40345 소네 들구 인녕게 그게 뭐유?
 40346 소네 들구 계싱게 뭐:유?
 40347 소네 들구 계싱게 뭐:유?
 40348 그게 머:여?
 40349 그게 뭐:유?

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올라

40350 굉장히 마느네유

40351 서울 가니께 차가 굉장히 만테유

40352 잘: 멍는다, 잘:멍능구나

40353 잘 멍네, 잘 멍능구먼

40354 참 오램마닐쎄

40355 가꾸께, 갑께따, 갑쎄네

40356 가꾸께, 가품세

40357 다칠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5 -관테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40401 마별 먹꾸

40402 마별 머그며, 밥 머그면서

40403 추워서

40404 따뜨:타니께

40405 무슨 일:루

40406 오는데, 오다가, 지베 오다

40407 만내걸랑, 보걸랑

40408 먹떠라도, 먹떠래도, 쓰더래두

40409 머글라구

40410 빠빠지게, 새:두룩, 죽또룩

40411 이글쓰룩, 이썰쓰루

40412 물뜨덜타면

40413 보구

4.5. 주체 존대

40501 -셔

40502 -셨소

40501 오셔유, 와, 와유

40502 마:썌?, 시머썌요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1	운넌다
40602	기어간다	40602	겨:간다
40603	크다	40603	크네,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4	생이리여, 생이리지
40605	오고 있다	40605	오구이써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40606	먹꾸 와써?, 잡쭈꾸오써써?
40607	왔었다	40607	와썌는데
40608	먹더라	40608	먹떠라
40609	먹더냐	40609	먹때:?,
40610	만나는 친구	40610	가치 만내는 칭구라고
40611	만난 친구	40611	어제 만내똥 칭구, 어제 와똥 칭구
40612	만났던 친구	40612	만내똥 칭구덜
40613	만날 친구	40613	널 만낼 칭구여
40614	큰 아이	40614	키 크내한테
40615	크던 아이	40615	크더내
40616	켰던 아이	40616	커떠내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7	암피우게따
40618	비가 오겠다	40618	오건네, 올꺼거따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40701	아직 암머거써, 안시머써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40702	안조와:, 조털 아녀서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40703	앙깨끄탈 때, 앙깨끄티야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40704	앙가써: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40705	아직 암만내바써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706	먹찌두 아나구 크두 아나구
40706-1	먹도 않고	40706-1	먹뚜 아나구 잠만 자서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40707	모:타:, 몸:마서:
40708	맞잖소?/안 맞소?	40708	내마리 맞찌, 마저 안 마저?

4.8. 피동과 사동

1) 사동

40801	살리다	40801	살려따구
40802	늘리다	40802	늘려야건는데, 늘리구 이따
40803	말리다1	40803	말리구 이따
40804	말리다2	40804	말리구 이따
40805	얼리다	40805	얼려라
40806	녹이다	40806	노겨라
40807	신기다	40807	싱겨라
40808	보이다	40808	보이구 이따
40809	알리다	40809	알려줘
40810	입히다	40810	이퍼라
40811	얹히다	40811	안치구 이따
40812	벗기다	40812	버끼구 이따, 베껴줘
40813	웃기다	40813	우:끼구 이따
40814	쓱히다	40814	쓱쿠고 이따
40815	숨기다	40815	감춰둬 (보통 사람은 '숨기다'를 쓰고 물건은 '감추다'를 씀), 숨겨둬 (보통은 '숨기다'를 쓰고 물건은 '감추다'를 씀)
40816	끓기다	40816	궁기구 이따
40817	깨우다	40817	깨워라
40818	돈우다	40818	도:꿔, 도꾼다

2) 피동

40819	잡히다	40819	자퍼쓰니께
40820	깎이다	40820	까껴따
40821	끼이다	40821	찌어따, 찜겨따,
40822	떼이다	40822	떼:지, 떼:써, 띠어따
40823	채이다	40823	채여따, 채이지
40824	닫히다	40824	다쳐따, 다치지
40825	들리다	40825	들린다

40826 업히다
 40827 바뀌다
 40828 씹히다
 40829 엇히다
 40830 찍히다
 40831 놀리다
 40832 실리다
 40833 끓기다
 40834 굵히다

40826 에퍼따, 에퍼서
 40827 바끼지, 배껴따
 40828 씨퍼서, 씨핀다
 40829 언처서, 언치지
 40830 찌켜따, 찌키지
 40831 놀려서, 놀리지
 40832 실려간다, 실려서
 40833 끄너저따고, 끄켜따야
 40834 글키지(조사자 제시), 헐킹겨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싶다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40901 수버, 수부냐, 수부니
 40902 멍녕겨 거떠니 으—ㅇ 암멍네
 40903 이버 보세유
 40904 머거버런네, 주거버런네
 40905 우러대네(조사자 제시), 우러싼네,
 40906 비가 올라나배, 비가 올라나부다
 40907 다:덜 자나부다
 40908 시러웅가부다, 추웅가버, 추웅가부지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01 실컨
 41002 마:니
 41003 너머 (조사자 제시)
 41004 쪼끔만
 41005 자주
 41006 빨리, 일찍
 41007 얼렁
 41008 그이:여, 그이여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1	나:중예, 낭중예(+구), 양중예 (+구, 조사자 제시)
41012	가득	41012	가:뜩
41013	몽땅	41013	다:, 몽땅(조사자 제시)
41014	모조리	41014	다:, 몽땅, 몽탕, 점:부(의미 차이 없음), 제:, 췌:
41015	혼자	41015	혼자
41016	항상	41016	늘쌍, 항상 (의미 차이 없음)
41017	똑똑히	41017	똑떠기
41018	겨우	41018	겨우(조사자 제시)
41019	늘	41019	늘:(조사자 제시), 언제나(조사자 제시), 언제던지
41020	저절로	41020	제절루
41021	자꾸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41023	까딱카먼, 까딱캐쓰른
41024	함께	41024	가치, 함께 (조사자 제시)
41025	걸핏하면	41025	깼:뜨타먼, 투카먼
41026	공연히	41026	개:니, 공여니(조사자 제시), 께:니
41027	그냥	41027	그냥
41028	매우	41028	엄청
41029	곧장	41029	곧짱, 바루
41030	벌써	41030	그새, 발써(조사자 제시)
41031	가장	41031	젤:
41032	가만히	41032	가마니
41033	미리	41033	미리
41034	이따금	41034	가:끔, 이따:금(조사자 제시)

4.11. 관용적 표현

1) 관용어구

41101	여보	41101	여보, 여보라구(+구), 즈아버지, 즈어머이
41102	여보세요	41102	나바유, 나쭈바유, 나쭈바유 나바, 여봐유

41103	들어가세요	41103	드러가세요(+다), 드러가셔유(+다), 안녕 이 기셔유
41104	수고하세요	41104	다:매 오께유, 어이 가, 인저 가께유, 잘가: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41105	그동안 어트게 지내써, 아이구 오랜마닐 세, 왜이르게 소식뚜 읍써 그래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41106	긴지 잡썸느냐구, 긴지 잡썸써유?, 드 레 가세유, 아이고 드레 나오션네, 어디 가셔유, 어디 가시느냐구, 어디 가시느라 구리여, 어디 가시능거유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41107	그동안 그냥 안녕하셔썸느냐구, 그동안 별릴 읍써써유, 지바니 다 펴나세유
41108	여기 있습니다	41108	이거 바더유
41109	예	41109	그려유, 마저, 마저유, 예
41110	아니	41110	아:너, 아:네유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1	아무러치두 아:너 애, 아무러치두 안하
41112	내버려 뒀	41112	내:비 뒀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41113	너나: 할꺼 읍써, 으당이 꼬당이 다:가녕 걸 머, 으당이 꼬당이 다:하능걸 머

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4	밑 빠진 도게 물부끼여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5	바늘도두기 쇠도둑 뵈다더니
41116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41116	아니땐 굴뚜게 연기 나거써

“=4” 까마구 날다 배떠러진다더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4” 소 일쿠나서 외양간 곤치네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친다}

“=4” 소일쿠나서 오양간 고친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친다}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원장 이기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영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무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정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경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강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영목 (충 남 대 학 교)
- ◆ 위 원 최명옥 (서 울 대 학 교)
- ◆ 위 원 홍윤표 (연 세 대 학 교)

